

해외언론 보도 실적

2005 해외언론 한국문화 취재지원사업



(재)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Korea Foundation for Asian Culture Exchange

해외언론 보도 실적

2005 해외언론 한국문화 취재지원사업



(재)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Korea Foundation for Asian Culture Exchange

인 사 말

저희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은 2005년도에 다양하고 폭넓은 교류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해외 언론의 한국문화 취재지원사업은 현지 언론에서 한국의 문화산업을 직접 취재케 하고 현지에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통한 한류의 현지화에 기여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재단은 취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하기도 했으며 프로그램 광고주로 국내 기업을 참여시켜 관광 및 상품에 대한 현지 노출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1년 동안 이번 취재지원사업을 통해 한류는 드라마나 영화 등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기나 유행의 정도를 넘어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동경과 그 역동성에 대한 경외로 발전하면서 더욱 더 한국을 배우고자 하고 교류하고 싶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지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들인 유수 매체의 기자들과 문화산업 관계자들은 한류가 한국정부와 그 산하기관 그리고 기업 간 유기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전략적으로 준비한 결과물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일정을 마친 취재단은 이내 한국민들의 자국 문화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 그리고 역사적인 고난을 극복하면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어낸 그 역동성에 한류의 정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한국 민족에 대한 이해는 현지 한류에 대해서도 호의적이고 적극적인 수용의 태도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앞으로도 언론뿐만 아니라, 한국과 현지의 믿을만한 교류파트너와 국내 파트너간의 교류를 지원하고 인적교류를 좀 더 심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하게 되는 해외언론 보도실적물은 앞으로도 교류의 모범서로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이사장 신 현 택





(財)亞細亞文化産業交流財團
Korea Foundation for Asian Culture Exchange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해외TV 취재지원 언론보도 결과물
(2005.03.07~2005.11.12)

1. 이사장 인사말
2. 대만 기자단
(2005.03.07~2005.03.11)
3. 중국 대학 기자단
(2005.07.25~2005.07.29)
4. 상해 동방 TV 취재단
(2005.08.07~2005.08.14)
5. 베트남 기자단
(2005.10.09~2005.10.13)
6. 인도 기자단
(2005.10.30~2005.11.06)
7. 북경인문올림픽 연구기지 및 언론취재단
(2005.11.08~2005.11.12)

인 사 말

저희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은 2005년도에 다양하고 폭넓은 교류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해외 언론의 한국문화 취재지원사업은 현지 언론에서 한국의 문화산업을 직접 취재케 하고 현지에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통한 한류의 현지화에 기여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재단은 취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하기도 했으며 프로그램 광고주로 국내 기업을 참여시켜 관광 및 상품에 대한 현지 노출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1년 동안 이번 취재지원사업을 통해 한류는 드라마나 영화 등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기나 유행의 정도를 넘어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동경과 그 역동성에 대한 경외로 발전하면서 더욱 더 한국을 배우고자 하고 교류하고 싶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지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들인 유수 매체의 기자들과 문화산업 관계자들은 한류가 한국정부와 그 산하기관 그리고 기업 간 유기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전략적으로 준비한 결과물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일정을 마친 취재단은 이내 한국민들의 자국 문화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 그리고 역사적인 고난을 극복하면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어낸 그 역동성에 한류의 정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한국 민족에 대한 이해는 현지 한류에 대해서도 호의적이고 적극적인 수용의 태도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앞으로도 언론뿐만 아니라, 한국과 현지의 믿을만한 교류파트너와 국내 파트너간의 교류를 지원하고 인적교류를 좀 더 심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하게 되는 해외언론 보도실적물은 앞으로도 교류의 모범서로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이사장 신현택

해외 TV 취재지원 초청사업 실적보고

< 대만 기자단 >

해외 TV 취재지원 초청사업 <대만 기자단> 실적보고

1. 행사제목

대만 기자단 한류스타 인터뷰 및 한류관련 명소 취재 지원

2. 일시

2005년 3월 7일(월) ~ 2005년 3월 11일 (4박 5일)

3. 취지

가. 대규모 대만 기자단의 한국 방문 및 한류스타 인터뷰, 드라마관련 명소 취재 등을 통하여 대만에서의 한류 지속, 확산에 기여함.

나. 대만 기자단, 방송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향후 한국문화산업 진출 및 홍보 활성화.

4. 인원 : 총 32명

순위	이름	영문이름	소속
1	翁家祥	MR. WUNG, CHIA HSIANG	自由時報
2	林瑞益	MR. LIN, JUI I	臺灣日報
3	李宛庭	MS. LI, UAN TING	中國時報
4	趙大智	MS.CHAO TA CHIN	民生報
5	周嘉瑩	MS.CHOU CHIA YING	聯合報
6	戴淑芳	MS.TAI SHU FANG	中華日報
7	陳春桂	MS.CHEN CHUN KUEI	臺灣時報
8	林靖貴	MR.LIN JING-KUEI	蘋果日報
9	羅廣仁	MR.LO KUANG-JEN	中央社
10	周毓洵	MS.CHOU YU HSUN	青年日報
11	蔡宜玲	MS.TSAI YI-LING	聯合晚報
12	蔣慧芬	MS.CHIANG HUI FEN	TVBS周刊
13	郭家崴	MS.KUO CHIA-WEI	時報周刊
14	郭人榮	MR.KUO RENG RONG	壹周刊
15	李政龍	MR.LEE CHENG LUNG	壹周刊
16	林永裕	MR.LING YUNG YU	鳳凰衛視
17	陳柏霖	MR.CHEN PO LING	東森電視
18	李韻晨	MS.LEE YUN CHEN	中天新聞
19	林有成	MR.LIN YU CHENG	中天新聞
20	宋玠昀	MS.SONG CHIEN YUN	東森電視
21	王煒茜	MS.WANG WEI CHIEN	TVBS娛樂

22	謝慰雯	MS. HSIEH, WEI WEN	緯來電視
23	林嘉莉	MS. LIN CHIA-LI	緯來電視
24	何莉莉	MS. LI-LI HO	緯來電視
25	劉家菁	MS. LIU CHIA CHING	緯來電視
26	余世樟	MR. YU SHIN CHANG	緯來電視
27	張宏坤	MR. CHANG, HONG KUN	緯來電視
28	廖佑德	MR. LIAO YU TE	大成報
29	林詩壕	MR. LIN SHIH HAO	TVBS娛樂
30	謝文玲	MS. HSIEH WEN LING	緯來電視
31	羅文貞	MS. LO, WEN CHEN	緯來電視
32	鄧儒宗	MR. ERIC TENG	緯來電視

5. 일정

가. 3월7일 - 입국

나. 3월8일 - 한류스타(안재욱, 지성) 기자회견, 재단주최 석식

다. 3월9일 - 한류스타(김래원, 김태희) 기자회견, 관광공사 주관 한국의 집만찬

라. 3월10일 - 한류체험관 씨네아이스튜디오', 한류스타(김희애, 허준호) 기자회견,

KBS '부모님전상서' 세트장참관

마. 3월11일 - 서울예술대학 방문 및 출국

6. 기사개요

가. 기간

- 2005. 3. 7-11. 서울 및 경기(안산)에서 5일 동안 참관, 방문.

나. 초청

- 한국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이하 재단), 대만 비디오랜드(방송사).

다. 구성

- 대만 신문, 잡지, 방송사 기자, 비디오랜드 스태프 등 대만의 문화산업 전문가 32명으로 구성.

라. 목적

- '한류'와 한국 문화 산업의 발전 상황, 문화 전략, 한-대 상호 발전 및 교육 협력, 대만의 언론매체를 통해 한국 드라마 및 문화에 대한 집중적인 소개.

7. 관련 사진



8. 보도 실적 - 총 70건

가. 언론사 (57건) - STAR성보 5건

연합보 6번

대성보 2건

민생보 5건

대만일보 6건

자유시보 5건

빈과일보 9건

중국시보 4건

연합만보 1건

시보주간 1건

My color 8건

TVBS 주간 5건

나. 방송사 - 13건

9. 언론사 보도 자료

가. STAR 성보- 5건

① 안재욱, 아줌마 부대가 무서워. (타이베이-서울 전화 취재)(2005.03.09)

<웨이라이 채널>은 안재욱에게 호랑이 베개를 선물하며 "이상적인 짝을 찾길 바란다"고 축원.

‘안재욱’은 “‘아줌마 부대’라고 불리는 자신의 팬들의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무섭다”고하며 “모성의 힘은 위대하고, 못 할 것이 없다”고 말함. 또한 “아줌마 부대가 자신을 쫓아다니는 것을 보면, 누가 아이를돌보고 집안일을 하는지 의아하다”고 밝히며 “남편들의 집안 일이 끝이 없겠다”고 농담까지 함.

<오! 필승 봉순영> 드라마 소개. 채림과 박선영의 연기 대결, 주인공인 채림을 제치고 박선영이 KBS 연기대상에서 상을 탄 아이러니 전함.

② 지성, 박솔미가 준 커플링 반지를 꺼다. (타이베이-서울 전화 취재)(2005.03.09)

‘지성’은 <올인> 촬영 이후 연인이 된 박솔미와 계속 교제중이며, 커플링 반지를 2년 이상 끼고 있음. 반지에는 여자친구의 혼이 담겨 있다고 토로함. 일할 때를 제외하고 항상 반지를 끼고 있다고 함.

5월 말 <웨이라이 채널>에서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가 방영될 예정. 드라마에서 ‘유진’과 함께 춤을 춘 적이 있다고 말하며 유진을 칭찬함.

③ 김태희, 남자친구 질문에 침묵. (타이베이-서울 전화 연결)(2005.03.10)

‘김태희’의 남자친구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된 상황을 자세히 소개함. ‘김태희’는 이에 침묵을 지킴.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옆에 있던 ‘김래원’이 ‘김태희’를 칭찬하는 화제로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김태희’도 이에 화답함. ‘김태희’는 과거 자신이 ‘김래원’의 팬이었음을 밝힘.

‘김태희’의 애정관과 이상형에 대한 답변이 실림.

④ 송강호 문소리, 탄탄한 연기력으로 흥행 돌풍.(2005.03.10)

영화 <효자동 이발사>를 소개함. 부부로 나오는 ‘송강호’와 ‘문소리’의 탄탄한 연기력 덕분에 흥행 돌풍을 일으켰다고 함. 송강호와 문소리가 출연한 전작 영화들 소개. 그들의 연기력을 격찬함. 또한, ‘문소리’의 <베니스 영화제 신인연기자상> 수상 소식도 전함.

⑤ 기품 있는 배우 김희애, 한국의 구로키 히토미. (타이베이-서울 전화 취재)(2005.03.11)

<웨이라이 채널>에서 선보이는 새 드라마 <부모님전상서> 홍보를 위해 ‘김희애’는 어깨가 완전히 드러나며 봄 분위기 물씬 풍기는 드레스를 입고 나타남. 기품 있는 모습 때문에 ‘한국의 구로키 히토미’라는 별칭을 얻음. 같이 연기한 ‘허준호’는 잘 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순수한 마음과 열정적인 연기 덕분에 김희애로부터 ‘한국의 손펜’이라는 이야기를 들음. 비슷한 결혼 상황인 고현정과 김희애 비교. 허준호의 젊은 시절 방황과 극복 얘기 실음.

나. 연합보- 6건

① ‘안재욱’과 ‘지성’의 비교 보도(서울 특파원 보도)(2005.03.09)

도표를 통해 두 배우의 외모, 키, 체중, 애정 관계, 출연작들, 출연했던 광고들을 비교함.

② '안재욱', 똑똑한 여자를 배우자로삼고 싶다.(2005.03.09)

'안재욱'은 "화이트데이 때도 함께 할 연인이 없다"고 하자, 기자단은 '안재욱'의 배우자의 조건에 관해 물어본다. 이에 '안재욱'은 "외모는 중요하지 않고 똑똑하기만 하면 된다"고 대답.

<웨이라이 채널>은 화이트데이 저녁 10시에 <오! 필승 봉순영> 방영을 시작할 예정.

7년 전 채림과의 교제와 지금의 생각에 대한 질문도 이어짐. 아줌마 부대가 무섭다는 얘기. <하늘정원>의 여주인공 이은주의 죽음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을 꺼려 함.

③ '지성'의 커플링 반지에는 '박솔미'의혼이 담겨있다.(2005.03.09)

'지성'은 <올인>에서 알게 된 '박솔미'와의교제 관계를 시인함. 바쁜 일정에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연애편지는 꼭 챙겨 쓴다고 함. 결혼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해보지 않았다고 대답. '지성'은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에 대한 본인의소감을 밝힘.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를 촬영 할 때 영화<혈의 누>를 동시에 찍어 힘들었다고 토로 함. 예전에 '더스틴 호프만' 주연의 <레인맨>을 인상 깊게 봤다고 말함. 귀공자 같은 외모지만, 그런 연기(<레인맨>의 '더스틴호프만'의배역)에도 도전하고 싶다는 포부 밝힘.

④ '김래원', 밤마다 '김태희' 꿈을 꾼다.(서울 특파원 보도)(2005.03.10)

'김태희', '김래원' 주연의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는 8월초 <웨이라이 채널>에서 방영 될 예정. '김태희'의남자친구에 대해 짧게 언급.

'김태희'는 "<천국의 계단>에서 악역을 맡았으나<러브스토리 인 하버드>에서 선량한 주인공 역을 맡게 되었다"고 말했으며 기자단들은'김태희'가 '한국 최고의 미인'이라고 찬사를 보냈음. '김태희'도 본인의 눈이 제일 마음에 든다고 얘기함.

두 배우 다 '천주교도'여서 미국에서 촬영할 때 항상 함께 성당에 갔다고 소개. '김래원'은 "하루종일 '김태희' 얼굴을 봤더니 꿈에서도 김태희가 나타났다"고 말함. 김래원은"<옥탑방 고양이> 홍보차 대만에 왔을 때 너무 좋았다"며"기회가 된다면,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가 시작되기 전인 5,6월 경 대만을 방문하고싶다"고 함.

⑤ 지진희, 약속을 안 지키다.(서울 특파원 보도)(2005.03.10)

<봄날> 촬영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서 '지진희'와'조인성'의 대만 방문 일정이 취소됨. '조인성'은연이은 밤샘 촬영으로 인한 과로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음.

<봄날>은 <웨이라이 채널>에서 여름방학때부터 방영할 예정. '지진희'는 4월 10일부터 대만, 홍콩, 중국, 일본 등의팬사인회에 참가할 예정.

⑥ <부모님전상서> 시청률 높음. 김희애, 허준호는 하늘이 내려주신선물. (서울 특파원 보도)(2005.03.11)

<부모님전상서>는 <봄날>을 제치고 한국에서드라마 시청률 1위를 차지함.

<웨이라이 채널>은 <봄날>을 하반기에방영할 예정. <부모님전상서>에서 부부로 출연 중인 '김희애'와 '허준호'는서로 상대방에 대해 칭찬. '김희애'는 '허준호'를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이라 말하며, 한국의 '손펜'이라고생각하면 이미지가 딱 맞을 것이라고 함.

<호텔리어>에 출연했던 허준호의 역할에 대해 소개.허준호는 젊은 시절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막 살았으나, 부친의 명성에 누를 끼칠까 두려워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함. 두 배우의 자식 사랑. '김희애'는아이를 사랑하지만 이제 제법 커서 일에 전념할 것이라고 발표.

다. 대성보 -2건

① 배용준, 최지우, 혹시 연인이 아닐까?(2005.03.10)

네티즌들은 두 명이 연인 사이라고 한다. 일본에서 출간된<겨울연가-비밀일기>에 의하면, 두 사람은 촬영을 안 할 때도 손을 잡고 거니는 등 '연인 관계'임이드러난다고 함. 어떤 팬 한 분은 두 사람의 이름으로 점을 쳐보기까지 했는데, 결과는 본명이든 예명이든 너무나 잘맞는 '천생연분'으로 나왔다고 함.

<겨울연가>의 윤석호 PD도 "촬영당시 두 명 사이의 분위기가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두 명이 사귀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믿겠느냐?"고말한 바 있다. <겨울연가-비밀일기>에는 두 명이 손 잡고 거니는 장면, 같이 촬영한 장면들이 나오는데,이 중, 둘의 키스 장면이 압권이다.

② 김희애, 허준호는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서울 특파원 보도)(2005.03.11)

귀부인 인상을 주는 '김희애'. <부모님전상서>에서 부부역을 연기하는 '김희애'와'허준호'의 사이가 매우 좋음을 증명하는 <'김희애'는인터뷰 내내 걸려오는 전화를 받느라 바쁜 '허준호'에게 화를 내는 척하면서 실수로 '허준호' 몸에 물을 쏟았다>는 에피소드를 소개함.

그래도 '허준호'에 대한 평가는 아주 좋음. '김희애'는"같이 연기하는 것은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처럼 행운이다."라고밝힘. '허준호'는 '김희애'를 '송윤아'와 '김지수' 등과 비교함.

기자단이 '김희애'에게 "명망 있는 집안에 시집을 가서 연기를 쉬었다가 다시 나오게 되었느냐?"고 묻자 '김희애'는 이를 부인하며"시택이 명망 있는 집안도 아니고, 나는 은퇴할 생각도 없었다. 다만, 아이를 키우다 보니 이제야나오게 되었다."고 대답함. 또, 그녀는 일전에 대만에 방문했을 때를회상하며 "그 때는 너무 좋았다. 다시 대만에 가고 싶다"고 말함.

라. 민생보 - 5건

① '안재욱', 명칭한 여자는 싫다.아줌마 부대가 무섭다.(서울 특파원 보도)(2005.03.09)

34세의 안재욱, 그의 건강 유지 비결은 웃음.

<오! 필승 봉순영>의 여주인공은 '안재욱'과마친가지로 자주 웃는 '채림'. 두 사람의 웃음

으로 인해 NG가 많이 남. '채림'의코 성형수술에 대한 '안재욱'의 평가는 "성형이 보기 좋게 되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성형에 대해 개방적인 모습을 보임.

드라마 촬영장 스태프들은 안재욱 말을 잘 듣는 편. 기자가 현장에서 관찰하기에도, 안재욱은 스태프를 부를 때 손가락을 까딱하기만 해도 스태프가 얼른 달려나오는데, 안재욱은 권위가 있어 보임.

'아줌마 부대'에 대한 안재욱의 평가. 채림과의 7년전 사랑 이야기에 대한 답변. 술 좋아하고 야구 좋아하는 그의 이야기가 이어짐. 다만 야구까지도 언급함.

② 김태희, 허우페이천(侯佩岑)과 똑같다(2005.03.10)

둘은 나이도 비슷하고 혈액형과 웃는 모습이 비슷한 한국 미녀 '김태희'와 대만 미녀 '허우페이천'의 비교 도표를 사용. 둘 다 유창한 영어실력을 갖춘. 출연작 들을 비교, 소개함.

<웨이라이 채널>은 2005년 다수의 한국 드라마를 구매했는데, 그 중 <오! 필승 봉순영>과 <봄날> 외에도 '김래원', '김태희' 주연의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 역시 구입했다.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 드라마 소개. '김래원'은 하버드대 법학과 학생, '김태희'는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순정과 여인으로 하버드대 의학과 의 모범학생으로 출연함.

'김태희'는 지혜로운 신세대 인기 여자배우이고 광고 모델 제의가 가장 많으며 서울 대학 출신의 재능 있는 연기자라며 '김태희'를 극찬함. '김래원'은 미국에서 촬영 당시 영어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들려주면서 '김태희'를 칭찬함.

③ '김희애', 허준호는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서울 특파원 보도)(2005.03.11)

<부모님 전상서> 공동 주연.

<부모님 전상서>는 꽃미남, 꽃미녀들이 주연하는 <봄날>을 제치고 시청률 1위를 차지함. '김희애'는 롱코트를 걸치고 회견장에 들어왔으나, 촬영이 시작되자 과감히 외투를 벗으며 어깨가 드러나는 드레스를 선보임. 공주같이 기품 있는 그녀에게 가냘픈 섹시함이 있음을 보여 줌.

'허준호'도 '김희애'의 의상을 다시 한번 칭찬함. <부모님 전상서>의 드라마 줄거리 소개. '김희애'의 결혼과 자녀 양육, 다시 연기하게 된 사연을 전함. '허준호'는 젊은 시절의 방향을 이야기 함. 아버지 명성을 생각해서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전함. 극본을 쓴 김수현 작가 소개와 작품들 얘기도 있음.

④ 한류관(2005.03.11)

<한류관>을 소개. 한국은 2개월 전에 관광 명소인 명동에 <한류관>을 설립. 한국 드라마 및 <올드보이>를 포함한 영화, 배용준, 전도연, 최민식 등 한류스타들에 대한 다양한 자료가 있음. 민간기업이 설립

⑤ 서울 예술대학은 스타의 꿈을 꾸는 낙원.(2005.03.13)

‘안재욱’과 ‘차태현’은 서울 예술대학 동창. 실력과 배우 ‘허준호’도같은 대학 출신. 서울에 대 관계자에 의하면 ‘차태현’은재학시절 장난기가 다분했고, ‘안재욱’은 지금 TV를 통해 보는 것과 비슷한 학생이었다고 함.

한류스타 ‘배용준’은 성균관대학이 출신이나 많은 배우들은 서울예술대학 출신임을 강조 함. 또한 많은 신입생들의 입학신청을 받고 있음.

서울 예술대학 및 캠퍼스를 소개. 총 학생수는 2,500명,학과가 세분화되어 있음. 연극과, 촬영과, 음악과, 극작과, 광고과 등. 학생들의 활동 상황 소개.

마. 대만일보 - 6건

① 안재욱, 바퀴벌레는 안 무서운데 아줌마 부대는 무서워.(서울 보도)(2005.03.09)

‘안재욱’은 <웨이라이 채널>이 선물한 호랑이 베개를들고는 “오늘 밤엔 잘 자겠다”는 모습 연출. 또한 “아줌마부대는 무섭다. 아줌마 서너 명이 뭉치면 못하는 일이 없다”고 밝힘.

<오! 필승 봉순영>에서 같이 연기한 ‘채림’과는 7년 전에도 사귄 적이 있는데, 그에 대해 안재욱은 “‘채림’은그때 고등학생이었고, 그냥 누이동생이었을 뿐이다. 또 지금은 가정이 있는 유부녀이다. 옛날보다 많이 성숙해진 것 같다.”고 말함.

② ‘지성’, 커플링 반지 2년째끼고 다님. 그러나 결혼 생각은 없음.(서울 보도)(2005.03.09)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단들이‘지성’에게 커플링 반지에 대한 질의하자 ‘지성’은 ‘박솔미’와의 사랑을 인정함. <울인>의 네 명의주인공 중 ‘이병헌’과 ‘송혜교’는 작년에 헤어졌지만, 그는 2년 이상 사랑을 유지하고있음. 둘 다 너무 바빠 아직 결혼 생각은 안 해 봤다고 함. ‘박솔미’와의 낭만적인 사랑유지법인 문자메세지와 이메일을 통한 마음 전달법을 공개.

③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 홍보에 나선 ‘김태희’, 개인적인 질문엔 대답 회피.(서울 보도)(2005.03.10)

남자친구에 대한 질문에 대해 ‘김태희’는 어색한 웃음만보일 뿐 대답하지 못함. 그러나 ‘김태희’는 결코 부인하지는않음. “따라다닌 남자가 많으냐?”는질문엔 “5명 밖에 안 된다”고 대답. 기자들이 “너무 많다”는 반응을 보이자 다시 3명으로 줄여 대답함.

‘김래원’에게 ‘김태희’를 좋아하냐고 질문함. ‘김래원’은바로 ‘김태희’에게 “좋아하는 척이라도 하자”고 압력을 가하며“우리는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 홍보를 하러 왔으니까.”라며기자들에게 변명함.

④ 배용준, <외출> 촬영 시 비에 젖어 병원에 입원.

이 소식을 들으면, 아시아의 천만 여명의 배용준 팬들이 아마밥을 못 먹을지도 모른다며 “한류스타 ‘배용준’이 영화 <외출> 촬영 도중 몇일 동안 계속 비를 맞았는데, 날씨가 추운

관계로 체력이 저하되어 병원에 입원했다”고 기술함. 일본의 ‘배용준’ 매니지먼트 담당사는 “‘배용준영화 탐방 여행객’을 모집했는데, 전화기에 불이 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고 밝힘.

‘배용준’과 <외출>의 여주인공 ‘손예진’ 및 영화 스텝이 식당에 가면 배용준이 식당 주인에게 해준 사인을 일본팬들이 전문적으로 훑치기도 한다는 에피소드도 있음.

⑤ 허준호, 젊은 시절엔 반항아.(서울 보도)(2005.03.11)

<부모님전상서> 홍보 기자회견에서 ‘허준호’는 “젊은 시절에 술 취하고, 사람 때리고, 문제를 많이 일으켰으나 아버지 허장강의 명성에 금이가는 것 같아서 마음을 잡았다”고 털어놓음. 아마 배우가 되지 않았다면 감옥 안에 있었을 것이라고 말함.

‘김희애’는 “부잣집에 시집 가서 연기를 한동안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부인함. ‘김희애’는 ‘차인표’와 ‘허준호’를 비교하며 “차인표는 예의바르고 잘 생겼으며 너무나도 매력적인 배우다. 허준호는 순수해서 조그만 일에도 쉽게 상처를 입을 것 같다”고 밝힘. ‘김희애’의 몸매 유지 비결은 음식 조절이라 함.

⑥ 한류관의 올드보이(2005.03.11)

<올드보이> 주인공을 흉내내는 ‘정대균’은 ‘조인성’과 같은 반 학생. 그의 코믹한 흉내 때문에 대만의 여기자들은 웃음바다가 되었음. <한류관>은 <사이드스-HQ>가 5천만NTD를 투입하여 설립. ‘정대균’은 스타 ‘조인성’과의 수입을 비교하며 “본인은 시간당 4천원 밖에 못 벌지만 동창인 조인성은 드라마 한 회 촬영에 7백만 원을 번다고” 말함.

바. 자유시보

① 조인성 과로로 병원에 입원(서울 보도)(2005.03.10)

‘조인성’은 드라마 <봄날> 촬영에 전력하던 나머지 체력이 저하 되어 병원에 입원하여 현재 요양 중. 그는 원래 ‘지진희’와 함께 대만 언론 취재단과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촬영 일정이 남아 있어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며 이 소식에 대만 여기자들은 실망을 금치 못함. 다행히 그들(지진희, 조인성)은 대만에서 <봄날>이 방영되기 전에 꼭 방문할 것이라고 함.

‘고현정’에 대한 기사가 4줄 분량으로 실림. ‘고현정’은 이혼 후 다시 활동을 재개했음. 그러나 그녀는 모든 인터뷰를 거부하고 있으며 연기 이외에는 비밀스런 활동을 한다고 함. 대만 기자의 서울 인터뷰조차 실패.

기사 아래 촬영 강행군에 따른 한국 스타들의 입원 사례를 도표로 정리함. ‘조인성’, ‘안재욱’, ‘김희선’, ‘김래원’, ‘김태희’의 사례를 나열.

② ‘배용준’, ‘고현정’ 광고 몸값 천정부지.(2005.03.11)

‘배용준’은 일 년 동안 4편의 광고를 찍고 36억 원을 벌었고 ‘고현정’은 한 달 동안 3편의 광고를 찍고 30억 원의 소득을 올림.

일본에서 ‘윤사마’로 인기 절정인 ‘배용준’의 일본 모델료는 광고 한 편당 10억 정도이며, 한국에서는 6억의 몸값을 호가함.

10년간 활동을 쉬다가 <봄날>로 다시 연기생활을 시작한 ‘고현정’은 한 달 만에 전화, 냉장고, 화장품 관련 광고를 찍어 30억 원의 수익을 올림.

③ SIDOU-HQ, 한류관 새로 건설.(서울 보도)(2005.03.11)

한류 인기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의 한류관'과는 별도로 SIDOU-HQ가 지은 명동의 한류관이 대중들에게 선보였다. 'SIDOU-HQ'를 소개.

6개의 주제관에는 사실처럼 잘 꾸며진 영화 속 장면들이 있고, 직원들이 극 중의 배역으로 분장해 관광객들을 불러들임. <스캔들>의 ‘배용준’으로 분장한 직원이 당신을 집으로 초청해 차를 대접할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여러분들도 한번 가셔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심이 어떨지”라고 함.

④ 허준호, 젊을 때는 사람을 때리기도.(서울 보도)(2005.03.11)

드라마 <부모님전상서>의 홍보를 위해 기자회견을 한 ‘허준호’와 ‘김희애’의 관련 기사. ‘허준호’의 젊은 시절. ‘김희애’의 결혼과 연기에 대해 언급함. ‘허준호’의 부친 故 ‘허장강’에 대한 이야기도 있음.

⑤ ‘안재욱’, 미래의 아내에게만 보여줄래요.(서울 보도)(2005.03.11)

호감 일변도의 기사. ‘안재욱’이 대만 기자와의 인터뷰를 위해 특별한 헤어스타일을 했다는 기사. 아줌마 킬러인 ‘안재욱’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아줌마 부대’. ‘안재욱’은 “‘아줌마 부대’의 열광적인 지지에 기쁘다”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분들의 남편이 걱정된다고 토로. 하지만, 아줌마 팬들의 변함없는 지지에 몹시 고마움을 느낀다고도 얘기함.

‘전동모터 섹시 꼬리’가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기자들이 한번 보여달라고 하자 미래의 아내에게만 보여줄 거라고 답함. 농담과 즐거운 분위기 전함. <오! 필승 봉순영> 드라마 촬영 때의 NG 얘기. 웨이라이 채널이 선물한 호랑이 베개를 들고 찍은 사진 크게 실림.

사. 빈과일보 - 9건

① 안재욱, 촬영만 시작하면 몸이 튼튼해져.(서울 보도)(2005.03.09)

평소 술을 즐기는 ‘안재욱’은 촬영이 시작되면 “일에만 전념하게 되면서 더 건강해진다”고 밝힘. 촬영 과로로 입원하는 배우들도 많은데 ‘안재욱’은 오히려 촬영이 시작되면 튼튼해짐. ‘안재욱’의 ‘야구’ 사랑 이야기. 대만에서 ‘연기자의 자선 야구 대회’ 가졌을 때 알게 된

대만 선수도 언급함.

② '지성', '박솔미'와의 교제 인정.(서울 보도)(2005.03.09)

<올인>때부터 연인으로 지내던 '지성'과 '박솔미'. '지성'은 2004년 7월 대만에 방문했을 때 "여자친구가 없다"고 연막작전을 펼침. 그러나 지성은 어제의 기자회견에서 "2년여에 걸쳐 사랑하고 있다"며 교제 사실을 인정함. 하지만 교제대상인 '박솔미'의 이름은 끝까지 언급하지 않음. 지성의 최근 출연작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를 소개.

③ 한가인, 강에 뛰어드는 촬영투혼.(2005.03.09)

한가인은 <애정의 조건>에서도 남자에게 배신당하는 비련의 주인공으로 나오더니, 새로운 드라마 <신입사원>에서도 남자친구에게 배신을 당한다. 배신 후 강에 뛰어들어 자살하는 장면을 배역없이 직접 연기, 투혼을 보여줌. 연정훈 애기 언급.

④ 김래원, 김태희 칭찬. 내면과 외양이 골고루 갖춰진 배우.(서울 보도)(2005.03.10)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의 '김래원'과 '김태희'. 김래원은 두 달간의 미국 촬영지에서의 에피소드를 소개. 특히 영어 때문에 애를 먹었음. 김태희 칭찬. 김태희는 치과 남자친구 질문에 침묵. 김래원과 김태희의 개인 자료 실림. 나이, 별자리, 혈액형, 체중, 신장 등등.

⑤ 배용준, 출장에서도 전용헬스장 이용.(2005.03.10)

<외출> 촬영으로 삼척에 가 있는 '배용준'. 일본에서 몰려온 팬들로 인해 영화 촬영 이의에는 외부로 나오지 않고 주로 호텔에 머물고 있음. 원래 그 호텔에는 헬스클럽이 없었는데, '배용준'을 위해 특별히 '배용준' 전용 헬스장을 만들어서 제공.

그 외에도 '배용준' 전용 수저를 준비하는 등 호텔 측은 '배용준'에게 최고 대우를 해줌. '배용준'은 출장을 가더라도 운동을 게을리 하지 않음.

⑥ 조인성 지진희, 대만 기자와의 약속을 어기다.(서울 보도)(2005.03.10)

<봄날> 촬영스케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며, 조인성의 병원 입원으로 인해 이들(조인성, 지진희)의 대만 방문이 무산됨. 기자들은 6월 방문을 고대함.

⑦ 배용준, 큰 머리를 가리기 위해 온 몸의 근육 키워.(2005.03.11)

스타일리스트 '김동호'는 '배용준', '이영애', '송혜교', '이효리' 등의 연예인들과 같이 작업했음. 그가 밝힌 스타들의 이모저모.

'이효리'는 애주가이며 술에 취하면 누가 업어 가도 모른다고 함. '이효리'의 데뷔작 <세 잎 클로버>에서 그녀는 섹시함을 벗어던지고 여공 연기에 몰입했지만 시청률이 좋지 않았음. '송혜교'는 <풀하우스> 촬영 때 가수 비가 계속 대시를 했지만 '이병헌'을 못 잊은 상태였음. '배용준'의 가장 큰 핸디캡은 큰 머리 크기임. 그래서 헬스로 몸의 근육을 더 크게

키운다고 함. 대만의 티엔자다(田家達)를 장동건 스타일로 연출함.

⑧ 김희애, 외투 벗자 드러난 섹시한 드레스.(서울 보도)(2005.03.11)

<부모님전상서> 홍보로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김희애의 의상 언급. 평소 우아하기로 소문난 '김희애'가 과감하게 '스트립쇼'를 보여주듯이 외투를 벗는 쇼맨십을 보임. '차인표'와 '허준호'를 비교해달라는 요청에는 "그분들과 같이 동거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라고 대담하게 대답함.

'허준호'는 얼굴 이미지 때문에 악역을 자주 맡았다고 함. '허준호'의 젊은 시절과 그의 아버지 '허장강'에 관한 언급. <부모님전상서>는 시청률 1위.

⑨ 안재욱 결혼 갈망. 아직도 짝을 기다려.(2005.03.13)

'안재욱'과 '채림'은 모두 서울예술대학 졸업. 7년 전 연인 사이였던 이들 둘은 <오! 필승 봉순영>에서 드디어 결실을 맺는다. 하지만 현실은 다름. '안재욱'은 여전히 결혼상대가 없는 반면에 '채림'은 벌써 유부녀.

'연예인X파일'은 "여성 팬이 그의 품으로 갑자기 뛰어든다 해도 희롱하지 않고, 택시비를 쥐서 집으로 곱게 돌려보낸다."며 '안재욱'을 칭찬. 서울예술대학이 배출한 연예인들 소개. 대학 소개.

<오! 필승 봉순영> 드라마 소개. 인물 관계도를 그려가며 자세히 설명. 인물 성격까지 분석.

아. 중국시보 - 4건

① 고운 며느리 채림이 연기적으로 변신.(2005.03.09)

여배우들의 연기 변신을 다룸. '이영애', '박선영', '이은주', '최지우' 등.

고운 얼굴의 '채림'은 <오! 필승 봉순영>에서 야만스럽게 나옴. '채림'은 '박선영'보다 인기는 떨어지는 편이나, 야만적인 '채림'의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움. '박선영'은 온화한 성격을 가졌고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인물을 연기함. '박선영'은 매우 인기 있음. 이는 한국인들이 전통적인 여성상을 더 좋아하고 지지하는 현상인 것 같음.

<친절한 금자씨>의 '이영애'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후 복수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역할. 얼마 전에 자살한 '이은주'는 <주홍글씨>에서 친구의 가슴에 못을 박는 정부 역할로 변신 등.

② 김래원, 김태희의 남자친구가 되다. '꿈에서도 그녀를 보다'(서울 보도)(2005.03.10)

'김태희'를 소개. '김태희'는 서울대 출신이며 그녀의 남자친구 이야기도 함. '김태희'는 이에 침묵. 옆에 있던 '김래원'이 본인이 남자친구라고 너스레를 떨면서 '김태희'를 곤경에서 구출하며 신사의 모습을 보임.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 소개. '김태희'는 <옥탑방 고양이>때부터 김래원을 좋아했던 충실한 팬. '김태희'의 애정에 대한 얘기. "<천국의 계단>의 '권상우'와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의 '김래원'을 비교해보면 누가 더 필이 가냐"고 기자가 질문하자 옆에 있던 '김래원'은 "당연히 나죠."라고 말하며 '김태희'의 대답할 기회를 빼앗음. 회견장에 웃음꽃을 피움.

③ 송강호, 이발사 되다.(2005.03.10)

<효자동 이발사>의 줄거리 및 등장인물 소개. '송강호'와 '문소리' 연기에 대해 칭찬. '송강호'의 이전 작품 나열. <초록물고기>, <반칙왕>, <살인의 추억> 등. 특히 대만과 홍콩에서 <반칙왕>의 인기가 엄청 높았던 이야기를 전함.

④ 배용준, 여자 관광객을 어루만지다.(서울 보도)(2005.03.11)

배용준 본인을 못 찾으면, 배용준 '분신'에게 안겨도 무방. 작년말 서울 명동에서 문을 연 '한류관' 안에는 <겨울연가>, <스캔들> 세트장이 설치되어 있음. 그 안에는 배용준으로 분장한 가짜 배용준도 있음. <겨울연가>에서 가장 유명한 설경에서 가짜 배용준이 긴 외투에 목도리를 두르고, 안경까지 끼니 진짜 배용준이 따로 없음. 여자 관광객들과 함께 사진. <스캔들>에도 가짜 배용준이 있음. 그들은 대학 연극과 학생들. 여자관광객이 배역의 옷을 입고 가짜 배용준에게 안기면 영락없는 전도연이 됨. 가짜 배용준이 손을 어루만져도 화내기는커녕 즐겁게 웃기만.

자. 연합뉴스 - 1건

① '하버드 명문 대학'을 배경으로 한 한국 드라마.(서울 보도)(2005.03.10)

<웨이라이 채널>에서 8월에 방영할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가 한국에서 인기 급상승. 많은 제작비를 들여 미국에서 촬영한 것과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 등이 인기 요인. 그 외의 드라마들도 이런 방식을 채택하여 인기 몰이. 예로, 박신양과 김정은의 <파리의 연인>. 외국의 촬영지들이 나중에는 한국인들의 관광지가 됨. <러브스토리...> 드라마로 많은 한국학생들이 유학하고 싶은 1위 대학이 하버드가 되기도 했음.

차. 시보주간 - 1건

① 1412호 핫이슈 코너 (2005.03.15~2005.03.21)

한국 사회는 보수적인 분위기가 강해 대부분의 배우들은 개인의 사생활 노출을 꺼리는 편. '송혜교-이병헌' 커플처럼 공개적으로 사귀는 경우는 드문 편. '안재욱'은 항상 모범답안만 말함. '지성'은 예외적으로 대만 기자단에게 커플링 반지를 선보이면서 얼굴이 붉어졌음. '김태희'는 끝까지 남자친구에 대해 인정하지 않음. 한국 배우들은 쉽게 사랑을 얘기하지도 사랑을 드러내지도 않는 편.

‘안재욱’은 김희선과의 염분이 오래 전부터 있었음. 물론 두 명(김희선, 안재욱) 모두 교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지금까지도 그냥 친구일 뿐이라고 대답. 기자단이 ‘안재욱’에게 “좋아하는 이상형”에 대해 묻자 이번에도 모범답안인 “지금은 아직 생각이 없다. 만약 천생 연분을 만나게 된다면 결혼할 것이다.”라고 대답함. ‘안재욱’은 ‘아줌마 부대’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 하며 “결혼 후 아내가 만약 ‘아줌마 부대’가 된다면 허용할 것”이며 “집에서 아기 보고 집안일 할 수 있다”고 농담함.

‘지성’은 커플링반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대답하게도 연인이 준 것임을 시인함. ‘박솔미’라는 이름 석 자는 끝까지 밝히지 않았으나 2년 전이라는 대답으로 유추 가능. ‘박솔미’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마음을 드러낸다고 함. ‘지성’은 보기 드문 로맨티스트. 기자들에게 연애 사실을 공개하는 동안 너무 부끄러워한 나머지 2차례나 얼굴이 빨개짐.

‘김래원’과 ‘김태희’는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로 인해 신세대 연예인 중 가장 잘 어울리는 커플이 됨. 멋진 남자 ‘김래원’은 미소공주 ‘김태희’와의 작업이 즐거웠다고 회고. 매일 얼굴을 보다 보니 ‘김래원’의 꿈에 ‘김태희’가 나타났다고 함. ‘김태희’는 남자친구에 관한 질문에 곤혹스러워 할때 ‘김래원’이 위기를 모면해 줌. ‘김태희’를 쫓아다닌 남자에 대한 질문에 ‘김태희’는 10명이라고 얘기했다가 다시 5명으로 줄이고, 또 3명으로 줄여 얘기.

카. My Color

① 한국 드라마 스타들과의 만남. 서울 특집.(2005.03.08)

② <오! 필승 봉순영>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스타 안재욱.(2005.03.08.오후 1시)

<웨이라이 채널>에서 3월 14일 저녁 10시부터 방영할 <오! 필승 봉순영>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 ‘안재욱’. 인터뷰 시간에 딱 맞춰 나타난 스타 ‘안재욱’. 그가 직접 전하는 드라마 소개.

③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스타 지성.(2005.03.08.오후 3시)

새로운 헤어스타일로 나타난 ‘지성’은 약간 쑥스러워 하면서 “보기 좋나요?”라고 묻고는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드라마를 소개하며 “처음엔 기억을 상실한 사람을 연기하는 게 부담되어 안 할까도 생각했었으나 시작하고부터는 최선을 다해 연기했다”고 함. 또한 “드라마를 위해 댄스를 익히긴 했는데, 많이 어려웠다”고 토로.

④ <봄날> 촬영 현장에서 못 빠져 나온 조인성, 지진희.(2005.03.09.오전)

원래 9일 오전에 ‘조인성’, ‘지진희’와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봄날>의 촬영스케줄로 인해 나오지 못했음. 실망은 했지만 이해할 수 있음. <봄날>은 6월 말부터 <웨이라이> 채널을 통해 방영을 시작함. 드라마 시작 전 두 배우가 대만에 와서 <봄날>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음.

⑤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김래원, 김태희.(2005.03.09오후 2시)

인터뷰 당시, 대만 기자들 외에도 한국 매체의 취재단도 많이 나왔음. '김태희'는 <옥탑방 고양이> 때부터 김래원의 팬이었음. '김래원', '김태희'는 즐겁게 촬영했음. 촬영 당시, '김래원'이 '김태희'를 많이 도와줬다고 함. '김래원'도 미국에서 두 달간 촬영할 때 영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으며 미녀 '김태희'와 함께 작업해서 즐거웠다고 함.

⑥ 명동의 'SIDUS 한류관'.(2005.03.10.오전 11시)

SIDUS 한류관은 유명한 영화와 드라마의 주제관 내에 세트장을 건설한 후, 연극과 학생들이 주인공을 모방해 관광객들과 함께 드라마 속으로 들어간 것 같은 생생함을 전한다. 6개월에 한 번씩 세트장을 바꿔 지겹지 않게 할 예정. 현재 건설된 <겨울연가>, <스캔들>, <공동경비구역>, <올드보이> 외에도 향후에는 <대장금>과 <파리의 연인>관을 더 세울 예정.

⑦ 63빌딩 58층 <부모님전상서>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김희애, 허준호.(2005.03.10.오후 3시)

"<부모님전상서>에는 젊은 스타도 없고, 자극적인 줄거리도 없는데 어떻게 시청률 1위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대만기자들의 질문에 김희애는 "작가 분이 드라마를 너무 잘 썼다. 배우들의 연기도 좋다. 스텝들도 많이 노력하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했다. 허준호도 이에 동의하면서 "그것 외에도 대가족의 따뜻함 등 이런 분위기가 사람들에게 와 닿았다."라고 말했다.

⑧ 서울 명동.(2005.03.11.오후 1시)

명동엔 의상점, 화장품점, 식당, 배우사진 판매소 등 없는 것이 없다. 특히 배우들의 대형 브로마이드 사진이 엄청 많다. 배용준, 원빈, 장동건, 최지우... 등등. 사진만 봐도 배우를 만난 것처럼 반갑다. 명동을 둘러보면 풍부한 여행이 될 것이다.

* 각 코너마다 많은 사진과 관련 설명이 있다.

파. TVBS 주간(385회)

① 허준호, 김희애

'허준호'는 눈매가 매서움. <부모님전상서>에서 처음으로 같이 연기한 '김희애'도 "허준호 얼굴이 무섭게 생겨서 감히 옆에 가지를 못했다"고 함.

'허준호'의 부친은 한국의 유명한 배우 '허장강'. 어릴 때는 부유하게 살았으나, 갑자기

맞은 부친상으로 방황을 시작함. 하지만 지금은 한국 실력과 배우. 김희애는 그를 '한국의 손펜'이라고 부름. 얼굴은 <악인>같지만 사실 마음은 무척 약함. 자녀를 데리고 놀 때는 무척 온화하다고 함.

② 안재욱

작년 9월 한국에서 방영한 <오! 필승 봉순영> 시청률이 30% 넘음. 한류스타로서의 파워를 한껏 과시함. '채림'과 '송윤아'와의 관계 언급. 벌써 34세인 '안재욱'. 그는 "빠른 시일 내에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함. 또한 "일이 없을 땐 집에서 혼자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게 두려워, 술친구 '차태현'을 불러내어 같이 술을 마신다"고 함. 최근 '안재욱'은 <VK 핸드폰>의 모델료로 7억원을 받음. VK 광고에 나오는 그는 무척 섹시함.

③ 지성

모델 출신의 지성. 귀공자 스타일. '한국의 여명'.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에서 낭만적인 연애를 펼치지만, 사실 그의 진짜 연인은 '박솔미'. <올인> 촬영 때 지성과 박솔미의 키스신에서 9번이나 NG를 내자 스태프들이 의아해하면서 "둘이 일부러 그러는 거 아냐?"라고 말했다는 후문. 손가락에 낀 커플링 반지를 보이면서 이번엔 '박솔미'와의 교제를 순순히 인정. 4월에 개봉할 <혈의 누> 등 '지성'은 신세대 소녀 킬러라 할 만 하다.

④ 김래원

<옥탑방 고양이>의 발랄한 청년 '김래원'이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에서는 공부벌레로 나타났다. 같이 연기한 '김태희'의 보호자 역할 수행. '김래원'은 '김태희'에게 쏟아진 남자친구에 대한 곤란한 질문을 막아주는 모습을 보임. 한국에는 '김래원'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음. 김래원은 2007년 군 입대 예정.

⑤ 지진희, 조인성

정통 연기파 배우 겸 성실한 남성 지진희, 긴 다리를 가진 쿨한 남자 조인성. 드라마 <봄날>에서 이들은 형제로 연기함. 지진희는 현재 달콤한 신혼 중. 그는 집안일하기를 좋아하고 어머니 세대와 수다 떨기를 좋아한다고 함. 이런 모습은 '아줌마 부대'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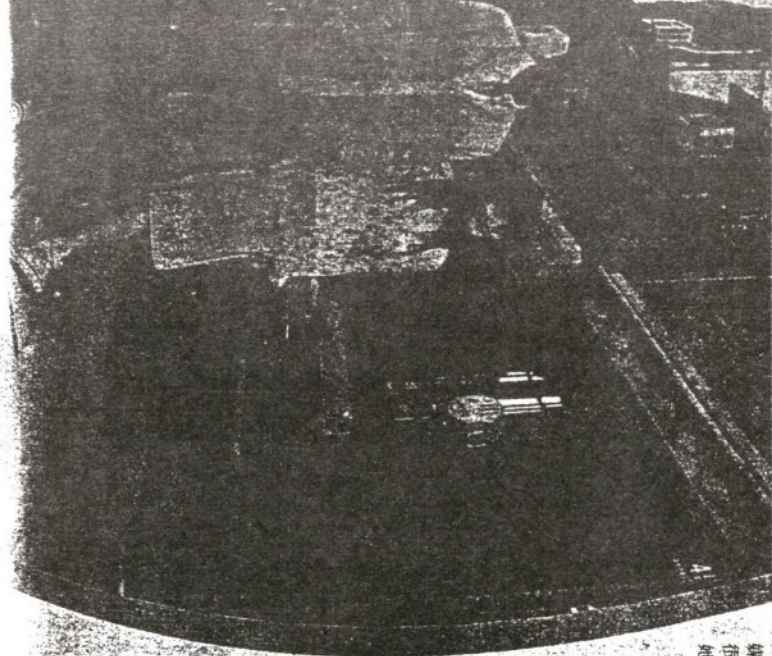
조인성은 누나격인 '전도연'과 '고현정'을 좋아한다는 기사도 있었지만, 드라마 얘기인 것 같다. 그만큼 조인성은 여자친구 얘기가 없는 편. 같은 대학의 여자친구 얘기도 연막이 아닐까 싶다.

드라마 <봄날> 소개. 인터뷰에 나오지 못한 사연을 소개. 대만에서 만날 것을 고대함.

中日偶像 談場純純的愛

陳柏霖 伊東美咲 關於愛譜出異國戀

「純純」的日文原意是「純潔」，是台日合拍片《純純的愛》的片名。台北、上海及東京三地，是這齣偶像愛情故事的舞台。由陳柏霖、伊東美咲、日本知名女偶像伊藤千博、和伊藤千博的女孿生姊姊伊藤千尋，共同演出。故事描述一名日本知名女偶像，因一場意外，與一名台灣男子展開一段純潔的愛情。故事描述一名日本知名女偶像，因一場意外，與一名台灣男子展開一段純潔的愛情。故事描述一名日本知名女偶像，因一場意外，與一名台灣男子展開一段純潔的愛情。



男友有圖為證 仍然堅不鬆口

金泰熙 裝聖女 到底

記者 李雨勳

台北一頁 電話連線
身為韓國當紅玉女，金泰熙打死不談感情，即便網路流言傳出與男友的親密合照，還是堅持不鬆口。好在一旁的金來沅挺身解圍，發揮幽默對媒體說道：「與金泰熙工作很愉快，我很喜歡她，像她這樣的美女誰不愛啊！」

金來沅的粉絲，能跟他演戲，是我的榮幸。」聊到吻戲，兩人把畫面拍得漂亮，沒空想太多啦！」

多，又趕緊補一句「收過情書與花的，只有3位囉！」再問她合作過的男星當中，哪位最符合她「個性親切、善良、體貼、幽默」的擇偶條件？她還是沒法回答，惹得金來沅忍不住幫腔：「我坐在這，當然是我囉！」立即引來全場大笑。

記者 李雨勳
台北一頁 電話連線
身為韓國當紅玉女，金泰熙打死不談感情，即便網路流言傳出與男友的親密合照，還是堅持不鬆口。好在一旁的金來沅挺身解圍，發揮幽默對媒體說道：「與金泰熙工作很愉快，我很喜歡她，像她這樣的美女誰不愛啊！」

金來沅的粉絲，能跟他演戲，是我的榮幸。」聊到吻戲，兩人把畫面拍得漂亮，沒空想太多啦！」

多，又趕緊補一句「收過情書與花的，只有3位囉！」再問她合作過的男星當中，哪位最符合她「個性親切、善良、體貼、幽默」的擇偶條件？她還是沒法回答，惹得金來沅忍不住幫腔：「我坐在這，當然是我囉！」立即引來全場大笑。

金來沅含淚「曼在哈佛」，互動愉快。
金泰熙（左一）金來沅含淚「曼在哈佛」，互動愉快。

金泰熙傳聞中的男友在網路曝光。



宋康昊 文素利 飆演技 贏票房

記者 蘇詠智／報導

韓國重量級影帝宋康昊，在「總統的理髮師」中，繼到了演技一級轉折的影后文素利，2人飾演一對夫妻，彼此演繹得過癮，在朝鮮娛樂圈也形成話題，使該片於韓國首映時登上票房冠軍。

王「曾於台北電影節放映，在香港此片由周潤發為他配音，他的演技功力，連星爺都讚不絕口。除了裝瘋賣傻，宋康昊演起嚴肅角色也極出色，曾經高居韓國影史賣座冠軍的「魚」，之後的「JSA共同警備區」，「殺人回憶」都可見他的出色演技。



師奶熱情難抵擋 成天跟他趴趴走

歐巴桑軍團

愛荷個個

記者 李雨勳

台北一首爾電話採訪

★身為「師奶殺手」始祖，安在旭天不怕地不怕，就怕「歐巴桑軍團」！

結束電視上老虎蓮花比頭，希望安在旭男能狗血無雙，私生活趕快找到理想「床伴」。

他笑說：「我睡歐巴桑就不好，恐怕無福消受！」自認是「居家男」的他，沒愛與朋友的小孩玩，想像一窩歐巴桑。

樂，至於感情則還在尋覓，晚婚或不婚也說不定。

安在旭的粉絲人多來自「歐巴族」，也就是俗稱的「歐巴桑」，只是沒想到，他竟對「師奶」的熱情感到害怕。

「想像一窩歐巴桑，晚婚或不婚也說不定。」

安在旭的粉絲人多來自「歐巴族」，也就是俗稱的「歐巴桑」，只是沒想到，他竟對「師奶」的熱情感到害怕。

「想像一窩歐巴桑，晚婚或不婚也說不定。」

安在旭的粉絲人多來自「歐巴族」，也就是俗稱的「歐巴桑」，只是沒想到，他竟對「師奶」的熱情感到害怕。

記者 李雨勳

台北一首爾電話採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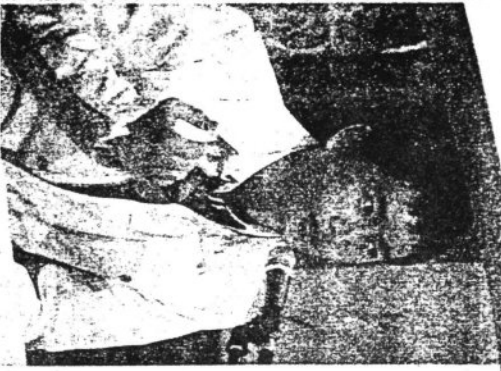
★他城接受訪問，聲明不談感情問題，怎知左手無名指上的戒指露了餡，讓他不情願與朴率美正在交往的事實。

結束戲劇最後之舞，預定5月底上檔，他城與女主角Eugene言語滿是讚美，不愧是天生的演員，完全不像是在演。手出身，演技非常好。他城自認演技不好，然而應酬情所願，他硬著頭皮上陣，與Eugene大跳交際舞，「我沒信心跳不好，沒想到拍得頗順利，工作人員還拍手叫好。」

雖然經紀公司再三聲明不准問感情問題，請談話誠實的池城還是被塞出私密情事。看大家好奇他在手無名指戴的戒指，他得意地說：「這是一組對戒，女友送我的，戴著它感覺女友的靈魂一直伴隨著我。除了工作，池城平時一定都會戴著這只戒指，看得出他對這段感情的用心。」記者追問戒指戴多久了？他笑說：「2年多了！」突然驚覺被採訪，他無奈地說：「這樣...你們就知道是誰送我的了！」

2年多前，池城與朴率美合作「All In」傳出戀情，兩人低調交往，池城

↑池城手上的戒指，是女友朴率美送的定情物。



池城戴戒指 招認交往中

結束戲劇最後之舞，預定5月底上檔，他城與女主角Eugene言語滿是讚美，不愧是天生的演員，完全不像是在演。手出身，演技非常好。他城自認演技不好，然而應酬情所願，他硬著頭皮上陣，與Eugene大跳交際舞，「我沒信心跳不好，沒想到拍得頗順利，工作人員還拍手叫好。」

雖然經紀公司再三聲明不准問感情問題，請談話誠實的池城還是被塞出私密情事。看大家好奇他在手無名指戴的戒指，他得意地說：「這是一組對戒，女友送我的，戴著它感覺女友的靈魂一直伴隨著我。除了工作，池城平時一定都會戴著這只戒指，看得出他對這段感情的用心。」記者追問戒指戴多久了？他笑說：「2年多了！」突然驚覺被採訪，他無奈地說：「這樣...你們就知道是誰送我的了！」



「極道鮮師2」由漫遊改編，動著惡搞的故事深受年輕人喜愛，除了讓仲間由紀重人氣止跌回升，戲裡兩位主角仲間由紀重（FANTASY）和仲間由紀重（FANTASY）也難得戲裡沒播華，Fans已開始期待Part3的推出。

極道鮮師2 收視破30% 接近尾聲衝新高 粉絲期待Part3

★仲間由紀重領銜的「極道鮮師2」果真再度，收視開高走高，日前一舉突破30%大關。劇中日本電視台（NTV）10年來難得的連續劇佳績。



記者 李雨勳／報導

★仲間由紀重領銜的「極道鮮師2」果真再度，收視開高走高，日前一舉突破30%大關。劇中日本電視台（NTV）10年來難得的連續劇佳績。

仲間由紀重之前走純愛路線的「東京禮儀」，收視慘淡滑鐵盧。閉門思過後，她重回拿手喜劇路線，挾著「極道鮮師Part1」的成功氣勢，重回Part2一上檔便創下26.5%的驚人收視，隨著戲播至尾聲，日前第8集竟突破30%大關，在持續低迷的日劇市場實屬不易。而這也是繼95年「無家可歸的小孩」後，隔了10年之久，日本電視台才又出現收視達到30%的連續劇作品，也難怪戲還沒播畢，Fans已開始期待Part3的推出。

「極道鮮師2」由漫遊改編，動著惡搞的故事深受年輕人喜愛，除了讓仲間由紀重人氣止跌回升，戲裡兩位主角仲間由紀重（FANTASY）和仲間由紀重（FANTASY）也難得戲裡沒播華，Fans已開始期待Part3的推出。

母親的信創佳績

讀者投訴

下一場觀眾少看好幾分鐘

打開台北市電影場次表不難發現，某些本土戲院的場次相較於大型戲院，確實密集許多。以最接近廟區的「復興電影2」為例，每星期、東南亞等電影的場次，等於清場時間只有3分鐘。

因此余文程解釋：因競爭激烈，所以得靠場次密集才能爭取更多觀眾。這是在同質面。不過樂聲戲院的場次就要有八個以上，放場速度較快，加上非熱門時段觀眾並不多，而片尾的演員字幕因不太有觀眾看，所以不放，爭取時間，讓場次排得更密。但他強調，影片本片絕對沒有減少，清潔工作也是定收到。

關於戲院電影片尾是否放映，其實各家戲院都不大一樣。由於台灣觀眾不重視片尾演員名單，正片一結束就起身走人，因此不少戲院業者也覺得不放字幕不減時間。不過華新影秀、喜滿客京華影城、微風國際影城等，只要觀眾留在場，絕對放到最後。

步有擡步過情人節

後天首度登台堅持安全感中完美開唱

紐約出生、四歲和母親移居漢
州的諾拉·瓊絲：五歲就在教堂的
唱詩班展現歌藝，當別的小孩都
在玉米田玩捉迷藏，諾拉卻忙著
學鋼琴和薩克斯風。



頂級 演唱會陣仗
諾拉瓊絲

[illegible]

最愛有聰明腦袋的女人 最怕歐巴桑

有時忍不住想：她們老公在豪館小搞嗎？

21

對於曾合作過電影「天堂庭院」的好友李恩珠自縊一事，安在旭臉色一沉，覺得時機不妥，不願意談自己是否也有憂鬱時刻，不過談起棒球，他不忘越洋「鼓勵」彭治怡，「台灣今年的球季可能也很重要啦！」



與宋允兒演出火花

代表作三星電子、LG化妝品，拍過廣告「星星在我心」、「向日葵」、「再見，是全方位的閃亮天王」。

戒指住著林降美的靈魂

池城君蓋地說道，「我們兩年多了曾經考慮過要否更換對象，但已有感情了，除了工作或拍戲外，戒絕了不會離身。」

池城並將雙魚的浪漫天性發揮極致，雖然與朴孝真兩人各有工作，平時見面時間少得可憐，樸便簡訊、網路尋高科技發達，池城堅持每天也要發條簡訊。他字字誠懇也表示，「雖然不愛寫信，但

請食茶。(附錄一)
 ch'ang sít-cá.
 若閣下過淨相。(茶客免煩。)
 ngia yih-há hian ch'ang-ô-ô!
 吾曉汝這口掛得掛!(汝真, 好得!)
 nia bu-nghn dák-ngit bang-so-lai!
 怎麼掛得!(好掛得!)

▲我在加緊調度牛，把喜歡用
好壯壯的女生。

金來沅 夜夜夢金泰熙

開地才華男子 哈佛 耶魯 女結巴 金來沅 誰說是我啦

【特派記者周嘉瑩／首爾報導】南韓藝人金泰熙與金來沅昨天出席韓劇「愛在哈佛」記者會，對感情事打迷團仗。迅速竄紅的金泰熙始終微笑說：「這是私人事情，不便回答。」金來沅還充當護花使者，頻頻替她擋問題。

浪漫愛情韓劇「愛在哈佛」去年在南韓播出大受歡迎，讓金泰熙從「天國的階梯」中惡人獸的配角，扶正成為善良女主角。擊斃一飛冲天，不但打敗李英愛，受封「南韓第一美女」，更成為男生最想告白的對象。一雙漂亮眼睛還成為女生整形範本。金泰熙也說：「我的確比較中意我的眼睛。」

由於都是天主教徒，金來沅和金泰熙特別投緣，赴美拍攝期間還一同上教堂。金來沅稱讚金泰熙：「我都在房間貼滿英語台詞才背得起來，她都不用，很厲害。」談起對彼此的印象，金來沅笑稱：「在美國拍攝，一天到晚見面，連作夢都夢到她呢！」

金泰熙被問起男友是否為同所學校的牙醫系學生時，支支吾吾未否認，金來沅馬上接腔：「我啦我啦！」問金泰熙，合作過的僅相宇和金來沅兩個當紅小生最愛誰？金來沅也解圍搶答：「問什麼問，當然是我啦！」

雖然金泰熙目前當紅，仍謙虛笑說：「若要算告白及送情書的追求者，從小到高中大概只有五個吧！」並表示自己幾乎不去夜店，「大學去美國的PUB，只有老爺爺跟我搭訕。」談到在南非遭搶一事，也維持一貫優雅，「有受驚但未受傷。」

當膩奶油小生的金來沅大爆在新電影「蘇格拉底先生」變成一個敗壞的人，並表示有影迷追

星熱切到把他家的垃圾拍照後，上傳到網路，他自嘲笑說：「真想見見他的樣子。」金來沅對台灣影迷十分掛心，強調當初因「黑塔房小貓」來台時感覺很棒：「我想在土戲前的5、6月，有機會一定要去台灣！」正在苦練小提琴的金來沅允諾：「屆時一定拉給大家聽。」

「愛在哈佛」預定8月初在緯來戲劇台播出。

哈佛情人

▲金泰熙(左)與金來沅出席韓劇「愛在哈佛」記者會。

記者周嘉瑩／攝影

帥帥FBI

●奧斯卡影帝羅素克洛飾組織釘上、企圖綁架的新目。包括路透社等外電，紛紛於3月11日奧斯卡頒獎典禮，劇上圖右)在西裝筆挺的保鏢的檔案照，證明羅素克洛的帥

蔣公天

【記者林欣若／台北報導】威嚴的蔣公銅像，成了電影「霧」的最佳男配角？導演蔡明亮「蔣公站得夠久了」其實他適的男入嘛！渴望情節，期望被接納。」不過蔡明亮希望大度解讀他的話，他絕對沒有利像宣揚性解放。

原本在金門展覽的蔣公運回台灣，蔡明亮和李康碼頭迎接。在「天」片中飾演的故宮導覽員有場戲明亮一直苦思戲場景究竟哪？

正好拍攝期間碰上故宮把原本放置在廣場的蔣公

Q file

金泰熙

生日：1980.3.29

身高體重：160cm/48kg

血型：O

興趣：講電話、溜狗、上健身房

特長：美術、彈鋼琴、滑雪

學歷：漢城大學服裝系

作品：戲劇—Let's go、screen、天國

的階梯、九尾狐外傳、愛在哈佛等

廣告：river (衣服)、OHUI (化妝

品)、DE-Klasse、LG-Cyon (手機)等

製表：周嘉瑩

韓星趕戲發病史

劇名	患者	症狀
春日	趙仁成	趕拍戲，疲勞過度而昏倒，緊急送醫，靠葡萄糖維持體力。
悲傷戀歌	金喜善	一周有五天熬夜拍戲，曾緊急吊點滴，日前又因過度疲勞加上食物中毒緊急送醫。
巴黎戀人	金恩恩	趕戲期間，一周有三天無法回家睡覺，臉浮腫、常頭暈喘不過氣，曾差點昏厥。
大長今	李英愛	長期拍戲，體力消耗過多，臉忽腫忽消，連因身體不適延後廣告拍攝。

製表：周嘉瑩

池珍熙 放鴿子

趕戲累翻不受訪 4月來台



▲趙仁成(左起)、高賢貞和池珍熙正在趕拍「春日」。

圖/緯來戲劇台提供

【特派記者周嘉瑩／首爾報導】南韓當紅藝人池珍熙、趙仁成臨時放了台灣媒體鴿子。因強檔戲劇「春日」周日就要在南韓播出完結篇，沒人敢當老鼠屎延誤拍戲，劇組演員全都戰戰兢兢，連著幾天熬夜拍戲，壓力大到無法受訪。

由趙仁成、池珍熙及高賢貞三人主演的超強卡司韓劇「春日」，原本由緯來戲劇台安排於昨天前往劇組探班

，但因周日「春日」即將播出完結篇，還有15場戲要趕拍，卻只完成五場，進度嚴重落後，演員們已經連續熬夜好幾天，且「春日」收視率突破30%，求好心切之餘，沒人敢放鬆，因此以「壓力過大想專心為由」，臨時取消台灣媒體的訪問。

「春日」預定暑假在台灣上檔，池珍熙4月10日起將赴台灣、香港、大陸及日本等地參加友會。

教你10

彭氏兄弟擅

【記者林欣若／台北報導】國的兄弟檔導演彭彭和彭彭「見鬼」，即將進軍好萊塢，製片山姆雷米，對彭氏兄弟拍鬼片讚美不已，打算到好萊塢拍片。近來好萊塢電影圈不斷新題材，鬼片在這波熱潮之前，日前片「七夜怪談」談」及「咒怨」，都拍成熱潮。彭氏兄弟將到好萊塢拍片，彭氏兄弟繼「見鬼」和「推出「見鬼10」，彭氏說，

裴勇俊 崔智友 鐵曲有譜 粉絲送作堆

冬季戀歌漏網鏡頭 日本fans「抓包」 日版「私密日記」 露餡

記者 魏永齡／報導

韓流天王裴勇俊與氣質美女崔智友到底是不是對戀人？據網友爆料，裴勇俊與崔智友真的是「對戀人」，尤其從日本出版的「冬季戀歌」一私密日記」中，2人在不拍戲時也手牽著手散步等許多「漏網鏡頭」，都可窺出他們2人「交情」不同，甚至還有網友幫他們2人算過姓名學，結果不論是「本名」或是「藝名」，他們2人都是「超速配」。

「八大戲劇台」重播「冬季戀歌」，不但收視率創佳績，也再度炒熱裴勇俊與崔智友到底是不是一對戀人的話題，尤其日本出版的「冬季戀歌」一私密日記」中，許多漏網鏡頭被網友貼在網絡上後，更讓這個話題在網絡上炒得沸沸揚揚。

寶媽 愛幻想和勇樣激吻



↑寶媽(右)特別把女兒曾寶媽找來一起主持廣播節目。

哈翻金泰熙 金來沅作夢忘不了



↑裴勇俊(左)與崔智友在不少粉絲心目中是超速配的一對。

記者 鄭德平／報導

在ETNM「元氣Let's Go」主持人寶媽的「威脅利誘」下，這兩天節目多了個「嬌客」，她終於把千金曾寶媽「拐」到電台共同主持節目，這也是寶媽主持一年多以來，首度邀請到自己的女兒來到節目中。

久未在台灣露面的寶媽，一身體貌神清氣爽，出現在電台，自稱「上世紀末如夢如幻最後國民美少女」的她，對於自己的嬌客在空中破壞她形象，也不甘示弱地利用這次機會，大爆寶媽的性幻想對象是裴勇俊，甚至還常幻想和他激吻，她笑說：「哪有媽媽跟女兒討論自己的性幻想對象啦！」



↑韓流天王裴勇俊的戀情在各地網絡上炒得沸沸揚揚。氣質美女崔智友，甜美的模樣深受日本影迷青睞。

金喜愛和許峻豪同台飆戲 就像天上掉下來的禮物

特派記者 廖祐德／韓國首爾報導

一向給人貴婦氣質印象的金喜愛，這次在緯來電視下半年度大戲「寫給父母親的信」中，演技發揮精湛。金喜愛和男主角許峻豪兩人長期拍戲下來，感情好得沒話說，就連記者會上，許峻豪不斷接聽電話，惹得金喜愛故意生氣，不小心將水潑到許峻豪身上，但談到對許峻豪的看法，金喜愛說：「和他演戲，就像天上掉下來的禮物般幸運！」

金喜愛自從嫁入豪門後，曾淡出演藝圈，對於這次重新出發，她笑說：「其實夫家不算豪門，自己也沒打算退出演藝圈，由於孩子愈來愈大，漸漸獨立自主，因此未來我會慢慢將重心從小孩身上移轉到工作上面！」這次在「寫給父母親的信」中要詮釋一個生下自閉症的母親，金喜愛租了「兩人」來參考，可惜無法透徹，也讓她開始關心起周遭的事物。

一向給人冷酷無情的許峻豪，之前在「情定大飯店」中，飾演一個悶騷的飯店經理，這次卻在劇中用力使壞，讓人不禁和他兇狠的外表聯想在一起。出身藝人世家的許峻豪說：「我也沒辦法，這是外表給人的感覺，但年輕時我曾經歷過人生最黑暗的一面，差點興起殺人、打人的念頭，要不是我想起我父親的盛名，恐怕我早就成了名符其實的大壞蛋了！」

經常和氣質玉女演戲的許峻豪，這次能和金喜愛搭檔相當開心，他認為之前的宋允兒、金知秀演技也都不差，不過和金喜愛一起，會把他的演技功夫充分發揮，這是相當難得的。

平常喜歡健身的金喜愛，這次在記

者會上，一襲低胸禮服秀出曼妙好身材，連許峻豪也驚嘆不已。上次金喜愛來台灣，也保持出外慢跑的習慣，

金喜愛表示她非常喜愛台灣，對於台灣的街道佈置，讓她想起韓國，因此上回台灣行，讓她有「家」的感覺。



↑金喜愛
(左)一身性感禮服，曼妙身材驚四座(右)為許峻豪。

韓流館陳列戲服

面江面吐

五千萬台幣)，每天來訪顧客約一百人左右，大都以日本觀光客為主，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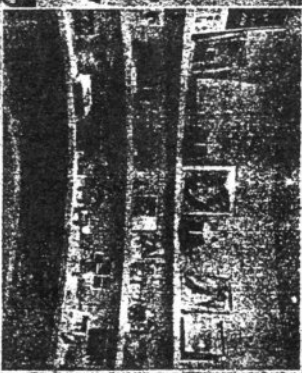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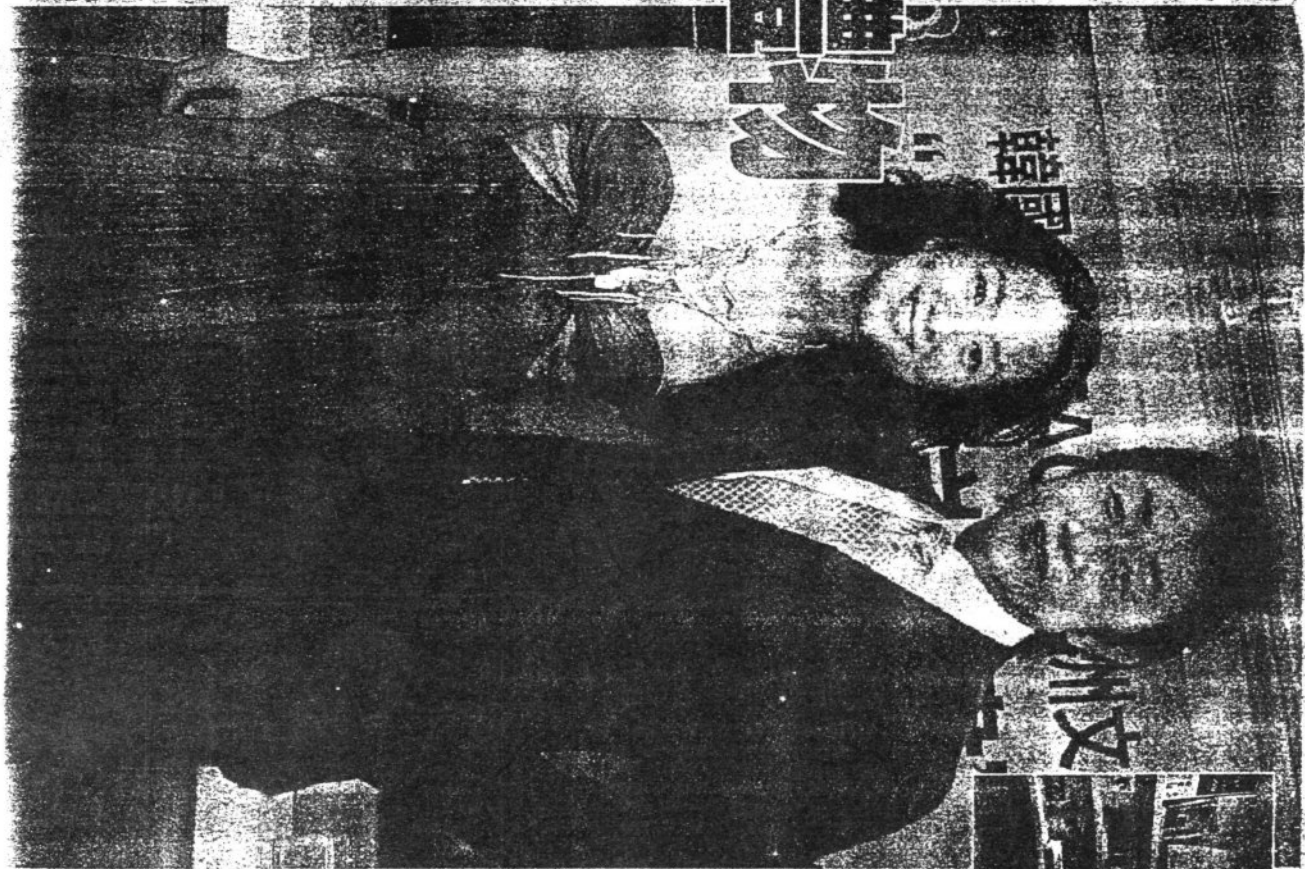


愛！ 喜峻豪 許俊豪 是 天上掉下來的禮物

韓版松坂慶子遇上韓版西恩潘 合演寫給父母親的信 收視率長紅

特派記者趙大智／韓國首爾報導

●當「韓版松坂慶子」金喜愛遇上「韓版西恩潘」許俊豪，會是什麼火花？他說他是天上掉下來的禮物！他為她而從美國飛到韓國，還給父母親的信寫得感天動地，收視率長紅，都是她對他的愛。金喜愛走過記者會現場時，緊緊包裹著他，他大都不耐煩地躲開，在年輕時又打架又鬧人，更不願與她有任何關係。直到金喜愛對他提出「寫信」的要求，他才開始與她在一起。金喜愛走過記者會現場時，緊緊包裹著他，他大都不耐煩地躲開，在年輕時又打架又鬧人，更不願與她有任何關係。直到金喜愛對他提出「寫信」的要求，他才開始與她在一起。



韓流會館 仿如美國環球影城 多媒體空間 可和裴勇俊互動

【特派記者趙大智／韓國首爾報導】哈韓風興盛，韓國2個月前在觀光勝地明洞又蓋了間「韓流會館」，「冬季戀歌」、「飄洋過海」的裴勇俊現身其中，和影迷互動，大玩轉劇我愛遊戲，而剛在本周以城影展拿下新晉大獎的電影「Old Boy」，館裡有部份演藝團體演子同班同學呢。

去年12月才成立的「韓流會館」，造價15億韓幣，雖是民間企業，但因肩負文化交流任務，因此也獲得韓國政府資助。全館約250坪，在樓上類似美國環球影城，遊客可以重溫觀賞節目時的熱情和感動。原本只能靠眼睛感受的東西，在「韓流會館」的多媒體空間裡，可以和裴勇俊「1:1全度妍」在現場面對面接觸和互動。美國製的「裴勇俊」雕像大和圍巾，溫熱的裴勇俊，在雪地上揮舞我愛遊戲，裴勇俊的演出來嚇你，指著牆上的裴勇俊。



▲車太炫據說以前在學校就很調皮。

本報資料照片



▲安在旭是首爾藝術大學畢業生。

本報資料照片

首爾藝術大學 變成星夢園

安在旭 車太炫 當年以母校為榮 如今母校以他為榮

記者趙大智／報導

●安在旭、車太炫和許峻豪，讓韓國首爾藝術大學成為當地帥哥美女夢想進入藝界的捷徑。全校只有2500個學生，採菁英制度，無論幕前幕後都培養不少人材，且校裡的學生隨便抓一個都很

有明星架勢，某間教室裡正在練習的女學生，熟練的扭動身軀，沒有上妝，就像寶貝一樣魅力四射。

裴勇俊就讀的成均館大學，在韓國十分知名，學校招生完全不費吹灰之力，同樣的，位在首爾的首爾藝術大學，因為出了無數的明星，如

偶像明星安在旭、車太炫和實力派演員許峻豪等藝人，每年也吸引韓國無數學子報名。據悉車太炫在學校就頗調皮，而安在旭則一如他螢幕形象，是個內斂型的學生。首爾藝術大學環境優美，左青龍、右白虎，兼顧風水格局，而建築極具設計感，廣場

由上往下俯瞰，是個大極圖案，一群學生正表演韓國傳統的舞蹈。學校分系很細，戲劇系、攝影系、音樂系、創作系、廣告系等，學生們在教室裡表演課，老師出題「去認真拜託身邊的人一件事」，大伙就即興的在地板上表演起來；旁邊的教室裡，戴著小麥

克風耳機的美女，嘴裡唱著hip-pop歌曲，一邊聽音樂起

舞，台灣去的攝影師，看得張口結舌，口水快流下來。

新聞提要 ●黃子佼：大S、如幹願重炮打擊 冠我罪名 / C2 ●F.I.R.新專輯 倫敦愛樂管伴奏 / C3 ●度康康+殷琦 參一ㄎㄚ？小嫻喊ㄎㄚ！ / C4 ●艾爾頓強：狂罵喬治邁可 / C5

安在旭 不要嫌女孩怕死歐巴桑

韓國—哥 最愛自己的俏臀 食指一勾 工作人員就乖乖聽命

特派記者趙大智／韓國首爾報導

●全身上下，安在旭最愛自己結實的俏臀，那苗苗部全裸露出？他笑用中文反罵：「開什麼玩笑！」34歲的安在旭，保養秘訣是大笑，剛好和同樣愛笑的蔡琳合作「必勝不願英」，兩人經常一笑就NG到不可收拾。蔡琳曾勸力整鼻，安在旭對整型看法也很開放：「整得好最重要」還不忘提醒，記得先跟父母報備，以免回家認不出是誰位。

「黑西裝搭白襯衫，安在旭一頭俊髮，言行舉止內斂卻多謙，時而皺眉若有所思，時而擺出一哥架勢。事實上先前片場就傳出他過於自我，常會左右劇組，都要聽他命令行事，因此有大頭症。根據記者現場觀察，安在旭態度雖有點距離感，但算是親切，但要叫喚工作人員時，食指一勾，對方就乖乖俯首，顯得他很有派頭。」

「要散發個人魅力，最好是聰明一點。」問他「對整型看法」，他也講台詞像機器似乎很熟練。談話中，後來還自己報告：「粉絲裡最怕的是歐巴桑，三、五個在一起，沒有什麼事辦不到吧，我老在想，她們的公公呢？在家帶小孩嗎？」

「但她的開朗和活潑沒有變。」安在旭下語言自己愛喝酒，但不會醉倒如泥，只是會會變大，一直笑個不停。曾來台和同樣熱愛棒球的他恰恰交手過，他說自己也像他恰恰一樣，一直想加入職棒，可是，每當他與棒球教練表達此意時，就會得到以下回答：「在旭啊，今年球季對我們真的很重要……。」在聽到他恰恰也無法美夢成真時，他還幽默的說：「可能台灣今年的球季也很重要吧。」

● 安在旭

出生 1971年10月30日

星座 天蠍座

血型 A型

身高 176公分（目測約只有170）

性格 遇強則強、遇弱則弱

作品 星星在我心、向日葵、再見我的愛、逆火青春、戰爭與愛情、白領公寓

趙大智／製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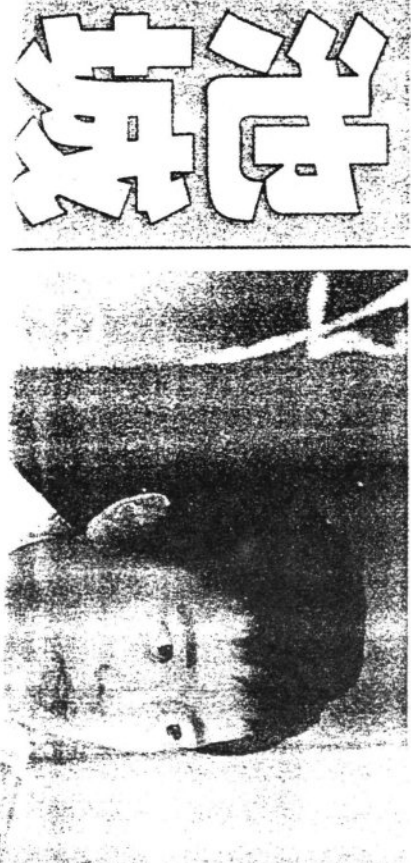
● 神秘進場

出生 1977年2月27日

星座 雙魚座

血型 A型

身高 178公分



起鼓



安在旭端愛穿襯衫。記者趙大智／攝影

高材 金泰熙 侯佩岑一個樣

雙花 開國笑容迷死人 曾有韓國粉絲到他家收垃圾上網公開

金泰熙和金泰熙，這兩位韓國美女，最近在台灣演藝圈中，可說是炙手可熱。她們不僅在韓國演藝圈中，有著極高的地位，在台灣演藝圈中，也深受觀眾的喜愛。她們的出現，不僅為台灣演藝圈注入了新鮮的血液，也為台灣觀眾帶來了極大的歡樂。

金泰熙，1980年3月29日出生，身高160公分，體重45公斤。她是一位非常優秀的演員，曾主演過多部知名電視劇，如《天國的階梯》、《九尾狐外傳》等。她的演技精湛，深受觀眾的喜愛。

侯佩岑，1977年12月20日出生，身高166公分，體重55公斤。她是一位非常優秀的主持人，曾主持過多檔知名節目，如《國語新聞》、《娛樂亞洲》等。她的主持風格親切自然，深受觀眾的喜愛。

金泰熙和金泰熙，這兩位韓國美女，最近在台灣演藝圈中，可說是炙手可熱。她們不僅在韓國演藝圈中，有著極高的地位，在台灣演藝圈中，也深受觀眾的喜愛。她們的出現，不僅為台灣演藝圈注入了新鮮的血液，也為台灣觀眾帶來了極大的歡樂。

金泰熙，1980年3月29日出生，身高160公分，體重45公斤。她是一位非常優秀的演員，曾主演過多部知名電視劇，如《天國的階梯》、《九尾狐外傳》等。她的演技精湛，深受觀眾的喜愛。

侯佩岑，1977年12月20日出生，身高166公分，體重55公斤。她是一位非常優秀的主持人，曾主持過多檔知名節目，如《國語新聞》、《娛樂亞洲》等。她的主持風格親切自然，深受觀眾的喜愛。

金泰熙和金泰熙，這兩位韓國美女，最近在台灣演藝圈中，可說是炙手可熱。她們不僅在韓國演藝圈中，有著極高的地位，在台灣演藝圈中，也深受觀眾的喜愛。她們的出現，不僅為台灣演藝圈注入了新鮮的血液，也為台灣觀眾帶來了極大的歡樂。

金泰熙，1980年3月29日出生，身高160公分，體重45公斤。她是一位非常優秀的演員，曾主演過多部知名電視劇，如《天國的階梯》、《九尾狐外傳》等。她的演技精湛，深受觀眾的喜愛。

侯佩岑，1977年12月20日出生，身高166公分，體重55公斤。她是一位非常優秀的主持人，曾主持過多檔知名節目，如《國語新聞》、《娛樂亞洲》等。她的主持風格親切自然，深受觀眾的喜愛。

韓國台 雙花女比一比

項目	金泰熙	侯佩岑
生日	1980年3月29日	1977年12月20日
星座	牡羊座	射手座
血型	O	O
身高	160公分	166公分
學歷	首爾大學服裝系	美國南加州大學學士
特長	天使般笑容	甜美多汁笑容但很顯也行
優點	英文流利	英文流利
作品	天國的階梯 九尾狐外傳 愛在哈佛	年代新聞 東風「娛樂亞洲」

趙大智／製表



台灣媒體鴿子

韓劇也興邊播邊拍

金泰熙和金泰熙，這兩位韓國美女，最近在台灣演藝圈中，可說是炙手可熱。她們不僅在韓國演藝圈中，有著極高的地位，在台灣演藝圈中，也深受觀眾的喜愛。她們的出現，不僅為台灣演藝圈注入了新鮮的血液，也為台灣觀眾帶來了極大的歡樂。

金泰熙，1980年3月29日出生，身高160公分，體重45公斤。她是一位非常優秀的演員，曾主演過多部知名電視劇，如《天國的階梯》、《九尾狐外傳》等。她的演技精湛，深受觀眾的喜愛。

侯佩岑，1977年12月20日出生，身高166公分，體重55公斤。她是一位非常優秀的主持人，曾主持過多檔知名節目，如《國語新聞》、《娛樂亞洲》等。她的主持風格親切自然，深受觀眾的喜愛。

台灣媒體鴿子

韓劇也興邊播邊拍

金泰熙和金泰熙，這兩位韓國美女，最近在台灣演藝圈中，可說是炙手可熱。她們不僅在韓國演藝圈中，有著極高的地位，在台灣演藝圈中，也深受觀眾的喜愛。她們的出現，不僅為台灣演藝圈注入了新鮮的血液，也為台灣觀眾帶來了極大的歡樂。

金泰熙，1980年3月29日出生，身高160公分，體重45公斤。她是一位非常優秀的演員，曾主演過多部知名電視劇，如《天國的階梯》、《九尾狐外傳》等。她的演技精湛，深受觀眾的喜愛。

侯佩岑，1977年12月20日出生，身高166公分，體重55公斤。她是一位非常優秀的主持人，曾主持過多檔知名節目，如《國語新聞》、《娛樂亞洲》等。她的主持風格親切自然，深受觀眾的喜愛。

台灣媒體鴿子

韓劇也興邊播邊拍

金泰熙和金泰熙，這兩位韓國美女，最近在台灣演藝圈中，可說是炙手可熱。她們不僅在韓國演藝圈中，有著極高的地位，在台灣演藝圈中，也深受觀眾的喜愛。她們的出現，不僅為台灣演藝圈注入了新鮮的血液，也為台灣觀眾帶來了極大的歡樂。

金泰熙，1980年3月29日出生，身高160公分，體重45公斤。她是一位非常優秀的演員，曾主演過多部知名電視劇，如《天國的階梯》、《九尾狐外傳》等。她的演技精湛，深受觀眾的喜愛。

侯佩岑，1977年12月20日出生，身高166公分，體重55公斤。她是一位非常優秀的主持人，曾主持過多檔知名節目，如《國語新聞》、《娛樂亞洲》等。她的主持風格親切自然，深受觀眾的喜愛。

各有風

金泰熙和金泰熙，這兩位韓國美女，最近在台灣演藝圈中，可說是炙手可熱。她們不僅在韓國演藝圈中，有著極高的地位，在台灣演藝圈中，也深受觀眾的喜愛。她們的出現，不僅為台灣演藝圈注入了新鮮的血液，也為台灣觀眾帶來了極大的歡樂。

金泰熙，1980年3月29日出生，身高160公分，體重45公斤。她是一位非常優秀的演員，曾主演過多部知名電視劇，如《天國的階梯》、《九尾狐外傳》等。她的演技精湛，深受觀眾的喜愛。

侯佩岑，1977年12月20日出生，身高166公分，體重55公斤。她是一位非常優秀的主持人，曾主持過多檔知名節目，如《國語新聞》、《娛樂亞洲》等。她的主持風格親切自然，深受觀眾的喜愛。



二度當爹 誇大女兒天生一雙nike眼

屈中恆 看好小女兒嘟嘟嘴會唱歌

【記者吳啟輝／報導】屈中恆又當爸爸了！屈中恆老婆日前（6日）順利產下3017公克的女娃兒，為屈家再添一雙兒女。屈中恆老婆的肚子卻遲遲沒有反應，反倒是同組的黃嘉千非常緊張。

至於打算幫小女兒取什麼名字呢？他說，可能效法大陸女星霍爾，把女兒的名字改叫做屈影吧！談起女兒，屈中恆得意地表示：「像妳、包尿布對我來說都是小意思。」

影息門豪入嫁為認否愛喜金光無上臉爸爸老讓事鬧酒喝常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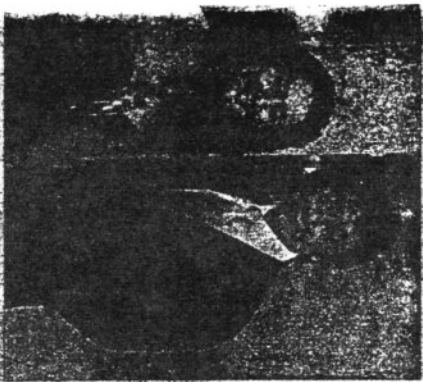
（記者林曉慧／南梓育報導）南梓育、許曉菱、黃尼風、張雲、許曉菱、昨日與熟女金智愛為錄來歐舞台（為給父親的信）宣傳。許曉菱還透露一段親子回頭的故事：金智愛則是否認為了嫁入家門而息影。

許曉菱表示，自己出身於演藝世家，爸爸許長江是演員，從小家境就不錯，他長大自然當了演員，但如果好萊塢員了，可能自己會在理髮。許曉菱解釋，他之前當報的新聞老是說他喝醉酒或鬧事，而且老說他是「許長江兒子」，這讓他很不舒服，所以，在那之後他奮發向上，

金智愛宣傳「完整的愛」的金智愛說，比較合作過的帥哥車太賢、鄭俊英、兩者的類型不同，許仁仁表現很有禮貌，又帥，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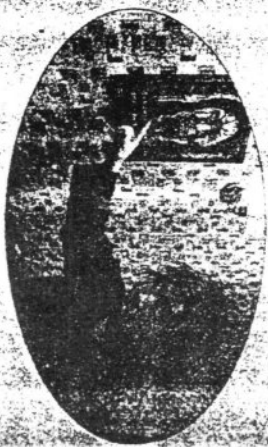
爸爸許長江是演兵，他之前演新英雄，但如果是演英雄，而且他說他是「許」，然後他發向上，

符合作過的帥哥車手，甚至摩托足；許峻豪感覺比較容易受傷。談到身為職業藥師女，金喜淑則說，她的重心點之外，她擔心的是在家庭，但並沒有外傳的發人家庭，第一、第二、第三等他們，不是當切也，就是說要息身，又出來演戲，至於如何保養身心，金喜淑說：「吃方面，愛情身體自己愛。」



鄭大鈞 韓流館 耆英校

拍片情境重現 仿主角牢房小洞探頭 逗樂女記者



鄭大鈞模仿電影【老男孩】的情境。

(記者林端益／南峰首領報導)韓劇《冬季戀歌》、電影《醜聞》等颯起一陣風的韓流，如今吹到台灣，這些場景都收錄在首領的「韓流館」中，讓影迷體會當初拍攝的情況。而日，模仿「老男孩」主角的鄭大鈞還是趙仁成的同班同學呢。

進入「SIDUS-HQ」斥資五千萬台幣打造的「韓流館」，一番粉飾造實從打造的場景，令人彷彿身歷韓劇情當中。《老男孩》敘述一個男孩被關進豪華牢房的故事，模仿主角的鄭大鈞演技相當逼真，還在從牢房的送貨口伸出半個頭來，一些膽小的女記者也配合地尖叫，讓鄭大鈞相當樂意。

鄭大鈞透露自己「與一集電視費酬勞少就有七百萬韓幣(約新台幣二十二萬多元)」的同班同學趙仁成，真是無法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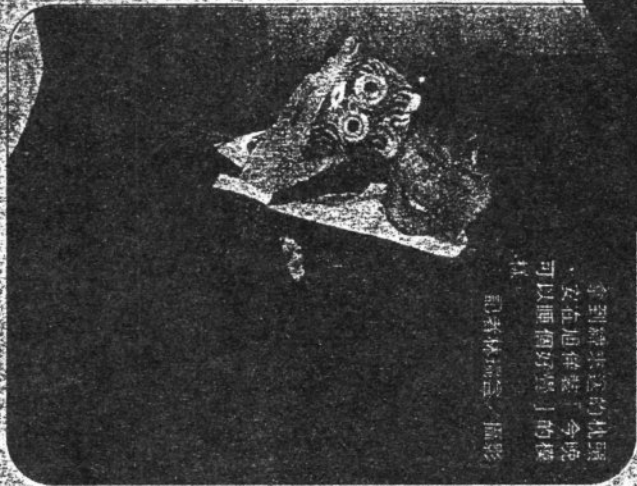
合北之音十週年慶
殷琪長尾巴王力宏獻聲

台北之音雙喜臨門，但慶祝10週年社長殷雪村、50週年董事長殷雪生、昨日，宏現現場清唱生俱像王力宏現場清唱生快樂祝賀王慶琪也回贈王力宏台北之音員工工作證，並頒發一座「十全十美全方位藝人獎」贈予力宏。能在台北之音「橫行無阻」。



女人必勝！ 韓國小生怕怕

逃婚 愛情戒兩年不婚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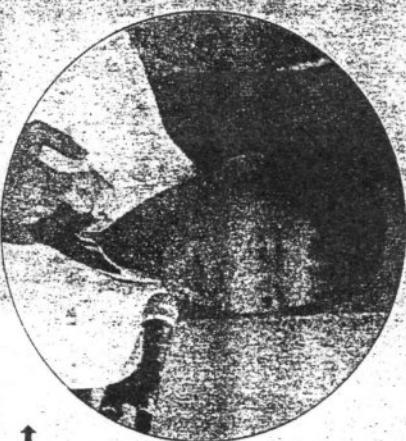


拿到給非送出的獎項，安在旭便整「今晚可以睡個好覺」的模樣。

記者林瑞昌攝、攝影

（記者林瑞昌／南韓漢城報導）「今晚拿到給非送出的獎項，安在旭便整「今晚可以睡個好覺」的模樣。」

（記者林瑞昌／南韓漢城報導）安在旭在《逃婚》中，扮演一個怕老婆的丈夫，他不怕老婆的威脅，他怕的是老婆的威脅。安在旭在《逃婚》中，扮演一個怕老婆的丈夫，他不怕老婆的威脅，他怕的是老婆的威脅。



池城：既然戒指被看到，就招了吧！（設計對白）
韓來提供

歌手求好心切 出輯自掏腰包 陳綺貞花光積蓄 FIR 砸 600 萬

（記者莊真／台北報導）歌手出唱片，都是唱片公司出錢嗎？那可不一定！最近正積極籌劃新專輯的陳綺貞和F.I.R.，都為了作品自掏腰包。陳綺貞花光十年積蓄上百萬，F.I.R.則是把去年賺的六百多萬全丟進去，問他們心不心疼？陳綺貞和F.I.R.都異口同聲說「不」！

F.I.R.去年專輯大賣，第二張專輯更耗資六百多萬台幣製作，過年期間三人不但飛到倫敦錄音，同時還請到馬「魔戒」電影原聲帶的編曲手參與錄音工作，製作人陳建寧表示，為了這張專輯，他們把去年賺的錢全砸進去，為的是希望帶給歌迷更新鮮的音樂。

陳綺貞預計最快將在五月份推出新作，她至今已花了約一百五十萬元，而且預算還會追加，而雖然這筆錢是陳綺貞過去十年來的積蓄，不過這位創作才女花得毫不猶豫，至於男友鍾成虎的薪水？「當然也會照算給他！」



陳綺貞為了新專輯將自己的積蓄全砸進去。



愛在哈佛宣傳 金泰熙避談情事

為戲劇受訪 金來沅「逢場作戲」追求者眾？金泰熙：才五個

【記者林曉慧／南韓首爾報導】避談感情，韓星金來沅與金泰熙昨日專心為韓劇《愛在哈佛》宣傳，光問金泰熙與

吃牙醫系的男友相處地如何？只是金泰熙尷尬地一笑，避談這問題。

金泰熙對這並非沒有回答。她表示，這是她個人的問題，不知道該如何回答。不過，金泰熙對此並沒有否認。那問金泰熙身為美女，應該追求者眾吧？金泰熙說，其實

記者只好問金泰熙參加宣傳會是不是「花」吧？金泰熙自嘲，其實她對這一方面並不在意，是個「玩樂白癡」。除了她大學時去美國四個月，當時有去池士可、後幾會等認識一下之外，在南韓，她倒很少去這些地方，沒什麼復生活。

金來沅方面，問他是否喜歡金泰熙？他還當場給金泰熙壓力人的說：「就假裝是我吧！」金泰熙雖然沒進入狀況，還笑問對方：「是這樣的嗎？」金來沅解釋：「你就當我們是來宣傳《愛在哈佛》的嘛！假裝一下。」

連日拍戲淋雨、萬人迷病倒了 探勇樣的班 報名電話癱瘓



全亞洲萬千粉絲可能要開始吃不下飯，因為號稱韓國頭號帥男殺手的裴勇俊，最近因趕拍電影《外出》中淋雨的戲碼，連續好幾天受到雨水轟炸，加上韓國當地依然相當寒冷，裴勇俊日前終於不敵病魔，體力不支病倒入院。事實上，韓國藝人最近紛紛傳身體亮紅燈，金喜善以及歌手安七炫都相繼染上喉頭炎，導致工作停擺。

裴勇俊第二部電影《外出》正在趕拍，拍攝地點每天都被擠滿大批影迷，由裴勇俊日本經紀公司主辦的「探班旅行團」，幾天前開始接受報名，沒多久電話系統便迅速癱瘓。誇張的還不只如此，裴勇俊與《外出》女主角孫藝珍以及工作人員出外吃飯時，還曾有影迷專門偷取裴勇俊送給店家的簽名照，讀者可不堪其擾。(文／陳惠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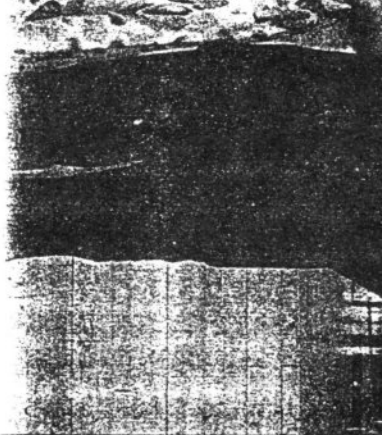
哈日族福音 台視連播

麻衣、幽蘭金代育、愛麗



台視將從下週連播四輯日劇《小菊、真情相約》等，台視還特別冠上了「日劇」日本來台發展的麻衣(左)和酷愛看日劇的謝麗金(右)擔任推薦人。

由於松浦亞彌與中村雅也主演的《愛情一本》打頭陣，此劇是松浦亞彌出道以來所演出的首部日劇，她飾演一位瀕危受命、繼承父業，挑戰又愛又恨的柔道美少女。由於日前松浦亞彌才被狗仔拍到進出羅麗太住處，談到這《小菊、真情相約》被偷拍一起進出，謝麗金必須承受很大的壓力，希望大家給多給予空間。」



洛佩茲 四天花掉七千萬日幣 赴日宣傳排場大



外傳珍妮佛洛佩茲特別愛受大牌，雖然這個八卦尚無法被證實，不過她日前到日本宣傳排場倒真的不小。洛佩茲日前為新專輯與電影赴日宣傳，第一站天后到日本停留四天三夜花了多少錢？答案是七千萬日幣！

珍妮佛洛佩茲日前飛到日本，在涉谷某飯店為新專輯「重生」和電影「來跳舞吧」宣傳。全亞洲總計500名記者恭候天后光臨，記者會上，洛佩茲詢問洛佩茲是否覺得李察吉爾和日本男相小，最純一郎長得很像，殊不知天后竟然不知誰是外景純一郎。

趙仁成 病體難撐 華人

春日要殺青 趕戲聚翻天



趙仁成(左起)與金泰熙、池珍熙在「春日」中無往不來台灣媒體採訪。(韓來提供)

■記者翁家祥／韓國首爾報導

趙仁成卯足全力拍「春日」，日前卻傳出身體不適住院休養，由於本週日韓國將播完結局後有在拍，最後的上五場戲只拍了五場，「春日」終於在趙仁成病體難撐下，趕拍完台港媒體採訪。

韓星拍戲累出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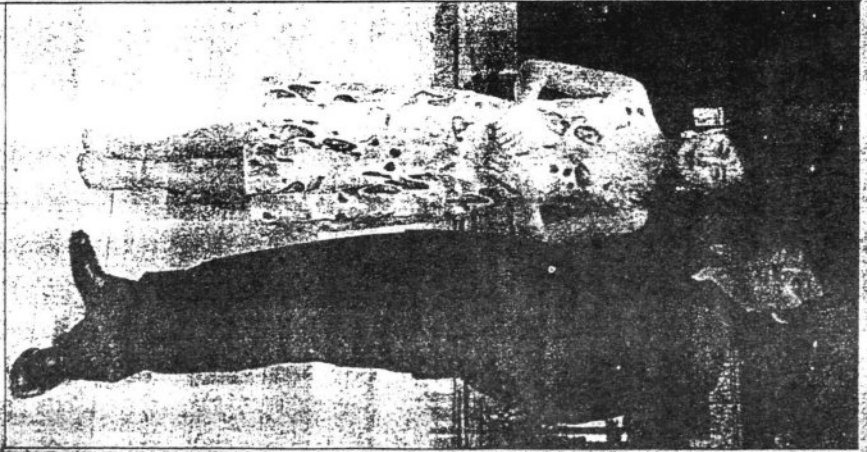
姓名	劇名	病狀
趙仁成	熱夜拍戲體力不支	春日
安在旭	趕殺青體力不支	天生緣分
金喜善	日夜顛倒體力不支	悲傷戀歌
金來沅	美國拍戲重感冒	愛在哈佛
金泰熙	美國拍戲重感冒	愛在哈佛

韓星/記者翁家祥

男主演趙仁成與池珍熙也拍戲來不及拍完，兩拒了大家的好意，讓不少女記者備感失望，不過他們表示，這陣子在拍完戲到台灣播出時，一定會到台灣和大家見面。

據了解，去年高賢貞與韓國財團小開離婚後，重返演藝界拍戲，整個人變得非常低調，除了一般打戲通告之外，其他韓國媒體的採訪都拒絕，這次台灣記者團也吃了閉門羹，即使到了韓國演習團都是場拍邊拍，隨著收視率高起池珍熙及金喜善好，劇組一邊拍戲一邊修改劇本迎合觀眾口味，所以本週日在韓國即將播出完結篇的「春日」，很多戲還沒拍完，演員和劇組面臨人疲體累拍不下了。

這次在「春日」中，有拍完演出的趙仁成，日前也傳出身體不適住院休養，甚至還入院吊點滴休息幾天，因為他的戲份相當多，也因此和池珍熙拍了劇組拍攝進度，所以這次台灣記者到京採訪時，雖然趙仁成願意受訪，可是工作第一，還是得先拒絕，等到以後有機會再說。



金來沅(右起)與金泰熙合作「愛在哈佛」，俊男美女數星佳。(記者翁家祥)

金泰熙 超級發電機 金來沅搶當她的男朋友

■記者翁家祥／韓國首爾報導

金泰熙不愧是韓國「花田美女」，昨天在結束了「春日」的拍攝記者會上把金來沅電得重頭轉向，做做體貼問問她有沒有男朋友時，一旁的金來沅搶答同答大聲笑說：「就是男啦！」

近來金泰熙與池珍熙，帶著低調小清新的帥，記

台灣開台劇館 哈日族準備

松浦亞彌 愛情一本 打頭陣

【本報綜合報導】繼「哈日族」之後，「哈韓」也平地而起，「哈韓」也不平，她表示，人氣偶像傳出「哈韓」的風聲，她必須承受很大的壓力，希望大家一開拍，在哈韓上，就開「去」門。



網球王子

戲裡享齊人之福
戲外超保守



(記者翁家祥攝)

■記者翁家祥／韓國首爾報導

韓流天王安在旭天不怕地不怕，就怕身上沒毛的蛇、老鼠和蟑螂；不過還有一個讓他更害怕的就是「歐巴桑」，她們散發的氣味最討厭。能重，讓安在旭佩服得五體投地，直呼：「實在太了不起！」

安在旭在韓國是標準的帥奶男，手、粉嫩幾乎以二、三十歲以上的男性居多，一向很MAN的他表示，特別是結了婚的帥奶男真的很酷，只要三五成群，天下沒有他們辦不到的事。問他這麼愛帥奶的飛愛，心中做何感想？安在旭笑說：「

與，可是我也很感謝她們的另一个「該如何了」。

他表示，真的要感謝這些姊姊粉絲，因為許多年輕的粉絲經常「移情別戀」，但姊姊們的病友是死是活，常常讓她們愛惡交加難辨。

再問他最滿意自己哪個地方？安在他人身上最滿意自己的起點？還是性慾超好？可是當媒體問他秀一下時，他像尊標準華品說：「開玩笑！」他說：「如妳們所認識的藝人來看，當然是要留給將來的老婆才有才行。」讓一旁的記者都笑死人笑。

為「昨天下午三點鐘來報到」，「特別送了個頭銜給智威，安在也」他就不習慣，因為「藏之而他不翻」換頭銜：綠來送給他一個老虎頭銜，安在也翻得比他不斷和亮，還亮亮望以翻出他連他更舒服。

至於劇中他周旋在蔡琳、朴魯英之間，大享「男人之福」，他說：「三人對峙好容易不斷，NG連連，拍戲時間長至三小時，NG連續條款。安在也笑說：『感覺我們的NG並不多，大部分都是我們用錯感情詞，」說像不能笑臉開。」



■安在旭滿心歡喜收到老虎的贈
禮物，希望以後能與老虎交情。
(記者高家祥攝)

豐川悦司傳離婚 岳父不願證實
篠原涼子好事近 新郎大她二十五歲

【記者鍾成興／綜合報導】喜劇大師沈從之的遺孀田淑明，相繼喪分居九個月的沈從之，最近傳出已經康復恢復原身的八卦；有消息又指沈從之的孀姐田淑明和人她「十五歲的男男」在一起，並說兩人「近，準備六月動房」。

這是他在日本劇中演出，引來台灣觀眾的注意，突然傳出他向同鄉的演員，最近到花蓮演劇的消息，曝光機會也跟著出現。八年前，他和原本擔任跑場的老婆入了籍，生了一對正統。

據了解，三十一歲的蘇原頭下和年紀足以當他爸爸的田村正親，於2001年上演舞台劇「暗殺德田」時來港，由廿四歲玉柳莎莎導演。兩人頗得圈人熟識，由於田村正親

據日本最新一期「週刊女性」爆料，為了得到子，豐川悅司出人這陣出租公關時，幾乎都是以真面目



二度為動畫配音 推出新專輯

鳥谷隆隆界獻聲 又唱又說

(記者戚成、記者組學) 聯合銀行、古典、馬爹利和
專制「野界」強悍，但還有M1V，那溫暖包圍候上

品音樂與流行（cross over）界之真正融合流行，古典的觀念，以五音節、樂譜為前提，cross over 上，加上搖跨不同曲調與空間的觀念，在「百寶歌」，古典音樂首創的豐富詞人格和作品，能引起驚奇結合，她充滿聰明感與好奇，*《The Sound of Music》*。

拍攝高潮 I will 音樂錄影帶時，穿著有異性愛人說
「我是gay」，有一幕 I will 有在浴室中，露出男體自

戲裡和學妹蔡琳結良緣

安在旭 渴婚 疑等有情人



■首爾藝術大學是培育韓星的搖籃。

■安在旭(右)和蔡琳在《必勝！奉順英》中演出逗趣。

■蔡琳在台韓兩地都有觀眾緣。

【林靖貴／綜合報導】安在旭和蔡琳均畢業於韓國首爾藝術大學，兩人七年前曾在韓劇《情侶》扮演兄妹，新作《必勝！奉順英》裡則飾演一對歡喜冤家。雖然他們在戲裡成眷屬，但戲外卻大不相同：三十三歲的安在旭苦覓結婚對象未果，小他八屆的學妹蔡琳則早已嫁做人婦。

載多位知名韓國藝人私生活的「演藝圈X檔案」中，曾爆出安在旭是個「渴婚郎」，卻找不到對象。他日前受訪時，媒體不斷追問他的感情生活，也讓他顯得不太耐煩。

送上門的他不要

看到蔡琳嫁人會不會刺激他趕緊結婚？他先重重吐了一口氣，才說：「身邊有那麼多人結婚，我要是會受他們影響，早就結婚了。」不過X檔案裡也稱

讓他即使遇到女粉絲投懷送抱，也不會吃豆腐，反而會出車錢要她們坐計程車回家。

首爾藝術大學堪稱是藝人的搖籃，除了蔡琳和安在旭外，車太鉉、申河均、全度妍、許峻豪、「連生」朴恩惠都是該校校友。校長盧健一表示：「韓國藝人和幕後人員，有一半以上出自本校，創校四十多年來已有一萬名以上的學生投入演藝圈。」

《必勝！奉順英》 劇情簡介

必勝(安在旭飾)是鄉下小混混，有天他偷錢被發現，只好逃往首爾，因此結識順英(蔡琳飾)。必勝對順英有好感，但順英只喜歡有錢又帥氣的哲雄(柳鎮飾)，不過必勝突然繼承上億財產，劇情發展也急轉直下。該劇周一晚上十時在緯來戲劇台首播。



安在旭 李東健等人 師出同門
首爾藝術大學 韓流搖籃

韓國演藝界，有句名言是「首爾藝術大學畢業生」。這所位於首爾市南部的私立大學，自1984年創立以來，已成為韓國演藝界的重要搖籃。許多知名藝人，包括安在旭、李東健、朴恩惠等，都是這所大學的校友。

安在旭，現年33歲，畢業於首爾藝術大學。他在2000年以《情侶》出道，隨後在多部韓劇中演出，包括《必勝！奉順英》。他在戲中飾演一個苦覓結婚對象的男子，這與他現實生活中的情況不謀而合。

李東健，現年32歲，也是首爾藝術大學的畢業生。他於2001年以《藍色生死戀》出道，隨後在多部韓劇中演出，包括《天國天使》、《天國嫁衣》等。他在戲中飾演一個深情款款的男子，深受觀眾喜愛。

朴恩惠，現年31歲，也是首爾藝術大學的畢業生。她於2001年以《天國嫁衣》出道，隨後在多部韓劇中演出，包括《天國天使》、《天國嫁衣》等。她在戲中飾演一個美麗大方、敢愛敢恨的女子，深受觀眾喜愛。

除了這些知名藝人外，許多幕後人員也是這所大學的畢業生。校長盧健一表示：「韓國藝人和幕後人員，有一半以上出自本校，創校四十多年來已有一萬名以上的學生投入演藝圈。」



韓道利師爆料 李孝莉喝掛任人抱



■田家達被韓國造型師金動錫喻為「台灣張東健(小圖)」。

■宋慧喬念念不忘李秉憲。

【劉書豪／台北報導】曾文義的傷，曾文義高聲呼喚，牌桌上被點名的牌面是點鐘是點鐘是點鐘，手一舉，加碼助戰。牌桌上被點名的牌面是點鐘是點鐘是點鐘，手一舉，加碼助戰。牌桌上被點名的牌面是點鐘是點鐘是點鐘，手一舉，加碼助戰。

動員曾與吳靄儀、李英愛、宋慧喬和李孝利等知名藝人合作，他表示，裝扮吳靄儀之所以讓他健康，就是希望把身體說壯碩一些，讓他的頭看起來不會那麼大。

宋慈驚駭，連忙煮哥愛「性壓成狂」，李孝和私下也頗豪放，喝酒總是忍不住狂喝下一杯，但因酒量不大，很快幾杯就硬乾下一杯，但因酒量不大，很快便醉倒，誇獎的是，每次喝醉之後，她都不知覺把自己丟回家的。

田家達COPY/撰
金動編導河和秀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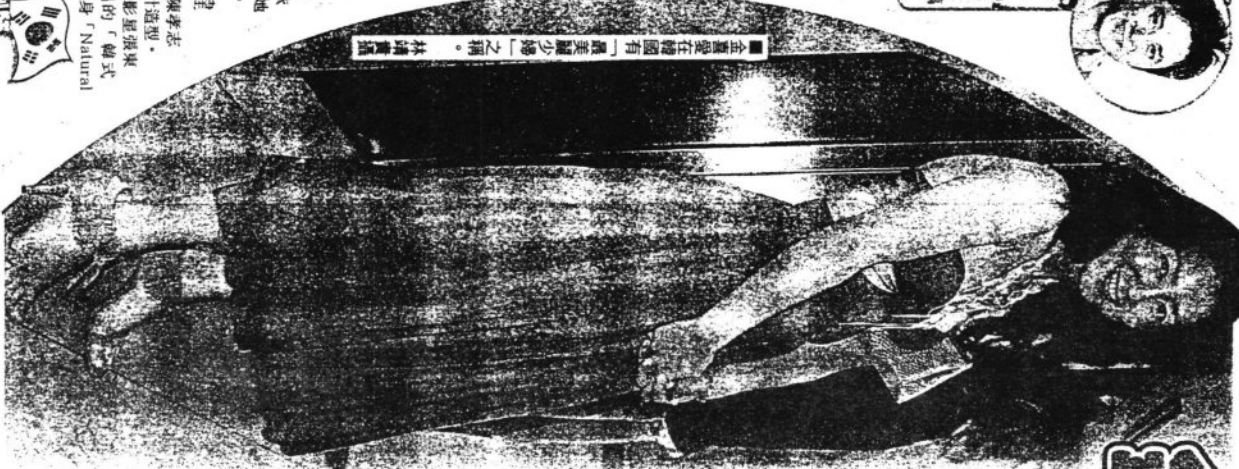
她在處女劇《三葉草運草》中，收起性感裝扮飾演女工，但收視率不甚理想。三月初她推出個人專輯，馬上找Eric與她合拍性感MV，藉此喚回人氣。

之選，來台為他旗下藝人金動錫認為田家達神似健，並現場示範他所演「Natural造型」，讓田家

「喬妹」宋慧喬去年與李秉憲分手，金動

算你狠，至
台灣還出賣
我！

■金喜愛在韓國有「最美閨少婦」之稱。林靖賞攝



我輩大膽而無忌

【林樹貴／韓國首領傳】
專】金熙元在韓國《朝鮮文藝》
刊的報導，記者在專訪中問起文
藝出身底低阿爾蘭，引起現場
男士騷狂。今年已三十七歲的
她還是待母期，一邊出班說，一
邊說下外症：貌似「九孔」，
語被說忍不住咕哝地說：「早
知我係咁不正經就一點！」

他。他說：「很多人第一眼看到
我，眼裡都帶著恐懼。」對
於她的父親被定為韓國政治
演員，他說：「父親過世後家
庭中落，我因此憂鬱消沉，到
達中斷學、殺人放火，如果
沒有老師矯正，我想現在我應
該在監牢。」

《報》刊日前仍在韓國國

金喜愛平日氣質溫和

天性情大變，不斷出現驚人舉。除了在記者會上踢《罵》劇男主角許鞍豪，以及與她合作《完整的愛》的「表哥」車仁表時，她大膽表示：「這要與他們同居過才會了解吧！」

當許鞍華表示，金喜愛是他極為尊敬的演員時，金喜愛隨即作勢為他整理服裝、按摩，引起全場哄堂大笑。

許峻豪險坐牢
許峻豪坦承自己長相比較兇惡，很多人因此排斥

金童愛麗脫外套，邊扭屁股偷笑。
 金童愛麗脫外套，邊扭屁股偷笑。

■金喜豐（右）讀許峻豪是「德國西恩潘」，作勢幫他按摩。



安在旭是鐵杆大廚

合作拍戲 不會杯少 熬夜頭顱好吐



意搞笑。安在旭接受台灣媒體專訪時，時刻接受林靖書攝

【本報記者林靖書報導】安在旭日前接受台灣媒體專訪，談到拍戲的辛苦與樂趣。安在旭表示，他是一個非常投入的人，在拍戲時，他會完全投入到角色中去。他還談到了他的生活習慣，他說他是一個非常健康的人，他會定期去健身房運動，他還談到了他的工作壓力，他說他會通過一些方式來緩解壓力，比如看書、聽音樂等。

安在旭還談到了他的合作夥伴，他說他非常喜歡與一些優秀的演員合作，他還談到了他的導演，他說他非常尊重導演的意見，他會盡力去完成導演交給他的任務。他還談到了他的未來計劃，他說他會繼續努力，為觀眾帶來更多的优秀作品。



美因戲結為伴侶。池城（前）和朴率

池城（前）和朴率（後）在《愛恨情仇》中飾演一對情侶，他們的演技受到了觀眾的廣泛好評。池城在劇中飾演一個深情款款的男子，而朴率則飾演一個美麗動人的女子。他們的對手戲非常精彩，讓人印象深刻。

池城在劇中飾演一個深情款款的男子，而朴率則飾演一個美麗動人的女子。他們的對手戲非常精彩，讓人印象深刻。池城還談到了他的工作壓力，他說他會通過一些方式來緩解壓力，比如看書、聽音樂等。

池城還談到了他的未來計劃，他說他會繼續努力，為觀眾帶來更多的优秀作品。他還談到了他的合作夥伴，他說他非常喜歡與一些優秀的演員合作，他還談到了他的導演，他說他非常尊重導演的意見，他會盡力去完成導演交給他的任務。

池城還談到了他的未來計劃，他說他會繼續努力，為觀眾帶來更多的优秀作品。他還談到了他的合作夥伴，他說他非常喜歡與一些優秀的演員合作，他還談到了他的導演，他說他非常尊重導演的意見，他會盡力去完成導演交給他的任務。

池城還談到了他的未來計劃，他說他會繼續努力，為觀眾帶來更多的优秀作品。他還談到了他的合作夥伴，他說他非常喜歡與一些優秀的演員合作，他還談到了他的導演，他說他非常尊重導演的意見，他會盡力去完成導演交給他的任務。

池城還談到了他的未來計劃，他說他會繼續努力，為觀眾帶來更多的优秀作品。他還談到了他的合作夥伴，他說他非常喜歡與一些優秀的演員合作，他還談到了他的導演，他說他非常尊重導演的意見，他會盡力去完成導演交給他的任務。

池城還談到了他的未來計劃，他說他會繼續努力，為觀眾帶來更多的优秀作品。他還談到了他的合作夥伴，他說他非常喜歡與一些優秀的演員合作，他還談到了他的導演，他說他非常尊重導演的意見，他會盡力去完成導演交給他的任務。

池城認了朴率美 亮出情侶戒 低調摺衷

【本報記者林靖書報導】池城和朴率美在《愛恨情仇》中飾演一對情侶，他們的演技受到了觀眾的廣泛好評。池城在劇中飾演一個深情款款的男子，而朴率則飾演一個美麗動人的女子。他們的對手戲非常精彩，讓人印象深刻。

池城在劇中飾演一個深情款款的男子，而朴率則飾演一個美麗動人的女子。他們的對手戲非常精彩，讓人印象深刻。池城還談到了他的工作壓力，他說他會通過一些方式來緩解壓力，比如看書、聽音樂等。

池城還談到了他的未來計劃，他說他會繼續努力，為觀眾帶來更多的优秀作品。他還談到了他的合作夥伴，他說他非常喜歡與一些優秀的演員合作，他還談到了他的導演，他說他非常尊重導演的意見，他會盡力去完成導演交給他的任務。

池城還談到了他的未來計劃，他說他會繼續努力，為觀眾帶來更多的优秀作品。他還談到了他的合作夥伴，他說他非常喜歡與一些優秀的演員合作，他還談到了他的導演，他說他非常尊重導演的意見，他會盡力去完成導演交給他的任務。

池城還談到了他的未來計劃，他說他會繼續努力，為觀眾帶來更多的优秀作品。他還談到了他的合作夥伴，他說他非常喜歡與一些優秀的演員合作，他還談到了他的導演，他說他非常尊重導演的意見，他會盡力去完成導演交給他的任務。

池城還談到了他的未來計劃，他說他會繼續努力，為觀眾帶來更多的优秀作品。他還談到了他的合作夥伴，他說他非常喜歡與一些優秀的演員合作，他還談到了他的導演，他說他非常尊重導演的意見，他會盡力去完成導演交給他的任務。

池城還談到了他的未來計劃，他說他會繼續努力，為觀眾帶來更多的优秀作品。他還談到了他的合作夥伴，他說他非常喜歡與一些優秀的演員合作，他還談到了他的導演，他說他非常尊重導演的意見，他會盡力去完成導演交給他的任務。

兩演戲跳河又挨揍

【本報記者林靖書報導】韓佳茵在韓國劇《愛恨情仇》中飾演一個居居男人背叛的悲情女人，最近她在新劇《愛恨情仇》中，又遭男友背叛，可憐到連她的未婚夫連致歉都看不上去，心寒難老婆戲裡她是沒人愛。

韓佳茵在韓國劇《愛恨情仇》中飾演一個居居男人背叛的悲情女人，最近她在新劇《愛恨情仇》中，又遭男友背叛，可憐到連她的未婚夫連致歉都看不上去，心寒難老婆戲裡她是沒人愛。

韓佳茵在韓國劇《愛恨情仇》中飾演一個居居男人背叛的悲情女人，最近她在新劇《愛恨情仇》中，又遭男友背叛，可憐到連她的未婚夫連致歉都看不上去，心寒難老婆戲裡她是沒人愛。

韓佳茵在韓國劇《愛恨情仇》中飾演一個居居男人背叛的悲情女人，最近她在新劇《愛恨情仇》中，又遭男友背叛，可憐到連她的未婚夫連致歉都看不上去，心寒難老婆戲裡她是沒人愛。

韓佳茵在韓國劇《愛恨情仇》中飾演一個居居男人背叛的悲情女人，最近她在新劇《愛恨情仇》中，又遭男友背叛，可憐到連她的未婚夫連致歉都看不上去，心寒難老婆戲裡她是沒人愛。

韓佳茵在韓國劇《愛恨情仇》中飾演一個居居男人背叛的悲情女人，最近她在新劇《愛恨情仇》中，又遭男友背叛，可憐到連她的未婚夫連致歉都看不上去，心寒難老婆戲裡她是沒人愛。

金來沅會金泰熙不敢求讚她美麗有肉迥談追求避而不



■金來沅(右)和金泰熙在記者會上,對感情問題都很低調。

【林靖豐／韓國首爾報導】金來沅在韓國劇《愛在哈佛》中,與最近屢在美女票選封后的金泰熙搭檔,豔福不淺。他不停稱讚她既漂亮又有內涵,還說:「拍攝當時,我還好幾次夢到金泰熙!」是否考慮追求金泰熙?他尷尬地說:「Pass!」(跳過)「不願回答」。

兩人為《愛》劇在美國取景兩個月,金來沅雖透過金泰熙有好感,卻又表示僅是朋友關係,該戲殺青後兩人也完全沒有聯絡,令外界聽得霧煞煞。

不談牙醫男友傳聞

金來沅講得坦率,金泰熙在記者會上更是大打太極拳,昨天她低頭面對感情問題,對於「有無男友」、「情人是否就牙醫系」等問題都避而不答。事實上,韓國媒體曾報導金泰熙有位就讀牙醫系的男友。

金來沅在《愛》劇中飾演哈佛大學高材生,他還與金泰熙白晝談他頭疼,「當時飯店房間的牆上全貼滿劇本,每晚都在死背英語台詞,睡都睡不好。」但是他現場秀幾句,他先是低頭不語幾秒鐘,才不好意思地說:「其實我都忘光了。」

金來沅

關於金來沅

年齡○24歲 (1980.3.29)
星座○牡羊座
血型○O型
身高○160公分
體重○48公斤

年齡○23歲 (1981.3.19)
星座○雙魚座
血型○A型
身高○183公分
體重○73公斤

■金泰熙是旺的女星。

裴勇俊出差有專屬健身房

【劉莉香／綜合報導】裴勇俊目前在韓國三陟市趕拍新片《外出》,仍然不忘健身。飯店還特別提供專屬的健身房,並由餐廳負責他的膳食,且準備專用筷子和湯匙,讓他享受頭號貴賓的上流待遇。

飯店特別打造

《外》片製作公司表示:「粉絲擠在飯店門口爭睹裴勇俊,拍片以外的時間,他都得兼兼待在飯店,因此原本沒有健身房設施的飯店,特別為他準備了專屬的健身房。」裴勇俊趁拍片空檔接拍日本披露廣告的錢,廣告費弄他的招牌微笑吸引影迷,將於後天在日本播出。



趕戲讓客人撲空

趙仁成 成台灣記者鴿子 池珍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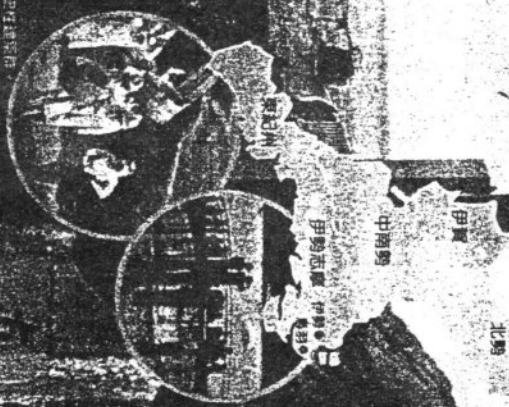
【林靖豐／韓國首爾報導】趙仁成與池珍熙兩放台灣媒體鴿子,取消訪問,不過卻可當兩度放台。昨天三十多位台灣記者原本排定到韓國(春日)現場探班,兩位大師哥雖然數周前表示願意受訪,但前天製播該劇的SBS電視台方面卻以短戲為由,臨時取消行程,讓大老遠赴韓採訪的台灣記者撲空。

可望六月來台

已購入《春日》的緯來電視台表示,該劇本週日將在台灣播出,目前尚無定案。

倚勢摩

日本三重縣



【本報記者林曉芳報導】日本三重縣，位於太平洋與日本海之間，是一個風景優美、氣候宜人的地區。這裡不僅是著名的旅遊勝地，也是許多影視作品的拍攝地點。最近，一部名為《倚勢摩》的電影在這裡取景拍攝，吸引了眾多影迷前往參觀。

據悉，《倚勢摩》是一部描寫現代都市生活的電影，故事發生在三重縣的一個小鎮。電影的拍攝工作已經圓滿結束，預計將於近期內上映。導演表示，三重縣的自然風光和人文景觀為電影增添了不少色彩，觀眾在欣賞精彩劇情的同時，也能感受到當地的獨特魅力。

裴勇俊摸女遊客 逗得她們好開心

李安君/韓國首爾報導

抱不到裴勇俊本尊，抱裴勇俊的「分身」也行！去年底，韓國首爾開了一間「韓流館」，裡面有「冬季戀歌」、「龍門」等場景，幾位演員打扮成戲裡大牌模樣和遊客嬉戲、玩樂，還摸摸小手、摸摸腰，逗得大夥都開心。

「冬季戀歌」最知名的是裴勇俊，男主角裴勇俊的「分身」是韓國大學戲劇系的學生，他穿上大衣，披上



▲▲學生裴勇俊摸手，逗得女遊客開心。
（李安君攝）

▲裴勇俊摸女遊客的小手，逗得她們好開心。
（李安君攝）





李安君 / 韓國首爾報導

金泰熙是韓國當紅女優，也是國立漢城大學學生，據了解，她的男友是牙醫系高材生，但對於「阿嬌哥」的背景，她還挺了一下，在一旁的金來沅就急搶答：「是我啦。」讓友心切，是個貼心的紳士。

金來沅、金泰熙是韓國戲劇台新戲「愛在哈佛」男女主角，既然故事發生在哈佛大學，兩人就得秀秀英文，金來沅坦言「很吃力」，所以在美國拍攝期間，房裡的牆壁上都貼滿英文台詞，隨時隨地背；金泰熙原本就是國立大學的學生，講英語不難，金來沅非常佩服。

金泰熙是校園美女，但她謙稱，從小至今追求者不到10個，「不不不，是5個」；不不，大概3個不到，」她都說起少，從10個到3個，差了3倍之多！

金泰熙不知是一時恍神，或者也像侯佩岑一樣，拚命否定過去的男友；她說，大三時，曾經到舞廳跳舞，結果只有一位歐吉桑搭訕，她這個說法，和侯佩岑的「我一直是在花」有異曲同工之妙。

「愛在哈佛」是「雙金」首次合作的作品，金泰熙笑說，她曾經是「屋塔房小姐」的忠實觀眾，當然也是金來沅粉絲，她有個錯覺，以為金來沅是個開玩笑的痞子，但合作後，覺得他聰明、熱情、幽默，而金來沅也相對給她讚美，說金泰熙是個從容不迫的女性，「因拍攝朝夕相處

金來沅 當 金泰熙男友 連做夢都夢到她



▲金泰熙（左）和金來沅在記者會上說說笑笑，顯見兩人交情匪淺。

我連晚上都夢到她哩。」

金泰熙在「天國的階梯」中表現不俗，和權相宇有精彩的對手戲，問她和兩位當紅男藝人合作，誰最有感覺呢？「當然是我，選擇誰什麼！」金來沅不等女士回答，就先搞笑，金泰熙只好笑說：「對對，是你。」她在金來沅的壓力下配合「演出」。

絲驚喜，彈了一首輕快的曲子，但因為太緊張了，身體抖半天，原本以為是手機震動，響了，仔細感覺，原來是自己嚇到發抖呢。「我最近跟妹妹學拉小提琴，希望有機會再到台灣，為粉絲們獻上一曲。」

宋康昊管理髮師 捲入間諜疑雲

賈靜賢 / 綜合報導

韓片「總統的理髮師」有影帝后宋康昊、文素利領銜，在韓國推出時不但立即居票房冠軍，也當選了當月「最想看的電影」！

宋康昊用當選韓國3大最具影響力男星之一，從「魚」、「茅蠶王」到「殺人回憶」都破了票房紀錄，也得了青龍和大鐘獎。喜劇天王周星馳看了宋康昊在「茅蠶王」的演出稱「讚」不已，還立即答應為廣東版配音！「總統的理髮師」當中，宋康昊扮演個性純真而帶有喜感的平凡理髮師，因間諜事件而成為總統的御用理髮師，為了被捲入間諜疑雲的兒子，他在效忠和親情的間陷入掙扎。宋康昊和演出太太的文素利表現張力十足，相當感人。

布蘭妮光溜溜 登上時尚雜誌

的進帳，讓現在要養老公，又要替老公養他和前妻的2個小孩的布蘭妮很心動。



韓國女星 轉型大不易

甜妹兒蔡琳變野蠻 李英愛扮銀幕復仇



▲蔡琳(左)在與安在旭合作的《咖啡王子1號店》中，中演一級棒的女主。

▲李英愛在《大長今》中，中演一級棒的女主。



정말이지... 하라네 살고 싶었던 나

이영애
(공정당비구명 JSA) (올드보이) 박찬욱 감독

친절한 금자씨

극중 시계아 엔터테인먼트 | 박찬욱 감독
2005년 6월 개봉



▼崔智友(右)與李英愛(中)合作的「親切的金子」，以驚天動地的演技。

「親切的金子」中的李英愛過人，連連多年年歌之災，為了復仇，她甘願當壞人，外人看來可憐的甜甜點下，都是她滿腹的百寶心機。(賀靜賢)

賀靜賢／專題報導

轉型是明星的重要一步，也是偶像與演技派的分水嶺。蔡琳最近新劇中的人氣不如朴善英，李英愛演出復仇戲後，並有望在坎城得到評斷。

鄭家女發酒瘋 有人讚有人氣

蔡琳向來是甜美的鄰家女孩，也是韓國和台灣可以匹敵。不過，她的最新作品SBS韓劇「必勝！奉順英」，一脫先前的甜、美，變成會撩人的野蠻女「必勝！奉順英」將於本月中旬在台灣播出。在旭，陰錯陽差被誤認為是企業小開，但意外扣的小開。安在旭的劇中女友就是「奉順英」，他愛上舉止不羈的她，喜歡被男人甩了19次。蔡琳長得甜，演起野蠻女，仍然漂亮。她表演的角色，讓人看到不一樣的蔡琳。不過，因此在此「必」劇推出後，影迷有的罵她，有的往日的甜美；看戲的投入之深，令人哭笑不得。

朴善英化身好女人 深得觀眾心

蔡琳的普通高人氣，當然不會受一部戲影響，不過在「必勝！奉順英」當中，原一女三角朴善英的人氣卻比蔡琳高，因此蔡琳要轉型，可能得再努力。朴善英向來演壞女人，改變為犧牲奉獻的好女人，就得觀眾心。由此可知，韓國觀眾比較傳統，對溫柔可人的女性，仍然給予較多的支持。

蔡琳的影迷都希望她恢復甜美形象，同樣在螢幕走剛正不阿路線的李英愛，演出電影「中毒」裡的殺機變態，也得到影迷兩極評價。在「中毒」中，小叔李秉憲愛上大嫂李英愛，並在哥哥死後伴裝被附身，與嫂嫂發生關係。該片為李英愛得到不少演技的獎項，不過以韓劇「明成皇后」愛上她的影迷們，則「呼籲」李英愛少演憤怒戲，可見得占有慾也相當強。

李恩珠扮情婦遭批 大受打擊

不久前上吊身亡的女星李恩珠，也因為在電影「紅字」當中演了情婦戲後，受到不少批評，憂鬱症更形嚴重，終於產生悲劇，令人惋惜。外型溫婉的李恩珠，也向來演溫柔可憐的角色，連劇「火鳥」裡，她扮演家道中落富家女，人生不順，常淚眼婆娑，但也走紅。

「紅字」裡的李恩珠飾演情婦，也有她從未挑戰的裸戲，她對自己的轉型期待很高，才不惜有此轉變。可惜的是，她的表現雖然傑出，但該部電影並未大賣，加上連母親家人對她的裸戲表示氣憤，讓李恩珠承受相當大的打擊。

崔智友展露床戲尺度惹爭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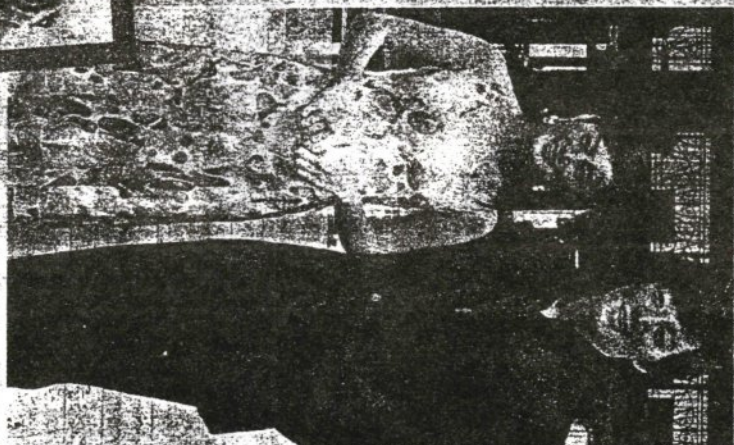
愛在哈佛一播出 韓國留學生第一志願

韓國留學生第一志願在哈佛播出

緣來證得目前約於三月份的演出。在當時的「北韓國際青年節」大會上，男星金永元主演「這封信」在韓國播出時，叫作《又叫做「暖」暖在哈爾濱的朝鮮姑娘與美國拍攝，就如阿之的「愛好」女主角「益里島的白話」也演藝到「一鏡」不更有大手提製作，還是外國政策，加上世界美女消遣的愛情故事，就是「暖」就是「暖」。

[illegible]

而由金河河和密爾斯主權的「歷史時鐘」(英文題名爲 *Love, Story, In History*) 所佔了最顯要的位子。一種對劉蘭英王后在充實歷史背景知識中一躍而上的機遇,因為她作為美國校園「前」的運動,「近」的人,「場」勢,果然在韓國一掃而出,創下了收視率新高,拍下了韓國史上最高價的學校。而劉蘭英王后,在「歷史時鐘」中,也佔有了最顯要的位子。而劉蘭英王后,在「歷史時鐘」中,也佔有了最顯要的位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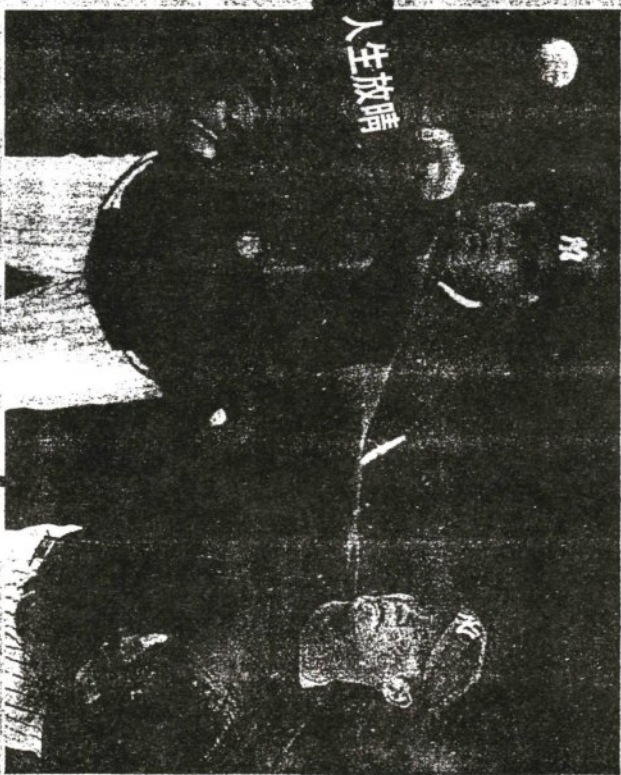
↑「愛在哈佛」金來沅(右)和金泰熙是韓國最當紅的明星。記者/蔡宜玲攝影

葛如潘廣興 聚狗仔樂得兒



登大聯盟，人生放晴

旅美好手王蓮民(右)頂著細雨，在紐約洋基投手教練監督下賣力練投。為即將開打的球季積極備戰，爭取先發出賽的機會。



茶煙細雨

單局暴投紀錄者 悲情投手找不到好球帶 轉任外野手

【記者林以君／綜合報導】
 春節的一場雨，提前結束了
 美國職棒大聯盟安劉爾的大聯
 盟投手生涯，今天他決定由投
 手丘後退一大步，在外野手的
 位置上尋求另一種開闊天空。
 安劉爾是個少年感劇英雄，
 昨天原則是他在東區賽先發，
 望昔因雨延賽的溫哥華投手丘，
 他不再留戀，受傷後復健，復

隨後登板，左腕安則剛已毫不再好球帶，他宣布離開投手丘，轉任外野手。

他在大聯盟打球時，出賽51場，41場先發，共達13勝10勝的手術。去年9月起出賽3場，曾達1勝。

安則剛生涯很長，他的入選印象一致的：是2007年季後賽，他首發出局，先是地獄用他。續打

中職後天開打

轉播車先卡位

【关键词】 大学生 网络 网络成瘾 网络成瘾量表 网络成瘾量表-中国版

地址: 长沙市芙蓉区下马厂 66 号

的挫折，慢慢磨炼我的打球耐

(人)——也延後升空；美國職



—金泰熙演壞女人入木三分，在現實中卻像隻怕被狼吞的小綿羊。

韓 國民風較保守，明星比較不願意私人情感曝光，更別說爆出劈腿、搞多P的緋聞。真要像已經分手的情侶李秉憲和宋慧喬一樣，能在人前大方手牽手的，畢竟是少數。

資深帥哥安在旭從出道至今，被問到女友的答案都很沒創意，他總是說：「如果遇到真命天女，我就會結婚。」池城談到女友2度羞紅了臉，但獨厚台灣媒體，秀出定情戒；已經有男友的當紅炸子雞金泰熙，說什麼都不承認自己名花有主，拉著單身的金來沅當擋箭牌。韓星談情說愛，果然超級含蓄。

—資深帥哥安在旭從出道至今，被問到女友時，答案都很沒創意，他總是說：「如果遇到真命天女，我就會結婚。」



安在旭、金泰熙兩男一姐，
金來沅、池城、池城、池城

韓星談情說愛 超含蓄



—安在旭在韓國娛樂圈是有名的大砲型藝人。



資深帥哥代表：安在旭
感情現況：目（幕）前
孤家寡人

膽指指數：★★★

坦白指數：★★

安在旭和韓國第一美女金喜善的緋聞傳了很久，兩人從未承認交往過。去年有大陸記者好奇他們的關係，安在旭老實不客氣地回答說：「我跟金喜善只是朋友，為什麼你們都要問我這個問題，怎麼不直接去問她本人？」日前，台灣媒體再問他欣賞的異性類型，他嘆口氣、沒耐性地說：「我出道以來常被問這樣的問題，我的回答從沒變過，只要遇到命中注定的

對象就會結婚。結婚是遲早的事，但我現在還沒有打算。」

在為新戲《必勝奉順英》宣傳的記者會上，原本提到最害怕

的動物時，安在旭還開心地自爆，最怕跟三姑六婆的歐巴桑相處。但是被問到結婚的話題，馬上板起臉孔，態度正經八百；尤其當有人問他跟蔡琳談了7年後再度合作，見到她婚姻幸福，會不會有結婚的憧憬？他竟回答說：「如果看到其他人婚姻生活美滿就去結婚的話，我早就不是單身啦！」

安大牌在韓國娛樂圈是有名愛打棒球、有話直說的大砲型藝人，他常常在台上講得理所當



然，台下聽得斜線八百條。當安大牌心情好的時候，會開開玩笑：「如果我的老婆是追星族，我還能利用自己是藝人的身分幫她牽線介紹一下；我可以做家事照顧小孩，讓她放心出去追星。」不過，訪問他之前如果不先做好功課、熟讀他的資料，硬要問他上個世紀的舊話題，恐怕只有看臉色的分了。



深情貴公子代表：池城
感情現況：和女友朴率
美交往2年

膽指指數：★★

坦白指數：★★★★☆



池城堅持用親筆信表達愛意。

池城和朴率美拍《All in》一吻定情，2年來池城口風超緊，從不正面證實戀情；因此不時有2人戀情轉淡的消息傳出，讓韓國媒體對這2人的感情，總摸不著頭緒。

不過，企圖心強的池城，或許深知台灣是韓流大本營；當記者問他，右手無名指的戒指是不是女友送的，他不管三七二十一，馬上大方回答：「這是情侶戒，她的靈魂就在戒指裡面。」此話一出，引起全場驚嘆，尤其是韓國媒體更直呼不可思議。

由於池城幾乎沒正面談過和朴率美的交往過程，他的真愛告白隨即讓場子活絡起來。他表示，和朴率美目前還沒論及婚嫁，但手上的戒指代表2人堅貞不二的感情。「除了拍戲和工作之外，我很少把戒指拔下來，本來我們考慮再買新的戒指，可是戴久了，就捨不得換。」

池城在新戲《最後之舞》和柳真有一段純純之戀，劇中深情的形象和戲外的他不謀而合。尤其在

msn、伊媚兒方便到不行的現在，他還堅持親筆寫信，真是世間少有的浪漫主義者。「我和她的工作都很忙，見面的時間不多，所以我會把思念她的話寫在信裡面。」他說完後再度引起一片嘩然，大家急忙問他，是不是每天寫信？他接著又說：「我很想每天寫，但心有余而力不足。」

在真情大公開的過程中，池城二度羞紅了臉，感覺非常不自在。即使如此，大家還是不放過他，再問2人因戲結緣，是否會擔心各自假戲真做，跟別人來電，以及拍吻戲要不要先報備等問題，他雖然坦白回答：「吃醋是必然的。」卻不免倒抽一口氣說：「台灣媒體問這麼細節的問題，真讓我很不好意思。」



↑池城和朴率美拍《All in》一吻定情，目前2人感情穩定。（何叔娟翻攝）



↑池城談到女友雖然面帶羞澀，卻態度大方，獨厚台灣媒體，秀出定情戒。



【設計對白】
阿阿，跟金泰熙
合作非常好、很
開心。



微笑小公主代表：金泰熙
感情現況：和漢城大學牙
醫系男友秘密交往中

膽指指數：★★★★★

坦白指數：☆☆



帥氣痞子男代表：金來沅
感情現況：目（幕）前
孤家寡人

膽指指數：★★★★☆

坦白指數：★★★★

金來沅和金泰熙合作完
《愛在哈佛》後，成了新生
代演員中的最佳情侶檔；金
來沅曾幾度表示欣賞金泰熙
長得美、有涵養，是個內外
兼具的美女。金來沅不時在
眾目睽睽的記者
會上主動找金
泰熙交談，

2人熱絡的模樣，完全不像2個月
沒見過面。無奈金泰熙早有男
友，也難怪當記者問他，如果有
機會要不要追金泰熙時，他趕緊
揮揮手說：「（這個問題）
pass！」不是他不想追，而是追
不到啊。

金來沅在《屋塔房小貓》演技
多金痞子男，雖然年紀輕輕才23

【設計對白】
我不記得有
多少人逼過
我了。



—金來沅和金泰熙
合作完《愛在
哈佛》後，成了
新生代演員中的
最佳情侶檔。



歲，卻已經出道8年。他自認
《愛在哈佛》是他目前最用心的
代表作；愛漂亮美眉的他，對於
能和微笑小公主金泰熙合作，一
直流露出很哈的表情：「和她合
作非常好……很開心啊……她很
漂亮，能一起去美國拍戲很開
心，是很不錯的經驗。」說話時
呈現跳針狀態的金來沅，一再重
複說著「非常好、很開心」，
「之前拍戲每天見面，常常回家
作夢還夢到她哩。」金來沅只靜
著咧嘴傻笑，很難不讓人把他跟
發春夢做聯想。

雖然金來沅頻頻示好，金泰熙
卻一直迴避話題。被問到欣賞哪
種男生時，金泰熙甜甜一笑，只
以「個性好、能溝通很重要」簡
單帶過。但有記者直接揪出她的
男友是就讀漢城大學牙醫系的學
生，她頓時眼神閃爍、低著頭、
很尷尬地說：「這個問題太個人
了。」婉拒再答。見意中人有人
難，金來沅自告奮勇：「她的男
友是我啦。」似乎有意搏取對方
歡心。

美女的形象第一，追求者有多
少人也是最高機密。金泰熙在
《天國的階梯》裡把心機重的壞
女人演得入木三分，但回到現實
生活，卻像隻怕被狼吞的「小
羊」，只會羞澀地笑說：「追我的
人不多啦，現在想起來寫情書表
白的不到10個吧……應該是5個
吧……嗯，好像是3個才對。」
真是閃功一流，閃到最高點。

CBW

韓星小檔案

姓名	安在旭	池城	金來沅	金泰熙
生日	1971年10月30日	1977年2月27日	1981年3月19日	1980年3月29日
星座	天蠍座	雙魚座	雙魚座	牡羊座
血型	A型	A型	A型	O型
身高	176cm	178cm	183cm	160cm
體重	61kg	70kg	73kg	48kg
代表作	向日葵、再見我 的愛、必勝奉順英	All in、愛情的 條件、最後之舞	屋塔房小貓、 愛在哈佛	天國的階梯、 愛在哈佛

製表／郭家威 繪表／湯盛宏

潛進!

韓國首爾

韓劇偶像面對面超滿足特集!!



3月8日 下午1點

首爾《必勝!奉順英》記者會現場 出席藝人:安在旭

在緯來戲劇台三月十四日晚上十點開始播出的《必勝!奉順英》裡,安在旭所飾演男主角吳必勝,對他來說,是不同於以往的角色個性,而安在旭本人又是如何去看待的呢?在韓國首爾的《必勝!奉順英》記者會上,超準時出席的安在旭滿臉笑意地說著這個角色:「和自己過去飾演過的角色相比,必勝的個性是較明亮了許多,即使有傷痛,他還是以開朗的態度去面對,我覺得這是他最大的特色。」停頓了兩秒後,安在旭又說:「在韓國播出時,《必勝!奉順英》很受大家的喜愛,但觀眾對必勝最後的抉擇,反應卻是很不同的,有人希望他留在企業裡,也有很多人希望必勝可以回到他原來的生活圈中,總之很謝謝大家的支持。」



一接受拍照時,親切的安在旭應大夥兒的要求,一會兒看左邊,一下子又要看右邊,然後還是要有笑容,再來請他揮揮手、看這裡,最後終於大家都滿意了,安在旭也順勢鼓鼓掌,感謝大家的辛勞。

↑當記者會結束之後,安在旭應攝影師們的要求,到記者會場外的中庭擺出又帥又酷的模式,讓大家拍攝。當場也引起了飯店內的一些日本觀光客圍觀,還“努力”和攝影記者們“卡位”,也想把握機會拍下安在旭的照片。



3月8日 下午3點

首爾《最後之舞》記者會現場 出席藝人:池城



緯來戲劇台預計將於五月底播出《最後之舞》,男女主角分別為池城和柳真;三月八日下午,池城出席了緯來戲劇台特別安排的首爾記者會現場:剛剛換了新髮型的他,表情有些羞澀地問大家:「我的新髮型,好看嗎?大家習慣嗎?」而說到參與《最後之舞》的演出時,池城臉上帶著淺淺笑意地說:「當初導演找我的時候,其實自己還蠻猶豫的,因為戲份太重了;而且自己對於要演一個“失憶”的人,實在沒太大的把握,很怕自己會演不好;不過,最後我還是克服了自己心中的疑慮,努力地投入《最後之舞》的拍攝工作。」既然片名叫做《最後之舞》,那身為男主角的池城是否舞技高超呢?池城滿臉害羞表情地說:「我一直很想學跳舞,也試過去學Hip Hop,但跳舞真的很難,因此要拍攝和女主角共舞的戲時,是我最緊張的時刻:拍完後,自己心想:『應該還不錯吧?!』後來也得到劇組的稱讚,自己才放心來。」



！手裡緊緊握著韓來戲劇台特別從台灣帶到韓國首爾送他的禮物，看來池城很喜歡這份禮物呢！



↑換個姿勢，換個角度，池城被要求再多擺些不同的動作，揮揮手、笑一笑當然是不能少的啦！結果手上的訂情“情侶戒”當然就藏不住囉！



↑在記者會上，害羞的池城總是不時地低頭，被問到感情問題時，還會臉紅呢！真的是個很可愛的大男生呢！

一記者會場內拍完照之後，當然還是得到戶外拍拍美美的照片囉！不過，在記者會上說出手上的戒指是已戴了兩年的情侶戒後，大家的焦點似乎都集中在池城的手上，讓池城似乎有些不知所措地手插口袋，或讓衣袖蓋住手指，盡可能地將戒指藏住。



3月9日 上午

《春日》拍攝現場 預定出席藝人：趙仁成、池珍熙



原本預定在三月九日早上的《春日》拍攝現場訪問，因為該劇拍攝進度嚴重落後而取消了，雖然讓人很失望，不過藝人求好心切，全力投入拍戲的心情可以理解；而將在六月底於韓來戲劇台播出的《春日》，到時觀眾們應該有機會看見男主角親自來台，為這部精彩好看的韓劇《春日》宣傳呢！



3月9日 下午2點

首爾《愛在哈佛》記者會現場 出席藝人：金來沅、金泰熙



韓來戲劇台預計將於八月初播出《愛在哈佛》，男女主角分別為金來沅與金泰熙，在三月九號下午，兩人一起出席了韓國首爾的記者會現場；當天除了台灣媒體之外，會場也湧進了非常多的韓國媒體，場面相當之盛大；對於第一次合作的兩人，金泰熙表示：「我很喜歡《屋塔房小貓》這部戲，可以說是金來沅的Fans，能和他一起合作拍戲很開心，他也幫了我很多，讓我在拍戲方面受益良多。」金來沅接著說：「和金泰熙合作很好、很開心，因為她是個很漂亮的女生啊！不過，為了拍《愛在哈佛》特別到美國去，其實還蠻辛苦的；再加上自己的英文不夠好，背起台詞來，就更累人了，那時我在飯店牆壁上還貼滿了自己的英文台詞，隨時隨地都把握時間拼命地背呢！」



↑面對一大群的台灣和韓國媒體，金來沅與金泰熙兩人的眼神和表情很不一致呢！不過，雖然拍照時默契似乎不足，但記者會上回答問題倒是還蠻有默契的，面對記者追問金泰熙得感情狀況時，或許是兩人在美國建立的良好友情，讓金來沅立刻“挺身而出”，替金泰熙解圍；金來沅還表示，自己雖是基督徒，但已好久沒上教堂了，在美國時受到金泰熙的影響，才又開始上教堂呢！



道。
——在記者會的空檔，金來沅與金泰熙兩人不知在竊竊私語些什麼？答案沒人知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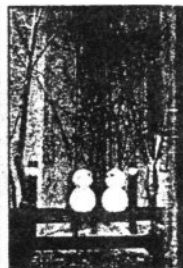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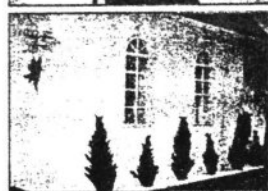
記者會上，剛從健身房運動了三個小時的金來沅，臉上雖然有些疲憊的神情，但整場記者會裡，他始終保持著親切的笑容。

拿著韓來戲劇台特別準備的禮物，金泰熙開心地直說：「好漂亮呢！謝謝！」



3月10日 上午11點 首爾明洞《SIDUS韓流館》

位於首爾明洞，剛成立兩個多月的《SIDUS韓流館》裡面，目前有六個知名韓國戲劇和電影的場景，其中包括了《醜聞》、《冬季戀歌》、《JSA共同警備特區》、《八月的聖誕節》、《Old Boy》、《三更2》；在這裡，不僅可以看見這些戲劇裡的經典場景，還有假扮劇中主角的戲劇系學生，讓參觀者可以身歷其境般地感受到戲劇的魅力；《SIDUS韓流館》總監YUYU表示，他們將會參考日本和台灣觀眾的喜愛，每半年左右更換不同的戲劇場景，現階段正在籌劃中的還有《大長今》與《巴黎戀人》，而《SIDUS韓流館》最大的特色就是，每個場景都可以讓參觀者看到影像、聽到配樂、摸到景物，還可以走入場景中，與「劇中主角」來個直接的接觸。



——《冬季戀歌》裡的雪地，還有男女主角在雪地裡堆的雪人，都可以在這裡讓你輕易地親身經歷。



——由戲劇系學生假扮的《醜聞》男女主角，熱情地歡迎大家參觀韓國傳統的男女臥室，還表演了一段精彩舞蹈以及《醜聞》中裴勇俊的挑逗、勾引戲碼，非常有趣。



——在《冬季戀歌》這個場景中，女孩子可以和假扮裴勇俊的戲劇系學生來個含情脈脈，或是深情對望；如果是男生，館內則準備了另一套戲服，讓裴勇俊「鬧雙包」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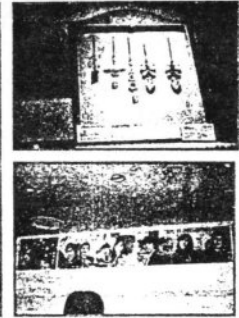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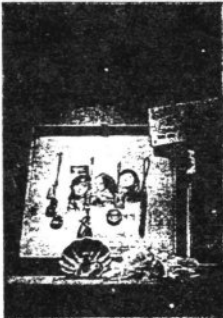
——演出《Old Boy》主角的鄭大鈞，據說是趙仁成的同班同學；他爆發力十足的演技，讓所有人留下非常深刻的記憶。



——演出《JSA共同警備特區》南北韓對峙的兩位戲劇系學生，精彩的演出獲得眾人的鼓掌。卸下表演的角色面具，兩人開心地讓大家拍照，當然參觀者也可以套上他們準備好的戲服，來一段「廝殺」。



↓參觀完《SIDUS韓流館》裡的所有場景，還可以在出口處買一些精美的紀念品喔！





3月10日 下午3點

首爾最高的大樓『六三大樓』58F《寫給父母親的信》記者會現場 出席藝人：金喜愛、許峻豪



◆金喜愛身穿露肩絲質薄洋裝出席記者會，令眾人眼睛一亮，更令大家對她如何保持好身材感到十分好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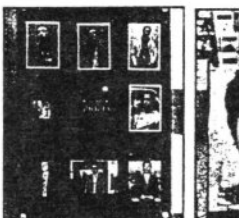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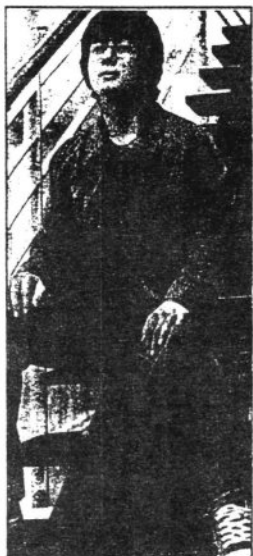
→許峻豪說：「因為我的外表，讓很多人不敢靠近我，不敢跟我說話，結果反而令自己變得很自閉。」

◆記者會一結束，金喜愛立刻穿上外套，準備離開：當天首爾氣溫只有攝氏五度左右。



3月11日 下午1點
地點：首爾明洞

在韓國首爾明洞商店林立，到處都是服飾店、化妝品店、餐廳、小吃店，還有偶像商品專賣店，來這裡逛街，一定能找到你想要的東西；最特別的是，走在街上，隨處可見當紅偶像明星的巨幅海報，裴勇俊、元斌、張東健、崔智友、趙仁成、權相宇、金載沅、寶兒...可能就在某個轉角處吸引著你的目光，就算不會碰到明星本尊，與那些琳瑯滿目的海報面對面，順道採買一些偶像代言商品，也是一趟豐富之旅。



◎ 撰文——小白菜 ◎ 攝影——本刊攝影中心
◎ 圖片——三立電視台·緯來戲劇台提供



最近很火紅的八點檔本土連續劇《台灣龍捲風》收視屢創佳績，劇中女主角不是遭遇一個比一個慘，不然就是一個接一個都懷孕了，而且懷孕的孕婦肚子都大得很慢，還很愛穿高跟鞋，兩百多集下來小孩也沒生出個半個來。

雖然劇中懷孕的女演員都是塞東西扮大肚婆，但是有一個人是真的有孕在身喔，那就是邢宇凌，也就是寫紅《霹靂火》和《龍捲風》的港仔編劇鄭文華的老婆啦！小白菜真的百思不得其解，鄭文華已經官當了那麼大了，老婆要過戲癮就偶爾露臉就好啊，幹嘛懷孕還把她的戲分寫得這麼重，讓她挺著大肚子演戲，這樣肚子裡的千金可是會抗議哩，還是夫妻兩人聯手努力賺小孩的奶粉錢啊，小白菜如果有個這麼會賺錢的編劇老公，絕對會在家當少奶奶，挺著大肚子拍戲，拜託哪這麼歹命。



葉全貞



曾演山電影《實尾島風雲》中硬派角色的韓星許峻豪，自嘲不開的時候，看起來就是一副「壞人臉」，連拍攝新戲《給父母的信》時，與他第一次合作的氣質女星金喜愛，都不敢太靠近他，看著他的臉竟然覺得有些恐懼。

小白菜在韓國親眼見過許峻豪，他長得就像「九孔」與「許龍龍」的綜合體，不說話的時候，看起來眼神可以殺人。不過，據小白菜的了解，這位許先生也是有苦衷的，雖然他長成這樣，的確是無法改變的事實，但是環境的影響才是讓他看起來這兇門狠的主要因素。

話說他的老爸是韓國知名演員許長江，因為是演員之後，小時候的許峻豪過得很富裕，可沒想到父親後來突然過世，讓他的人生陷入低潮，剛出這時打架、抽菸模樣來，所以大家看到他都很恐懼，從此種下了「壞人」的印象。不過，現在的許峻豪可沒丟父親的臉，他現在是韓國倍受尊重的實力派演員，連金喜愛都說他是「韓國西恩浩」。

所以，別再說許峻豪看起來可怕，因為他的內心可是很脆弱的，而且別看他總喜歡在大銀幕上耍狠，私底下的他可是女兒的大玩偶，很溫柔呢！

■右圖：安在旭與蔡琳再次合作的《必勝！奉順英》，讓他重回韓流天王寶座。
 ■左上：安在旭（左二）堪稱是「韓流始祖」。
 ■左下：車太鉉是安在旭的「酒友」。



安在旭

生日：1971年10月30日
 星座：天蠍
 身高體重：176公分／61公斤
 緋聞女友：金喜善、宋允兒
 廣告片酬：七億韓幣
 戀情指數：0%
 演藝：影視歌三棲，代表作有《星星在我心》、《白領公寓》、電影《天空度假》

韓國 國美型男，你喜歡哪一個？是熟女殺手安在旭，深情貴公子池城，帥氣痞子金來沅，長腿酷哥趙仁成，還是正派老實男池珍熙？巧的是，他們在今年都將推出不同的新戲，在台灣螢光幕廝殺，而本刊記者也特地走訪韓國，蒐羅這五位美型男的拍戲近況與情感世界大揭秘。

曾演出《星星在我心》《向日葵》等韓劇的安在旭，堪稱是走紅兩地三地的

安在旭 緋聞頻傳 圈內人免談

問安在旭會不會受到蔡琳的刺激，也想結婚了？他說：「如果這樣就真刺激，那我早就結婚了！」

話說安在旭當年曾與宋允兒論及婚嫁，但後來又閃電分手，整個過程相當「戲劇化」，這樣的情傷讓安在旭後來雖然曾與金喜善、張真英傳出緋聞，但他都表示，「不想與藝人交往！」問他目前有沒有理想對象？他都只是含糊地說：「最後能與我結婚的就是真愛，只可惜還沒遇到命中注定的另一半。」

已經卅四歲的安在旭，過三關然總是演痞子或騙子，但其實他內心一直很渴望家庭生活，他說，他是個愛家的男人，很想安定下來，當當奶爸或孩子

買醉酒友車太鉉

「韓流始祖」不過這幾年，因為主演的《仙女與騙子》《天生緣分》收視率不佳，所以引來「過氣」的說法。直到他與蔡琳再度攜手合作新戲《必勝！奉順英》，去年九月在韓國上映收視率逼近卅%，甚至超越當紅的《巴黎戀人》，才讓他重回「韓流天王」的寶座。

《必勝！奉順英》是安在旭與蔡琳繼七年前《情侶》後再度合作，當時兩人在戲裡還是表哥、表妹的身分，現實生活裡的蔡琳也不過是個高中生。沒想到，七年後再次同台，蔡琳已經嫁給了大她十四歲的歌手李承煥，讓目前仍是光棍的安在旭，還得叫她一聲「嫂子」！

池城 定情戒在手 認了朴率美

模特兒出身的池城，簡直是「韓國版的黎明」，曾演活了《ALL IN》裡的企業家小開，一度成為韓國媒體眼中「最紅的配角」。但是這兩年來，池城逐漸走出自己的風格，不但挑大樑主演《愛情的條件》，也在新戲《最後之舞》中飾演失憶男子，與柳真談了一場超浪漫戀愛，還因此被封為「最登對的銀幕情侶」。

不過，池城就有一個認真交往的圈內女友，那就是與他一起拍《ALL IN》的朴率美。話說兩人在拍戲期間，光是一場吻戲，就NG了九次，讓現場工作

三，只是還沒遇到讓他心動的对象。

孤家寡人的安在旭，如果沒拍戲，最怕一個人消磨無聊時光，所以常常呼朋引伴一起喝酒吃飯，像車太鉉就是他的「酒友」，兩人可以連續喝十來杯燒酒都不醉。

最近韓國V K手機以七億韓元的天價邀請安在旭代言，讓他成為「看起來最能征服女人的熟女殺手」，廣告中穿著緊身黑衣的安在旭，看起來性感迷人，而他也坦承，自己最滿意的就是一「翹臀」，不過如果要他拍全裸寫真，他可辦不到，直說：「開什麼玩笑！」

■金來沅樂意當金泰熙的護花使者。



金來沅

生日 1981年3月19日
星座 雙魚座
身高體重 183公分/72公斤
排演女友 金泰熙
廣告片酬 四億韓幣
戀情指數 50%
演藝 《紅豆女之戀》《雪人》《屋塔房小貓》等劇

■池城坦承戀情，大方秀出右手的定情戒。



池城

生日 1977年2月27日
星座 雙魚座
身高體重 178公分/70公斤
排演女友 朴率美
廣告片酬 三億韓幣
戀情指數 100%
演藝 以《All In》獲SBS電視台2001年演技大賞新人獎，作品有《獵陽》《王之女》等



池城在《最後之舞》中與柳真談浪漫戀愛。



了《All In》造訪台。

人員都懷疑他們是不是故意的。

記得池城兩年前來台宣傳時，還直說自己沒有女朋友，後來回到韓國，也絕口不肯承認戀情，但萬萬沒想到，他在日前台灣媒體的訪談記者會上，戴在右手無名指的定情戒，讓感情事露了餡。

奉子成婚不可能

許久沒看到池城，最大的改變是他換了髮型，看起來頗像「奶油版李秉憲」，不過最讓人好奇的，還是他手上的戒指，原以為池城會避而不答，沒想到他不但大方承認，還說：「這裡頭有她的靈魂。」

深情的告白讓人感動，後來媒體追問他女友的身分，池城雖然沒有說出一「朴率美」的名字，但卻意有所指地表示，「就是大家知道的那一個。」他還說，因為兩人都忙著拍戲，沒有時間約會，所以他還會親手寫情書遙寄思念。

眼見池城如此坦率，大家也很好奇他沒有結婚的打算，池城說：「現在能確定的就是兩人彼此相愛，結婚的事還沒討論到。」而記者問他會不會「奉子成婚」，池城更是羞紅了臉，直說：「家裡還有長輩，還是照規矩來吧！」

長相俊帥的池城，目前在台的人氣紅不讓，《愛情的條件》目前在台播映，緯來也將於五月播出他的新戲《最後之舞》，而且池城主演的電影《血之淚》，據說也將在四月於韓國上映，讓池城儼然成為新一代的少女殺手。

金來沅

新戲來電 煞到金泰熙

台灣觀眾對金來沅應該很熟悉，因為他有許多作品在台灣播映，像是《順風婦產科》《紅豆女之戀》，不過最讓大家印象深刻的，應該是他曾在《屋塔房小貓》中飾演的帥氣痞子男，那種看起來陽光、卻又玩世不恭的形象，讓他在台灣、韓國都大受歡迎，也讓金來沅走出過三陰樹陽剛的角色個性，成功轉型。

不過，笑起來迷人的金來沅，這次在新戲《愛在哈佛》裡，卻搖身一變成了事情書呆子，飾演哈佛法律系的高材生，與最近快速竄紅的金泰熙，有一場讓人出乎意料的「惡作劇之吻」。

大方示愛不避嫌

金泰熙曾在《天國的階梯》中飾演顧人怨的超級惡女，但這次在《愛》片中卻是個為愛付出的好女孩，燦爛溫暖的笑容讓她不僅打敗李英愛，受封為「南韓第一美女」，一雙電眼更是韓國女孩整型的範本。

面對如此漂亮的大美女，向來是緋聞不沾鍋的金來沅，也忍不住跳出來當護花使者，不但向媒體表示很喜歡金泰熙，還說拍戲時連作夢都會夢到她。就連為戲宣傳的記者會上，金泰熙被問到

趙仁成已將是
韓國的廣告小
天王



長腿酷哥趙仁成

生日：1981年7月28日
星：獅子座
身高體重：186公分/71公斤
緋聞女友：全度妍
廣告片酬：近五億韓幣
戀情指數：30%
演：《男生女生向前衝》《射星》《客里島日子》等

池珍熙在台將播
有廣大影迷

帥奶殺手池珍熙

生日：1973年6月24日
星：巨蟹座
身高體重：178公分/71公斤
緋聞女友：2004年11月與李秀妍結婚
廣告片酬：四億韓幣
戀情指數：100%
演：《四姊妹》《一百萬新娘》《大長今》等



在《春日》中，趙仁成（左）與池珍熙（右）互掐高賢貞



性向成謎

趙仁成

甜蜜新婚

池珍熙

以《射星》《客里島日子》竄紅的趙仁成，還有以《大長今》閨大人征服影迷的池珍熙，最近因為合作演出新戲《春日》，再度掀起話題。

他們都是目前韓國的當紅藝人，其中趙仁成自演出《客里島日子》後，片酬三級跳，還成為進軍日本廣告界的韓流小天王，這次與池珍熙攜手飾演兄弟，還因此愛上失蹤多年的姊妹高賢貞，光是衝突的劇情就很吸引人。

是否有一位醫學系男友時，金來沅也不斷讓罵，直說：「她的男友其實是我啦！」完全展現紳士風範。

在韓國，金來沅擁有不少支持者，但是前陣子卻因為受到瘋狂影迷的騷擾，不止跟蹤他，還潛入他家翻垃圾筒，並且還拍照公布在網上，讓金來沅想到就害怕，被迫搬家。

而原本傳出今年當兵的金來沅，目前事業如日中天，所以決定把兵役時間順延到二〇〇七年，而他的新戲《愛在哈佛》最快八月會在台灣播出，他承諾一定會來台會影迷，順便回味一下釣蝦的滋味。

而這幾位主角本身也是話題不斷，女主角高賢貞二〇〇三年底與三星集團小開鄭榮進離婚；池珍熙則是剛與愛情長跑六年的廣告公司女友李秀妍結婚；至於性向一度啟人疑竇的趙仁成，則傳聞交了一個同校的女友。

巨蟹座池珍熙很享受目前的婚姻生活，他說，他非常喜歡做家事，像打掃、煮飯完全難不倒他，而且他超喜歡與婆婆媽媽聊天，也難怪他會獲得新一代「帥奶殺手」的封號。

而趙仁成之前拍《射星》時，曾與大他八歲的全度妍傳出姊弟戀，後來拍攝《春日》的消息曝光，韓國媒體一度傳聞他又愛上一大姊姊——高賢貞，後來發現那不過是劇情而已。因為趙仁成深受同志歡迎，又一直沒有戀情傳出，所以他的性向才會被懷疑，甚至認為傳聞中的「大學女友」只是個煙霧彈。

由於強檔戲劇《春日》十三日才在南韓播出完結篇，為了確保卅%的高收視率，包括趙仁成、池珍熙等主角都連著好幾天熬夜拍戲，精神壓力大到無法放鬆，連原本要接受台灣媒體採訪的行程，也被迫取消。

不過，影迷們也別太難過，因為《春日》預定要在暑假隆重上映，所以屆時兩大主角都會訪台。而「閨大人」池珍熙則是按耐不住影迷的呼喚，四月十日就會來台灣參加影友會，短短一年不到，這已經是池珍熙第三度訪問台灣。

版面構成：李昭華 責任編輯：陳建豐

해외 TV 취재지원 초청사업 실적보고

〈 중국대학 기자단 〉

해외 TV 취재지원 초청사업

<중국대학 기자단> 실적보고

1. 행사제목

해외 TV 취재지원 초청사업, <중국 대학기자단 한국문화 취재 지원>

2. 일시

2005년 7월 25일 ~ 2005년 7월 29일 (4박 5일)

3. 취지

가. 중국 내 한류 문화 소비주체인 대학생들의 한국 취재를 통한 한국문화이해도 제고

나. 중국 언론의 동행 취재를 통한 한국문화 현지 노출 유도

다. 韓-中 젊은 세대들의 서로에 대한 문화인식 공유와 교류 증진 방안 모색 유도

4. 인원 : 총 35명

구분	성명	성별	소속	비고
1	XU YUN PING	남	인민일보	주임편집, 주임기자
2	CHENG XIAO MEI	여	CCTV	해외중심편집
3	XUE ZHEN KAI	여	CCTV	해외중심기자
4	GONG HAN ZHOU	남	CETV	35채널, 동행성장 편집
5	WEI WEI	남	CETV	35채널, 동행성장 카메라
6	ZHANG YU	남	B-TV	<제7일>프로그램기자, 편집
7	LAN JING WEI	남	B-TV	카메라 기자
8	HOU YAN SHE	남	광명일보	특약기자
9	CHEN YU SHENG	남	<중국청년> 잡지사	기자
10	YANG DE ZHI	남	중국청년 신문사	기자
11	ZHAN YAN HUI	남	북경청년 신문사	기자
12	GAO LI SA	여	대학생 잡지사	기자
사회매체 기자 12명				
13	FU YAN NAN	여	북경대학 <북대청년>보	집행편집, 03신문학과
14	HE NAN	남	청화대학 <자형>보	사장, 04 공공관리학과
15	FENG MI	남	북경사범대학 학생회	부주석, 02인사관리학과
16	YU XIAN	여	북단대학 <풍경선>	기자, 02행정관리학과
17	WANG YUE YING	여	무한대학 <로가청년보>	사장 및 편집, 03신문학과
18	SHANG WEN BO	여	길림대학 <길대청년보>	기자팀책임, 03신문학과
19	ZHANG BO HUA	여	중경대학 <중경청년보>	책임편집, 03중문학과
20	YANG JUN JI	남	인민대학 <중문학간>	사장 및 편집, 01중문학과
21	YUAN LEI	남	<청년 인대>	부총편집, 02영어학과
22	LIU YU XIANG	남	신문주간	카메라기자, 03광전학과
23	XU ZE LING	여	중국인민대학학생회	기자
24	HE JIA	여	상해전영예술학원	인터넷중심편집, 04만화학과
대학기자 12명				

25	GAO XIANG YANG	남	2008년북경올림픽OGGI과제조	비서장
26	DAI PENG	남	중국인민대학	단위서기
27	LI HUI	여	중국인민대학	국제교류처
28	SHI GUANG ZHAI	남	2008년북경올림픽OGGI과제조	부비서장
29	ZHENG PIN SHI	남	인문올림픽연구중심	연구원
30	WANG XIAO HU	남	중국청년지원행동 및 배양중심	책임자
31	LI MIN TAI	남	북경인민대학 당대연구중심	교수
32	CAI LONG NAN	남		통역
33	YANG XUE	남	북경 외국어 대학	통역
34	YAN WEN	남	북경세종문화교류중심	전일정 가이드
북경인문올림픽 준비단 11명				

5. 일정

- 가. 7월25일 - 한류관련 강의(서강대 이은숙 교수) 및 좌담회(환영만찬)
- 나. 7월26일 - 양주 대장금 세트장, 통일각, 파주 출판단지, KINTEX
- 다. 7월27일 -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중앙협의회, 국회, KBS 드라마 세트장,
문광부 배종신 차관 인터뷰, 정통부 유비쿼터스관, 난타 관람
- 라. 7월28일 - 고려대학교, 올림픽 기념관, 밀리오레
- 마. 7월29일 - 경복궁

6. 기사개요

가. 기간

- 2005. 7. 25-29. 서울에서 5일 동안 참관, 방문.

나. 초청

- 한국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다. 구성

- 8개 주요 언론사 기자, 9개 명문 대학 학보사 기자, 3개 올림픽 및 청년 자원봉사 연구 기구의 전문가들로 구성.

라. 목적

- '한류'와 한국 문화 산업의 발전 상황, 문화 전략, 한중 청년 발전 및 교육 협력,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이 한국에 미친 전반적인 영향 등에 대해 연구.

7. 관련 사진



8. 보도 실적

- 총 32편 (제목/이름(소속)/발표 매체/글자수or시간)
(사진 기사 15편, 기사 17편)

1) 2005 중국 청년 '한류' 문화기자단 한국 방문(사진) - 총6건

- 张宇(장위)기자, 중국문화투자와 시장넷 05-08-09

대장금 테마 파크, 국회의사당 앞, 문화관광부, 고려대학 등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고, 사진 아래에 간단한 설명을 달고 있다.

2) 중국 청년 '한류' 문화기자단 방한 사진 - 총 8건

- 徐运平(쉬원평), 인민넷, 05-08-15

사진과 설명 앞에 보도 기사 있음. 문화기자단의 방한 사실과 한국 내에서의 활동, 구성원에 대한 기사. 한국 방문의 회고와 성취, 주취에 대한 언급도 있음. 이번 활동은 한중 양국 청년의 소통과 이해를 깊게 했고, 양국의 우호적인 왕래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음. 이번 교류 활동은 중국 인민대학과 한국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이 공동 주관했음.

3) 중국 대학생들, 한국에 가서 '한류'를 고찰하다

- 章炎辉(장옌후이), 북경청년보, 400자

초청 주취, 방한 인원, 활동 내역에 대한 간략한 소개.

'한류'와 '올림픽' 문화 등의 화제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

한류 문화가 아시아를 휩쓸면서 문화 산업은 이미 한국의 큰 지주산업이 되었고, 한국은 이를 위해 <문화 산업 진흥 기본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영화와 드라마, 온라인 게임을 주축으로 하는 문화 산업을 크게 발전시키고 있음.

2010년에는 한국이 세계 5대 문화산업 수출 강국 중 하나가 되는 게 목표라고 함.

4) 한국 방문 소감

- 张宇(장위), 북경TV), 1610자

한국은 가까운 이웃이라는 생각함. 이번 방문을 통해 지난 10년 동안, 한국은 경제만 발전한 것

이 아니라, 정치, 문화, 영화, TV, 대중오락, 체육 등 각 분야에서 빠른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게 됨.

길거리에는 어디에서나 '신토불이'라는 글을 볼 수 있었음. 일상생활에서도 한국인들은 '내 고향'이란 강한 의식을 가짐.

예를 들면, 도로에 운행 중인 차들은 대부분 한국 자동차였고, 가전제품이나 가구, 옷, 음식 등의 모든 제품들의 대부분은 한국산임. 아주 좋은 느낌 받았음. 민족 자긍심이 대단한 것 같음.

한-중 교류의 역사성을 이야기함. 앞으로도 한-중 문화가 더욱 찬란한 문화로 발전되길 바라며, 한중 우의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적음.

5) 한국 방문 인상

- 陈小梅(천샤오메이), 薛振镔(쉬에쩐카이), 중앙TV, 1800자

짧은 방문 일정이었지만, 아름답고도 깊은 인상을 남겼음.

(인상1)

한국인의 애국심에 감동받음. 어딜 가든 한국 자동차가 보임. 외제차가 많은지를 유심히 관찰하였음. 결과적으로 5일 동안 주차장에서 단 한 대를 본 것이 전부임. 평화 통일에 대한 염원이 무척 강함. 가이드나 해설요원들도 남북통일에 대한 바람이 한결 같음. 진심으로 통일을 바라고 있음.

(인상2)

한국 청년들의 진취적인 사고방식과 태도에 매우 감동 받음. 예전에 가지고 있던 한국 청년에 대한 이미지는 좋지 않았음.

예전의 한국 젊은이들의 이미지는 염색한 머리에 짧은 치마, 굽이 높은 구두, 현란한 액세서리 착용 등이었다. 그러나 직접 한국에 와보니 그런 사람은 드물었음. 학생들은 T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소박한 모습이었고, 열심히 공부하며 진취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음.

취재 일정동안 만난 젊은이들은 모두 예의바르고 직업정신이 투철하였으며 성실했음. 3시간 정도의 태권도 훈련을 받고 보니 한국인의 이런 예의바른 정서는 어렸을 때부터 배운 태권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체화시켰음을 느낌.

(인상3)

한국이 추진하는 일은 뭐든지 세계 최고가 된다는 것.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한국의 기백은 거대함.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의 역량이 뛰어남. '세계 문화 강국'의 대열에 합류함. 한국의 문화는 강력한 '한류'를 바탕으로 전 세계를 석권함.

(인상4)

절약 정신이 투철함. 두 종류의 사건에서 절약정신을 느낌.

첫째, 호텔. 낡은 건물과 구식의 디자인을 지녔으나,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함을 느낌.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중앙냉방이 자동으로 절전됨. 에너지 절약을 느낌.

둘째,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 식당에 가보면, 나오는 음식의 양이 적음. 그 대신 종류는 다양함.

이렇게 먹으면 음식물 쓰레기도 별로 안 나올 것이고, 남은 음식을 집에 싸갖고 갈 필요도 없어 짐. 중국의 음식 낭비에 대해 되돌아 봄. 한국의 절약 정신을 배움.

6) 한중 문화 교류의 사신이 되자

(중국 인민대학 '올림픽, 문화' 교류단의 여름방학기간 한국 방문에 관한 현장 기록)

- 侯衍社(허우옌셔), 중국인민대학 학보, 3100자

방문 기간 및 행사 주최, 구성원, 방문 일정 등을 적음. 방문 순서별로 사실 기록.

재단의 꼼꼼하고 빈틈없는 준비와 융숭한 접대를 받았다고 언급.

취재단은 한국의 광범위한 문화산업 관련 기관들을 만남으로써 학술 연구, 문화 교류, 교육 협력 등에 있어서 합작 의향을 교환함.

특히, 서강대 이은숙 교수의 학술 보고가 끝난 후, 리민타이 박사와 함께 서강대학 학생처 책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인민대학 학생신문사와 서강대학 학보 및 학생 잡지와와의 교류에 대하여 기본적인 합작 방향을 잡음. 고려대학과의 교류문제도 마찬가지로임.

이번 교류 활동은 짧은 시간임에도 내용이 충실했고, 본인의 시야를 넓혀 주었음. 또한 한-중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더 깊게 하는 등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함.

서강대학, 고려대학과의 합작으로 학보와 학생 잡지를 정기적으로 서로 교환하기로 함. 장래에 각 교의 학생기자를 상대 학교에 파견, 학생간의 직접적인 교류와 연락을 강화하기로 함.

7) '한류' 수수께끼

- 陈玉胜(천위성), 중국청년잡지, 1770자

다음 세 가지 일이 가장 기억에 남음.

첫째, 한국인이 말하는 '한류'.

'한류'는 중국 축구에 대한 비웃음에 불과하다고 생각함.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만 만나면 어김없이 지는 중국 축구팀의 '공한증(恐韓症: 한국을 무서워하는 병)'만 떠올림. 이번 서강대 이교수의 강의를 듣고 나서 많은 것을 깨달음. 한류에는 풍부한 내용이 있음. 한국인들의 '한류'에 대한 태도가 중국인들의 태도와 많이 다름. 이교수의 '한류' 설명에는 자부심과 기대가 충만함. 이런 자신감과 자부심은 중국이 배워야 할 점.

'한류'는 마치 전면적으로 돌격하는 군대와 같음. 드라마, 영화에서부터 자동차, 미용까지 전방위적으로 아시아를 집어삼키고, 세계를 집어삼킬 태세임. 그러나 중국인들 눈에 보이는 '한류'란 문화라는 큰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작은 접시 정도임. 그러나 한국인들 눈에는 '한류'가 이미 국제사회의 큰 테이블이 되었음.

그 후에 방문한 출판 단지와 KINTEX

한국 문화 상품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판매. 또한 전 세계의 최고 제품과 기술을 갖고 와서 민족의 경제 발전을 촉진함. 한국인들은 자신들을 작은 토끼로 비유하고 중국을 호랑이로 비유하지만, 실제 상황은 오히려 한국이 포효하는 호랑이며, 사방으로 뿔어나가고 있으며 무엇이든지 소화해낼 능력이 있어 보임.

둘째, 겸손하고 친근한 국회의원.

국회의사당에서 만난 '정청래' 의원은 무척이나 겸손하고 친절함. 한국인은 예의를 중시함을 깨달음. 한여름에도 양복 정장을 갖춰 입음. 기자단 한명 한명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며 다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탈권위를 잘 보여준 사례임.

오찬 도중 젊은 여기자 한 명이, 나이도 어리고 해서 의원님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일어나서 질문을 드린다고 했을 때, 정 의원도 바로 일어나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듣고 대답하는 모습이 인상적임. 정 의원은 "나이가 따지면 내가 오빠뻔 된다. 형제지간에 격식을 차리지 말고 그냥 편하게 대화하자."는 언급을 하였는데 굉장히 큰 감명을 받음. 이는 연출된 상황이 아니며, 진심에서 우러난 행동이었음. 이런 행동들은 서민과 정치인을 융화할수 있는 장점임. 사람들에게 친근감과 신뢰감을 주기에 충분함.

셋째, 태권도에서 배운 점.

태권도 체험은 매우 재미있었음. 반나절 훈련으로는 태권도의 참맛을 알수 없으나 깨달은 바가 많았음. 한국인들의 강렬한 승부 근성과 자긍심의 근원을 알게됨. 한국인들의 본성중에 뽑내는 성질과 겸손해 하는 성질이 공존할수 있는 이유를 파악함. 태권도를 통해 한국인의 인내와 예의, 상대에 대한 존중,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힘을 알게 됨.

오늘날의 우리를 돌아보며 부끄러움을 느꼈고, 많이 반성하게 되었음.

8) 한국 인상

- 王肇輝(왕자오웨이),高麗峯(까오리싸), 대학생잡지사, 2840자

그 전의 한국에 대한 인상. 88올림픽, 노래 '손에 손잡고', 김치, 불고기, 태권도, 중국 전역을 달군 <엽기적인 그녀> 등. 물론 한국 문화는 중국인들의 생활에 깊숙이 침투했음을 인정.

한국 음식에서 느낀 한국. 음식에 꽤 신경을 씀. 종종 재료를 찌거나 차갑게 해서 먹음. 중국처럼 기름에 볶는 음식이 적음. 비만이 적고 장수 노인이 많음. 한국 음식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고추와 마늘'. 김치, 고추장, 반찬, 샤브샤브 등 대부분의 음식에는 고추와 마늘이 들어 있음.

대학 방문에서 느낀 인상.

서강대학은 학교가 간결하고 깔끔하며 아름다움. 학보 편집부와의 대화를 소개함. 한국 대학생들의 입맛에 맞는 학보를 제작함. 학보에는 정치, 생활, 공부, 사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며 이들의 기사는 심도 있음.

고려대학은 석조 건축물의 웅장함과 멋을 풍기는 캠퍼스를 지녔음. 2005년이 개교 100주년이 되는 때여서 교내 안팎으로 축제 분위기가 물씬 풍김. 중국어 도서관 방문 소감 및 학보사와의 좌담회 얘기를 함.

곳곳에서 나타나는 문화 전략. '대장금 테마 파크'와 파주 출판 단지를 보고 느낀 소감. '한류'의 세계화로 문화의 브랜드 효과를 강조함. 드라마 촬영장을 관광지로 개발하여 경제적 문화적 이익 효과를 극대화 함. 파주 출판 단지는 출판 인쇄의 집결지임. 17년간의 시간을 들여 건설함.

단지 중심부에는 갈대천이 흘러 환경오염을 예방함. 이상적인 자원 활용방법임.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추진위원회 활동 소개.

2008년 북경올림픽 행사를 앞두고 있는 이때, 한중 청년들의 교류로 얻게 된 정보가 중국 시민 문화 건설에 도움 되기를 바람.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

재단과 인민대학의 이번 교류행사에 또 한번 감사함. 청년 교류로 우리가 더 성장하고 발전. 청년은 나라의 희망이며 태양. 이런 형식의 활동이 국가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9) 한국 국민들에게 경의를 표함

- 杨得志(양더즈), 중국청년보, 1600자

통일전망대에서 재단 인사의 "한국 국민은 일본침략자에 대한 원한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는 말과 정청래 의원의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임시정부는 중국 정부의 도움으로 살아남았다, 한국 국민들은 중국 인민들의 도움에 대해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이 자주 떠오름. 한국 국민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남.

한국은 '사랑'을 알고 '원한'을 아는 민족이며, '역사'를 존중하며 강력한 응집력을 지닌 민족. IMF 때 나라를 구하고자 손에 낀 금반지며 머리에 꽂은 금비녀까지 들고 나왔던 한국인들의 애국심에 놀라고 감격함. 일본의 침략 역사에 대한 강경한 태도에서 또 감동. 일본 우익 세력에 한국 민중들이 집단적으로 항의 시위를 벌일 때, 한국 민중이 일본을 몰아내고 '독도'에 올라섰을 때, 일본대사관 앞에서 손가락을 절단함으로써 뜻을 나타내 보였을 때 한국인이 존경스러웠고 부러웠음. 2002년 월드컵 때 제주도에 갔었는데, 그때 들었던 "대한민국! 대한민국!"하던 함성 소리가 인상 깊었음.

이번 서울행에서 한국자동차를 보면서 느낀 소감.

음식 이야기. 한국의 음식은 소박하고 낭비가 없는 것이 특징임.

한국 국민들이 조직한 친일 역사 조사위원회가 몇 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3090명의 '친일파' 명단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들었음. 이로 인해 한국 국민에 대한 존경심이 더해졌음. '원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 인상적임. 일본의 침략 역사에 대한 강경한 태도, 남북통일에 대한 뜨거운 갈망과 실제 행동, 선진 기술을 도입하고 민족 공업을 발전시키는 전략적 방법, 자유 민주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하고 탐색, 강렬한 민족정신과 응집력 등등. 이 모든 것을 잘 배워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함.

10) 고려대학 교정을 거닐다

- 李惠(리혜이, 인민대학 국제교류처), 중국 인민대학, 1500자

고려대학 방문. 건물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묘사. 100년의 역사 소개. 새로 짓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도 언급. 학교의 전통, 조화, 세계 일류 대학의 품격 등등 극찬.

1905년에 건립된 고려대학은 민족 자본으로 세운 대학이며, 그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은 돌로 지음. 마치 오래된 성처럼 보임. 시대를 달리하여 건물들이 들어섰지만 캠퍼스 전체가 조화를 이루며 독특한 전경을 자랑함. 새로 지은 최첨단 건물도 마찬가지로 석조건물임. 학교 전체가 하나의 이미지. 교정의 울창한 나무들과 회백색의 웅장한 건물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돈다고 함. 무척이나 조화롭고 아름답음.

11) 여름향기(나의 한국 여행 기록)

- 余弦(위시엔)(복단대학), 잡지 풍경선, 3480자

'한국' 하면 떠오르던 단어. 성형수술, 한국 드라마, 한국 요리, 의상, 38선, 축구 등.

'한국 드라마'.

난 한국 드라마 광은 아니었지만, 중국에서 내가 본 드라마만 해도 <겨울연가>, <아름다운 인생>, <파리의 연인>, <여름향기> 등으로 적은 편이 아님.

서강대학에서 '한국 드라마'와 '한류'에 관한 강의 들음. 한국 드라마의 요즘 추세는 여성 독립과 해방을 다루는데 이런 드라마가 점점 인기를 끈다는 것을 소개. 현실 생활에서는 남녀평등이 실현되려면 아직 멀었지만, 드라마에서 오히려 강한 희망을 보여줌. 대표작으로는 <내 이름은 김삼순>과 <대장금>이 있음.

토론할 때 나는 "도대체 수출하고 싶은 것이 어떤 문화관 또는 가치관이나?"고 물었지만 교수는 이 물음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하지 않음. 필자의 관점은 '한국 드라마'가 이렇게까지 성공할지 몰랐다는 반응임. 이런 상황이라면 모든 한국 드라마가 핵심적인 가치관을 펼치기 어려움. 그래서 대답하기 어려웠을 것임.

대한민국. 월드컵 때 "대~~한민국!" 구호를 외치며 이 조그마한 땅에서 이런 애국 청년들을 많이 길러냈다는 것이 경이적임. 한국인의 애국심과 응집력은 '위기 상황 하'의 응집력이라 이해함. '한국의 위기'는 '지리적 조건'뿐만 아니라 주변의 대국들인 '중국', 일촉즉발의 전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북한', 신용을 안 지키는 경제 강국 '일본' 같은 나라들 때문에 생겼을 것임.

올림픽과 월드컵을 계기로 한국인의 질서 의식과 청결 의식이 자리 잡음. 즉, 한국인의 도덕 소양은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음. 상점과 지하철의 에스컬레이터에서 모든 사람들이 오른 쪽에 서 있는 것을 목격함. 이는 급한 일이 있는 사람들이 왼쪽으로 빠르게 지나가도록 자발적으로 배려한 것임. 공공장소에선 크게 소리 지르는 사람을 볼 수 없음. 줄을 설 때, 새치기하는 모습도 못 봤음. 이것이 바로 민족 단결의 역량임. 중국의 현재 모습 설명하며 비판함.

먹고 마시고 놀기. 한국 의상은 TV에서 봤던 것처럼 디자인과 색깔이 무척 다양하고 원단 재질이 우수했음. 그러나 가격은 비싼 편. 그 밖에 액세서리, 가방, 신발등은 다 예뻐. 명동엔 없는 물건이 없음. 화장품을 좋아하는 여학생들이 명동에 가는 것은 물 만난 고기와 같음. 브랜드도 다양하고 물건의 가격도 중국보다 싼 편임. '한국 드라마' 광들은 연예인 사진집을 자주 구매함. 며칠 간의 취재경험으로 판단하건데,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자배우는 '배용준'과 '권상우' 같음.

음식은 양 적고 기름 적다. 건강에 좋을 듯. 삼계탕 소개. 극찬.

<난타> 공연 관람에 대해 소개. 아주 유쾌하고 역동적인 공연임.

12) 김치와 한국 드라마의 배후(2005 중국 청년 '한류' 문화기자단 방한 인터뷰 이후의 사색)

- 袁磊(위엔레이), 청년인대, 9670자

김치.

한국 방문은 준비가 철저했고 방문 일정 역시 실속있음.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부터 한국 분위기 물씬 풍김. 한국식 기내식과 한국어, 한국 신문 등을 관찰함. 한국 방문 보름 전, 모든 일정이 상세하게 확정되었음. 매 끼마다 먹는 식사 시간, 장소, 메뉴까지 다 정해져 있었음. 비빔밥, 회, 삼계탕 등. 매 끼니마다 다른 요리를 먹었지만, 5일 동안 한 끼도 빠짐없이 먹은 것은 김치였음. 백김치, 오이김치 등 김치종류도 다양함. 거기에 비해 고기 요리는 종류도 적은 편이고 그 양도 적었음. 하지만 이런 식사가 건강에 좋음.

김치의 배후.

2명의 가이드한테서 김치에 관한 오래된 역사에 대해서 들음. 대한민국 건립보다 더 오래된 역사 등등. 김치의 역사와 맞물린 한국 역사 언급. 주변 강대국의 지배와 침략을 받아왔던 고난의 역사. 하지만 정부와 민간 모두 전통 문화의 계승을 중시. 분단된 남북도 언어와 음식 등 생활습관은 같음. 남북 분단과 전쟁 얘기. 통일전망대 방문 후 한국 국민들이 평화를 사랑한다는 것을 절절히 느낄 수 있었음. 길거리 곳곳에서 군인들을 자주 봄. 변화한 도시 배후에 숨어 있는 전쟁의 위험과 전쟁 대비를 느낌.

태권도 체험 얘기.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될 때까지 40년의 노력을 들임. 중국 우슈가 아직은 정식 종목이 안 되고 있지만, 한국이 노력한 것처럼 중국도 장기적으로 보고 노력을 계속해야 함.

한국 드라마 및 '한류', 서강대학 강의 소개.

연도별 한국 문화 수출액 비교 등 자세한 언급. 특히 <대장금>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 이전의 한국 드라마가 식상한 내용, 일관된 결과만을 만들어 호응이 좋지 않았으나 빠른 템포와 여성 영웅의 이야기로 인기를 끄. 예전 드라마는 남성 위주. 드라마로 인한 對日 관광 수입. 드라마 촬영장의 관광지화. 한국인들은 한국 드라마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관광 산업으로 연계하여 상품화에 성공. 이태원 호텔 근처의 '한류' 기념품 가게 등. 한국은 다른 문화를 흡수한 후 전통 문화와 결합해서 독특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 한국 드라마의 배후. 한국 드라마 외에도 한국 특색의 공연, 태권도, 온라인 게임 등 전방위적인 문화산업을 발전시킴.

정청래 국회의원의 "게임 산업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전망"에 관한 인터뷰.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게임 산업. 일본을 앞서나가기 위한 돌파구로서의 게임 산업. 한국 IT 산업 소개. 인터넷 사용자수가 70% 넘는 한국의 상황 소개. 게임 산업의 상업적 효과 등에 대한 내용.

한국 출판업의 발전과 파주 출판 단지 소개 및 명동 밀리오레 방문.

명동은 쇼핑의 천국. 밀리오레의 경영이념과 경영방침에 대해 칭찬. 밀리오레 제품의 70%가 중국산. 그 중 의류는 90%가 중국산. 중국 국내 쇼핑센터의 문제점을 지적. 밀리오레 사장의 따뜻한 지적도 기록. 대형 쇼핑몰 이외에도 편의점을 많이 봄. 한국 소매업의 특징을 적음.

KINTEX 소개.

전문화, 대형화, 국제화 전략으로 세계 무역의 문을 활짝 열려는 시도.

88 올림픽과 2002 월드컵에 관련된 시문문화운동 소개.

5일 동안 머물면서 몸소 체험. 한국인들은 친절하고, 질서를 준수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압.

<난타> 공연을 자세하게 설명. 몇 년간 몇 개국에서 몇 회 공연했는지 등등. 동일한 내용으로 이렇게 장기간 공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원인 객석에 대해 몹시 놀라워함. <난타>는 사물놀이라는 한국 전통 문화의 기초 위에 서양의 타악기 문화와 코미디 문화를 흡수하여 재창조해낸 공연이라 설명.

'한류'도 마찬가지. 중국 사람들도 '한류'가 보여주려는 게 도대체 어떤 주류 문화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한국 사람들도 이 문제에 대답하기 어려워 함. 많은 사람들은 "형태가 없다"라고 대답함. <난타>처럼 '한류' 역시 전통만 있는 게 아님. 또한 고상하다거나 깊이가 있다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듯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광범위한 대중들의 마음에 잘 들어맞는 것 같음.

한국 드라마의 배후는 한국 문화와 세계 문화의 결합. 한국인들의 노력이 빚어낸 결실임.

역사적으로 한국은 유교 문화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근현대에 와서는 미국과 일본 문화가 깊숙이 들어왔음. 중요한 것은 한국은 외부의 문화를 흡수하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음. 한국 드라마를 예로 들. 할리우드의 드라마와 일본의 우상 드라마의 장점을 흡수한 후 한국의 독특한 색깔을 더해 만든 것이 한국 드라마임. '한류'에 대한 중국의 반감(문화 침략)을 설명함. 중국의 유교 영향을 받은 한국이 어떻게 거꾸로 중국으로 문화를 수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아해 함.

문화관광부 배종신 차관의 인터뷰

중성적인 문화. "문화상의 침략이란 없다. 지금 세계에는 많은 문화 중심이 있다. 배척해서는 안 된다. 한국에 들어온 타문화 안에서 배울 것은 배워서 한국의 문화를 더 완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인터뷰 내용.

'한류'의 배후에는 한국 정부가 있음. 한국 정부는 문화 산업을 중시하여 적극 지원. 이번 방한을 주최한 재단 또한 정부 산하의 문화재단이고, 한국 문화와 아시아 문화의 교류를 전개하고 한국 문화의 세계화를 촉진시킴. 한국 정부는 영화산업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 이에 대한 증거로 관련 법제를 수정, 영화 소재에 대한 제한을 풀어버림. 소재의 다양성 보장 외에도 금전적인 도움을 줌. 한국 현대 문화의 발전은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공동으로 만든 결과물임. 한국 문화와 세계 문화를 같이 받아 들여 하나로 녹아내린 결과임. 문화 산업의 초기에 위치한 문화

대국인 중국이 보고 배울만 함.

13) 한국 기행

- 赫楠(허난)(청화대학), 박태기나무, 3300자

이번 활동은 상당히 성공적이었음. 이공계 학생으로서 문과 학생들의 우수성에 많이 놀람. 이런 문화적 성과들이 과연 문과에서 창조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의아해 함.

처음 온 한국. 익숙함. 중국의 어떤 도시에 온 것처럼 낯설지 않음. 삼성, 현대라는 이름도 중국에서 자주 보던 한자임. 소나타 차도 북경에서 자주 보던 브랜드 중 하나. 간판에도 한자가 많아서 외국이란 생각을 하지 않음. 그 외에도 중국 문화의 흔적 많이 보게 됨. 그 이유는 한-중 양국의 교류가 이전부터 오래 지속되어 왔기 때문. 두 나라의 정신세계가 비슷하기 때문에 '한류'가 중국에서 쉽게 받아들여진 것 같음.

제도가 기술보다 발전했음. KINTEX, UBIQUITOUS관에서는 솔직히 별로 깊은 인상 없음.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선진을 느끼지 못함.

다음 두 가지 사실에서 제도적인 우수함을 엿봄.

첫째, 교통신호등. 한국 도로에서는 교통신호등에 따라 질서 있게 움직임. 파란불일 때 보행자들은 눈감고도 안심하고 건널 수 있는 환경임. 반대되는 상황으로 북경의 보행자 불안을 소개. 자리 잡힌 제도 덕분에 교통체증도 덜함. 북경의 골목길 교통 문제 제기.

둘째, 구두 닦는 부스.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녹색의 구두 닦는 부스. 부스는 정부의 특별 허가로 세워진 것.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로, 자유경쟁이 원칙이지만, 이것은 일종의 경제 및 사회 복지 정책으로 실시함을 소개. 사무실 근무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곳은 상이군인 가족에게만 경영을 허가함. 이런 제도에 감탄함.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니까 국민들의 애국심이 우러남을 느낌.

한국인에 대한 것

낙관과 진심. 지리적 여건은 낙관적이지 못함. 북한, 중국, 일본과의 비교. 그러나 사람은 낙관적. 공항에서 만난 한국인에게서 친절함을 느꼈고 진심 어린 말을 들었음. 첫인상이 참 좋음. 5일 동안 한국에서 만난 각 계층의 무수한 사람들한테서도 이 민족 공통의 기질과 마음가짐을 봤음. 전통과 예절의 작용. 사회 전반적인 환경. 제도 보다 위에 위치한 수양. 이런 수양이 한국 민족의 독특한 기질을 만들었음.

14) 문화 이웃

- 付雁南(푸옌난), 북대청년, 2220자

한국의 음식, 젓가락, 술 등, 물건 대부분이 중국과 비슷함. 한글과 한자를 혼용함. 한국 발음과 중국 발음이 유사한 단어들이 많음.

한국 문화는 중국, 일본 미국 등 다민족 문화의 영향을 받음.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 한국문화는 동서양 문화를 모두 받아들였음. 중국도 동서문화의 혼합체임. 그런 면에서도 두 나라는 비슷함.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한-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화가 아시아를 석권하는 이유는?

첫째, 중국 경제는 문화를 보급할 수준이 되지 않은 상태임. 한국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문화수출 역시 가능해짐.

둘째, 한국의 드라마/영화에 비해 중국의 드라마/영화 수준이 현저히 뒤떨어짐.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발전 속도가 빠름. 소재 역시 생활-사랑-성공과 의지 등 다양하고 빠른 변화들을 보임.

셋째, 중국은 큰 규모의 국제행사 개최 경험이 없음. 한국은 88 올림픽, 2002 월드컵, 부산 아시안게임 등 3차례의 대형 체육행사를 개최했음. 중국이 지금 같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2008년 북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끝낸다면 2010년에는 중국이 세계의 문화 중심이 된다는 희망을 가질수 있음.

15) 5일간의 한국 인상기

- 冯珉(평미), 북경사범대학, 4250자

한국 방문 기간(총 5일) 동안 한국 국민들의 전체적인 소양과 민족 문화는 기자 자신에게 깊은 인상을 남김.

도시가 참 깨끗하고 도로 체계가 잡혀있음(질서가 있음). 사람 우선인 차량 문화. 신호등 준수.

예의 바른 한국인. 지하철 노선의 편리함. 지하철에서 30대 아저씨에게 영어로 길을 물었을 때 유창한 영어로 친절한 대답을 함. 지하철 안의 노약자 전용 좌석이 인상적. 상점에서 판매원은 거스름돈을 중국어로 설명. 이 때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에 매우 놀람. 국민들의 영어 구사 능력이 높아 의사소통에 별 문제가 없음. 그러나 영어 발음은 좋지 않음.

음식 관련.

개인 접시를 사용하는 식습관은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은 듯함. 음식 절약. 차가운 음식과 채소를 사용한 음식이 많음. 한국인은 자동차, 디지털 제품, 경제 발전, 정치 체제 등에 관해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것을 즐김. 일본에 대한 불만이 많음. 독도, 신사 참배, 일본 교과서 문제 등에 대한 한국인들의 강렬한 분노를 이해. 한국인은 겸손하고 순박하고 성실함.

16) 7월, 한국영화, 꿈

- 何佳(허지아), 상해영화대학, 3270자

한국 영화의 역사 및 현황을 자세하게 설명.

영화학도.

전공 때문에 많은 서양 영화를 접해야만 했으나 서양영화의 접촉빈도가 높아질수록 아시아 영화에 대한 갈망이 커짐. 때문에 한국 영화를 자연스럽게 보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영화 속의 '한국'을 사랑하게 됨.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한국 역사를 되짚어 봄.

경제 성장과 함께 문화 소비도 성장함. 유선 방송의 개통, 비디오 시장의 확대, 위성TV의 확산으로 인해 영화 관람객들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특이하게도 영화 관람객들이 급격히 증가함. 한국 정부와 대기업들도 영화 시장의 잠재성에 주목함.

한국인의 애국심과 응집력.

한국 영화가 늘 예매 1순위인 것은 한국 관객의 국산 영화에 대한 비이성적인 사랑과 참여 행위 및 애국심 등이 함께 적용된 결과물임. 또한 영화산업에 도움이 되는 영화 진흥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침. 언론도 이를 전폭 지지함. 대표적으로 '스크린쿼터'제도 소개.

영화 제작사 '백두대간' 언급.

예술영화 전용 극장 설립.

이곳은 국내외 예술영화만 상영함. 한국의 각 대학이 영화 관련 학과를 속속 개설하는 추세. 다큐멘터리 장르와 단편영화의 발전 속도가 빠름. 이로 인해 주류 영화산업에 새로운 영화 인재가 자연스럽게 투입됨. 또한 독립영화는 특이한 소재와 독특한 표현으로 인해 상업영화의 빈틈을 채움. 이는 상업영화에 큰 자극이 됨.

부산 국제영화제,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등 대형 영화제와 이 외에도 수십여 가지의 한국의 소형 영화제 등을 소개. 그 중 부산영화제는 아시아 최고의 국제영화제 가운데 하나가 됨.(중국 학생이 자료를 잘못 인용한 듯. 2005년에 10회를 치렀음:역자주). 90년대 말의 한국 영화의 특징은 제작사와 제작자가 기획한 영화가 많음. 이는 헐리웃 영화와 같은 블록버스터 제작을 가능하게 함. 영화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이익도 큼. 특히 영화배우를 타깃으로 한 제품들도 많음. 이런 현상은 중국의 영화학도로서 부러움. 하지만 중국도 더 노력하면, 中流가 몰아칠 것임.

17) 경험을 받아들이다.

- 尚文博(상원보), 길대청년, 3280자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 소개. '한류' 소개.

'한성'에서 '서울'까지.

한국의 수도 서울의 중국 이름을 '한성(漢城)'에서 '서울(首爾)'로 바꿈. 중국 고대 문화와 연결되는 '한성'이 친근감이 느껴지지만, 한국은 역사의 종속을 거부하고 독립적 문화를 증명하기 위해 '서울'로 표기함. 서울은 국제적인 대도시라는 느낌.

KINTEX와 파주 출판 단지. 한국은 수도의 이름을 바꾼 것처럼 참신하고 독립적이고 자랑스러워하는 자세로 변했음.

<난타> 공연. <난타> 소개.

1988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및 2002년 월드컵은 <난타> 공연처럼 사람들을 열광시킴. '대한민국!' 구호, '붉은 악마' 언급. <난타>는 한국 정신을 함유하고 있음.

자원봉사 얘기.

월드컵 기간 중 각국의 운동선수와 관광객들에게 한국인의 교육수준과 예절을 보여줌.

좋은 이웃. 유교 문화와 서양 문화의 기묘한 융합. 예의의 나라.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국가에 대

한 책임감 및 사회에 대한 관심이 있음. 생활의 향유하며 아름다움을 추구함.

일본에 대한 태도와 중국에 대한 태도가 몹시 다름.

한국과 중국은 가까운 이웃. 한국 축구와 태권도를 즐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하려는 강인한 정신이 있음. 그 힘이 '한류'의 배경이라 생각함.

꼬리말.

한국 문화 산업 성장의 기본 요소는 '자유'. "지식 경제는 창의를 필요로 하고, 창의는 사회적 자유를 필요로 한다."고 말하며 "이번 한국 방문에서 얻은 경험을 받아들여 중국 문화가 중국 땅에서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마무리 함.

18) '한류' 문화가 준 생각과 깨우침

- 徐泽林(쉬쩌린), 인민대학, 2250자

시민 문화 자질.

1988년 올림픽을 통해 중국은 한국 문화와 한국민들의 높은 자질을 인지함. 올림픽의 성공 이후 한국 국민들의 자신감과 민족 자부심은 높아짐.

2002 월드컵 준비 상황 소개.

시민운동 소개. 월드컵을 거치면서 국민 자질은 더욱 높아지고 보편성을 띠. 2008 북경 올림픽은 한국의 이러한 시민운동을 배워서 활용해야 함. 중국인민들의 환경 및 정신에 대한 자세를 개조해야 함. 한국처럼 미리미리 철저하게 준비해야 함.

현대 과학 기술 문화.

국민 자질이 전반적으로 제고된 후, 한국은 그 다음의 문화 발전 전략을 세움. 그것이 바로 영화와 드라마, 게임 산업으로 대표되는 현대 과학 기술 문화의 급발전. '한류'의 성공으로 많은 경제적 이익 발생했으며 더불어 관광산업도 많이 발전함. 드라마의 인기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이 늘어남. '한류' 성공의 기본 요소는 '자유'라는 것을 한국 방문을 통해 깨달음.

게임 산업 소개 및 게임 산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중시하는 국회의원 소개.

민족 평화 통일은 문화의 최고 경지.

중국은 '한국'과 '조선'이라 부르는데, 한국 사람들은 '남한'과 '북한'이라고 부름. 이는 한반도를 하나의 나라로 인식함. 통일에 대한 열망과 믿음. 평화 통일은 민족 문화의 최고 경지임. 정청래 의원의 통일 운동 소개. 민주화 운동에 대한 호감 표시. 온 국민들이 다 민주화투쟁을 벌였기에 오늘날 한국의 민주가 있는 것이라고. 남북한이 통일될 그날을 고대함. 휴전선.

19) 5일간의 한국 방문

- 张博华(장보후아), 중대청년, 4050자

한국의 첫인상.

설렘을 안고 탄 비행기. 비행기의 한국 도착 풍경을 상세하게 서술. 서강대학 방문. 젊음의 활력과 창조력이 느껴지던 곳. 학교 느낌이 참 좋음. 조용하고 깨끗하고, 온화하고 정중한 느낌. 한

국의 첫인상은 온화함과 친절함. 이은숙 교수의 겸손하고 소박한 모습과 외양 묘사. 청강 후, 강의 수준이 매우 높은것에 매우 놀람.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 보여준 이 교수의 인내심과 예의로 인해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더욱 상승함. 아름답고 친절한 나라 한국.

휴전선.

남북 분단의 가슴 아픈 사연. 마음을 무겁게 함. 헤어진 혈육을 만나기 위해 몇 십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이 매우 인상적임.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또 만나면 얼마나 행복해할까? 남북 분단으로 인해 상봉할 수 없는 현실을 생각하자 기자의 마음도 찢어지는 듯함. 휴전선이 사라져 동서독 처럼 통일이 되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람.

시민 문화.

월드컵 시민문화운동 중앙협의회 소개. 국제 행사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봤고, '청결, 질서, 예의'의 선전 결과를 보게 됨. 많은 생각을 함. 2008년 북경올림픽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걸 느낌. 그 외에도, 세계의 다양하고도 우수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중국의 우수 문화를 세계 인민들에게 소개해야 함. 중국의 유구한 역사 문화와 현대 정신을 조화롭게 잘 결합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임.

올림픽 정신.

올림픽 기념관 참관. 당시 비 때문에 주변의 나무와 풀들이 더 푸르고 선명하게 보임. 한국은 깨끗하다는 인상이 더 깊어짐. 기념관 안의 각종 기록을 보면서 많은 생각 가짐. 세계 평화가 없다면, 세계인의 참여가 없다면, 또 각 나라 사람들의 왕래가 없다면 올림픽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함. 올림픽의 발전 역사는 세계 평화의 역사고 세계 우의의 역사이며 세계 단결의 역사임.

손 흔들어 작별을 고했.

마지막 방문지인 고려대학은 한국의 명문대학. 캠퍼스 전경은 너무나도 아름다움.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와 건물의 아름다움과 인문의 숨결은 역사적 전통과 현대적인 느낌이 잘 어우러진 느낌. 도서관 방문 때 책 향기가 우리를 맞이함. 고대 도서관에 중국책이 매우 많은것이 특이하고 놀란 점임. 이에 중국에 대한 자부심을 느낌. 시간 부족으로 더 자세히 참관하지 못해서 아쉬움. 이번 '한류' 방한은 우리들 모두에게 많은 수확을 갖다 줬음.

20) 한국 기행

- 刘宇翔(리우위상), 인민대학, 주간뉴스, 11600자

13장에 걸쳐 세세하게 한국 방문 순간을 모두 설명함. 천진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는 과정부터 마지막 일정인 고려대학 방문까지 모든 것을 세밀하게 설명.

한국 공항에서 촬영을 하려다가 제지당했던 일화 소개.

사복경찰이 제지했는데 이 경찰은 학생과 유사함. 공손하고 예의바르고 암전함. 중국 사복경찰과 비교함.

서강대학 이은숙 교수의 강의.

이 교수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한국의 문화적 지도자 역할을 증명하려고 애씀. 그러나 우리는 대국으로서의 중국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자랐기에 이 교수의 '문화 자존'에 대해 인정하기 어려웠음. 하지만 며칠 동안 한국을 취재하며 '문화자존'에 대한 것을 여러 차례 느꼈고, 한 민족의 감정을 점점 이해함.

대장금 테마 파크.

입장표 가격까지 적음. 홍콩에서 온 관광객과 나눈 얘기 소개. '충효 사상' 때문에 학교에서도 '대장금' 드라마 시청을 권장한다고 함. 공원 내의 건물은 중국과 흡사. 중국 한자와 중국 그림이 중국 현지와 다르게 있어서 눈살이 찌푸려 짐. '용' 글자 위에 호랑이 그림, '호랑이' 글자 위에 용 그림이 있는 것 등 테마 파크의 전반에 관해 칭찬. 드라마 안 본 사람들을 배려한 자세한 줄거리 설명이 좋음. 사실감이 느껴지도록 직접 만질 수 있게 한 점도 좋음.

통일 전망대 가는 길.

군인들 봄. 한국의 병역 현황에 대해 소개. 덩크족 관련 젊은 여성들의 출산 기피현상 소개. 한국전쟁 이야기 서술. 이산가족 이야기. 땅굴 이야기. 전쟁의 두려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한 한국인들을 묘사함. 최근 한국과 북한의 변화된 관계 설명.

파주 출판 단지의 건립 과정 소개.

현재 출판 규모와 현황 설명. 건축물에 대한 묘사 많음. 친환경적 건물. 자취를 감추었던 철새가 다시 갈대숲으로 날아온 것 등 소개.

동북아 무역 허브로서의 KINTEX 소개. 향후에 완공될 인접 지원시설인 '차이나타운'과 '한류우드'에 관심을 나타냄.

호텔로 돌아온 후 환전 상황 묘사. 환전할 때 지폐의 진위여부도 확인 하지 않고 바로 환전함.

쇼핑 관련.

너무 비쌌. 서울은 산으로 이루어진 도시. 골목길이 꼬불꼬불해서 동서남북 방향 찾기가 어려움. 등산하는 기분으로 걸어 다님.

이태원 거리 묘사.

술집들. 주한미군. 외국인들. 편의점 많음. 길거리 옆에 있는 쓰레기 더미. 기자단 기사가 실린 조선일보를 사러 돌아다님.

삼일 췌 되던 날, 정장을 입어야 해서 땀을 엄청 흘림.

여의도는 월스트리트 같은 곳.

차에서 내리자마자 길 옆의 구두 닦는 부스를 발견, 이와 관련 된 이야기를 함.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중앙협의회 방문.

본 것과 들은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국회 방문.

천안문 광장 앞에 선 것 같은 느낌. 하지만 다른 점은 천안문 광장 주위는 관광 명소지만 한국의 국회의사당은 국가기관의 이미지가 강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장경찰과 사복경찰이 눈에 띄지 않음. "한국의 주권은 완전히 국민에게 있다."는 설명 들음.

정청래 의원에 대한 인상 좋음. 칭찬 일색. 정 의원의 개인 경력 소개. 정 의원이 얘기해준 민주와 자유 얘기. 나중에 문화관광부 차관을 만났을 때도 똑 같은 얘기 들음. 국회 구성 설명. 국회의사당 안에서 본 초등학생들의 견학. 오찬 음식 자세하게 소개.

문화관광부 차관과의 기자간담회.

건물 외벽 묘사. 유리로 된 회의실 안 의자와 탁자 묘사. 문화관광부 옆 주한 미국대사관 묘사.

UBIGUITOUS관 방문.

한국인들은 네트워크에 대한 열정을 미래에 대한 설계로 만들어 낸 것이 멋짐. 다만 내부에 묘사된 미래 생활은 딱딱하고 차가울 것 같다는 공통된 의견. 재단과의 만찬 일화. 앞에 앉은 두분의 한국인과 영어로 힘겹게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래도 무척이나 즐겁게 수다를 떨었음.

<난타> 공연 관람.

자세하게 소개. 대사는 거의 없고, 대부분 세계 공통의 표정과 동작으로 관객과 교류하는 작품. 간단한 줄거리는 개막 전 자막으로 대신. 공연 내내 객석은 웃음소리로 가득함. 이런 공연은 새로운 공연이긴 하지만 부족함이 느껴짐. 그러나 이것을 관광 상품으로 만든 것은 아주 훌륭함. 공연 이후 모두들 분위기가 고조됨.

쇼핑 얘기. 지하철 타고 찾아가기까지 재미있게 묘사. 지하철 풍경 묘사. 지하철 문화와 예의에 대해 칭찬. 비가 내려 택시 타고 호텔로. 한국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얘기.

태권도 체험.

태권도를 엄격하게 배웠고 나중에는 나무판 격파까지 했음. '1일 졸업증서'를 받기까지의 과정 설명. 중국 우슈의 변종일 뿐이라는 생각.

올림픽기념관 참관.

88년 서울올림픽에 관한 자료 뿐 아니라 올림픽의 100년 발전사를 전시하고 있음. 한국인들은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함. 한국에 와서 중국의 장점인 '국토 넓고 물자 풍요로움'에 내포된 의미를 깊이 느끼게 되었고, 한국이 얘기하는 '한류'에 대해서도 약간 과장된 포장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음.

월드컵 시민문화운동 중앙협의회와 올림픽 기념관을 참관하고 난 후, 이런 작은 나라에서 2차례에 걸쳐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에 대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인의 성과에 대해 무척이나 칭찬해주고 싶음. 그와는 반대로 북경올림픽에 대한 걱정이 무척 많이 됨. 아직은 불안하고 자신이 없음. 과연 제대로 해낼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

고려대학 방문. 고려대학의 의의, 역사, 건물 소개. 도서관 참관, 교실 참관. 현대화가 충만한 학교임. 인체공학적인 학교. 곳곳에 인터넷 연결 가능. 정보화 시대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함. <고대신문> 학생기자과 만남. 돌아올 때 아시아나 항공 파업. 몇 시간이나 출발 지연. 한국은 노동조합의 힘이 세서 파업이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 알게 됨. 북경 도착 당시의 감상 적음.



2005 “韩流”文化记者团
2005 “한류”문화기자단

2005 “韩流”文化记者团 2005“한류”문화기자단

报 道 集



(재)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Korea Foundation for Asian Culture Exchange



中國人民大學
RENMIN UNIVERSITY OF CHINA

前言

一、概述

2005年7月25日至29日,应韩国亚洲文化产业交流财团的委托和支持,中国人民大学邀请了中国8家知名社会媒体记者、9所中国著名大学学生媒体记者、3家奥运与青年志愿服务项目研究机构专家等共同组成了“2005中国青年‘韩流’文化记者团”,就“韩流”和韩国文化产业发展状况、韩国文化战略、中韩青年发展与教育合作、1988年首尔奥运会和2002年世界杯对韩国的总体影响等方面的问题,赴韩国首尔作了为期5天的参观、访问。

二、记者团人员组成

记者团成员共34人,他们包括来自《人民日报》、《中国青年报》、《北京青年报》、《中国青年》杂志、《大学生杂志》等5家平面媒体和中国中央电视台、中国教育电视台、北京电视台等3家电视媒体的记者、编辑12人,来自中国人民大学《青年人大》、中国人民大学《新闻周报》、北京大学《北大青年》、清华大学《紫荆》、北京师范大学学生新闻社、复旦大学《风景线》、吉林大学《吉大青年》、重庆大学《重大青年报》、北京外国语大学《北外风》、上海电影学院等10家大学生媒体的记者10人,以及来自2008北京奥运会OGGI课题组、人文奥运研究中心、中国青年志愿者行动与培训中心等科研机构 and 中国人民大学学生处、国际交流处、青年联合会、北京世宏文化交流中心等部门的专家及工作人员12人(记者团名单见附件1)。

三、前期策划和筹备工作

2005年4月下旬,通过中国人民大学当代中国研究中心特聘研究员李旻泰博士联系,中国人民大学学生处与韩国亚洲文化产业交流财团初步达成了组建记者团赴韩进行文化交流活动的合作意向,并于5月初起草《2005中国青年“韩流”文化记者团计划书》。

策划案包括活动的目的与意义、交流团人员组成、双方经费承担情况、参观访问日期及行程、交流活动成果等。策划案经由我校韩国留学生校友、我校当代中国研究中心特聘研究员李旻泰博士往来于两机构间,先后修改3稿。5月28日,韩国亚洲文化产业交流财团事务处长金良来先生前来北京并

顺访我校，与党委学生工作部部长高祥阳就策划案中人员组成、访问日期等细节问题商谈并达成共识。双方商定，赴韩往返、参观访问、差旅、食宿等费用，由韩方主办单位根据活动安排做出预算并承担。至此本次交流活动正式进入筹备阶段。

6月中旬，党委学生工作部向韩国亚洲文化产业交流财团提出了交流团人员组成名单，6月末获得通过并收到财团关于此次活动的邀请函。7月初，双方确定了此次赴韩访问的日期及具体行程。7月2日至20日，我校参团人员办理了护照及签证相关手续。7月25日至29日，记者团一行10人赴韩国参观访问。

四、参观访问行程

在为期5天的交流中，记者团一行受到了韩国亚洲文化产业交流财团热情而周到的接待，并参观访问了韩国国会、文化观光部、信息通信部、坡州出版小区、世界杯文化市民促进委员会、奥林匹克纪念馆、统一观望台和高丽大学、西江大学等政府部门、民间团体、文化社区、纪念场馆和著名高校。记者团与韩国相关方面进行了广泛接触，就开展学术研究、文化交流、教育合作等方面达成了若干合作意向。

记者团一行于7月25日中午从天津塘沽机场出发，于韩国当地时间15:30抵达韩国仁川国际机场，韩国亚洲文化产业交流财团派员前往机场迎接。

——韩流与韩国文化战略 记者团一行随即乘车前往韩国首都首尔，于当地时间17:00到达西江大学，听取该校教授、中国人民大学在读博士留学生李银淑女士关于《韩流与韩国文化战略的现状与展望》的学术报告。讲座结束后，记者团团长高祥阳先生将纪念品赠予李银淑教授。此间，高祥阳、代鹏在李旻泰博士的陪同下与西江大学学生事务负责人金教授会谈，就中国人民大学与西江大学两校校报和学生报刊的交流初步达成合作意向。

当晚，记者团下榻在首尔市梨泰院酒店，与团的学生记者就青年交流与奥运志愿服务方面问题在酒店接受了《朝鲜日报》记者的即时采访。晚8:00，亚洲文化产业交流财团事务处长金良来先生为记者团一行举行接风宴。

——参观“大长今主题公园” 7月26日上午10:00，记者团一行参观了位于韩国京畿道扬州市的“大长今主题公园”。大长今村是电视台专为《大

长今》所建造的外景舞台布景。《大长今》是以贱民为故事中心，描写长今由女性平民变成御医的真实奋斗故事，是一部情节考究的大型历史剧。该剧自2003年9月开播带2004年3月为止，受到了人们广泛的欢迎，并作为新一波“韩流”的代表，流经亚洲多国，甚至波及欧美。随着《大长今》的热播，这个外景拍摄基地即被改造为“主题公园”供游人参观，实物与影视相互呼应，不仅避免了外景基地的废弃，还兴起了一批新的文化产业，产生了一连串的经济效应。

——参观统一观望台 7月26日14:00，记者团驱车来到了京畿道坡州市，参观了立于汉江一侧的统一观望台。统一观望台所在的鳌斗山曾是朝鲜半岛三国时代高句丽和百济为掌握主导权而展开激战的关弥城址。目前是南北韩以临津江相互对峙的分界线，是西部战线的最北端。登台远眺，北岸村落依稀可见。台下的小片空地上，建有望拜坛和统一祈愿鼓，每逢传统节日，失乡民就来到此处举行望乡祭，并敲响祈愿鼓。统一观望台和纪念馆是在韩国800余万失乡民的祈愿下，于1992年9月在此建立。开馆十年间，就有1400余万名游客来到这里体验分裂之痛。

统一观望台之行，让与团成员认识到了国家统一的紧迫感，不由对韩国民众坚定的统一意志、强烈的民族自尊心和自豪感肃然起敬。

——参观坡州出版小区 当天下午16:00，记者团一行在返回首尔的路上，参观了坡州出版小区。该小区是韩国全国出版印刷业的集散地，建成今天的规模，已经用了17年的时间，全部建成之后，它将可容纳150余家出版机构同时运营。

记者团一行了解到，在这个小区里，出版、印刷、发行都相对集中，节省了物流的程序，也节省了资源；小区注重生态保护，四周的高速公路旁遍布芦苇，形成绿化带，成为候鸟的安乐窝。小区中所有建筑与建筑之间的空隙铺上草坪，是个开放的空间。小区的建设是由有见识的出版商们发起的，得到了政府的支持，它的愿景是发展成为韩国文化出版产业中心。

记者团一行还参观了小区印刷厂流水线，现场观看了制版、印刷、装订的全部流程。

——参观 KINTEX 7月26日晚6:00，记者团一行参观访问了韩国国际

行午餐会，餐前就韩国的民主化进程、中韩关系的未来发表了 30 分钟的演讲。

午餐会后，郑清来议员与记者团成员会谈并就韩国文化产业的发展及中韩文化交流回答了记者们的提问。会谈始终在热情、友好的氛围中进行。郑清来议员还特别回忆起了他去年访问中国和中国人民大学纪宝成校长率团访问韩国国会并在国会发表演讲的情景。高祥阳部长将中国人民大学校门苏绣赠予郑清来议员。

当日 13:30，记者团访问了韩国 KBS 电视台，参观了《再见，悲伤！》内景拍摄现场。

——采访文化观光部裴钟信副部长 7 月 27 日 15:00，在财团事务处长金良来先生的陪同下，记者团访问了韩国文化观光部，并对裴钟信副部长进行了近一个小时的采访。裴钟信先生对我校学生记者提出的“韩流”流行的内在因素，韩国的文化战略，如何继承传统文化并让其走向世界，奥运的志愿服务工作，奥运对韩国民众的心理影响等问题一一作了详细回答。

采访结束，裴钟信副部长赠送纪念品，记者团回赠了大学校门立盘和学生艺术团的 CD 作品。

——参观信息通信部 UBIQUITOUS 馆 27 日 16:30，记者团参观了韩国信息通信部 UBIQUITOUS 馆。该馆是 21 世纪未来数字型家庭生活的立体展示，能给观众以真实的体验。

稍后，记者团一行参观了主办此次交流活动的东道主——韩国亚洲文化产业交流财团。当晚，财团理事长申铉泽先生率财团全体员工宴请记者团一行。晚宴前，申铉泽理事长发表了热情的欢迎词，并赠予记者团成员每人一面镶有“2005 ‘韩流’文化记者团”字样的小锦旗。高祥阳团长致答谢词，赠予申铉泽理事长中国人民大学校徽一枚，并由学生记者为其佩戴。

——观看音乐舞台剧《NANTA》 当晚 8 点，记者团前往首尔《NANTA》演出基地观看颇具韩国特色的情景音乐舞台剧《NANTA》，中文译为“乱打”。

《NANTA》源于厨房，颇有锅碗瓢盆交响曲的味道。演员激情四射的表演，张扬有力的节奏，加上即兴成分和上下互动，极大的调动了观众的热情。

《NANTA》已在世界各地巡演多场，已经成为“韩流”文化的典型代表之一。这给我们诸多启示，文化不厌其小，而厌其浅，任何事物只要深加挖掘，找



到亮点，发挥到极至，都能收到意想不到的效果。

——体验跆拳道 7月28日上午9点至12点，在财团的安排下，记者团赴龙山战争纪念体验跆拳道。跆拳道在1988年首尔奥运会成为表演项目，2000年悉尼奥运会成为正式比赛项目。跆拳道精神是大韩民国精神的象征。跆拳道礼仪为道中所看重。活动结束后，该馆得知记者团的来意后，特意为体验者制作了纪念证书留念，并让体验者在特制的木板上留言。

——参观首尔奥林匹克纪念馆 28日14:00，记者团一行前往首尔奥林匹克公园，参观奥林匹克纪念馆。该纪念馆成立于2001年，同时也是奥林匹克的博物馆，访问者在这里可以体验奥林匹克的历史和未来的空间。记者团成员在这里回顾了首尔奥运会的申办过程、准备过程、奥运会的成功召开、对国家的意义以及对奥林匹克的历史意义。这里通过多种展示媒体提供丰富的资料和信息，不停留在单单纪念首尔奥运会的光荣，还展示着奥运会的理念和成果，它们会引导21世纪奥运会的发展。

记者团成一行还观看了纪念馆专门准备的我国运动员在1988年首尔奥运会上获得优异成绩的短片。纪念馆负责人就奥运会相关问题回答了记者们的提问。

——访问 MIGLIORE 7月28日16:00，记者团参观访问了位于首尔明洞商业区的大型商场 MIGLIORE。商场理事长、韩国知名企业家柳宗陟先生亲自接见记者团一行，介绍了MIGLIORE的发展史和运营状况，并接受记者的采访。当晚，柳宗陟理事长请记者团全体成员在商场美食广场进用晚餐。

——访问高丽大学 作为赴韩访问的最后一站，记者团于7月29日上午访问了韩国百年名校高丽大学。高丽大学国际交流处郭老师带领记者团参观了美丽的高大校园，稍后，高大新闻社指导老师和学生记者与记者团成员座谈，就新闻社运作、报纸编辑经验等共同所关心的问题探讨和交流。此间，高大新闻社指导老师带领高祥阳、代鹏、侯衍社三位先生参观了高大新闻社编辑部，并商谈高丽大学与中国人民大学学生报刊交流事宜。

上午11:00，“韩流”文化记者团一行离开高丽大学，在财团相关人员的陪同下前往仁川国际机场，于北京时间16:30返回北京，圆满结束了为期5天的访韩日程。

- 附录 1: 《2005 中国青年“韩流”文化记者团名单》
- 附录 2: 《2005 中国青年“韩流”文化记者团活动剪影》
- 附录 3: 《2005 中国青年“韩流”文化记者团访韩行程表》
- 附录 4: 《2005 中国青年“韩流”文化记者团报道作品统计表》

2005 “韩流”文化记者团

二〇〇五年八月八日

附录 1: 2005 中国青年“韩流”文化记者团名单

(社会媒体记者 12 人)

姓 名	电子信箱	单 位	职 务
徐运平	xyp1962100@sina.com	人民日报	主任记者
陈小梅		中央电视台	记者
薛振恺		中央电视台	记者
龚汉洲	gonghz@263.net	中国教育电视台	编导
魏 巍	gegewuwei@sina.com	中国教育电视台	摄像
张 宇	Zhangguangyu2000@263.net	北京电视台	责编
兰景伟		北京电视台	摄像
陈玉胜	yusheng588@126.com	《中国青年》杂志社	特编室主任
杨得志	yangdezhi@vip.sina.com	中国青年报	记者
章炎辉	zhangyanhui@ynet.com	北京青年报	记者
王肇辉	zhaohui_@263.net	大学生杂志社	记者
高丽飒	gao_li_sa@sina.com	大学生杂志社	记者

(高校学生媒体记者 10 人)

姓 名	电子信箱	单 位	职 务
付雁南	fuyannan@126.com	《北大青年》	执行主编
赫 楠	henanth@263.net	清华大学《紫荆》	社长
冯 觅	bnufengmi@126.com	北京师范大学学生会	副主席
余 弦	0217084@fudan.edu.cn	复旦大学《风景线》	记者
尚文博	wenbo_s@163.com	吉林大学《吉大青年》	记者
张博华	zbh03_19@163.com	重庆大学《重大青年报》	主编
袁 磊	betterly1003@eyou.com	中国人民大学《青年人大》	副总编辑
徐泽林	hi_xzl@sohu.com	中国人民大学学生会	记者
刘宇翔	lyx538@vip.sina.com	中国人民大学《新闻周报》	记者
何 佳	hejia_0409@hotmail.com	上海电影学院	记者

(专家及工作人员 12 人)

姓 名	电子信箱	单 位	职 务
高祥阳	gaoxiangyang@vip.sina.com	中国人民大学学生处	处长
代 鹏	daipeng@ruc.edu.cn	中国人民大学青年联合会	主席
侯衍社	xiaobao@ruc.edu.cn	中国人民大学校报	主编
李 惠	lhui@ruc.edu.cn	中国人民大学国际交流处	办公室主任
王小虎	tigerwxh@263.net	中国青年志愿者培训中心	
时光寨	rucshiguang@sina.com	北京奥运 OGGI 课题组	副秘书长
郑品石	pinshi@263.net	人文奥运研究中心	研究员
杨俊义	yangjunyi@ruc.edu.cn	中国人民大学学生处	秘书
李旻泰	leemintai@hotmail.com	人大当代中国研究中心	特聘研究员
蔡龙男	cailongnan@hotmail.com	北京世宏文化交流中心	总经理
杨 雪	yxchristine@hotmail.com	北京外国语大学	翻译
赵善姬	anycho@sohu.com	北京世宏文化交流中心	秘书



《2005 中国青年“韩流”文化记者团活动剪影》(PowerPoint)

附录 2：2005 中国青年记者团访韩行程表

日期	地点	交通	时间	行程内容	餐
25 日	北京/ 天津/ 仁川	OZ32 8	13:00/15:30 15:30/16:10 17:30/18:30 19:00	北京/仁川 办理入境手续 韩流与韩国文化战略讲座(西江大学) 入住酒店后 晚餐	午:便餐 晚:烤肉
26 日	汉城	BUS	7:30 9:00 上午 下午 19:00	早餐 出发 1. 扬州《大长今》主题公园 2. 鳌斗山统一观望台 3. 参观坡州出版小区 4. 参观 KINTEX 晚餐	早:宾馆式 午:韩式拌饭 晚:韩式包饭
27 日	汉城	BUS	7:30 8:30 上午 下午 19:00	早餐 出发 1. 采访世界杯文化市民运动促进委员会事务总长 2. 访问国会(郑清来议员 面谈) 3. 采访文化观光部副部长 4. 参观信息通信部 UBIQUITOUS 馆 5. 参观亚洲文化产业交流财团 6. 观看演出《乱打》 晚餐	早:宾馆式 午餐会 (郑议员) 晚:生鱼片
28 日	汉城	BUS	7:30 8:30 上午 下午 19:00	早餐 出发 1. 体验跆拳道(龙山战争纪念馆) 2. 参观奥林匹克纪念馆 3. 游览 MIGLIORE 晚餐	早:宾馆式 午:参鸡汤 晚:***
29 日	汉城 仁川/ 北京	OZ33 3	7:30 8:30 上午 15:40/16:25	早餐 出发 访问高丽大学 赴仁川机场 仁川/北京	早:宾馆式 午:便餐
酒店	ITAEWON 酒店				

2005 “韩流”文化记者团报道作品统计表

记 者	发表媒体	标 题	字数/时长
张 宇	中国文化投资与市场网	2005 中国青年“韩流”文化记者团访问韩国	图片报道
龚汉洲	中国教育电视台	“韩流”文化记者团访韩	1 分 30 秒
徐运平	人民网	中国青年“韩流”文化记者团访韩剪影	图片报道
章炎辉	北京青年报	中国大学生赴韩考察“韩流”	400 字
王肇辉 高丽飒	大学生杂志	与韩国议员和韩国大学交流	1000 字
陈小梅	中央电视台	中国记者团赴韩考察“韩流”	2 分
陈玉胜	中国青年杂志	“韩流”之谜	1770
张 宇		韩国随想	1610
陈小梅 薛振铠		访韩印象	1800
侯衍社	《中国人民大学》	做中韩文化交流的使者	3100
王肇辉 高丽飒		韩国印象	2840
杨得志		向韩国人民致敬	1600
李 惠	《中国人民大学》	漫步在高丽校园	1500
余 弦	《风景线》杂志	夏日香气	3480
袁磊	《青年人大》	泡菜与韩剧的背后	9670
赫 楠	清华大学《紫荆》	韩国纪行	3300
付雁南	《北大青年》	文化的近邻	2220
冯 觅	《北京师范大学》	韩国五日印象记	4250
何佳		七月·韩国·电影·梦	3270
尚文博	《吉大青年》	取经	3280
徐泽林		“韩流”给我们的思考和启示	2250
张博华	《重大青年》	韩国五日谈	4050
刘宇翔	《新闻周报》	韩国纪行	11600 字

2005 中国青年“韩流”文化记者团访问韩国

发稿时间: 20050809 22:49:47 <http://www.yindw.com.cn>

<http://www.yindw.com.cn/wintonews/200508/0809/news22494799.html>



2005 中国青年“韩流”文化记者团参观了位于韩国京畿道扬州市的《大长今》主题公园。《大长今》是以贱民为故事中心，描写长今由女性平民变成御医的真实奋斗故事，是一部情节考究的大型历史剧。该剧自 2003 年 9 月开播带 2004 年 3 月为止，受到了人们广泛的欢迎，并作为新一波“韩流”的代表，流经亚洲多国，甚至波及欧美。



2005 中国青年“韩流”文化记者团驱车来到了京畿道坡州市，参观了立于汉江一侧的统一观望台。统一观望台目前是南北韩以临津江相互对峙的分界线，是西部战线的最北端。统一观望台和纪念馆是在韩国 800 余万失乡民的祈愿下，于 1992 年 9 月在此建立。开馆十年间，就有 1400 余万名游客来到这里体验分裂之痛。



2005 中国青年“韩流”文化记者团在韩国亚洲文化产业财团的安排下，一行参观访问了韩国国会议事堂。



2005“韩流”文化记者团访问了韩国文化观光部。记者们就所关心的“韩流”流行的内在因素、韩国的文化战略、如何继承传统文化并让其走向世界、奥运的志愿服务工作、奥运对韩国民众的心理影响等问题对文化观光部副部长进行了近一个小时的采访。



韩国第 17 届国会议员、国会文化观光委员郑清来先生会见了记者团全体成员。当日中午，郑清来议员在国会为记者团举行午餐会，餐前就韩国的民主化进程、中韩关系的未来发表了 30 分钟的演讲。



2005 中国青年“韩流”文化记者团访问了韩国百年名校高丽大学。来自中国人民大学、北京大学、清华大学的学生记者与高丽大学新闻社学生记者座谈，就新闻社运作、报纸编辑经验等共同所关心的问题探讨和交流。

(张宇报道)

中国青年“韩流”文化记者团访韩剪影

<http://culture.people.com.cn/GB/22219/3615323.html>



在韩国百年名校高丽大学，记者们与该校新闻社学生记者座谈，就新闻采访、报纸编辑经验等共同关心的问题探讨和交流。

人民网北京 8 月 15
日讯 记者徐运平摄影报
道：7 月底至 8 月初，由
人民日报、中央电视台、
北京电视台、中国青年杂
志社等 13 家社会媒体，
北大、清华、复旦等 11
所高校的学校媒体组成
的“中国青年‘韩流’文
化记者团”一行 35 人，
赴韩国交流访问。期间，
中韩两国青年通过参观、
座谈、对话、记者会等形

式进行了广泛而真诚的交流。大家认为，此次活动有利于加强中韩两国青年的沟通与了解，增进两国间的友好往来。这次交流活动由中国人民大学和韩国亚洲文化产业财团联合主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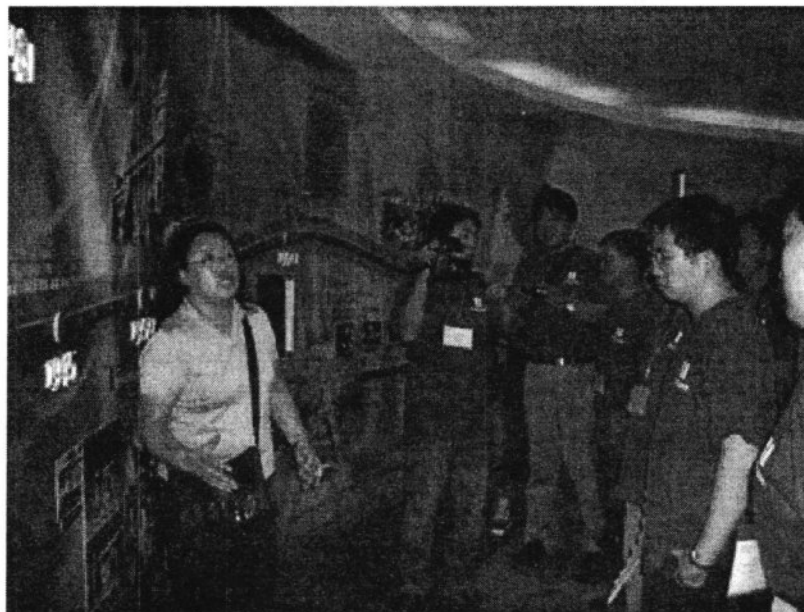
韩国文化观光部副部长裴钟信专门举行记者会，就“韩流”文化的内在因素、特点及发展，如何继承传统文化，奥运志愿者服务工作，奥运对民众的心理影响等问题接受记者团采访。



记者团一行访问韩国国会议事堂。



位于京畿道扬州市的韩国著名电视剧《大长今》的拍摄地，如今已辟为“大长今主题公园”，并成为这里的文化旅游热点。这部电视连续剧再现的是朝鲜中宗时期的一段宫廷历史，描写了徐长今从一位平民女性成为朝鲜第一御医的奋斗故事。自去年以来，作为新一波“韩流”文化的代表，该剧电视剧出口 15 个国家和地区，受到观众欢迎。



韩国汉城市松坡区的“汉城奥林匹克纪念馆”作为汉城旅游热点，每天都吸引着世界各地的游客观光。在这里，通过多种展示媒体提供的资料和信息，可以回顾汉城奥运会的申办过程和举办盛况，体验感动和喜悦，展示奥运理念与成果以及 21 世纪奥运的最新发展



近年来，韩国的“汉语热”在不断升温。目前韩国有 137 所大学设立了汉语课，业余汉语学校随处可见。在韩国，遇到讲汉语的人越来越多，中国餐馆生意红火。图为汉城国际展览馆的中国料理



中国大学生杂志 王肇辉 高丽飒 报道



中国大学生赴韩考察“韩流”

北京青年报 章炎辉

应韩国政府资助的亚洲文化产业交流财团的邀请，近日，由中国人民大学、北京大学、清华大学、复旦大学等十余所国内高校校园媒体及部分社会媒体组成的记者团一行 30 多人对韩国进行了交流访问。

在韩期间，访问团考察了韩国亚洲文化中心、情报通信部、高丽大学、奥运会纪念馆、世界杯文化市民运动促进委员会等组织机构。韩国文化观光部副部长裴钟信、国会议员郑清来分别接见了访问团一行，他们表达了加强中韩合作、共同发展文化产业的愿望，并就“韩流”及“奥运”文化等话题与访问团进行了交流探讨。

据介绍，随着韩流文化在亚洲的风行，文化产业已成为韩国一大支柱产业。韩国为此制定了专门的《文化产业振兴基本法》，大力发展以影视和网络游戏为核心的文化产业，其目标是力争到 2010 年，使韩国成为世界 5 大文化产业输出强国之一。

韩国随想

□北京电视台 张 宇

汉城印象中韩两国一衣带水，是隔海相望的近邻，文化交流的历史源远流长，可以追溯到中国的隋、唐之前，从古至今，两国人民相互学习，彼此借鉴，创造了灿烂的文化。两国地缘相近，文化一脉相承，两国民众有着天然的亲近感，文化传统相近使两国国民比其它国家的国民之间更容易互相理解和沟通，更容易“寻求友谊、繁荣文化”。

2005 年是中韩建交十三周年，建交十三年来，中韩双边文化交流取得了长足的发展。2005 年 7 月 25 日-7 月 29 日中国青年“韩流”文化记者访问团在汉城进行了为期 5 天的文化交流活动，本次活动是以中韩友好为主题，交流两国文化为契机开展的一次活动。本次活动包括与文化观光部长交流、国会访问、友好观光、韩国文化系列讲座、跆拳道体验、参观奥运会纪念馆等活动组成。来汉城之前早已得知汉城文化的内敛与张扬，精细且大度。一下飞机，你会发现这是个把古今文明结合得水乳交融的城市。那独立沉静的故宫，那古老无言的旧城门，无不在向你的心灵撞击着汉城过去 600 多年如歌如画岁月而留下的抹不去的记忆，而这些，又一一傲立于现代文明建筑、现代经济生活、现代繁华都市的喧嚣之中。

通过这次交流访问活动使我们了解到，除了经济领域外，近 10 多年来，韩国在政治、文化、电影、电视、大众娱乐、体育等各个领域，都取得了飞速的发展。正统的官方教科书将其经济成就归结为“朝鲜战争结束后的大量美援”，“美国驻军大大减少了韩国的军费开支”；经济学者们认为“贸易立国”、“外向型经济”等政策居功至伟；持威权主义论观点的政治学者们则认为：以威权政体保证政局稳定，是经济社会发展的先决条件；“文化是个筐，啥都往里装”，人文社科学者们，也许会倾向于“韩国人的国民性”和韩国的“独特文化”。

走在韩国的街道上，随处可见“身土不二”的字样。究其含义，大致是说身为韩国人应该衣食本土之物产。在日常生活中，韩国人的本土意识很强



烈。街上跑的多是国产车；家用电器、家具是民族品牌；服装、食品等日用消费品也以国产为主。虽说美国以经济制裁为要挟打开了韩国农产品市场，但洋货在市场上决不会趾高气扬，经过各种媒体几十年持之以恒的灌输，它在国民思想中深深地扎下了根。近年来流传日盛，现已发展成为强烈的国货意识。而今，在韩国消费本国产品被视为“爱家乡、爱民族、不忘本”，消费外国产品，往往被看作“素质低”或“不爱国”。这里的人们一方面认同并积极借鉴西方科学文明，一方面念念不忘民族自尊，看似矛盾的双重心态，恰恰是韩国崛起的文化根基。和中国相比，韩国是个小国。

和中国相比，韩国也是个大国。是的，韩国的国土面积仅为 9.9 万平方公里，约占中国面积的百分之一，只相当于广东省的一半。人口也只有 4800 万，约为中国的 1/28。可是，就是这个也曾极度落后、饱受蹂躏的东方小国，却走在了中国前头：其经济规模的总量，已居世界第 10 位，近乎于中国的一半，而其人均国民生产总值已近 15000 元美金，是中国的 10 余倍。这一切都发生在短短 50 年内。1950 年代中期的韩国，在经历了日据时代的残酷统治，朝鲜战争的多年战火摧残后，已是一片焦土。农业落后，工业基础薄弱，几乎和中国一样的“一穷二白”。

今天，从废墟上昂首迈入世界发达工业国家行列的韩国，其成就被形象地称为“汉江奇迹”。汉江两岸，高楼大厦鳞次栉比，市民漫步观景，一派祥和景象。在韩国，我们可以感受到中韩两国数千年来的频繁交往对韩国人民的深刻影响，很多韩国人曾不止一次对我说，韩国人内心深处有一种崇大意识，中国文化曾经全方位地影响着韩国人，大多数韩国人内心深处对中国怀着一种敬仰之情。在国学大师季羡林的《梵典与华章》一书中，开卷题词写道：“文化交流是推动人类社会前进的重要动力之一。如果没有文化交流，我们简直无法想象人类今天的社会会是一个什么样子。”我们在继承和发扬自己优良文化传统的同时，也要学习借鉴其他国家的先进文化和理念，这才是大国风范，这也我们此次行程的意义所在。愿中韩文化更加灿烂辉煌，愿中韩友谊地久天长。



访韩印象

□中央电视台 陈小梅 薛振恺

2005年7月25日至7月29日，我们随中国青年“韩流”文化记者团到韩国进行了五天的友好访问，所到之所到之处受到了韩方各方人士的热情接待。这次访韩虽然时间短暂，却给我们留下许多深刻而美好的印象。

印象之一是韩国举国上下的爱国热情让我们十分感动。自踏上韩国土地的那一刻起，目之所及，通衢大道、小巷街尾所跑的确大小、新旧、各式汽车，全部是一色的韩国造。我们有心处处留意看否找到外国汽车，结果五天之内只在一处停车场见到一辆。对本国的支柱产业，韩国上下竟能作到这样团结一致来支持，真是让我们感佩。

而韩国人民渴望和平、期盼南北和平统一的心愿强烈，不仅突出表现在建在三八线附近的统一瞭望塔，更表现在所有与我们接触的韩国朋友的言语、神态之中。不论是统一瞭望塔上的解说员、国会大厦韩史的讲解员，还是陪同我们共同参观的导游先生，只要谈起南北统一问题，都是用极其真诚、极其热烈的话语向我们表达他们希望早日实现和平统一的愿望。韩国史讲解员的一句话，深深印在我们的脑海之中，她说：“我们南北两国是单一的民族，没有理由人为地这样分割，我们渴望民族大家庭的早日团结。”

站在统一瞭望塔围墙边的许许多多的韩国游人，不论是老人、青年，还是天真的孩子，是那么久久地、一动不动的深情地望着—江之隔的北方，那无言而凝重的神情，表达着他们最深切的祝愿。我们也愿意分享这样一份期盼祖国和平统一的感情，因为同样的心愿也深藏在我们心底，但愿我们的祖国也早一天实现和平统一。

印象之二是韩国青年朝气蓬勃、奋力向上的精神让我们由衷地赞叹。在北京一谈起韩国青年时尚，人们的印象就是小青年的头发染成五颜六色，小姑娘们身着超短裙、脚踏厚厚的松糕鞋，不论男女小青年都身佩一些闪闪发光、零乱怪异的首饰。于是乎，凡在街上有此类打扮的青年一过，人们便称之为“哈韩族”。然而呈现在我们眼前的首尔大街小巷、校园机场、商店剧院，



并没有看到如此装束的青年男女。放眼望去，凡学生都是朴朴素素的穿着 T 恤衫、牛仔裤、过膝裙，青年们衣装端庄，没见到一个染成黄色、绿色之类头发的人。街上的青年有事则脚步匆匆，无事漫步街巷，也没见勾肩搭背、不堪入目的行为。在公司、商店、机场、宾馆中工作的青年则彬彬有礼，积极认真地完成本职工作，绝无嘻笑懒散的做派。在首尔的街头路边，高楼大厦，广场饭店没有乞丐行乞，没有垃圾痰迹。整洁的城市让青年人向上的精神面貌衬托出力量与信心。

当我们在韩国老虎跆拳道训练馆接受了三小时的正规跆拳道训练后，人人都感到身心愉悦而精神振奋时，我们明白了：韩国青年从小就是在这样的跆拳道训练中，养成了他们沉静的气质、高贵的礼仪、遵守规则与纪律、忍耐、谦虚和坚忍不拔的顽强精神。有了这种深厚的道德修养，什么样的困难韩国人民也能克服，什么样的危机韩国人民也可以度过。

由此我们得到韩国印象之三，即韩国想作的事情就一定要作到世界上最好。韩国虽小，但民族的志气，国家的气魄很大。不论是奥运会场，国会大厦，高丽大学，国家会展中心，亚西亚印刷出版中心，这些宏大的建筑都给人以雄壮的气魄，起码要称雄亚洲的气势。而西江大学李教授对韩国电视剧现状的分析与未来远景的展望，更让人感到韩国不仅在经济上不让西方发达国家，就是在文化上也要以电视剧的形式为切入点，跨入世界文化强国的行列，用电视剧为载体，让韩国的文化形成一种强大的“韩流”去席卷全球，用自己的特色文化在与世界各种文化的碰撞种，创造出自己民族文化的辉煌。这种理想与实践真是让我们具有五千年文化传统的古国感到震撼。

印象之四是韩国在昂首挺胸步入现代化的过程中却又十分注重节约。仅从两件小事便可见一斑。访韩期间我们下榻的是四星级宾馆，设备并不新鲜，样子也老式，干净整洁自不必说。我们入住后注意到，每天自半夜 2 时至清晨 5 时，中央空调必定自动关闭。我们以为是电路故障，一问前台服务员，告之：“节点”。这是一件事，第二件事是在餐馆遇到的。韩国的饮食别具一格，进餐时量小而种类繁多，特别注意了一下，没有人饭后盘中剩有食物，也就不必打包回家。一问导游先生，告之：“餐馆一般不备一次性餐盒，因为每种食物量小，以够吃为限。”确实如此，我们在大排挡买一盘炒年糕，也

仅仅六小块。对比我们国家，真觉得在节约意识方面要好好向韩国学习。

急匆匆五天访问，感慨良多。总之，这一趟文化之旅虽然没有欣赏到韩国的名胜古迹和山川，但韩国的精神美却长留在我们心间。



做中韩文化交流的使者

——我校“奥运·文化”交流团暑期赴韩国参观访问纪实

□中国人民大学校报 侯衍社

7月25日至29日，应韩国亚洲文化产业交流财团的委托和邀请，在我校主管领导和国际交流处的大力支持和帮助下，在党委学生工作部的积极策划和组织协调下，以高校青年工作者和大学生为主体的赴韩“奥运·文化”代表团顺利地访问了韩国。我校赴韩国首尔代表团成员有：党委学生工作部部长、代表团团长高祥阳、校团委书记代鹏、校报主编侯衍社、学校办公室综合科科长王小虎、国际交流处办公室主任李惠、党委学生工作部思想教育科科长时光寨、校团委副书记郑品石以及《青年人大》、《新闻周报》等学生媒体记者袁磊、刘宇翔、徐泽林。来自北京大学、清华大学等中国著名高校的学生记者，以及人民日报、中国青年报、中央电视台、中国教育电视台等社会媒体的记者们共30余人，就“韩流”及韩国文化产业进行了参观、采访、交流。我校韩国校友、中韩思想文化研究所所长李旻泰博士全程陪同代表团一行。

在为期5天的参观、采访和交流中，代表团一行受到了韩国亚洲文化产业交流财团热情而周到的接待，并参观访问了韩国国会、文化观光部、信息通信部、坡州出版小区、世界杯文化市民促进委员会、奥林匹克纪念馆、统一角和高丽大学、西江大学等政府部门、民间团体、文化社区、纪念场馆和著名高校。代表团与韩国相关方面进行了广泛接触，就开展学术研究、文化交流、教育合作等方面达成了若干合作意向。

——听取“韩流与韩国文化战略”讲座，与西江大学有关负责人商谈交流合作事宜

7月25日中午代表团一行从天津塘沽机场出发，于韩国当地时间15:30抵达韩国仁川国际机场，17:00到达韩国首都首尔所在的西江大学，听取了该校教授、我校中文系在读博士留学生李银淑女士所作关于《韩流与韩国文化战略的现状与展望》的学术报告，并就相关问题进行了交流。此间，代表团负责人在李旻泰博士的陪同下与西江大学学生事务负责人会谈，就两校校



报和学生报刊的交流初步达成合作意向。

当晚，我校和北京大学、清华大学的学生记者就青年交流与奥运志愿服务方面问题接受了《朝鲜日报》记者的即时采访。

——参观“大长今主题公园”、统一观望台、坡州出版小区和国际展览中心

26日上午10:00，代表团一行参观了位于韩国京畿道扬州市的“大长今主题公园”。《大长今》是一部情节考究的大型历史剧，描写长今由女性平民变成御医的真实奋斗故事。随着《大长今》的热播，这个外景拍摄基地即被改造为“主题公园”供游人参观。

下午2:00，访问团一行来到京畿道坡州市，参观了立于汉江南侧的统一观望台。统一观望台所在的鳌斗山曾是朝鲜半岛三国时代高句丽和百济为掌握主导权而展开激战的关弥城址。目前是南北韩以临津江相互对峙的分界线。统一观望台和纪念馆建立于1992年9月，体现了韩国渴望统一的强烈愿望。

下午4:00，代表团一行在返回首尔的路上，参观了坡州出版小区。17年来，该小区已经成为韩国全国出版印刷业的集散地，全部建成之后可容纳150余家出版机构同时运营。它的远景是发展成为韩国文化出版产业中心。代表团一行参观了小区印刷厂流水线，现场观看了制版、印刷、装订的全部流程。

晚上6:00，代表团一行参观访问了韩国国际展览中心(KINTEX)。代表团一行听取了中心负责人的详细讲解，并就相关问题与中心市场销售经理进行交流，最后参观了投入使用的一期工程。

——访问世界杯文化市民促进委员会

27日上午9:00，代表团一行访问了韩国世界杯文化市民促进委员会。该委员会是为筹办2002年世界杯足球赛设立的，属于半官方性质，主要作用在于依靠政府的资金支持，整合民间力量发起文化市民运动，为成功举办世界杯营造和谐的文化环境，树立良好的国家形象。该委员会下设43个分会，各自独立活动，因其成效显著，因而在世界杯后得以保留。代表团成员就市民运动的方式、素质提升的效果及志愿服务的精神等方面问题与该委员会秘书长展开交流。高祥阳部长将我校校门坐盘和学生艺术团CD赠予委员会留作



纪念。委员会秘书长赠予我校代表团文化市民促进运动影像资料和评估报告。

——访问韩国国会，与郑清来议员座谈

27日上午10:30，代表团一行参观访问了韩国国会议事堂。韩国第17届国会议员、国会文化观光委员、韩国执政党开放国民党中央委员郑清来先生会见了我校代表团全体成员。中午，郑清来议员在国会为代表团举行午餐会，餐前就韩国的民主化进程、中韩关系的未来发表了30分钟的演讲。

午餐会后，郑清来议员与我校代表团成员会谈并就韩国文化产业的发展及中韩文化交流回答了我校代表团成员的提问。会谈始终在热情、友好的氛围中进行。郑清来议员还特别回忆起了他去年访问我校和纪宝成校长率团访问韩国国会并在国会发表演讲的情景。高祥阳部长将我校校门苏绣赠予郑清来议员。

——采访文化观光部副部长，参观信息通信部和亚洲文化交流财团、观看音乐舞台剧《乱打》

27日下午3:00，代表团访问韩国文化观光部。在近一个小时的采访中，副部长对记者提出的“韩流”流行的原因，韩国的文化战略，如何继承传统文化并让其走向世界，奥运的志愿服务工作，奥运对韩国民众的心理影响等问题一一作了详细回答。采访结束，副部长赠送纪念品，我校回赠了校门坐盘和学生艺术团的CD作品。

下午4:30，代表团参观了韩国信息通信部UBIQUITOUS馆。该馆是21世纪未来数字型家庭生活的立体展示，能给观众以真实的体验。

稍后，代表团一行参观了主办此次交流活动的东道主——韩国亚洲文化产业交流财团。当晚，财团理事长申铉泽先生率财团全体员工宴请我校代表团一行。晚宴前，申铉泽理事长发表了热情的欢迎词，并赠予我校代表团成员每人一面镶有“‘奥运·文化’交流团”字样的小锦旗。高祥阳部长致答谢词，赠予申铉泽理事长我校校徽一枚，并由我校学生记者为其佩戴。

当晚8点，代表团前往首尔《NANTA》演出基地观看颇具韩国特色的情景音乐舞台剧《NANTA》（《乱打》）。演员激情四射的表演，张扬有力的节奏，加上即兴成分和上下互动，极大的调动了观众的热情。《NANTA》已在世界各地巡演多场，已经成为“韩流”文化的典型代表之一。

——体验跆拳道，参观首尔奥林匹克纪念馆，访问高丽大学

28日上午9点至12点，代表团赴国家跆拳道馆体验跆拳道。跆拳道在2000年悉尼奥运会成为正式比赛项目。活动结束后，该馆得知代表团的来意后，特意为体验者制作了纪念证书留念，并让体验者在特制的木板上留言。

下午2:00，代表团一行前往首尔奥林匹克公园，参观奥林匹克纪念馆，观看了首尔奥运会的申办过程、准备过程、奥运会的成功召开过程、对国家的意义。大家兴致勃勃地观看了纪念馆专门准备的我国运动员在1988年首尔奥运会上获得优异成绩的短片。

作为赴韩访问的最后一站，代表团于29日上午访问了韩国百年名校高丽大学。高丽大学国际交流处郭先生带领代表团参观了美丽的高大校园。稍后，高大新闻社指导教师和学生记者与代表团成员座谈，就新闻社运作、报纸编辑经验等共同关心的问题探讨和交流。此间，高大新闻社指导老师带领高祥阳部长、代鹏书记、侯衍社主编参观了高大新闻社编辑部，并商谈两校学生报刊交流事宜。

上午11:00，“奥运·文化”代表团一行离开高丽大学，在财团有关人员的陪同下前往仁川国际机场，于北京时间16:30返回北京，圆满结束了为期5天的访韩日程。

交流取得丰硕成果

此次交流活动，时间紧凑，内容充实，使团员开阔了视野，增长了见识，不仅顺利完成了预期计划，而且增进了合作双方的相互了解和信任；奠定了我校学生工作部门与韩国相关团体的合作基础，拓展了合作与交流平台，达成了若干有实质内容的合作意向；与西江大学、高丽大学达成了建立固定联系、定期互换学生报刊及出版物的交流协议，双方商定，时机成熟的时候，将互派学生记者访问对方高校，加强学生间直接的交流和联系。



“韩流”之谜

□中国青年杂志社 陈玉胜

访韩归来，时光倏忽，至今月余。不少见闻都淡忘掉了，但仍有二三件记忆犹新。

韩国人谈“韩流”

7月25日，我们一下飞机，行装未卸就被拉到西江大学。听该院一位李姓女教师讲授“韩流”。

说实话，我原以为“韩流”不过是对中国足球的一种调侃。中国足球有“恐韩症”一说，“韩流”者，“寒流”也。一遇韩足，“心惊胆寒”。

这次听讲大开眼界。韩流很有内容。首先是韩国人对“韩流”的态度，与我们截然不同。

从李教授的字里行间，洋溢着对“韩流”的无限憧憬，盼望和自豪，一部《大长今》电视剧。据说在东南亚长驱直入，所向无敌，创下收视率达30%以上的奇迹。街头巷议，全是哈韩话题，唯韩首尔。又据说有关韩剧的光盘在中国大陆畅销不衰，风靡少男女中男女。不仅如此，“韩流”似乎是支全面出击的军队，在体育，影视，动漫，游戏，服装，电子，汽车，美容，食品甚至地 缘文化中旅游，历史，文字，考古等方面。早以抢滩登陆，象腌辣白菜那样，逮什么腌什么。大有要腌遍中国，腌遍东南亚，腌遍全世界之势。已成为新世纪一支突起的异军，令万人瞩目。

李教授那不容质疑的口吻和不知从那儿统计来的数字，是夸大其辞？还是虚张声势？

在我们中国人眼里，“韩流”不过是文化大餐中的一碟小菜，但是在韩国人眼里，它已经成了一道世界级大菜，并有一整套推进计划。

在这之后我们采访的占地巨大的，各项门类功能齐集的出版中心和展览中心就是明证。那里正在做着充分的预备。一方面要把韩国文化产品大量制造出来，行销全世界。一方面要把全世界最好的产品技术搬进来，促进本民族经济的发展。



在韩国如此狭小的土地上，建立的那两个文化巨无霸中心。不正说明一个源源不断的“韩流”，要从这里涌向中国，涌向世界吗？

韩国人称自己是小兔子，中国是大老虎，但实际情况却是韩国象一只吼叫的老虎，四处游走，想吞吃一切可以吞吃的东西。

韩国人对待“韩流”的那股自信，自豪实在给我们上了一堂警醒的课，韩国人那种可以把芝麻当做西瓜来运作的方式[其结果真的成了西瓜]，值得我们好好学习。

大哥，在国会里设宴

与李教授截然不同，韩国国会议员郑清来显得极为谦卑随和。

韩国人极重礼节，特别是 公务场合，一身笔挺的西装绝不马虎，那怕是在骄阳似火的夏季，我们是在国会前广场上与郑议员见面的，虽然他一身正装，但仍与我们记者团每位成员随意交流拍照，显示了议员的平民化特色。

中午在国会宴席上，席间当我们记者团里有位年轻的女记者向郑议员提出问题，不自觉站了起来，说自己很年轻，为表示尊重就站起来提问。郑议员听后也马上站起来，认真听对方提问并站着回答问题，特别是他说的一句话，让我们深深感动。他说：从岁数上我比你大可以做你的大哥，兄妹彼此随意不要拘束。

这里毫无做秀之态，完全出于真诚。因为心里充满的，嘴上必说出来。这样的谦卑、随和。不是可以随便装出来的，郑议员始终明白自己的身份，明白自己的位置。在和平民百姓关系上，自然就会处理得水乳交融，不留痕迹，使人们对他有一种亲近感、信任感。

跆拳道教会了我们什么

在韩国采访最有趣的就是亲身体验了一次跆拳道。

平日我很少运动，但在跆拳道馆里我的‘少年壮志’油然而发，全身投入训练。

说句实话，仅仅小半天的学习，能练成什么？但无意之中却解开萦绕我心头许久的一个迷。

韩国人为什么总能保持着一股不服输的劲头，踢足球时虽然被欧美人踢得满场找牙，但爬起来依然奔跑。他们为什么对自己小小的成就就能充满着

无比的自豪、自信。为什么在他们的骨子里能把最骄傲的东西和最谦卑的东西融合在一起。跆拳道训练似乎说透了这一点。

他们训练时有一股子狠劲，一招一式绝不希松马虎，就是在对练中，也很少那些花架子。那怕一招能制对方受伤甚至于死地，也绝不手软点到为止。但在凶狠的击技之后，双方有是那样相敬如宾。

与教练交流我得知，跆拳道里充满了爱的教育，感恩的教育，礼仪的教育和宽容的教育，凶猛高超的击技绝不是目的，胜负也不是目地，而是在训练一种恒久忍耐的精神，为了终极的人生真理，轰轰烈烈只会热闹一时，风过云散，但是这种，无论什么环境，无论什么光景，无论什么打击坎坷，都恒久不动，坚守到底的意志，其力量之强大，绝不在乎一国之大之小，人数之多之少。与我们今天被物质利益搅扰得浮躁虚华，目光短浅，信仰丧失，形成了多么强烈的反差。

这就是我访韩回来，对”韩流”的一点感想，与大家分享。



韩国印象

□大学生杂志社 王肇辉 高丽飒

最早知道韩国是因为 1988 年的首尔奥运会，那首饱含奥运精神的《手拉手》至今萦绕耳边，之后便是满大街的韩国泡菜和韩式烤肉，包括风靡一时的“跆拳道”，再到后来就是火遍全国的“野蛮女友”了，一天天的感受着身边渗透着的、无所不在的韩国文化，但对韩国文化真正产生浓厚兴趣是因为两个韩国的采访对象——申世庸和赵升衍，两个传奇的韩国青年。一个从打架大王奋进为后来的牛津学子，最后成为成功的企业家。一个是韩国长大，美国扬名，亚洲有史以来罕见奇才。他们的故事让我为韩国文化造就的优秀而感动，为这种精神所鼓舞，是他们给了我感动的理由。感动于源自韩国的坚强意志、顽强个性和强烈的民族自尊心；感动于源自韩国的学习的技术。

而近年的“韩流”已经毫无争议的成为一种文化现象，“韩流”涌动不仅为韩国创造出了良好的经济效益，成为继汽车之后赚取外汇的第二大支柱产业，而且促进了民族文化交流，推动了国际间的友好交往。我们也一直希望能有机会近距离了解这个文化的源头。

终于，在韩国文化财团的盛情邀请、中国人民大学的精心组织下，2005 年 7 月 25 日中午十二点半，九所全国重点高校媒体记者以及八家社会媒体记者一行共 32 人登上了天津至仁川机场的飞机。开始了为期一周的中韩“奥运·文化”采风之旅。

通过对韩国影视、音乐、服饰、家电及饮食的相关了解、对首尔奥运会、2002 世界杯的总体考察，更加让我们便于把握韩国青年的文化趋向，研究韩国文化战略的总体情况，同时对中国文化产业发展也会有很大帮助。

韩国饭菜中体会韩味

从紫菜卷饭和芥末海蜇皮的飞机便餐开始便体会到了“韩味”。就让先从韩国饭菜说起，韩国人比较讲究饮食结构，胖子少，长寿的老人较多。韩菜以炖菜、煲汤和凉菜为主，很少有炒菜，吃韩国菜你会发现大蒜和辣椒是少不了的东西，无论是泡菜、辣酱、凉菜或者吃火锅的时候，都不会少。所以，

吃了几天的韩国菜总结下来，大家认为“辣椒和大蒜”是韩菜至宝。

别具一格的校园风情

抵达仁川的第一个目的地——参观访问西江大学。西江大学是一所由天主教、耶稣会于1960年创立的大学，现有学生10,000多名，是韩国比较好的大学之一，学校简洁干净漂亮。在西江大学一间简单的教室里，我们欣赏了李银淑博士的精彩演讲——“韩流”与韩国文化战略，更深入地了解了“韩流”的对周边国家的影响力以及韩国所确立的“文化立国”战略。

从西江大学校报主编处得知，在韩国高校学生媒体是很受重视的，从事校园媒体记者或编辑会觉得自己的责任重大而光荣。学生在政治、生活、爱情以及学习等话题上都会谈论的比较深入，贴近大学生的生活，可读性很强。就拿“爱情”这一话题来说，他们会在高校中寻找很多对恋人来讨论他们比较感兴趣的话题，比如：他们认为淘宝最好的地方，最好玩的地方，或者最适合恋人去的地方等等。这些都是贴近同学们生活的话题，很受他们的欢迎。

高丽大学是我们走入的第二所韩国大学，在2001年度综合大学排行榜中，汉城大学(S)荣获第一名，高丽大学(K)排名第二与延世大学(Y)第三名，这三座大学撑起了韩国大学的一片天“SKY”。建立于1905年的高丽大学，是根据韩国最初民间资本设立的高等教育机关，坚持救国之路在于培养教育力量即“教育救国”。近100年的历史，在韩国的政治、经济、社会、文化等领域有了长足的发展。高丽大学位于首尔市城北区安岩洞，也是最漂亮的大学之一，整个校园几乎都是由石头砌成的，别有特色。

今年正值高丽大学百年校庆年，校园内外处处流露着浓重的节日气氛，虽然放暑假，整个校园活动依然井然有序。在中文图书馆中，陈列了许多我国古代藏书，中韩文化的渊源在满库的藏书中被体现的淋漓尽致。我们还与《高大新闻》的学生编辑记者进行了座谈，交换了两国高校学生媒体的观点和看法，为彼此的校园文化建设都提供了建设性的意见。

文化立国战略处处体现

韩国把文化作为立国根本，“韩流”的世界化强调了文化的品牌效应，2002年韩剧把日剧挤出了亚洲各国电视剧市场，并迅速在日本、马来西亚、新加坡、泰国等亚洲国家传播开来，正是韩剧疯狂热播，让韩国成为世界第5

大文化国。电影拍摄地也成为了旅游胜地，很多游客都是因为电视剧的原因，而千里迢迢来参观相关的旅游景点。比如：《蓝色生死恋》、《大长今》等电视剧的拍摄地，游客常年络绎不绝。

参观阳州《大长今》拍摄地，可以看到在文化的包装与保护上是很受重视的。拍摄场地基本保持原样，每到一处脑海中都会重新过滤电视剧中大长今的形象，电视剧中情景又被重现。包括大长今当初做菜的厨房、存药的药房，都保存完好，连饭菜道具都可以假乱真。

波州出版小区是出版印刷的聚集地，是将编辑、出版、流通结合为一体的大型建筑城市，大大节省了人流、物流成本。整个城市共有 150 个建筑组成，其中 62 个建筑已建成，所有建筑全部建成需要花掉 17 年的时间建造此城，建筑城中心是芦苇河，大大减少了环境的污染。这种建筑的风格将资源整合，大大降低能源的浪费，这不正是我们所寻求的吗？

清洁、正直、有人性让首尔在 1988 年被世人给予高度评价

1997 年，韩国世界杯文化市民运动促进委员会成立。

此委员会的成立的主要目的，督促市民有一个良好的形象状态去面对世界。其中两句广告语很有感染力：微笑的住宅楼和打招呼的电梯，极大限度的体现了管理的人性化。在清洁的治理上提出“公厕相当于我们的脸”的口号，让市民很自觉的遵守维护，不能去往自己的脸上贴黑。在 2008 年北京奥运会举办的前夕，很希望中韩青年文化交流带回来的信息对我们的市民文化建设有所帮助。

血浓于水的亲情让三八线的南北牵肠挂肚

站在鳌斗山统一观望台，体验着冷战遗产地南北分断的悲剧现实，千思百感。解说员动情的说：“当年情况让人很痛心，早上丈夫要出家门时，老婆吻送着老公，这一送就是五十多年；孩子早上离开家门去上学，和爸爸妈妈再见，这一再见就是五十多年，800 万失乡民把此地作为望拜檀。”

听到这些，不禁想起一个故事：话说很久以前，有一位漂亮的少妇生了两个兄弟 A 和 B，A 和 B 在成长的过程当中和睦的相处，快乐的生活。随着慢慢长大，对自己的人生观和世界观都有了一定的认识之后，再加之周围环境的变化，他们发现彼此性格不投，摩擦不断，经常会因为一点小利益而大打



出手。终于有一天矛盾激发了战争，战争的结果出现了一条隔离 A 和 B 的分界线，从此不再是一家人，一个完整的家被一分为二。

A 和 B 经历过很多风雨，历史原因和外界条件不同，使他们的奋斗目标各异，A 孤僻自立，不愿与外人交往。而 B 头脑灵活，广交朋友，并能微妙的利用各种关系发展自己，远近闻名。A 和 B 的贫富差距越来越大，在各方面的认识上也不尽相同。但当外人与 A 和 B 有摩擦的时候，总能看到 A 和 B 互助的身影，人们不禁提出了这样的问题，他们还能成为一家人吗？我们期待……

再次感谢韩国文化财团的邀请，感谢中国人民大学的精心组织策划，让我们能有机会参加这样的活动，这种互通有无的青年交流对我们的成长和发展都有很大的益处。在每个国家中，年轻人都是太阳，是希望，这种形式的活动对国家的发展也有很大的益处，很愿意在今后的中韩文化交流中加砖添瓦奉献出微薄力量！

向韩国人民致敬

□中国青年报社 杨得志

“韩国人民永远不会忘记对日本侵略者的仇恨!”——在韩国统一纪念馆前，亚洲文化产业交流财团的陪同人员一边介绍韩国民族英雄的塑像、一边紧握着拳头慷慨激昂地向我们讲解日本殖民统治的残酷；

“韩国人民永远感谢中国人民给予的无私帮助!”——在韩国议会，当郑清来议员得知翻译杨雪来自重庆，立刻非常由衷地表达了自己的感谢。他随即解释说：当年，韩国被日本侵略者铁蹄蹂躏之下，韩国流亡政府先后辗转中国的上海和重庆，最终迎来了恢复国家主权的时刻。

.....

从韩国回到北京已经有一些日子，值得记取的美好瞬间非常之多，但是这两个场景却常常出现在我眼前。每每此时，我都会从内心由衷地说一句——“向韩国人民致敬”。

因为，这是一个懂得爱、懂得恨、尊重历史而又蓬勃上进、具有强大凝聚力的民族。

韩国人民第一次让我感到震撼是在亚洲金融风暴席卷之际。当时，从媒体上看到，大批的韩国民众为了阻击风暴带来的巨大影响，纷纷把自己手中的黄金捐献出来用以稳定韩币币值。爱美的韩国女孩子捐献出自己的金首饰，老人捐献出自己的带有金饰品的嫁妆……这一个个镜头，让我不由得对这些把自己与国家命运紧紧相连的韩国民众产生敬意。

再一次的震撼来自于韩国民众对日本侵略历史的强硬态度。当韩国民众集体游行抗议日本右翼势力的时候，当韩国民众打退日本占领、强力登上“独岛”的时候，当韩国民众在日本使馆门前切下自己的指头、以血明志的时候，我从内心由衷地佩服这些充满骨气和爱国之心的韩国人。

2002年，中韩建交十周年之际，我随同中国大学生访问韩国，首次来到了这个国度。在济洲岛韩日世界杯赛场，每一个走进参观的韩国人都会非常自发地大声喊道：“大韩民国！大韩民国！”，一边喊一边高举着双臂。那种



气势、那种由衷的自豪，让在场的每一个人都留下深刻的印象，让任何人都不敢轻视这个人数并不众多的民族。

这一次，参加“中国青年‘韩流’文化记者访问团”，我又首次来到了汉城，对韩国有了更加深刻的了解和体会。

在汉城短短的五天时间，得益于亚洲文化产业交流财团的精心安排，我们体验到了韩国政治、经济、文化、科技方方面面的优秀成就，也体验了具有浓郁韩国民族特色的韩国美食和跆拳道。

每到一处，我们都能感觉到韩国人民既尊重和维护民族传统、又积极开放和学习世界先进文化技术的良好心态。也正是因为这种心态，加上强烈的上进精神，使得国土面积仅仅 9.9 万平方公里、人口仅 4800 万的韩国，在经历了残酷的日本殖民统治统治和朝鲜战争的多年战火摧残之后，仍然从废墟上昂首迈入了世界发达工业国家行列。其经济规模的总量，已居世界第 10 位，近乎于中国的一半，而其人均国民生产总值已近 15000 元美金，是中国的 10 余倍。

更让人钦佩的是，富裕了的韩国人依然没有丢失自己的优良传统，爱国而简朴。在街头，看不到一辆进口车，从家庭用的小轿车到各种越野车，从警察巡逻车到韩国议员乘坐的高级轿车，全部都是韩国自行生产、自主品牌的现代、大宇、双龙、起亚等等，看到这些，真为中国的民族汽车产业感到羞愧；同时，韩国人在吃上面也是非常注重实际，在韩国期间，每一次的宴请都是精心安排，非常有韩国特色，既热情而又不浪费，既隆重而又简朴，同样让我们感触颇深。

就在行文即将结束之际，8 月 28 日，韩国一个由普通民众组成亲日历史调查委员会经过数年的调查之后公布了一份 3090 人的“韩奸”大名单，称这些亲日派与日本合作“给朝鲜半岛及其他国家人民造成了巨大伤害”。其中，统治韩国达 18 年之久的前总统朴正熙也“榜上有名”。

看到这个消息，我再一次增加了对韩国人民的敬意——不但能够记住仇恨，而且能够正视历史。这，是尤其难能可贵的。

向韩国人民致敬！这个一衣带水的邻邦，值得我们认真探究——他们对待日本侵略历史的强硬态度、他们对南北统一的热切渴望和实际行动、他们

对待引进技术和发展民族工业的策略方法、他们对自由民主的不懈追求与探索、他们所具有的强烈民族精神和凝聚力……

这些，都是值得我们好好学习和借鉴、而对中国有着重要现实意义的他山之石。



漫步在高丽校园

□中国人民大学国际交流处 李 惠

7月29日,我和“中国青年韩流文化记者团”一行34人匆匆开始了在韩国访问的最后一站——高丽大学。高丽大学,与汉城大学、延世大学三足鼎立,并称SKY大学¹,代表现代韩国高等教育的最高成就。今年五月,高丽大学刚刚隆重地庆祝过百年华诞,校园里仍然可以见到红白两色的校庆灯旗,大书“Korea University Global Pride”。

据导游金先生介绍,作为第一所韩国人自己创办的大学,高丽大学被视为民族大学,备受国人关爱。1905年建校时,为体现其民族性,特意调运了来自全国各地的石料,修建了这座古堡似的“石头大学”。漫步高丽校园,绿树掩映中挺立着座座灰白色的建筑,整洁静谧,和谐有序。我惊奇地发觉目光所及,没有一座其他色调的建筑,不论是有着七十年历史、仍在勉力运作的老图书馆,还是号称世界十大功能型教育建筑之一的LG-POSCO商学院大楼,一幢幢学生公寓、教学楼、行政楼,尽管年代不同、材料有别、功能各异,都保持着和谐统一的风格色调。在高丽大学仅仅逗留了两个小时,步履匆匆,脑海中挥之不去的就是那一丛丛生机勃勃的葱绿和一片片冷静质朴的灰白。虽然初次相遇,来不及更多地探求,却好感平生。单从其精心规划、延续百年的校园风格,就可以以小见大,体察到高丽人从建校伊始,秉承至今的远大抱负。没有短期行为,没有急功近利,没有标新立异,没有形象工程,不管是在内忧外患的昨天,还是国富民强的今天,每一座建筑,都遵循和谐统一的模式;每一代高丽人,都坚信高丽大学将世代永存。正是一百年来高丽人始终不渝的信念,科学严谨的规划,才造就了今天高丽大学独特完整的形象、气质、风格,魅力,即便是一个刚刚踏入校园的来访者,也能感受到她强烈而特有的气息,扑面而来。

高丽大学国际交流处的朴先生带领记者团一行参观校园,不时自

¹ 汉城大学、高丽大学、延世大学英文名称分别为 Seoul, Korea, Yonsei, 第一个字母, 恰好组成 SKY。



豪地指点着印证该校发展历程的各色楼宇。朴先生的介绍证实了我先入为主的猜测，果然高丽大学非常重视保持校园整体风格，教学设施的建设是作为学校发展进程的一部分纳入整体规划的。不同时代的建筑，因注重质量而得以长久留存，延续着和谐统一的校园风格，象博物馆一样记载着学校的历史，也成为历代高丽校友的情感寄托。以 2005 年百年庆典为例，与之相配套的工程有 2003 年 10 月落成的 LG-POSCO 商学院大楼，有世界上“设计最先进、功能最完善”的商学院大楼的美誉；斥资 6 亿韩元于 2004 年完成的国际会馆及中心图书馆翻新改造工程；2005 年竣工的工程有百年纪念堂、信息楼、多文化教育馆、宿舍楼、体育馆以及多处学院教学大楼。此外，目前正在建设中的数码中心、电子图书馆、占地 35,000 平方米的地下广场以及遍布校园的无线光缆铺设工程也是和上述工程一起规划建造的。

先进的教学科研及配套生活设施是大学协调发展的必要条件，也是一流大学的重要评价指标之一。高丽大学重视改善教学科研条件，建设和谐优美的校园，认为每一项建设成就的取得，都和教学科研的突破进步同样具有重要意义，都标志着高丽大学在建设世界一流大学的道路上取得的喜人成绩。耐人寻味的是，逢有重大建设项目完工，高丽大学都要举行落成典礼，邀请校内外有关人士和国外大学代表光临，与高丽师生共享喜悦与荣耀。在节日一样欢乐的气氛中，这一仪式自然成为结交新朋，老友叙旧，加强交流，增进友谊的媒介，也成为凝聚各界校友，共谋学校发展的纽带。

今天的高丽大学，历史与未来、古典与现代完美结合，教学设施和校园环境可与世界一流大学相媲美。在百年庆典前夕，高丽大学校长鱼允大豪迈地宣布，“未来十年，高丽大学要成为国际一流大学，与英国的牛津、剑桥，美国的哈佛、耶鲁共同享誉世界。”短暂的高丽校园之旅，如惊鸿一瞥，却让我和所有高丽人一样，对此充满期待。



夏日香气

——记我的韩国之行

□复旦大学 余 弦

很幸运，在我本科阶段的最后一个暑假，得到了一个次出访韩国的机会，在韩国文化财团的邀请下，在中国人民大学的精心组织下，和一群来自五湖四海的优秀青年记者，共同登上了去首尔（汉城）的飞机。在短短一个小时的飞行途中，我的脑海中不断蹦出很多关于韩国的词汇，整容，韩剧，韩国料理，时装，三八线，足球……所有这一切，让这个与中国接壤的小国显得生机勃勃，充满话题，可以说是“小身材、大味道”呢。很快，我便抵达了首尔机场，透过机场宽大、明亮的玻璃，我看见了一座绿色的城市，我知道，高丽民族就要揭开她神秘的面纱了……

关键字：“韩剧”

本次出访是带着采访任务的，到的第一站是韩国一所较为知名的大学——西江大学，任务是与那里的教授谈谈“韩剧”和“韩流”。虽然不是个韩剧迷，但是出于审美本能，我也看了不少，如《蓝色生死恋》、《女主播的故事》、《冬季恋歌》、《美妙人生》、《巴黎恋人》、《夏日香气》等等。因此，对于韩剧虽不是精通，但也算是颇有研究，对于大多数韩剧故事情节的发展有较为良好的预见能力。到达了西江大学后，来自文化教育学院的李银淑教授为我们就“韩剧”和“韩流”进行了专题报告，并主要分析了在东南亚热播，已经在内地首播的大型古装电视剧《大长今》。在她的专题报告中，我了解到以下事实（非演讲者原话）：首先韩剧作为一种文化娱乐产业，为韩国带来了巨大的经济效益，同时也推动了相关旅游行业的发展。其次，在韩剧大行其道之时，韩国当局希望借此机会，推广韩国文化，力求成为一个文化输出的大国，并在世界文化角逐中崭露头角。就韩剧本身的发展来说，现在的趋势是，有关女性独立和解放的电视剧越来越受到欢迎，虽然在现实生活中男女依然很难达到平等，但却通过电视剧表达了强烈的愿望。代表作有《我的名

字叫金三顺》、《大长今》等。报告结束后，我们还就相关问题进行了讨论，但是对于我所提出的“究竟想输出怎么样的文化观，或是价值观”，她始终没有正面回答。

我想，“韩剧”无论从哪种角度上来说，都为世界文化的多元化，做出了一定的贡献，更何况男女主角为了各位观众的审美需要都忍受了皮肉之苦。如果说到“韩剧”想输出的文化价值观，可能还没有定论吧。我个人认为，早期的一些作品，主要停留在爱情本身，并多数以悲剧收场，以求达到痛彻心肺，赚取眼泪的目的，并非常注重画面感和男女主角的完美形象，从它的受众群体来看，主要集中在青年一代。而现在的一些作品，开始注重故事情节本身，内涵逐渐加深，题材也宽泛了很多，很多的片子都开始表达一种积极乐观的态度，正是因为这样的突破，它的受众群体也从单一的青年变成了老少皆宜。《大长今》就是很好的例子。至于为什么对于我问的关于“想输出怎么样的价值观”没有回答，我估计可能是源于这样一些原因吧，“韩剧”发展到今天，可能是韩国自己也没有料想到的，所以在没有统一筹划和详细考虑的情况下，很难说所有的韩剧是围绕某些关键的价值观展开构思和拍摄的，另一方面，在这么多外国记者的面前，若是公开宣称韩国想要植入怎样的观念，未免略显张扬，所以还是保持低调比较好，毕竟是个小国，不适宜走霸权路线，即使是文化。

关键字：大韩民国

大韩民族的凝聚力，或者说民族的自强不息可以说是我本次出访印象最深的一点，也是我个人认为最值得我们学习的。不知大家还记不记得在日韩世界杯中，那个响彻体育场，有节奏的口号“大——韩民国”，就是从那时候起，又一次的让我们知道这个弹丸大小的土地，培养的是怎样的爱国青年。有人和我说，越是想要称霸的国家，越体现出不自信，我部分认同这个观点。因为只有弹丸大小，因为人口不多，因为资源稀少，所以更加要自强。但是从另一种角度来说，我们可以把它理解为一种危机之下的凝聚力，这种危机不仅源于天然的条件，也源于在韩国附近存在着像中国这样的泱泱大国，也有像朝鲜这样一触即发的战争隐患，更有日本这样不讲信用的经济强国。这些



都使得韩国在任何时候存在着一种危机感，而自强则是唯一的出路。

奥运会和世界杯给韩国带来了极好的契机。众所周知，韩国在举办奥运会之前，国内的情况甚是令人担忧，政局动荡，环境污染严重，市民的公共道德观念较差，这一切都让当局深为担心。但是，正是因为奥运这一个特定的体育盛会，使得一切都要靠边站，让出了一条阳光大道，并使全韩国人都团结在了一起。事实证明，团结的力量是巨大的，借着奥运这股浪潮，所有的韩国人都站到了一起。奥运的圣火点燃的不仅是体育的热情，更是全世界对于韩国的热情。奥运如此，世界杯更是如此，在本次出访中，我们有幸来到了世界杯市民文化促进委员会进行参观访问。这个促进委员会的雏形来源许多民间的自发团体，其目的都在于唤醒大家的民族自豪感，增强社会责任心。后来这些团体受到了韩国政府的高度重视，在世界杯前夕进行了资源的整合和目标的统一。这个文化促进委员会便是现代韩国市民和韩国政府要求自觉自醒的明显标识。促进委员会通过形式多样，手段多样的各种方式例如公益广告等，告诉韩国市民做一个遵纪守法，诚信友爱的公民将对韩国整体形象的塑造起到巨大的推动作用。

在采访委员会的事务长的过程中，我们可以感受到的是韩国民众万众一心，众志成城塑造韩国形象的信心和决心。在短短的时间内，国内的普遍道德素质已经达到了相当不错的程度。我们可以看到，在商场和地铁的手扶电梯上，所有的人都是靠右边，以便让有要事的人可以从左边空间迅速通行；公共场所无人大声喧哗；没有人在排队时插队，虽是细节的，却也是本质的，在这些细节的背后，有股巨大的力量，那就是民族团结的力量。

回到中国，许多的城市正处在经济发展的前沿，可是相应的道德素养却始终无法跟上，虽然当局政府一再提倡，但效果却不甚理想。如果对比韩国，我想这个原因可能是深层次的，我们没有把文化道德的培养上升到与国家形象甚至命运相连的层次，而是看作一种个体行为的优劣，换句话说，我们始终没有激发起公民的爱国热情，所以才总是收效甚微。

关键字：吃喝玩乐

本次出访虽然时间短、任务紧，但是年轻的我们总是能忙里偷闲，玩上一



把。在韩国，通常吃完晚饭已经七八点钟，但是大多数商店酒店就已经关门，所以如果想要购物一把的同志一定要把握好时间差，才能有充分的时间挑选，当然也有个别大型商场是通宵营业的。韩国的服装如电视上所看见的那样，式样和颜色都很多，而且质地也不错，但是价格偏贵，通常如果想要一件好点的衣服就要四五万韩币（折合人民币300-400元）。另外头饰、皮包、鞋子都很漂亮。在韩国首尔的著名商业区一明洞，不愁买不到你想要的东西。喜欢化妆品的女孩子在那里可谓如鱼得水，不仅品牌多，价格也比国内稍便宜点。喜欢军事的男生也可以在那里的小店里买到日本进口的军事杂志。“韩剧”迷们则在各种大小超市买到明星的写真集等，在韩国国内，最红的男明星是裴勇俊和权相宇。买东西时的小窍门是：用韩语对老板说便宜点。笔者就曾经尝试跟老板娘说“嘎嘎举赛哟”（便宜点），结果把老板娘乐得当场便宜了我一万韩币，要不然的话，在韩国想要讨价还价会是件很难的事。

至于吃么，韩国人吃东西和中国人讲究量大、油水多。记得在韩国国会吃的韩国料理，应该算是很高的礼遇，但是上来的每个小碟里都是点到为止，一根青菜，两片黄瓜，十几根面条，大概吃的是情调吧，另外韩国人吃饭的油水也极少，这倒是特别健康，听说韩国人主张绿色健康的饮食方法。在所有菜肴中，让我记忆犹新的是一道“人参鸡汤”，是一只四十天的童子鸡（据说这时的营养最好），肚子里塞进糯米和高丽参味道很是清鲜，爽口，回味无穷。这道菜在复旦附近没有看到过，如果有机会去韩国的话，这个美味是不能错过的。

在所有游玩的项目中，让我印象最深的是韩国最近特别流行的舞台剧“乱打”（Nanta）。故事内容是四个厨师在总管的带领下要在一个小时内做出一桌婚宴。而这些调皮而又技艺高超的厨师们，在厨房里利用各种器具敲出了悦耳而富感染力的打击音乐。虽然从头至尾几乎没有一句台词，但是他们幽默的表演、夸张的表情、丰富的肢体语言、绚丽的灯光、强烈的节奏，让每个观众都不觉被他们所深深吸引。这一场打击乐敲出了韩国青年的朝气，敲出了现代韩国进步的节奏。让我们知道，在那严谨的作风之后，他们的青年与我们一样，爱笑爱闹，青春勃发。



韩国的五天之旅很快结束了，但是明洞的夜景仿佛还在眼前，“三八线”的故事依然回绕在耳边，“乱打”的节奏仍在我心中敲击，而韩国人的民族精神始终让我深思。这个小小民族所迸发出来的巨大力量，是全世界都为之钦佩并不敢小视的。韩国与中国有着极为相似的文化传统，在发展的过程中虽然不尽相同，但是都开出了美丽的花朵，色彩艳丽，香气四溢。



泡菜与韩剧的背后

——2005 中国青年“韩流”文化记者团赴韩采访后的思考

□中国人民大学《青年人大》 袁 磊

7月25日，天津张贵庄机场，OZ323次航班于下午一点准时起飞。

机舱里弥漫着韩国的气息：周围人说着听不懂的韩语、空姐送上韩国式的午餐、手里拿着只能看懂图片的当天的报纸。

坐在机舱后排的中国“韩流”文化记者团32名团员正从火热的北京前往东亚另一个大都市——韩国的政治经济文化中心——首都首尔，在那里做五天的采访和交流。团队之中既包括来自中央电视台、中国教育电视台、北京电视台、中国青年报、北京青年报、大学生杂志社在内的多家社会媒体记者，也包括来自《北大青年》、清华《紫荆》、《青年人大》等多家高校学生媒体的记者。从踏上韩国土地的那一刻起，记者们就开始了自己的工作——体验。

俗话说：“民以食为天。”文章就从体验吃说起。

■泡菜

记者团在韩采访交流的时间只有短短的五天，日程被安排得满满当当。提前半个月就已基本确定的日程表十分详细，就连每天的吃饭时间、地点甚至吃什么都已安排妥当，拌饭、鱼片、石锅饭等等，花样不少。但到了韩国才真正体会到了韩国第一大“美食”——泡菜。与其说是第一大不如说是第一多，记者团在韩国吃了十二顿饭，泡菜每顿必有，而且花样繁多。从白菜到黄瓜，每顿饭都要摆上好几盘，而肉菜很是少见。一顿饭下来，饭量并不大的记者也总有再进一餐的欲望。韩国的水果也不多，在韩国五天里，不但路边很难见到小贩在贩卖水果，就是在超市里，苹果桃子这样在中国很普遍的水果也很难见到。

这种饮食习惯的形成与韩国所处的地理条件有关，地处朝鲜半岛南部的韩国国土面积不大，只有99538平方公里，几乎是中国国土面积的百分之一。而且山地较多，物产不比中国丰富，自然反映在食物上也不像中国人可以吃出那么多花样。但是，韩国食物中蔬菜与肉类的比例更为健康，相对健康的



饮食同样使韩国民众拥有健康的体魄。

■泡菜的背后

此次赴韩记者团随团有两位韩国导游，他们的祖籍都在中国，能说一口流利的汉语。在第二天记者团前往韩国鳌头山 38 线统一观望台的路上，他们向记者介绍说泡菜在韩国有着悠久的历史，也是韩国人民最喜爱的食物。在朝鲜半岛上，南北韩的人民都以泡菜作为自己主要的食物。的确，自从朝鲜战争爆发到今天，本应是一个国家的韩国与朝鲜互不往来，处于军事“休战期”。虽然 38 线，一个本应是普通的地理上的概念，使同一民族、甚至同一家庭隔江而至，但是两个国家人民拥有相同的语言和相同的生活习惯。在统一观望台上，韩国人民可以通过望远镜清楚地看到汉江对岸那有着些许神秘的另一片本应共同拥有的土地——朝鲜。从统一观望台上走下，回想在一路上不断听到导游向我们介绍的朝鲜半岛政治局势以及从观望台展厅中了解到的有关半岛的地理历史知识，可以深切体会到韩国人民是爱好和平的，他们不希望战争，他们希望通过努力使经济文化能有快速的发展；同时，他们也担心战争、准备战争，他们担心一旦战争再次爆发，自己几十年的经济发展成果会毁之一旦。所以在统一观望台展厅的一角，包括前总统金大中在内的许多韩国领导人、韩国普通市民以及来自世界各地爱好和平的人民写下自己的心愿，祝愿世界和平；与此同时，为面对可能到来的战争，韩国军队和驻韩美军在路边随处可见，而且法律规定每个韩国年轻人都要服两年兵役。走在韩国的大街上，全副武装的军人会让你感觉到市民平静的生活和繁华的都市背后隐藏着些危险。可以说，韩国人是在战争的危险中鼓起勇气发展经济文化事业的，这也使我们对韩国近年来成为亚洲经济四小龙并在文化输出领域超过日本成为亚洲中重要文化产品输出国的成绩倍感敬佩。

有人说，泡菜的历史比韩国的历史还要长，这不假。韩国于朝鲜战争后建国并逐渐获得国际上的承认，然而泡菜则可以追溯到朝鲜半岛上出现高丽人开始。追根溯源，我们可以发现，朝鲜半岛的历史远比泡菜那一帆风顺的成长过程曲折得多。朝鲜半岛的历史很大程度上是被统治的历史：在古代，他曾是中国属国；而在近代，也曾在二战期间完全沦为日本的殖民地。虽然岛上并不太平，特别是近代史中战火不断，但是无论韩国政府还是民间组



织都十分重视传统文化的传承。除了修建统一观望台以时刻教育国民、特别是年轻一代努力完成和平、统一的使命，另一大韩国大力发扬的传统文化代表就是跆拳道。此次韩国之行，韩国亚洲文化交流财团特意安排记者团花半天的时间亲身体验跆拳道，在 HOKI 跆拳道训练馆学习了跆拳道的基本动作。一直以来，韩国中小学开设跆拳道课程，很多韩国人都学过跆拳道。与此同时，韩国不断将跆拳道推向世界，相比较我国武术的国际化，韩国人起步更早而且更为成功。现在，跆拳道已经成为奥运会的正式比赛项目。越来越多的外国人开始练习跆拳道，跆拳道也成为韩国传统文化的代表。提到跆拳道加入奥运会而武术却遗憾地错过了 08 北京奥运会，韩国文化观光部副部长裴仲信表示，为把跆拳道变成奥运会的正式比赛项目，韩国人努力了四十年。虽然武术最终进军奥运失败，但奥组委选定奥运项目是有固定标准的，武术要想最终成功走向世界，中国人必须有信心并向着这个目标一致努力下去。在跆拳道推广过程中，韩国人宣扬的并不是如日本武士一般的“尚武”思想，其最重要的一个理念就是孝廉。韩国人希望通过跆拳道在国际上的传播，进一步推广自己的民族文化和传统美德。

今天，我们提起韩国经常要提到以韩剧为代表的“韩流”文化，而同时我们同样应该看到韩国人不但精心致力于时尚前沿文化的发展，他们也像不断翻新泡菜品种，延续他们多年的饮食文化一样继承和发展着以跆拳道为代表的传统文化。

■ 韩剧

如果说提到韩国最有名的名词是泡菜，那排在第二的恐怕就是韩剧了，而且近几年来，韩剧正以风卷残云之势席卷东亚文化圈，大有一举超过“泡菜”成为韩国文化代名词的态势。

《我的野蛮女友》、《冬季恋歌》等影视剧不断冲击着中国乃至东亚的文化市场，而且，如果你打开中央电视台电视剧频道，你会发现一部接一部的韩国电视剧在中国热播，收视率居高不下。这些直观的印象再加上在韩五天中不断听到韩国人充满自豪地介绍自己的韩剧让记者们相信，至少在韩国人眼中，韩剧已经成为韩国文化产业的拳头产品，而且他们相信韩剧在亚洲的走红最终会带动韩国文化成为“亚洲文化的领导者”。



此次记者团到达韩国的第一站不是宾馆，而是韩国著名高等学府西江大学。在那里，记者们聆听了西江大学李银淑教授的演讲，演讲的题目是“韩流的现状与展望”。演讲中，李银淑教授提出韩国要在 2010 年成为世界五大文化产业强国之一，通过“韩流”世界化强化品牌效应，而韩国电视剧将成为文化产品的核心。李教授的信心来源于一组数据：2001 年，韩国由一个文化输入国转变成为文化输出国；1999 年，韩国文化收入 85 亿元，而四年之后的 2003 年，文化收入达到 435 亿美元；2004 年，韩国影像输出更是达到了空前的 7500 万美元，预计 2005 年这一数字还将以 10 倍的速度膨胀；2002 年，韩剧一年输出 67 部，挤掉日剧成为亚洲影视剧第一输出国；在中国这个最大的市场，韩剧成为中国人看得最多的国外电视剧。随着韩剧的不断输出，越来越多的人有了学习韩语的动力，越来越多的人开始了对“韩流”文化的追求，这也使韩国的形象有了提高。

是什么原因使韩剧拥有这么广泛的观众群体呢？李银淑教授将韩剧的优点描述为“非常真实、自然、温柔、纤细的作品”。韩剧通过描写人类的普遍性，使观众得到日常性的细微的感动。一直以来，有些人认为韩剧“事件展开简单，爱情结构单一”。但以《冬季恋歌》、《大长今》为代表的韩剧一改韩剧稍显冗长的叙述，节奏明快，使人们看到了近年来韩国社会的变化。《大长今》是一部描写女性英雄的电视剧，一改往日历史剧否定女性，塑造男性英雄形象的惯例。这部电视剧在韩国播放时的收视率达到了 57.8%，这体现了近年来韩国男性经济地位的下降，同时它也吸引了 20% 以上的男性观众，这表明“女性看韩剧”现象的消失。李银淑教授也因此相信韩剧的未来是光明的。

在韩剧热播的同时，电视剧拍摄场所也成为观光胜地。据说，现在有大量日本游客涌入韩国，目的就是看一看在日本极为热播的电视剧《冬季恋歌》的取景地——距汉城三四小时车程的春川。而记者团第二天第一个访问目标就是韩剧《大长今》的拍摄地阳州。拍摄地并不大，规模不比中国的大型电影城，但是游客却是络绎不绝。游客又是与参演电影明星的模型合影，又是亲自穿上戏服体验一把明星的感觉。除此之外，韩国人还特别会经营围绕韩剧的商品，从而以文化产业的发展带动旅游业、商业的发展。在离记者居住的梨泰院宾馆（ITAEWON）不远处就有一个“韩流”纪念品商店，里面买的主



要是韩剧明星的剧照和小饰品。来自日本的统计说，仅一部《冬季恋歌》，就为日韩两国的文化产业，包括旅游业带来了大约 2200 亿日元的收益。

“韩流”一词自在中国第一次提出发展到现在不过短短的五年时间，这期间韩剧成为韩国文化产品输出的先导，它的意义不仅仅在于带动了韩国文化产业的发展，更重要的是它在亚洲经济危机过后又一次带给大韩民族以强大的民族意识。韩国通过吸收其他文化使之与自身传统文化相结合形成新的文化，并正在用不断的文化输出逃脱出西欧文化区，使亚洲文化进入欧洲。

■韩剧的背后

随着韩剧输出对韩国文化发展产生强大促进作用，其他优势产业同样发展迅猛。俗话说：“一花独放不是春，百花齐放春满园。”韩国文化之所以在近几年突然走红，有其深层次原因，而且文化的发展绝不可能完全依赖影视剧输出一条道路。

另一大韩国文化支柱产业就是网络游戏产业。记者团在韩国的第三天是十分重要的一天，记者团团员受到了韩国最年轻、而且在韩国颇具影响力的国会议员郑清来的接见，并共进午餐。午餐上，每个人面前的饭桌上除了整齐摆放的餐具还有一个文件夹，内容就是韩国网络游戏推广计划。一个国会议员对游戏这么热衷，而且全力向青少年推广网络游戏，这在中国可能并不多见。而郑议员却认为这是韩国文化产业发展的一大商机。郑议员坦言，韩国文化产业很多方面上起步落后于日本等亚洲国家，比如风靡日本的动漫产业。因此，韩国必须寻找一个突破口，迅速占领国内和亚洲市场。在韩国，6 岁以上人口使用 Internet 的比例达到了 70%，是世界 IT 强国之一。由于选准了网上对战游戏这一突破口，韩国文化产业发展出现了又一支柱产业。2003 年，韩国游戏产业收入是影视收入的四分之一。不久之后，韩国国会还将就通过《游戏法》进行表决。韩国游戏的最大市场是中国，所以中韩游戏领域的交流与合作还在不断进行。今年 8 月 8 日，世界 e-sport 大赛将在中国青岛举行。郑清来议员在谈话中认为，韩国的目标是成为一个文化产业强国，为达到此目标，游戏产业应该成为韩国文化产业的主流。他同时认为，以中国 24.6% 的文化产业成长速度，中国如果继续发展文化产业，人民生活水平会得到进一步的提高。



说到文化产业，不能不提的是出版业。韩国出版业的发展很有特色，出版商自发的集合在一起，形成了独特的出版商文化，共同建造了拥有绿色生态环境的波洲出版小区。这一出版区聚集了韩国几乎所有的出版单位，由约 150 个建筑组成，其中已经有 62 个建筑完工，预计将花 17 年的时间完全建成，并使之成为一个名副其实的文化城市。在这里，记者团的成员们饶有兴致地参观了出版一本书所需经历的所有流程。这里的机器并不是最先进的，据随行的中国青年报记者杨得志老师介绍，这里的印刷设备不如中国青年报印刷厂的设备先进，但这里的经营方式和建筑理念却是中国没有的：这里采取集中经营的方式既保证了书的质量，又提高了人流物流的效率；这里的建筑十分环保，全部采取生态的建筑材料；这里的环境受到最大限度的保护，连原来此地的芦苇都保存了下来，形成了独树一帜的“芦苇路线”，不但与水相连，而且使人与自然开放地结合起来；这里是“365 天不间断的文化城市”，是“亚细亚文化生产中心”，不少国际性会议和书展都在这里举行。这种集中出版商形成独特出版文化、减少成本、减低污染、提高效益的经营理念在中国国内还很少见。

韩国作为亚洲经济四小龙之一，其商业的发展自然引人注目。这次，记者团专程访问了韩国最大的商业区之一——明洞，并在那里与位于明洞中心区的 Migliore 购物广场代表理事刘宗焕社长进行了座谈。如果将明洞比作中国北京的西单商业街，那 Migliore 则相当于中友百货商场，但其规模却要大上几倍，配套设施也要齐全很多。不夸张地说，明洞是购物的天堂，这里每天平均流动人口达到 150 万，一个喜爱逛街的女孩在这里逛上一天一夜也不会觉得乏味。Migliore 明洞购物广场是明洞商业区的核心和代表。整个购物广场消费区共有十层，其中有七层经营各种服饰和饰品，由约 1200 个店铺组成，并配有美食城、银行、电脑网络中心等便利设施。这种经营规模和经营理念在中国国内并不多见。出人意料的的是，这里 70% 的商品来自于中国，其中包括韩国商品在中国制造和中国出口产品两种形式。服装产品更是有 90% 都在中国生产。然而，中国国内却很难建立起如此大规模的购物广场，前一段时间在北京相继成立的许多大型的 Shopping Mall 经营状况却并不理想。柳社长一针见血地指出了中国零售业发展出现的问题：中国制造商很多，但销售商



却并不多。主要问题是经营格局不好、商品多样性少而且不能满足消费者的需要。在他看来，商场的布置、装潢十分重要，应与服装的质量一起提高。对于自己成功的心得，他总结为四点：地段良好、人口流动量充足、产品足够多样化、一个星期保证更换 20% 的产品。应该说，Migliore 明洞购物广场代表了韩国零售业发展的一个时代。随着巨额资本的大企业和外国企业打入流通市场，地区原有的百货商店和仓储型商场都已倒闭，取而代之的是小型的便利店。在韩国的大街小巷，seven-eleven 这样的小型超市不计其数，种类也有很多。他们与在东大门商业区、明洞商业区的 Migliore 大型购物广场相得益彰，形成了独具韩国特色的零售行业。

其实，韩国追求现代化的产业文化并不局限在零售业上，在大宗货物展销上韩国人也动了一番脑子。几年前，韩国人一直因为没有一个大型的展销场所而使自己国脚的厂商要千里迢迢到外国参加展销会，这大大增加了成本。为此，韩国人制定了近期和远期的计划，建成了占地 237780 平方米、以“Shows the World”为理念的的大型会展中心 KINTEX (Korean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韩国人希望通过建成这一国际水平的展览会场，使韩国成为世界贸易的一大中心。如果说韩国人通过韩剧打开了亚洲文化产业的大门，那么韩国人正依靠 KINTEX，以东北亚代表贸易中心为目标，以专业化、大型化、国际化为战略，试图打开东亚乃至世界贸易之门。

韩国人推广自己的文化产业、零售业、商业都体现着韩国人走向世界的战略意识和现代化的经营理念。除此之外，随着 88 首尔奥运会和 02 年韩日世界杯的成功举行，体育文化和随之得以发扬光大的市民文化同样体现了韩国人对以韩剧为代表的现代文化发展的独到眼光。88 年首尔奥运会的主办权并不是依靠激烈的申办过程赢得的，而是因为另外有权举办的中国、日本因其它原因放弃了主办权，使得韩国临危受命举办，而且 88 年奥运会还收到了一些国家的抵制。应该说 88 年奥运会算不上是一届完美的奥运会，但是韩国人却依靠奥运会发展着自己的体育文化。88 年奥运会纪念馆中，不但有 88 奥运会珍贵的历史资料，更多的是世界奥运历史的珍贵藏品，比如历届奥运会的火炬和吉祥物。韩国人用奥运纪念馆的方式保留着奥运带给韩国人的精神财富。88 年奥运会共盈利 3500 亿韩元，这些盈余被广泛营运到了韩国体育文化



的发展中来：学校和社区体育运动的开展、职业体育水平的提高、体育项目和文化的推广都与 88 年奥运会有着密切的联系。韩国人充分利用着奥运会留下的宝贵财富，直到 17 年后的今天，奥运文化仍然影响着韩国民众。另外，02 年韩日世界杯的成功举办更是给韩国带来了更大的发展空间，其中最突出的一点就是市民文化的提高。韩国为在韩日世界杯期间提高市民素质，特意在 1997 年成立了世界杯文化市民委员会，主要工作是通过公益广告的形式向市民宣传文明礼仪，培养市民良好的素质。世界杯之后，这个委员会被保留下来，继续发展韩国市民文化。“市民文化”的概念在中国还比较模糊，但在韩国它却像韩日世界杯中韩国男足的表现一样引人注目。世界杯上主场球迷“红魔”拉拉队那排山倒海的气势就是他们的杰作。而更多的，他们带给个市民的是细小方面的道德准则：日常礼节、电梯地铁文化、公厕文化等等。通过道德方面的教育，韩国政府客观上提高了国民的市民意识，市民们通过规范自己的行为使自己体会到自己也融入到了世界杯的盛会中来。委员会的理念是“做正直的人，有人性的国民”。通过记者团在韩国访问的短短五天，记者们充分体会到了韩国市民文化的提高：韩国人是热情友好的，他们遵守秩序、关爱他人。用韩国文化观光部副部长裴仲信的话说，“奥运对公民素质的提高是最为重要的。”2008 年北京奥运会在即，韩国人对于体育文化的继承和发扬、对于市民文化的培养与挖掘十分值得我们借鉴。

最后，我还要说一说在韩剧之外在韩国当今十分流行的一种舞台剧“乱打”（“NANTA”）。很多记者团成员承认“乱打”剧中演员的精彩表演是他们韩国此行印象最深刻的。的确，这种表演形式在中国还没有出现过，而韩国人这一剧目在美国已经开始流行。始创于 1997 年的“乱打”迄今已经在 40 多个国家 160 个城市演出了 2500 场，曾参加 2002 年韩日世界杯的开幕式，并被韩国观光社指定为“汉城十大观光景观”。他们在世界各地的演出内容基本一样，都将舞台“变成”一个巨大的厨房：以锅、碗、瓢、勺、刀叉甚至扫帚作为打击的“乐器”，并在中途以中、英、韩、日语煽起观众的热情。据悉，这部音乐剧的雄伟计划是在全世界连演十年。在韩国，每天一场的乱打剧场场爆满，票源十分紧张。很难想象，一个天天上映，而且内容一样的舞台剧可以生存这么长时间，而且还开始向世界进军。他们演奏打击乐却抛弃了乐



器；他们表演情节剧却抛弃了语言；他们继承了最传统的韩国“四象游戏”却义无反顾的选择了像时尚先锋一样，永远挑战流行的最前线；他们是“传统艺术表演家”却选择了和观众一起抛弃历史的沉重和繁杂，在轻松与简单里用节奏嬉皮笑脸。“乱打”剧源自韩国却打动了世界，这其中的奥妙只有欣赏了才知道。其实，“乱打”正是在韩国传统文化的基础上吸收了西方打击乐文化和喜剧文化。可以说，“乱打”的成功体现了韩国兼容并包的文化理念的成功。

以韩剧为代表的韩国现代文化，即“韩流”正在席卷东亚文化圈。这种现代文化并不完全是韩国传统文化发展起来的，而更多的夹杂着各种各样的文化形态。很多深受韩流影响的中国人一直想弄明白“韩流”宣扬的到底是一种什么主流文化，但韩国之行让我们知道韩国人也很难解答这一问题。就像“乱打”剧一样，他不够传统、不够主流、不够高雅也不够深远，但就是这种风格迎合了广大观众的心，使得韩国文化得以在世界广泛传播。很多韩国创作人说“我们没有形态”，但正是这种东西很让人着迷。不只我们是否可以说：没有风格既是一种风格，他将成为文化吸收整合过后的最高境界。韩剧的背后是韩国文化与世界文化的接轨，是韩国人一直以来努力经营自己的文化产业、推广文化理念的巨大成果。

■背后的背后

五年的时间，“韩流”红遍东亚。韩国文化短时间内迅速被世界接纳并不只因为韩国影视剧工作者的辛勤工作、也不只因为韩国文化代表了当今时代的主题，他的成长有其深层次的原因。

如果从2000年韩国音乐、影视剧开始风行国内算起，“韩流”已经整整风靡了五年。作为一种大众流行文化，其生命力之顽强令人惊叹。但在同时为什么一个在历史上深受汉学、儒家文化影响的国家反过来会对我们产生如此强烈的文化震撼力？、

韩流体现的是韩国的智慧，体现的是特殊的民众心态。韩国是个大国边上的国家，在历史上，它曾深受中国儒家文化影响；到了近现代，日风美雨也曾强烈冲击过这个国家。可以说，韩国一直承受着外来文化侵袭的压力。今天我们说“哈韩”，其实在韩国国内，他们也曾哈日、哈美过。但是韩国人有

一个优点，他们很善于吸收外面的东西，比如韩剧，它是在吸收和消化好莱坞肥皂剧和日本偶像剧的长处后，加上特有的韩国意蕴才形成的。兼容并蓄、突出自我，可谓韩国流行文化的成功之道。

因此，当“韩流”文化不断涌入中国大陆文化市场之时，我们没有必要为此担心我国文化受到侵略。在韩采访期间，韩国文化部副部长裴仲信先生在谈到有人认为“韩流”在东亚“肆虐”是一种文化侵略行为时也表示：文化市场可以对周边国家产生影响。五千年来，中国文化影响了亚洲国家，如今，外国文化通过吸收中国文化和世界其他国家文化又一次返回中国国内。文化是中性的，不应存在文化上的侵略。的确，韩国队与吸收他国文化问题有着明确的态度。裴仲信副部长表示，如今世界上有许多文化中心，对于各种文化的态度不应持排斥态度，而应从传入韩国的文化中学习，使本国文化进一步完善。

开放的中国必须具备这样一种远见卓识——“万物皆备于我”，我们所要做的是一种超越文化的整合。现在我们常常说要抓住战略机遇期，韩国抓住了。韩国在现代化过程里，抓住了文化产业发展契机，像韩剧、游戏行业都走到了世界的前列。其经验就在于他们很善于吸收别国的发展经验和现代文明的先进成果。亚洲要发展自己的文化，首先要超越西欧和美国的文化。韩国将西欧文化和韩国传统文化相结合，产生共鸣，使世界对于韩国现代文化有一种亲近感和亲切感。此乃值得我们借鉴的经验之一。

1998年，时任总统金大中宣布：“21世纪韩国的立国之本，是高新技术和文化产业。”从这一论断可以看出韩国政府对于文化产业的重视和大力扶植。韩国政府为把韩国文化推向世界，在对外交流、立法和政策方面做出了巨大的努力。这次中国“韩流”文化记者团访问韩国活动的主办方韩国亚洲文化交流财团就是一家政府下属的文化财团，主要开展韩国文化和亚洲文化的交流，进一步促进韩国文化走向世界。从他们认真务实的工作以及周到妥善的安排，我们感受到的是韩国政府为使本国文化得到世界认同做出的巨大努力。另外，为使本国文化有长足的发展，韩国政府给予文化发展十分自由的发展空间。文化观光部部长裴仲信也将韩国文化发展的基本原因归结于此。韩国影视行业的快速发展就与政府密切相关。韩国政府制定了相对宽松的影



视法规，使其取材自由，又在资金上给予扶植。现在，影视行业已将成为政府和电影人共同的事业。影视业也成为韩国经济的支柱和对外交流的纽带。韩国政府在文化振兴中扮演的角色是积极的，他们对文化产业的支持是文化发展的第一动力。文化产业发展初期，大量的民间力量聚集，政府所要做的就是给与文化产业以自由的发展空间和资金上的支持。此乃值得我们借鉴的经验之二。

最后一方面的经验来自于奥运对文化的促进。02年韩日世界杯和88年首尔奥运会的成功举办提供给我们许多经验：首先是奥运对国民素质的提升，这在韩国被认为是奥运的最大收获。然而，并非奥运申办的成功或是08年奥运成功举办就代表了国民素质的提升、市民文化的发展，它需要“经营”。02世界杯前，韩国提前五年开始向市民推广各种文明礼仪，提升了市民的国民意识。中国是礼仪之邦，08奥运还有三年就将如期而至，加大力度让市民用自己的文明行动参与奥运已耽误不得。另外，奥运过程中，文化商品应与有形的商品一同发展。奥运会前后各种文化活动应该放到重要的位置上来。同时，奥运会后奥运文化的继承和发展同样要在奥运会的准备过程中提出具体方案。只有这样，才能充分发挥出奥运对举办国文化的巨大促进作用。

韩国现代文化走红的背后是韩国政府和市民共同营造的结果，也使韩国文化与世界文化共通共融的结果。韩国文化产业的发展过程，其实反映的也是东方文化的现代化过程，这其中的点点滴滴值得我们这个还处在文化产业初期的文化大国借鉴。

当OZ333次返航班机安全着陆在北京国际机场的那一刻，每个团员的脸上都充满着回家的喜悦，笑容中带着对机舱中韩国氛围留恋。这时，虽然语言还是不通，虽然泡菜可能还是吃不惯，但是团员们熟识了一个民族，体验了一种文化，也真真切切地看到了泡菜与韩剧背后的精彩……



韩国纪行

□清华大学 赫楠

当空白的护照上盖上 Republic of Korea 的签证，韩国正式成为我到过的第一个外国。五天的行程，对于一个只有不到 10 万平方公里，4800 万人口的区域，似乎还不充分，但已经足够我的感官全速运转，头脑也在不停思索。

在一个理工科学生的眼中，主办方的工作也许还略欠严谨，但人民大学和韩国方面的主人，却凭着智力因素之外的优势，使得这次活动得到了相当的成功。至少对于我这个还未进入社会，相对孤陋寡闻的学生是如此。

访问团以媒体人员为主，一行共 34 人，学生记者占了近 1/3。我是其中年级和年龄都最高的一个，也是唯一的理工科出身的学生。5 天的相处，我又一次感到了文科生的特点和在某些方面的优势，虽然这一优势的方差很大，从而使我怀疑这是他们本身的素质，还是学科培养的结果。

初到韩国：熟悉而亲切

从距离来看，从北京到汉城，并不比到广州遥远。历史上同源的文化传统，近现代高度相似的发展经历，以及当代经济、文化的密切联系，使我在抵达汉城仁川国际机场时，看到各种指示牌都以中韩英日四种文字标识，感觉如同到了一座中国城市般熟悉。

这种熟悉既来自于当代两国经济的紧密联系：现代和三星是在汉城出现频率最高的两个中文词、而随处可见的 SONATA 也让人仿佛身处北京的街头。同时汉文化的痕迹也无处不在：纸币上着明朝服装的儒家学者和大王，按照中国形制建造的宫殿古迹，还有随处可见的中文的店铺匾额²…走在韩国街头，真的会产生一种离京而未出国的错觉。这一切都昭示两个国家的自古以来不同寻常的关系，而这种经济、政治、社会、学术历经千年的纠葛，最终必将沉淀、积累而成为文化的一部分。

自 20 世纪 90 年代，韩国开始向周边国家输出的文化产品，在中国引起的反响最为深远和热烈，最终形成一种独特的“韩流”。而中韩两国多年交流形

² 在韩国，使用汉字是一种有文化的表现，正与目前中国人使用古诗文类似。

成的文化积淀以及文化相似性，是“韩流”相对西方文化能够在中国更接近主流文化的首要原因。

而这也能够解释在韩国输出的文化产品中，电视连续剧（韩剧）和网络游戏为什么能够一枝独秀的原因：相对技法和叙事受到更多西方影响的电影、语言上存在隔阂的流行音乐、技法上相对日本等相对落后的漫画，韩剧体现的社会和文化背景与中国大陆（特别是城市）的近似，情节中包含的家庭和社会伦理关系，对于人物的刻画和对于观众心理的把握，以及在制作技巧上的精良，是韩剧能够在大陆产生广泛影响的重要原因。

从我本人看过的有限韩剧（包括《明成皇后》等），可以感觉到当代韩国社会对汉文化的理解比我们绝大部分现代中国人更加深入。而这种深入不是通过刻意学习和研究得来（虽然在韩国能够引用《论语》的人比例远远高于中国），而是在一个不间断的文化传统中自然继承的。而现在，这种源于中国的儒家传统文化，又被包含在韩国现代故事之中回到了它的发源地，而我们现在和将来的很多观众，往往会误认为这本身就是韩国文化自有的元素，正如现在我们对日本文化的印象一样³。

因此，我们不得不情愿的承认，在东亚汉文化圈中，虽然 Middle Kingdom 的地缘位置仍然居中，但其在这一文化圈中正在渐渐地被边缘化：在我国，除了内化为某种民族 DNA 的“中华民族传统美德”之外，传统文化更多的表现为“文”而非“化”，他们的遗存被陈列在博物馆中，向今日的中国人和世界游客昭示着曾经辉煌的古代汉文明。而对于这一文明，现代大多数中国人与他们的西方客人一样，同样处于一种观看的位置。

由此又想起了在韩国听的一次讲座，当韩国教授提到韩国要成为亚洲文化传播的领导者（大意如此）时，包括我在内的中国同伴大都不以为然；然而，如果从对于汉文化传统的继承来看，韩国至少有资格发出更响亮的声音。

然而，既然来到一个新的国家，就应当暂时封存自己形而上学的思考，而投入进这个充满未知的环境。

细节：制度胜于技术

我一直认为，了解一个国家/城市的最好方式，是作为一个普通的行人在

³ 中国和日本文化的联系是一个更复杂的问题，不在本文讨论范围内。



大街上走一走。选择不同的时段、不同的天气到处留连一下，细心的人便能够发现足够的细节来构建这个城市的形象。

在韩期间，我们也参观了一些代表韩国“技术”发展成就的去处，如韩国国家展览中心、通信产业部等等，坦率的说，并未给我留下过于深刻的印象。即使是对方引以为豪的数字家庭（类似于我国的闪联），在技术上也并未显示出先进。反而是几个没有什么技术含量的细节，使我感觉到韩国社会的先进，这些细节，通常是某种制度直接或间接的结果。

制度经济学告诉我们，所谓制度，乃是由人制定的规则，它们抑止着人际交往中可能出现的任意行为和机会主义行为。⁴“制度”的范围非常宽泛，包括但不限于经济、政治和文化。而中韩两国文化的同源和相近，又使这种制度上的比较更具有现实的意义。

在韩国的街头，按照路口的指示灯行进，真的可以闭着眼睛放心的穿过马路而不必担心像在北京街头，可能会有右转的车辆同样按照交通灯指示而“合法”的撞到你，更有甚者，在一些路口，如果忠实的按照指示灯行进，其危险或者不便程度反而高于按自己的判断乱走。也许有人把这归结为汉城的交通控制技术比北京先进。但北京的城市管理者为什么没能学习发展这一相对门槛很低的技术，就不得不归结于制度。而对于普通市民而言，当守法成本大于违法成本时，制度（法）已近于失效。这就是为什么道路远不如北京宽阔平坦的汉城，即使在小巷也少见完全塞车的原因。

在韩国的街头，特别是 CBD，常常可以见到绿色的擦皮鞋岗亭，这些岗亭是汉城各区政府特别许可并建立的，从业者都持有执照，收入高于一般的白领职员。在理论上，在这种本应属于自由竞争的行业，政府使用许可的方式进行垄断经营，是违反韩国资本主义经济原则的，而且政府对行政资源的垄断，极易产生寻租行为（韩国政治献金丑闻确实层出不穷）。但当我们知道这些擦皮鞋岗亭作为一种经济和社会福利，只允许战争阵亡者家属申请经营时，不免感叹这一制度的独到。我联想起 97 年金融危机时，韩国人为国家捐售黄金的场景，虽然出于爱国的本意，但类似擦鞋特许这样的制度安排，却正是韩国人为国家奉献的真正保障。从公共管理的技术角度，擦鞋特许这一公共

⁴ 柯武钢、史漫飞，制度经济学，商务印书馆，2003

政策的难度几乎为零，授人以渔几千年前就为先人所认识。但如何推动决策者考虑这一弱势群体的要求，却需要制度的安排。

人：乐观而诚恳

对一个国家的认识，来自于细节的累积；对于一个民族的认识，则来自于所接触到的每一个具体的人。五天的历程虽然短暂，但我自认为已经足够构建出关于韩国民族的一个大致清晰的形象。

当你站在朝鲜半岛的沙盘前，就会很容易的发现，韩国的地理位置并不乐观、甚至可以用险恶来形容：北面是同一民族但还保持着战争状态的朝鲜，三八线那边的人民军用远程大炮便可直接炮击汉城；南面是由于历史上积怨已久，名不符实的盟友日本。汉城大街上随处可见的军人（远远多于警察），戒备森严的美军基地和兵营都在暗示着这个国家的地缘安全局势不容乐观。然而，对于我们接触到的普通韩国人来讲，这确是生活的一部分，在这样的环境下生存，乐观和开朗成为必须的条件。

在等待出关时，一位身着机场制服的韩国长者以一种自然却难以抗拒的诚意，主动用汉语与陌生而年轻的我攀谈，虽然只是寥寥几语，但已足够在我心中建立起韩国人民诚恳好客的第一印象，这也成为韩国之行的良好开端⁵。在随后的日子里，我们可以在各种场合，从政府官员、导游、企业家、售货员、出租车司机、素不相识的路人等不同身份的人身上，感到这个民族共同的气质和心态。

这里又不得不提到传统的礼仪所发挥的作用，它不但是人们交往中的润滑剂，更重要的是，礼仪培养了一个人为人处世的基本心态和行为准则：在汉城，虽然生活节奏很快，成本很高，压力很大，但一个晚上十一点下班的白领仍然愿意帮助陌生的游客，一个出租车司机宁可义务指路并免费载你一段，也不会带着你故意绕远路。在非强制和违规成本几乎为零的条件下，这种心态和行为是一种高于制度的修养，而这种修养归根结底是来自一个人生长的社会环境的熏陶。也正是这种修养，构成了朝鲜民族的独特气质，也使这个在体质人类学方面与东亚民族差异不大的民族能够与汉民族比肩而立的原因。

⁵ 这一点值得我国所有的涉外部门注意，外国人对这个国家的第一印象，往往来自在该国土地上与当地人民的第一次接触和交流



五天的韩国之行虽然短暂，但对于我的内心而言颇有收获。至为重要的是，我得以真正认识一个种群能够成为一个民族的真正原因；得以观察文化和传统的延续对一个民族的和社会塑造；得以分辨技术和制度对于社会的作用。总之，不虚此行。



文化的近邻

□北京大学 付雁南

前往韩国之前专门去买了一堆中国结，准备送给当地的友人。一直以为这中国结是中国的标志，在国外应当很少见，结果到达的第一天就在超市看到了长得和中国结几乎完全一样的东西——唯一的差别是中间加了韩国特色的八卦图。于是再不敢把这些中国结拿出来丢人，只能巴巴地又背了回来。一路上不停地跟同行的人感慨：知道中韩文化相似，可谁想到竟然相似到了这种地步。

到韩国的头一顿饭吃的是火锅。相似的碗筷，相似的菜，相似的白酒，让我们怎么都觉不出已经踏出了国门。不过虽然东西相似，但还是略有不同：盛米饭的碗盖子上写着四个字，细看之下竟是篆体的汉字“常平通宝”，图案和字的排列也像极了中国的铜钱。第二天去“大长今主题公园”，看着药房里抽屉上写的“生薑”、“山藥”、“半夏”，以及民宅里用汉字写的对联，和中国的药房、民宅十分相似——就像一位同行的老师说的：“所谓韩国特色就是中国特色。”

走在韩国的街道上，常常恍然觉得自己在国内。过往的路人都是和自己一样的黑头发、黄皮肤，不张嘴谁也不知道自己是外国人——“宾至如归”的感觉也不过如此吧。其实即使是语言，两国也有很多相通之处。韩语里“韩国人”、“中国人”的发音与中文极其相似，每每听周围的人说起都不禁莞尔。“世界杯”上韩国“红魔”啦啦队喊的“大韩民国”引起了多少国人的会心一笑——发音和中文实在太相似了。

刚到仁川机场的时候，看着一路的指示牌，心里总是窃喜：虽说自己对韩文是一窍不通，唯一的一点修为也只是来自于韩剧的熏陶，可这一点都不妨碍我在机场顺利入境——所有的指示牌都标着汉字，虽然和我们的语法不尽相同，但理解是没有问题的。韩国虽然早些时候不再提倡使用汉字，但很多地方仍然是韩文和汉字同时出现，这给中国的游客带来了莫大的便利——中韩文化的相似与相通是没有办法改变的。



韩国文化本身就是由多民族文化影响、融合而成的，中国、日本、美国都分别在古代、近代、现代对韩国产生了深远的影响，也正因此，韩国的文化兼具了东方文化的含蓄、西方文化的开放，变得更有生命力，也更易被其他的国家所接受，具有更强大的影响力。

在这一方面，中国仍然与韩国非常相似：一方面，韩国文化本来就深受中国影响，韩国传统的建筑、饮食至今仍保留着浓郁的中国特色；另一方面，中国的文化也是在几千年来由各种文化融合而成，古代不断吸收周边少数民族的特质，近代由于西方的入侵也经历了迅速的西化，改革开放后更接受了各国的文化，多元化和强大的包容力一直都是中华文化的特点，如今的中国文化也是同时具有东、西方文化特点的“混合体”。

中韩两国不仅在地理上是一衣带水，更是文化上的近邻。但既然两国文化如此相似，为什么中国的文化没有像韩国这样席卷亚洲呢？在我看来原因有几个方面：

原因之一是中国的经济还没有发展到足以推广本土文化的程度。韩国的经济经历了上世纪六十年代开始的腾飞，不仅提高了国民生活水平，也培养了一批世界级的品牌。这样的品牌在输出产品的同时，也输出了本国的文化。在上世纪八十年代日本文化风靡整个亚洲之时，“松下电器”的广告歌每天都回响在电视机里，而如今，三星出品的 F 系列 mp3 已然带动起了京城流行新潮流，这就是产品输出带动推广文化的表现。

原因之二应当是中国的影视剧没有达到韩剧现在的发展程度。从《爱情是什么》，到《蓝色生死恋》，再到《大长今》，十年的时间里，韩剧对国人的吸引已然成了一种文化现象吸引了不少学者的讨论。韩国电影、电视或以营造浪漫悲情赚取观众眼泪，或以自然还原生活吸引观众一集集地关注、等待，而这样影视剧的输出真正输出了韩国的文化，制造了席卷亚洲的“韩流”。宋慧乔在《浪漫满屋》里的造型成了年轻人纷纷模仿的对象，甚至影响了 2004 年中国的服装市场；而对于中年人，韩国输出的家庭剧如《看了又看》里面传达的敬老尊贤的礼仪也成为了家长教育孩子的“标本”。事实上，在这十年的时间里，韩剧的内容经历了生活肥皂剧——浪漫爱情剧——奋斗立志剧的转变，而其输出的文化也由最早的家庭观、爱情观转变为人生观。这是韩剧

的魅力之所在，也是韩国文化的“野心”之所在。

原因之三，中国文化至今尚缺乏大型世界活动的推动。韩国文化经历了1988年汉城奥运会、2002年日韩世界杯、2002年釜山亚运会三次大型运动会的推动，以更强大的生命力和影响力波及到更广大的地区。汉城奥运会后关于运动场馆环境的赞扬、世界杯上“红魔”创造的奇迹，都为人所津津乐道，而这其中所蕴含的民族文化与精神，则更深远的传递到了世界各地。中国二十年来主办的的大型世界级的活动也只有1992年的亚运会，因此我们急需一次大型的世界级的大型活动作为向世界展示中华文化的平台，助力推广本土文化。

所幸的是，以上三个原因对于目前的中国并非难于实现。中国的经济已经经历了20余年的高速增长，尤其是亚洲金融危机后仍然保持着稳定增长，所取得的成绩为世人瞩目。相信按照这样的发展速度，赶超发达国家只是时间早晚的问题。2008年中国即将举办北京奥运会，这样的世界盛会对推广中国文化也是难得的机遇。至于影视剧，几十年来我们取得了无可否认的进步，但接下来的发展道路依然不甚平坦。

中韩是文化的近邻，中韩两国的文化高度的相似性让我们有理由推测，只要运营得当，中国文化完全可以制造与“韩流”相同的奇迹。1980年至1995年，日本文化风靡亚洲，1995年至今，“韩流”影响了更为广大的地区。如果我们保持经济的正常发展，提高国产影视剧的质量并大力推广输出，并在2008年北京奥运会组织活动中有意识的传达中国文化，也许2010年，影响世界的文化中心就是中国呢。



韩国五日印象记

□ 北京师范大学学生会 冯 觅

受到韩国“亚洲文化交流财团”的邀请，在人民大学的精心组织下，由国内部分主流媒体记者和部分高校学生记者组成的“韩流文化采风团”于7月25日—29日前往韩国首尔交流访问。作为北京师范大学学生会的记者主管，我有幸参加了本次访问交流活动。在整个访问安排中包括了韩国的人文景观、政府机构、NGO、大学等地方，除此之外，我们则通过吃、住、行等体会当地的民风民情。在这短暂的五天访问中，韩国人民的整体素质和民族文化给我留下了深刻的印象。

在从仁川机场到首尔市区的一段路程中，并没有让我感觉这个邻邦首都整体建筑风格上与国内有太多的不同。在中国留学的韩国学生普遍比较花哨，一眼就能辨认出来，但首尔市民着装却非常之朴素，那种独特的单眼皮，浓眉，厚唇的典型韩国人也不是那么随处可见，这让我们感到格外之亲切。如果不是满大街的韩文招牌，很难让人想到这是在异国他乡。尤其是起伏的首尔市区街道勾起了我对家乡——“山城”重庆的思念。但同样是建在山上的城市，首尔的市区内部虽也散落着少许与高楼大厦格格不入的破败之处，但总没有见到什么碍眼的景色，尤其是整个城市非常清洁，给人清新的感觉。大街上没有散落的垃圾，据导游介绍，韩国政府对于乱扔垃圾和随地吐痰的罚款是非常严格的，一张随地吐痰的罚款单足够在韩国好好吃上一顿了。

坐落在丘陵上的城市，马路通常比较复杂，首尔也不例外。复杂的马路，繁忙的交通，算不上宽阔的街道，慢吞吞的车流，这一切构成了首尔有序、文明的道路交通。仔细观察首尔的马路，绝大部分被现代、双龙、三星等韩国国产汽车占据，偶尔有欧美汽车，几乎看不到日本车（当然也没有自行车了）。事实上，韩国平均每个家庭拥有一辆私人汽车，交通压力非常之大，政府不得已在一些隧道口对私车征收额外的“过路费”，以鼓励老百姓以地铁或者公交车等其他交通工具代替私车。

除了在旅游大巴上体验首尔的都市风景之外，偶尔下车步行的时候，也



能体会到韩国人民的礼貌和友好。一天，我们采风团一行三十多号人在郊外的马路旁下车，需要到街对面的餐馆就餐，可郊外的马路没有斑马线，也没有人行天桥，三十多号人只有瞅准车少的时机横穿马路。这时，在中国的不常见的一幕发生了，过往的两辆越野车看出我们有过马路的意图，在离我们还有几十米远的时候就匆匆减速，到了离我们还有二十多米的时候，车速慢得几乎都快停住了。这时，我们才放心大胆地横穿马路。在最后一位团员穿过去后，两辆越野车才缓缓起步，离去。我很惊讶韩国人竟然如此的谦虚礼让，好奇地向团里的翻译打听。翻译是位北京外国语学院的学生，曾经在韩国留学一年。她饶有兴致地告诉我，在她刚到韩国不久的那段日子里，经常在过马路的时候和开过来的车辆“僵持不下”——在中国习惯了“人让车”的她就静静地站在路旁等车开过去，而朝她开来的汽车却在十米远处停下了，两秒钟后，滑稽的一幕就出现了：她正要跨步，汽车司机以为她礼让却又开动了汽车，而她看见车又启动了，只好收回步子，同时司机又突然发现她又没有“礼让”，于是赶紧刹车……如此循环，常常会持续一分钟以上。我想起北京许多高校内的主干道上写着类似“机动车辆必须避让行人和自行车”的字样，并且无一例外地安置了汽车减速带，才发现我们的“礼仪之邦”来得不如韩国人那么货真价实。不过，不讲道理的情况也不是没有的。某天，采风团在首尔 DBC 步行准备过马路时，绝大部分车辆在红灯面前乖乖地停住了，却有一辆摩托车冷不丁地从汽车之间的缝儿里穿出来，蛮横地从斑马线上轧过去，一溜烟不见了踪影。准备过马路的人们都吓了一跳。我回头问韩国的导游是不是摩托车可以闯红灯，导游不好意思地笑笑说，当然不是，只是一些年轻人，想出风头罢了……

采风团到了晚上才有些许自由活动的机会，于是我们几名大学生带上地图和指南针，结伴来到快要下班的地铁里。一看地图才发现韩国的公路交通比起九条“盘根错节”的地铁线路来说，只能算是小巫见大巫。地铁布满整个市区，市区内任何地方都不用走太远的路，就能够找到地铁站，极为便利。不过，在南北韩对立形势比较严峻的情况下，地铁实际上也成为了一种战略资源，一旦发生危机，如此的地下纵深完全可以用作避难所。我们从地铁里形色匆匆的路人中就近挑了一位三十多岁的年轻人问路。估计下班后出去喝



了点小酒，这哥们有些微醉，但他见我们用英语，便立马还以流利的英语。他一面和醉意抗争，一面为我们热情地指点方向，末了说一句：“I have many Japanese friends（我有许多日本朋友）……”，害得我们连忙向他澄清我们的国籍。深夜的车厢里已没有几个乘客，我们的进门后便挑了个条椅挨个儿坐下。坐了三十秒钟后我们突然觉得不大对劲儿，其他条椅或多或少都有人坐，为何唯独我们这附近没人光顾？转头一看才发现此区域乃残障人士专用，于是我们灰溜溜地挪了屁股，心里想着如果车厢里的人都如同方才那位哥们儿一样，误以为我们是日本人就好了。不过我们的异样还是引来了一位老者的注意，在换乘站时，他凑过来地用英语和我们搭讪，问我们有没有什么困难。不过他耳也背，眼也花，而且似乎只知道中国台湾，不知道中国北京，交流起来实在费劲，但我仍然被他的热情和执着打动。

逛街的时候最能体会中韩两国的亲近。在商店里面购物，尤其在机场免税店和外国人聚居区的商店里，汉语是仅次于韩语的第二语言，英语次于汉语，一来因为两国文化一脉相承，韩语脱胎于汉语，二来因为两国在经济、文化领域中的交流与合作的日益深入，促使韩国人纷纷学习中文。有一次在黎泰院酒店附近的便利店购物，可能由于我们的国籍早已被售货员识破，当她找零钱给我时，她用一种地道得不能再地道的北京味儿加深度翘舌加儿化音告诉我：“找您九十五！”。中间那个“十”字还带着北京公交售票员般的省略和连读意味，感动得我们一行人差点儿相拥而泣。虽说汉语流行，但韩国老百姓中广泛的英语普及率还是让我们能够走遍大街小巷都没有什么沟通障碍，毕竟英语几乎是全球的缺省语言，我们总不能蛮横地见人就开口说母语吧。逛街的经历也让我着实很自卑地认为，首尔市区的售货员和北京秀水街的一样，英语口语水平没得说。同时我也着实自豪地认为，韩国人的英语和日本人一样，口语发音和真正的英语有时候相去甚远。我只能庆幸自己有着国产VCD一般强大的“纠错”能力。

韩国老百姓的生活当中，可能在“吃”这个环节上和中国人的差异比较大一点——不过，这也许只能算我这个南方人的个人感受，采风团里一位来自黑龙江的哥们就不这么认为，他总说这些饮食和他们家里差不了多少，有人概括说，“中国南北方的文化差异要比中国北方同韩国的差异要小”。此话



尽管经不起推敲，但却实实在在地说明了韩国这个邻居和我们文化上的深厚渊源。韩国人的饭菜首先在布局上就和我们不同。中国人爱热闹，一般说来是用公共的餐具盛上一道菜供大家自主取用。也正因为如此，一道中国菜的分量也比较大。韩国人受到西方分餐习惯的影响，一般一个人面前都是放自己“份餐”，偶尔才有共享的火锅似的菜肴。并且，每个人面前的菜品都一样，虽由七八个小盘子组成，但每个盘子就一丁点儿菜肴，勉强够一个人吃。不过，这样的吃法倒是非常节约。首先分量比较好控制，其次一般说来要吃饱的话就得吃光所有的菜，再就是因为如果剩饭剩菜太多，会让人觉得你很浪费。总之，碍于“生理”和“心理”上的需要，我通常能够基本完成自己面前的任务。韩国人的饭菜在冷热菜的搭配上也和中国人不一样。由于时值炎夏，每顿饭每个人面前有那么一两个热菜就不错了，其余全是用酸菜、豆芽、海苔、黄豆等制作的凉菜。不像中国人吃饭，凉菜只是用来开胃用的，主菜通常都是热菜。韩国的农牧业不够发达，大米、肉类等都需要进口，所以餐桌上都是素多荤少，相对比较清淡，无法满足我这类“食肉动物”对油腥的渴望。不过还好，在早上吃西式自助餐的时候能遇见香肠、火腿一类的东西，勉强能够解解馋。

和韩国人聊天或是听韩国导游讲解的时候，能发现韩国人的思维有个特点：总爱和日本比较。在韩国导游的解说词中，少不了“和日本比起来，……”这样的句式。谈到汽车，谈到数码产品，谈到经济发展，谈到政治，韩国人总是先对比日韩两国的情况，再表现出对本国事物的偏爱之情。由于历史原因和当前的政治阴影，韩国人除了在经济领域处处和日本比较以外，也常常直截了当地表现出对日本人的不满情绪，似乎比中国人有过之而无不及。曾经看到一则消息上说，一名韩国老妪割掉手指抗议日本在篡改教科书、独岛、参拜靖国神社等问题上的挑衅行为。在逐步了解韩国人之后，我认识到这种事情乃是发自其内心的一种强烈愤慨，这种有些过激的做法完全可以理解。有意思的是，采风团在“三八线”附近的统一角参观的时候，大部分记者们的日产摄像机、照相机都被导游要求“偃旗息鼓”，唯独我的“三星”DV能够大摇大摆地举过肩头，真是给足了面子！在谈到一些国际问题时，韩国人的视野往往很务实，将战略举措、国际地位、影响范围大都限定在东亚或者亚

洲，甚至中日韩三国，很少提到“创建国际一流”、“全球影响力”、“世界级水平”等字眼。在韩国人的眼中，要真正强大起来，首先要在亚洲强大起来，要在亚洲强大起来，首先是要在中日韩三国的竞争中取得优势。不过，韩国导游也常常表露出对本国政治经济环境的忧虑，甚至自嘲说，韩国是个“可怜”的国家，自己的国家需要其他国家来保护，而且在朝鲜半岛危机面前，目前的经济状况显得非常脆弱。同时，他们又常常流露出对南北统一和世界和平的渴望之情，复杂的民族情结溢于言表。

采风团的任务里还包括向韩国政府和 NGO 学习办奥运和世界杯的经验。在和韩国朋友的交流主题中，少不了关于 88 年首尔奥运会的方方面面，这恰恰也是他们最为津津乐道的话题。韩国人很自豪地把首尔奥运会看作是本国经济腾飞，迈向强国行列的最重要的契机。为筹备首尔奥运会，韩国政府投入了巨大的精力治理污染，完善城市建设，并通过教育、培训、宣传等方式倡导市民整体素质的提高。事实证明他们也获得了成功，韩国从此赢得了世界的瞩目，赢得了国际社会的尊敬，赢得了本国经济的飞跃和人民生活水平的迅速改善。

韩国五日，这一衣带水的邻邦让我在倍加亲切和友好的氛围中感受了她的谦虚、礼让、淳朴和务实。总之，一次短暂却安排周密的访问，让我们初步了解了这个精致的国家和人民。这比我们早 20 年举办奥运会的国家，也用实际行动为我们树立了学习的榜样。在 2008 年北京奥运即将到来的时候，韩国印象无疑让我对北京奥运的未来充满了信心。和首尔奥运会一样，北京奥运会也必将成为我们国家和民族腾飞的绝佳时机。

和我一样的年轻人们，我们一起加油吧！

七月·韩国·电影·梦

□上海电影学院 何 佳

伴着七月独有的阳光，终于来到了这个充满着诗情画意、浪漫的国家。为什么对于一个这样从未到过的地方有着这么美好的评价和向往？当然，一切还要归好梦想的源泉——电影。

其实，早在读书时，就已经爱上了电影中的韩国。学习导演专业的我们一迈进校门，就被各种各样不同风格类型的电影淹没了。寓意深奥的法国电影、五花八门的好莱坞电影、浪漫多情的意大利电影等等。久而久之在看了太多太多黄头发高鼻子的我们，更加对亚洲电影产生了极度的怜爱。于是，韩国电影就那么自然而然的，一阵清风一样走来。电影中那些男男女女曾经约会过的小巷、那曾经多少对情侣许愿过的树、充满着热情的大海和伴着多少男女主角哭泣过的绵绵细雨、一切就那么自然的熟悉起来，仿佛你早已在这样一个充满着魅力的国度。

说起韩国电影的振兴其实也是经历了很漫长的岁月和社会背景。经济领域，韩国接受了资本主义的经济体制，自60年代以后，经济得到了飞速的发展。1997年亚洲金融危机之后，金大中政府采取一系列务实性对策，不仅迅速从金融危机的阴影中走出来，经济发展还出现了新的局面。韩国成功地从一个农业国进入现代化国家，创造了所谓“汉江奇迹”。现代化是和都市化、工业化、教育的普及、职业分工的专业化、通信的发达等经济发展现象紧密地联系在一起并和特定的社会政治变革联系在一起的。韩国社会上争论不休的政治不稳定进入90年代也开始销声匿迹，整个社会慢慢进入民主化、多元化的发展进程中。

政治、经济格局的变化不仅导致家庭结构的变化，而且引起了整个社会生活方式的变化。中产阶级形成并稳步扩大，文化消费在消费支出中所占比例逐渐上升。有线电视的开通、录像市场的扩大、卫星电视的前景，一方面争夺着电影观众，一方面因播放高品位电影节目而培养了观众，且它们都是以电影为核心的影像产业，这使得政府和大企业开始注意电影市场的价值。



大众文化开始盛行。流行音乐乐队等开始流行，消费人群年轻化，产品包装要求提高，对大众偶像的消费需求增强。

在现代韩国社会的变化过程中，青年群体又占着十分重要的位置。他们是经济现代化的主力军，在社会意识方面则是历史变革的动力。截至 1995 年的统计，14-24 岁的青少年人口略超过 900 万，占总人口的 20.2%。韩国政府的世界化政治战略和提倡国际竞争力的经济战略，使得整个社会普遍认为，韩国的未来命运掌握在“一个背包就能周游世界，懂电脑，会利用先进通讯设备，处变不惊，有坚强毅力，主张男女平等”的“新世代”身上。他们在 80 年代经济繁荣的环境下成长起来，有机会享受 1988 年奥运会以后的经济富裕和政治稳定。他们将成为韩国电影的主要消费者。在造成韩国电影振兴繁荣景象大的社会背景中，有一个因素不得不指出：韩国民众强烈的爱国心和罕见的民族凝聚力。韩国电影票房的奇迹，与韩国观众对本土电影非理性的热爱，蜂拥而上的参与行为是分不开的。许多影片如《生死谍变》、《共同警备区》的上映，媒体一律不能有批评声音，普通百姓如果不去看会被认为是“不够爱国”。当政府放宽“电影进口限额制度”时，电影人立刻示威游行，而韩国大众媒体一律给予最大的支持，结果迫使政府对电影人和民众做出妥协。

为振兴民族电影，韩国政府在 90 年代至少三度启动政策调控。90 年代初期为鼓励大财团进入电影界制定了减免税收的电影振兴政策。1997 年后实行抵押版权融资制，比如 1998 年，国有的电影振兴公司为 10 部电影作抵押版权融资，共提供 30 亿元韩币。这 10 部电影其中就有林权泽参加戛纳电影节的《春香传》。第三种举措同样重要，即是在 1997 年将电影业列入风险投资行业。同时，也加强电影文化的普及。从 1995 开始，韩国电影文化迎来充满活力的时期。借纪念电影诞生 100 周年的机会，进入 90 年代后一直在上升的热情终于爆发出来。

1995 年 3 月大钟奖电影节上放映了 7 部国外艺术电影。同年 11 月，电影制作公司“白头大杆”设立艺术电影专业馆，放映了前苏联电影《牺牲》、伊朗电影《何处是我朋友的家》、《橄榄树下的情人》等国际一流的艺术电影。仅仅《牺牲》一片，在一个月内就吸引了两万名以上的观众。电影发行商开始注意“艺术电影”商业化的可能。这一年，王家卫的《东邪西毒》等三部



影片在韩国上映，每部电影的观众人次都达到十万以上。同时期开始，电影史上的经典影片通过有线电视进入了千家万户。借助于这些积极的市场引导与开发，以前只熟悉好莱坞和香港商业片的观众，对电影的印象和理解开始改变。大众媒体开始积极报道电影新闻和介绍电影知识。

90年代中期以后在韩国掀起的电影热演变成一种电影文化热，韩国各大学相继开设了四十多个与电影相关的专业。大学里的电影讲座挤满了来自不同专业的学生。韩国国立综合艺术学院设立了电影学校，购买了完备的电影制作设备。韩国90年代的纪录片和短片也发展的十分快速。而这些也证实了具有三个层面的重要意义：1. 为主流电影业提供新的电影人才和活化电影氛围，一定程度上直接催生了韩国电影振兴现象并刺激其发展；2. 在题材和表现领域上有效弥补了商业影片不敢涉足的领域，与主流商业片互为补充，并成为新的电影美学的催化剂；3. 使电影产业和社会文化、艺术保持着良好的互动关系，平衡着电影作为产业、艺术和意识形态的三重功效，是韩国电影能够健康发展的深层原因之一。

于是在众多有利条件之下。在短时期内韩国还举办了釜山和富川两个大型的电影节以及数十个小型电影节。其中釜山电影节至今已举办6届，成为亚洲最重要的国际电影节之一。

如今的韩国电影已经进入了制片人的时代。独立制片人的确定，不知道有多少家电影制作公司，1997年至今，每年的五六十部电影分别是由30家左右的电影制作公司制作出来的。很多导演成名后即成立自己的制片公司，并常以姓名来命名公司。可以确定的是，进入90年代后的韩国电影，制片人控制着从管理资金、策划到制作的全过程，这一制作系统已经完备。这十年可以说是制片人的时代，成功的大部分电影如果说是“制作人的电影”也毫不夸张。此处韩国电影发行网的扩大使韩国电影也可以成为“大片”——大投资的电影在数十个、上百个影院同时上映，在短时期内迅速获取高额票房收入。而原来大片的概念是只属于好莱坞电影和少数香港动作片的。所说的制片人，主要指前述90年代后兴起的独立制片人。

韩国电影发行网的扩大使韩国电影也可以成为“大片”——大投资的电影在数十个、上百个影院同时上映，在短时期内迅速获取高额票房收入。



而原来大片的概念是只属于好莱坞电影和少数香港动作片的。

· 电影发行和放映系统也开始走向合理化。韩电影发行体制主要以进口片为主，本土影片要搭在进口片上发行。随着电影资本来源及制片形式的变化，从 90 年代起形成了韩国电影的专业发行网。这是韩国电影工业合理化进程中非常重要的成就。另一方面，数量不断增多的韩国电影能够形成独立的发行体制，与韩国严格实行电影放映限额制有关。

韩国电影走到今天已经日渐成熟并且形成其特有的特点。当然，也有很多它的附面评论和不足之处。在这里就暂时不提了。但是，不得不提的是它所带来的经济效益！这也是我们中国电影市场向往又不能力所能及的。

韩国娱乐产业积极拓展国外市场的过程中，影视明星是其主打产品。从中国国内即可看出，韩剧(韩国电视连续剧)的热播和韩国流行音乐使韩国影视歌明星登陆中国娱乐杂志和互联网(笔者为撰写本文而收集资料的过程中，发现国内惟一不缺的资料就是明星资料)，造成中国国内青少年文化中的“韩流”现象，他们将为韩国从中国赚取越来越多的外汇。而这些与其他娱乐产业(如影视歌产品相关版权、演唱会)，甚至服装业、旅游业等商业拓展是紧密联系在一起的。

写到这里，不禁有点暗自伤感起来！看了那么多美好的风景，结识了那么多友好的朋友。都是因为一个国家的文化魅力，使一个仅仅 4000 多万人口的国家变的那么亲切、可爱。然而，回过头来。想一想，作为一个普通的、热爱电影、从事电影专业的电影人。我感到很惭愧！面对美好的祖国。一个地大物博、具有着上下五千年的悠久文化、历史背景的祖国。我们该学习、该做的实在是太多了！一个国家的文化代表着一个国家的灵魂。我们会更加努力！相信总有一天，亚洲、世界的各个角落都会刮起红红火火的中国风！

“取经”

□ 吉林大学 尚文博

今年8月26日，韩国的《朝鲜日报》登载了一则关于中国青年记者来韩国学习“韩流”秘密的消息，并附一张彩色照片。照片上很清晰的看见，我们这些参加此次“中韩青年奥运。文化交流”的青年学生记者灿烂的笑容。当大家面对镜头绽放友好，开心的笑容时，却并不知道在这样的笑脸旁边会是怎样的题目和文字内容。韩国的记者定义为：中国青年记者此行的目的是“取经”。虽然我们不是十分认可把“交流”和“取经”的概念等同，但是当我们用好奇的目光打量这个都市的繁华，用审视的心态解读这个国家的发展，用历史的经验推断这个民族的振兴的时候，从某种意义上说，也许可以叫做“取经”。

韩国也是一个历史悠久，并有着自己的语言文字和独创性文化传统的民族。在韩国传统文化的演变发展中，一直深受中国文化的影响。可以说在历史的长河中大部分时间里是“华流”不断的冲击着韩国文化。而在新世纪曙光初现之际，在几千年来习惯向韩国输出文化的中国，“韩流”突袭而至。韩国的流行文化以其不可忽视的态势登上了中国大陆。“韩流”的日益发展使整个亚洲的流行文化随之舞动，让整个世界为之惊叹。此时，我们已经没有时间历数中国历史的源远流长，面对新的形势，应该进行深刻的思考：找到流行文化与韩国的差距，找到“韩流”文化如此强势的秘密，找到合作发展的有效途径，找到兴起文化产业的“真经”。

从“汉城”到“首尔”

韩国的首都“汉城”，这对我们来说是个亲切的名字。直觉中就把它与汉文化联想到一起。而在公元15世纪以前，朝鲜半岛通用的正是汉字。这应该算是一种先入为主的意识吧！遗憾的是，如今的韩国已经正式向世界宣布，她首都的中文名字叫做：“首尔”。无论是“汉城”还是“首尔”在英文中的写法都是：Seoul。但是在今后中韩的各项交流中，“首尔”将取代“汉城”作为韩国首都出现。这个让我们感到亲切的称呼，似乎在韩国人的概念中意

意味着附属，为了证明自己独立的文化，永远的脱离历史的附属，她已经不是旧的“汉城”，而是新的“首尔”。

名字的改变也许仅代表着形式，韩国在政治，经济，文化的巨大发展才是改变的实质和根本。在首尔这座城市集中了韩国大约三分之一的人口，是一个典型的政治经济和文化中心。虽然没有中国的地大物博，但是城市的布局 and 规划井然有序，时刻呈现一种国际性大都市的感觉。其中 KinTex 作为韩国国际展览中心，更体现贴近国际标准的意识。一期工程已初现雏形，总面积 237.790.000 平方米，二期和三期工程完工后预计达到 746.583.000 平方米。KinTex 按照系统完整的规划方案，力求打造一个专业化，大型化，国际化的会展中心。并有意与世界各国展览中心合作，开发 KinTex 品牌展览。同时在展览中心设有“韩流区”占地约 990.000 平方米，建有韩流购物中心，明星村等。足以看出“韩流”影响带来的巨大经济收益。

近年来，韩国文化产业的振兴有目共睹，对文化产业发展尤为看重。波州出版小区当属典型。这个为出版社而生的建筑群正在建设当中，将数家出版社集中在一处，可以提高出版质量，节省时间和财政开支。结构布局方面：这些建筑物每个都独具特色，并设有绿化带保护环境，努力将污染降到最低。生产和运营方面：365 天不间断的文化出版，拥有国际化的展厅和先进的设备，争取实现人工智能化和自动化，以建设文化城市为发展目标。韩国国会议员郑清来说过一句话：“文化产业是 21 世纪战场的终结”。看来韩国在文化产业方面的努力，已经暗示了他们打好这场战役的决心。

如今展现在中国，乃至世界面前的韩国，像她首都的名字一样，已经完成了她从“汉城”到“首尔”的过渡，以一种崭新的，独立的，甚至是骄傲的姿态示人！

“乱打”不乱

乱打也称“狂打”，英文：Cookin。这是韩国人原创的一种音乐形式，讲述发生在厨房的故事，厨师们利用手中的厨具敲打出美妙的音乐，展现一种另类的，振奋人心的完美合音。这幕新型的音乐剧每天仅两场，场场爆满。人们都乐于在此享受那种劳动中创造出来的快乐音乐。锅，碗，瓢，盆，菜刀，水桶都变身为乐器，真是让人叹为观止，心潮澎湃的表演。

“乱打”其实也是厨师们在厨房里齐心协作的作品。于是不禁想到，韩国在 1988 年成功举办了首尔奥运会（汉城奥运会），让世界认识了韩国，尤其认识了韩国人民。而 2002 年的“韩·日世界杯”则让这种对大韩民族的赞叹发挥到极致。他们齐心协力的巨大民族凝聚力，深深地感动了世界。当韩国人身着统一的服装，手执充气棒，高喊“大韩民国”为本国队员加油助威时，仿佛是一场大型的“集体乱打”，让人振奋。“红魔”的称号应该是源于这火红的颜色，火红的热情，魔一样的口号和魔一样的气势吧！

其实，一盘散沙是不可能在需要的时候就立刻聚集成团，这需要调和的意识和整合的过程。88 年的首尔奥运会中，志愿者们扮演的是核心的角色，也许从那时起强化了韩国的民族凝聚力，增强了民族自信心。2002 年世界杯前期，成立了“世界杯文化市民运动促进委员会”主要是发展民间力量，为世界杯做充分的准备，虽然是民间团体，但下属设 43 个独立协会，机构庞大，组织完善。如今的业务内容围绕教育市民提高国民意识而展开，并动员国民参与体育盛会。通过公益广告宣传：做有人性的国民，强调秩序，维护环境清洁，倡导网络文明。在世界杯期间让来自各国的运动员和游客领略了韩国人的修养和素质。

“乱打”隐含了一种韩国精神，乱打并非真乱，而是乱中有序。打出了韩国的品牌文化，打出了大韩民族的团结精神，打出了让世人震撼的节奏。正如乱打的宣传语所说：乱打的神化永恒不变！

好邻居

地理位置上，中韩一衣带水。历史的记载中更是血脉相通。睦邻友好一直是中韩关系的主旋律。同样受儒家文化影响，不同的是儒家文化和西方的现代文明在韩国得到了巧妙的融合。

中国被称为礼仪之邦，邻居韩国同样具有强烈的品德观念。对长辈尤其的尊敬，待人谦虚礼貌，注重礼节。这些特点使韩国人在国际关系中受到很高的评价和尊敬。自民主制在韩国实施以来，韩国人很大程度的提升了民族自尊心和自豪感。为朝鲜半岛最终实现和平统一的努力从未松懈，为捍卫主权领土完整的斗争（独岛）从未停歇。看看路上行色匆匆的上班族，看看政府门口聚众请愿的维权民众，看看环境清雅的公园里悠闲的老人和孩子们，

再看看明洞衣着时尚亮丽的青年人…尽管是不同的年龄，不同的身份的人们，相同的是他们对国家的责任，对社会的关心，对生活的享受和对美好的追求！

韩国民众对日本的态度也许是矛盾的。但是对中国人的友好却是毫不吝惜的。如果知道是来自中国的游客，他们会热情地给予帮助，正如邻居般亲切友好。近几年，韩国留学生在中国的人数已经迅速的超过其他国家，居留学生人数之首。从青年一代开始，促进中韩文化的交流和融汇，有利于邻里之间的沟通 and 了解。

在韩国邻居的性格里有很坚韧的吃苦精神，从体育运动中可以很明显的体会到。韩国足球称霸亚洲，韩国的跆拳道闻名世界。运动员的神勇坚强是大韩民族精神的标签，这是一个民族的钢韧，形成的强大的支持力量也许正是“韩流”的坚强后盾。

尾 声

短短几日的采访交流不足以挖掘出深层次的韩流秘密，却也可以透过大的现象窥见出小的端倪。韩国文化部副部长裴钟宪在接受采访时指出：韩国文化产业成长的基本因素是“自由”。在舆论评价中也有这样一句话：“知识经济需要创意，创意需要社会自由”。韩国在流行文化产业中创意层出不穷，自由的空气使这些大胆的梦想成为可能。“想得到”和“做得到”完美的组合在一起，实现一个又一个奇迹。

韩流的影响已经不仅仅局限在流行文化的层面上，如今它包括 IT 业，卡通，游戏，电影和电视剧，服饰，甚至是饮食文化等全方位的冲击亚洲各国。但是我们也要清醒地认识到：即使是推崇“韩流”文化，韩国也不是世外桃源；即使是恐惧本土文化受到侵袭，韩流也不是洪水猛兽。流，即代表流动的水性物质。喜欢中国的那句成语：取其精华，去其糟粕。让可以促进中国文化产业发展的经验留下，让那些盲目和浮华的思想流走；把握文化的共通之处，真诚谦虚的留下先进科学的文化，让那些虚幻低俗的东西流走。我们有理由相信，在中韩合作交流不断发展扩大的社会背景下，会携手实现共同的繁荣进步。我们在借鉴学习的同时，着重发展本土文化，弘扬民族传统，努力形成一股新鲜的“华流”在中国大地上生生不息！

“韩流”文化带给我们思考和启示

□中国人民大学 徐泽林

在中国，越来越多的人通过韩国电视剧以及网络游戏等多种渠道了解韩国文化。据调查，中国人一年内看五部韩剧的比率已达到 50%，这是我们不得不承认的事实。此外，在大陆各地网吧里流行的网络游戏大多也都是韩国开发的。如今，韩国已是世界第十大文化强国，并且韩政府还制定了在 2010 年进入世界五大文化强国的计划。

一、市民文化素质

早在 20 世纪 80 年代，韩国就有自己的文化战略规划。以 1988 年的首尔奥运会为窗口，跆拳道作为奥运会的表演项目，人们开始认识韩国的文化和人民的高素质，到了 2000 年悉尼奥运会，跆拳道成为了正式比赛项目。对此成功之举，我们此行特意采访了韩国文化部的副部长，他说，一个项目进入奥运会必须在全球具有一定的广泛度，韩国对跆拳道的普及要追溯到 20 世纪 60 年代，他们为此努力了 40 年，很早就作出了计划。当年举行首尔奥运会之前，除了墨西哥，奥运会都是在发达国家举行的，所以赛前国民也很担心能否成功举办。奥运成功后，极大的激发了国民的自信心和民族自豪感。

2002 年世界杯之前，韩国人民自发地要求成立一个促进全民文化素质的组织。1997 年由韩国政府批准、文化观光部筹款成立了世界杯文化市民运动促进委员会。委员会在五年间为普及文明礼仪规范作了大量的工作，使得参加世界杯的游客留下了很好的印象。委员会工作中最为有特色并且有效的就是一系列公益广告，通过广告片普及国民意识，要做一个亲切、正直和遵守秩序的人。每部广告片只有四十秒钟，向市民传达的文化讯息也都是天天发生在我们身边的小事，公厕文明、停车不能轧斑马线、开车时不要丢垃圾、网络上用文明用语、礼让残疾人、按顺序排队、电梯中与邻里友好相处……但这些都是直接反映一个国家国民素质的重要体现，要让老百姓知道，遵守基本的秩序并不是一件很难的事情。与国内不同，这些广告片在电视台播出时几乎是免费的，这就更有利于普及国民素质。



在我国，北京面临 2008 年奥运会的举办，北京市民也应唤起全民的行动，来使北京的环境和精神面貌有大的改观。2002 年，在世界杯赛场上，那整齐一致的“大韩民国”响彻全球。有反问，我们到 08 年又会给全世界以怎样的口号呢？这些都需要每一个中国人出谋划策，这是中国的大事。面对奥运会后经济一段时间萎靡不振的情况，只要众志成城，我们可以像韩国一样度过难关，使经济更快的复苏、发展。

国家经济与国民素质是相辅相成、互相促进的，提高全民素质并非易事，可韩国二十几年来认真地规划、严格地遵守，国家的重视和帮助，举国上下齐心合力。虽然在中国实现这样的目标更是难上加难，可我们若能吸取到韩国的宝贵经验，有计划的、有步骤地进行普及国民素质，必能取得长足的进步。

二、现代科技文化

在国民素质得到普遍提高之后，韩国又开始下一步文化发展战略——促进影视剧及游戏产业为代表的现代科技文化。

影视剧文化产业的发展为韩国带来不少利益，在国内被大家称为“韩流”。首先促进旅游观光最为显著，参观《冬季恋歌》拍摄地春川的日本游客中 70% 是受电视剧的影响；许多飞机航线由于电视拍摄地的地点而改变；在中国学习韩语的学生 70%~85% 是受“韩流”的影响，其中 40% 是由于艺人、背景音乐、家庭文化和感人的故事情节等而学习韩语的。

目前公认的三个带领韩流的先锋电视剧是：《蓝色生死恋》、《冬季恋歌》和《大长今》，其中《大长今》更是以 57.8% 的高收视率轰动了 2004 年的亚洲电视界。但韩国电视剧也存在着缺点和问题，首先，题材过于相似；其次，男主角太暴力、女主角太过温柔。随着《明成皇后》和《大长今》两部历史剧的播出，这种误解也在渐渐消失。历史剧的红火表明，它们的观众群不再只是少男少女，而有着更广泛的观众群。

此次韩国之行所见让我认识到，“韩流”之所以成功最基本的原因就是自由。给编剧、导演和演员自由的发挥空间，让影视界欣欣向荣起来。如今，电影已成为韩国一个重要的经济支柱，成为了政府和电影人共同的事业，齐心协力战胜美国和西欧的文化。



游戏产业是近年在韩国新兴的一个领域，但受到了韩国国会的重视，专门有议员研究怎样更好地发展、规范游戏产业，使韩国的网络游戏走向世界。目前，韩国位于第十大文化强国，文化影响力占世界的 2%~3%。美国以 44% 高居榜首，第二位的日本只有 7.8%，而且日本主要是倚仗漫画的影响力，日本漫画市场占有率占世界的 62%。韩国认真的研究过各国的特点后，才把发展游戏产业作为本国的目标，扬长避短。韩国国会的郑清来议员将于今年 9 月分正式通过《游戏法》，用法治化来规范游戏产业。

三、民族和平统一是文化的最高境界

韩国之行一定不能不去三八线，去亲身体验同民族的人民却分隔两地的痛苦，就像站在福建的海边遥望隔海的台湾一样无奈。我们都希望的统一啊！我特别注意到，韩国人都把朝鲜半岛的两个国家叫做“南韩”和“北韩”；而不同于我们平时称得“韩国”和“朝鲜”。韩国人一直把南韩和北韩看作一个国家，坚信总有一天会统一。每届的韩国总统也都为此做出过努力，尤其是曾获得过诺贝尔和平奖的金大中总统。他在 2000 年 6 月 13 至 15 日访问朝鲜平壤，当时由于政治原因他不得不先坐飞机到北京，在从北京飞到平壤。下飞机时，他说的第一句话就是：本来一小时的路程，我却走了五十年才到了这里。

和平统一，不仅是全民族的最终愿望，也是一个民族文化的最高境界。一直以来，韩国的每一个国民、每一位议员都为国家的民主和统一付出努力。现国会中的郑清来议员 1987 年曾上街游行，被警察抓四次，坐牢两次。每一个国民都为韩国民主化斗争、努力，才有了今天韩国的民主。著名的金大中总统多次为南北韩建立和谈的机会，促进统一，我们也期望着明天南北韩的统一！



韩国五日谈

□重庆大学 张博华

一、韩国初印象

飞机从天津国际机场开始沿着跑道加速，加速，加速，腾空，我的心也跟着飞了起来，抱着期待等待着飞机降落在异国他乡的土地上。回想起一系列紧张而有序的准备工作的准备工作，望着窗外的一方蓝天，我的思绪也跟着飞出了窗外，畅想着这次的访问会是怎样的一种情形。不期然间飞机里就响起了空姐亲切的话语：“飞机就要到达本次飞行的目的地韩国仁川国际机场，请每位乘客系好安全带，停止在舱内的走动。”飞机缓缓滑行在笔直的跑道上，现在，我脚踩着异国的土地。

在飞行的过程中我们丢失了一个小时，到达韩国的时间都稍稍有些晚了。那又有什么呢？什么也比不上一群大小记者的好奇心强烈。我们带着对“韩流”文化的疑问去了今天的目的地——西江大学。

这是一所韩国的私立高校。不过，它同样也有自己的历史。大学校园是最能感受年轻人活力和创造力的地方。整个学校像是坐落在小小的丘陵上，有些许的缓坡和慢弯。但整个校园感觉起来和谐、安静、郑重、整洁。这儿那儿的绿树成荫，花儿开的悠然自在。韩国给我的第一印象是温和亲切。这种感觉是从机场那些服务人员处总结出来的。每天看着他们的微笑我想都会是一种享受。现在置身于这所大学中，韩国的第一印象不仅仅是温和亲切，更有宁静怡然的感觉。无论是建筑还是布局，总是体现着一种淡淡的天然。有时候会有一种错觉，怀疑自己是在哪个安静的梦境中，无比的放松和亲切。

环境带给人的只是外部的浅层次的感官感受，要真正的感受一个国家，了解一个民族不是一朝一夕的事情。说了他的环境再说说他的人民。

首先给我们上了一课的是西江大学的李银淑教授。她脸上总是挂着谦虚的笑容，看起来好象有点腼腆似的。没有华丽的外表和过分的修饰，一个黑色的发卡，黑白相间的上衣，黑色的裙子，她的着装甚至让我觉得朴实的惊讶。可是她深邃的思想让我们在座的每位茅塞顿开。从韩国文化部等相关部门的



政策，新剧的发行、主题和影响，老的片子在世界上尤其是中国产生怎么样的反响，她都如数家珍。每次她说完一段在等待翻译的时间里她总是微微的笑着。她脸上的笑和她的论文所阐释的内容闪烁着她的个人魅力。我们有很多有关韩流的问题，她耐心的一一为我们做了解答。每一个笑容和点头，都透出韩国人的礼仪和谦逊。因为她，也同样因为其他的友好的韩国朋友，使我对韩国的初印象很美好，很亲切。

我盼望着更加深入的了解……

二、沉重的三八线

没有什么比至亲骨肉分离几十年痛苦，没有什么比分离了几十年还不能相见痛苦，没有什么比明明知道对方在哪里，而因为外部的政治原因几十年分离不能相见更痛苦。而世间，偏偏就存在这种痛中之痛，苦中之苦。

南北朝鲜，因为当年的冷战，矛盾到现在还重重不灭。来韩国的第二天我们去了靠近著名的“三八线”的统一角。据说这是民间能够最近距离的接触北朝鲜的地方。在往前一步，是宽阔的临津江、汉江，是北朝鲜的警备哨所（当然，韩国对北朝鲜一样）。在这里，所有的一切都饱含了亲情至爱和故土难离。给我留下深刻印象的就是导游给我们讲述两国人民为了见上一面而长久的等待的故事。这种等待，一等就是几十年，一直翘首期盼却看似遥遥无期。每年的8月15日，他们可以见上一面，只能在规定的地点、时间，在守备人员的看守下才能进行，却不能更亲切的走到家里来，而且每次的见面时间不能超过三个小时！这种严格的规定却阻挠不了亲人相见的强烈的渴望和幸福感。这是怎样一种痛，是怎样的血浓于水的亲情！没有尝试过多年分离的我们，不知道该怀着什么样的心情在这里看别人分离和相聚的故事！中国有一种叫做“子欲养而亲不在”的痛苦，我想，比较起来也许南北朝鲜的人民承受的骨肉分离之痛苦也许要更让人撕心裂肺。

这一条细细的三八线，隔断了一个整体的半岛，隔断了两国人民的联系，却隔断不了人类最普通也最崇高的亲情。南北朝鲜的问题是冷战遗留的恶果，给整个朝鲜半岛带来了不平静。源出于一个祖先的他们，要如此的相互敌视相互防范，是人类给自己开了一个荒唐的笑话。两国人民做了很多的努力，并且现在还在努力着，我们希望有天看到三八线的消失，看到像东西的德国

一样的美好结局。

转眼又要到 8 月 15 日了，不知道这里将要回荡起怎样痛苦的哭声……怀着沉重的心情，我们离开了统一角。

三、感受市民文化

卸下沉重的心情，带着积极的工作状态，我们来到了一个民间组织机构——世界杯市民文化运动促进委员会。今天我们将在这里寻找对 88 年汉城奥运会、02 年世界杯赛事的一些问题的解答。

这个委员会的前身成立于 1997 年。在韩国举办世界杯之前这个委员会才正式成立，它是一个民间团体，现在下属 43 个独立协会，每个城市在世界杯赛事时都有分会。它的影响力比较大，有许多资深的人士做顾问。在这里，我们看到了他们辛勤工作的成果。就像他们所说的一样，一个城市要举办国际性的活动或者赛事，是最能体现一个国家人民的凝聚力的，同时也是提高国民素质的一个重要的契机。在播放的公益广告片当中，我们看到了以“清洁、秩序、礼仪、细节”为主题的宣传的成果。具体说来有排队文化、清洁文化、拉拉队文化等。这些很细节的东西引起了我们深入的思考。

我们国家的首都北京，承担着举办 2008 年奥运会的重任。较之韩国的努力，我们在硬件设施上不会落后任何国家，可是，软环境呢？我们深深的感到我们要做的、能做的还有更多。在比较中发现自己的不足，才能弥补不足，取人之长，补己之短。08 年的北京奥运会对我们来说既是一次难得的机遇，又是一次巨大的挑战。机遇我们已经牢牢地掌握在自己的手中了，但怎样才能使 2008 年奥运会办成一次让国人骄傲也让世界人民骄傲的奥运会，我们任重道远。首先，奥运会的优良传统是通过体育盛会，加强世界各民族人民的广泛交流，促进各种文化的相互了解与尊重。在这一崇高目标下，如何实现我们北京奥运会的理想，使我们热情地接纳世界各种优秀文化，同时向世界人民介绍我们的优秀文化；同时，北京如何将悠久的历史文化与现代精神完美地结合在一起，也是一个重要的课题。除此之外，还有管理的现代化、全国人民的精神面貌、道德水平，都是我们应该加强的方面。我们应该抱着怎样的态度，建设什么样的市民文化，也许韩国的经验能够给我们提供很好的借鉴。

作为当代的大学生，我们首先应该在社会上树立一种榜样、一种风范。中国有着五千年的文化历史，那不是炫耀的资本，而是支持着我们挺立于世界民族之林的根基。08 年的北京奥运会，将要体现一个更崭新的、崛起中的中华民族，我们国人还要再接再厉。

四、奥运精神

体育上的竞技精神是人类共同的一种精神财富。而奥运会做为全球的一项国际性体育赛事，他的“更高、更快、更强”的奥运精神有着巨大的魅力。韩国汉城获得了举办 1988 年奥运会的主办权，今天我们就去参观他的奥林匹克纪念馆。

绿草如茵的草坪先冲进我们的眼帘，而此时天空还飘洒着细雨，把周围的绿树绿草清洗的一尘不染。这就更加深了我对韩国的清洁干净的印象。下车往纪念馆的方向走去，看到 88 年汉城奥运会的吉祥物——虎。在讲解员的带领下我们一个展厅一个展厅的参观：有关奥运会的来历，奥运会的举办周期、时间，每年奥运会的举办城市，每届奥运会的吉祥物，奥运会的发展……每个展厅有它自己的特色，有的是声影效果，有的是物品展览，有的是科技的展示……这之中有一幅画很感人。韩国与朝鲜这两个分裂了半个世纪的兄弟国家，在 2000 年悉尼奥运会开幕那天，他们的选手，在统一旗帜下进场。在场观众都报以热烈掌声。这是奥运史上一个难得的佳话。无论这两个国家离实际统一还有多少路要走，他们一开始和解后所决定的第一件事，就是让他们的奥运参赛选手，在统一的旗帜下进场。他们不仅向世人展示他们寻求统一的意愿与决心，也向世人展示了他们对奥运的重视。韩朝虽然奉行截然不同的政治经济体制，但他们都把参加奥运与一个民族的命运、尊严结合在一起，充分说明奥运会虽然是一项体育比赛，但它的举办却具有诸多方面的象征意义。没有世界的和平，没有全球各地的参与，没有人民的交往，奥运会不可能顺利举行；没有人类的进步，没有经济的发展，没有人民对新目标的追求，奥运会不可能开得越来越热烈、越来越隆重、越来越成功。甚至可以这样说，奥运会的发展史其实就是世界和平史、友谊史、团结史。

看着纪念馆里以各种形式记录的奥运会，我深刻的感到：体育运动不只是增强体质的一种锻炼，更是一种精神，是一种拼搏的精神、坚持的精神、

奋斗的精神、团结的精神。虽然奥林匹克运动诞生在西方，但有了东方文化特别是中国文化的参与将使其更具魅力。08年北京奥运会值得我们期待——“绿色奥运、科技奥运、人文奥运”的精神将感染古老的中国和全世界！

五、挥手自兹去

五天的访问转眼间就要结束了，最后的目的地是韩国著名的大学——高丽大学（Korea University）。

当我们进入这所学校时，所有人的感受都是它的美丽。那种静谧和谐的氛围，那种建筑之美和人文气息，那种历史传承和现代感，结合的天衣无缝。我们有幸参观它的图书馆，登上楼梯，迎面而来的就是一阵阵的书香，惊讶于它拥有如此众多的中文书籍，看着那泛着黄的甚至有些残破的书页，我们真的为自己的文化和历史感到自豪。接下来参观了现代化的讲课教室，高级幽雅的数字图书馆，研究生院等等。书卷气和书香味充满了校园，建筑之美像钢筋骨架一起构筑了整个校园，绿化之美让青春、知识和智慧和谐律动，人和自然的和谐之美让它散发着诱人的魅力。遗憾的是因为时间的限制，我们没有机会细致的参观，就必须跟这里挥手告别，踏上回国的旅途。

五天的所见所闻所感，带给我们很多的震撼和思考。一个人，必须不断的尝试着走出去。闭门造车是没有结果的，只有走出去，看到外面的世界才能更加开阔自身的视野和胸襟。一个人如此，一个国家也是如此。我们只有在世界这个大的舞台上，在广泛的国际合作和竞争中，才能找到最适合自己发展的位置，同时也能从别的国家那里不断的学习新的东西来充实武装自己。这次“奥运·文化”韩流文化的采风让我们都受益非浅。

当飞机再次起飞，我心里默默的向着韩国的朋友告别，向着这个和我的祖国一衣带水的国度告别；再次望着窗外，我知道，我把我的祝福留在了这蓝天白云的幕布上……



韩国纪行

□中国人民大学 刘宇翔

2005年7月26日，我有幸作为学生记者跟随“韩流记者团”赴韩国进行为期五天的参观访问，作流水记事如下，是为纪行。

离开中国是在天津，飞行的还没有北京到天津的车程长。入境登记表填完，再吃过一顿丰盛的午餐，翻了翻机上准备的杂志，再看窗外，已经是异国土地。

韩国的机场不允许摄像，摄像机拿出来时，便衣就会走过来阻拦。那便衣简直就是个学生，不像国内的某些人，唯恐旁人认不出自己的身份，张牙舞爪的耀武扬威。

汉城多桥，据说共有29座大桥横跨汉江，我们走过其中的一座桥，目的地是汉城的西江大学。

在西江大学，任务是听李银淑教授讲一节课。李银淑教授是研究韩流文化的学者，她用韩语向我们作了讲座。讲座上李教授力图证明韩国文化在亚洲的领导作用，但是满屋的中国人都经过了十足的大国教育，大家对李教授的“文化自尊”很难认同，事实上，在今后的几天行程中，我们将多次领教这种“文化自尊”，并逐渐地理解一个民族的感情，此为后话。

韩国的记者给了我们这些学新闻的孩子一个不那么光彩的印象。从大学前往酒店的途中，我们被要求下车接受韩国最大的报纸——《朝鲜日报》记者的采访。采访来了两个人，一个是摄影记者。这位拿着佳能相机的韩国记者把我们带到一家女装店门口，叫出店主站到我们中间，要求我们“作出亲切交谈的样子”。可怜这位不会说英语的店主，大笑着和我们假装“亲切交谈”——后来这张照片发表在第二天的朝鲜日报上。

晚饭时初尝韩国清酒，酒精味十足，好在无“副作用”。

汉城是个山城，这一点在早上起来的时候体会得尤为明显。窗外的街区被挤在连绵的丘峦之中，也无怪昨晚看不到绚烂的夜景。



第一站是“大长今”主题公园。大长今是近来在东亚东南亚热播的一部韩国古装剧。制作大长今的 MBC 公司就在公园旁边。电视剧的外景地似乎一开始就按照主题公园的样式设计，或者说早就料到电视剧的火爆程度。一切剧中的场景在公园中均真实再现，甚至厨房里的鱼肉、蔬菜也用逼真的模型替代。

儿童票（国小以下）价格 3000 韩元，相当于人民币 24 元，成人票价不超过 5000 韩元，相当于人民币 40 元。而韩国的物价水平大概是中国的三倍左右，这样看来，主题公园的门票票价相对较低，在大陆就是 8~14 元钱的价位。

公园内游人很多，绝大多数是外国人。我见到了很多香港人，家长带着孩子参观。据说大长今在香港的收视率相当高，师长们都推荐孩子来收看。剧中所体现的“忠孝”的观念本来就和中国人所信奉的观念一致，市长们当然希望孩子们学习这种古代遗留的精神。与此同时，韩国的文化随着电视剧的播出来到香港，在香港，小孩子们甚至会穿着韩国和服上街。

主题公园吸引了大量的“剧迷”来此参观，简要的剧情和场景介绍仅是为了那些熟悉剧情的人所准备，如我等无甚了解之人，尽可以当作自己在韩国的某一名胜古迹游玩。公园里的宫廷建筑几乎与中国一模一样，指示未见房屋上有压脊兽和重檐的设计。正房均为歇山顶的式样，不知道在景福宫里是不是有更正规的设计。

公园内的各种道具都可以直接拿起观赏，这也是这种主题公园的长处，没有古物被损坏之忧，又能给游客真切地感受——面对异样的、久远的生活眼前或手中的物件只要像古物，那真的古不古都没有什么关系了。

那些“古时”的建筑也贴对联，用的是汉字，但是贴得很没章法，在屋子外面的柱子上都贴，甚至会有找不到上下联的情况出现。门上也贴门神，用的是“龙、虎”两个字，只可惜“龙”字上面画了只虎，而“虎”字上面贴了条龙。

公园的东北部分是所谓的“贱民区”，就是贫民百姓的生活区，我可能在什么地方走错了路，没按照地图找到免费品尝米酒的地方，却一路拨拉着蜘蛛网来到一个热闹的小院。院子里很多人，院外的草棚里也坐满了人，我开

始只以为他们都是休息的游客，还走过去坐在草棚里系上我的鞋带，。知道我发现熟悉的摄像机，才晓得他们在拍电视剧，由于不让靠前，只远远地偷偷的拍了两张照片回来。

离开公园的时候见到了一群韩国的“阿兵哥”。据导游介绍，韩国的男孩子的高中毕业后或者大学毕业后，要服三年的兵役，这使得韩国的男人无形中形成了“忠”的概念，他们平时做事也显得很有魄力。同时服兵役造就了一些其他的社会问题，比如在韩国，男子的平均婚龄居然达到了32岁，女子则是27岁。随着社会的节奏加快，韩国的丁克家庭也越来越多，年轻的夫妇不愿要孩子，又使得妇产科医生成了韩国最“惨”的医生。

我们正在过隧道去往北纬38度线附近的统一角，导游介绍，为了限制私家车的使用，隧道对私家车单独收费——这只是次要的，重要的是，“万一北韩打过来了，”导游说，汉城这些隧道都可作防空洞使用。

韩国人有一种深深的战争恐惧植根于心。

导游是这样给我们讲述韩战的故事的。金日成看到毛大哥取得了胜利，认为毛大哥能做的事我金日成也能做到。于是向苏联要了武器装备，突然打过了三八线，几天之内便攻下了汉城。韩国军队节节败退，政府退守釜山。眼看北朝军队就要大获全胜，联合国觉得不能坐视不管，于是出兵朝鲜。麦克阿瑟在仁川登陆，一下在切断了朝鲜军队的补给线，在很短的时间内收复了韩国全境，又向北打过三八线，占领平壤，金日成退守鸭绿江边，此时中国决定抗美援朝，中美在三八线附近反复争夺，北韩军队占领了三八线以南的开州地区，而在东部，美军占领了三八线以北的雪岳山地区。前者成了半岛的重要工业基地，后者如今是韩国著名的旅游景点。双方坚持不下，于是在板门店签订停战协议——战争虽然结束了，可是停战协议生效后，战争还是随时可能爆发的。

“韩国人很可怜”，导游说这话的时候，表情很悲壮。

韩国太小了，9.9万平方公里的土地加上4700万的人口，不及中国的一个省大。国小，人少，几乎没什么资源，真发生战争的话，对所有人来说，首战即是决战，因为无路可退。

韩国宪法第一条规定，北韩土地是韩国领土，人民是韩国人民——可是



至今这半岛的北半部分只能遥望而已。我们的下一站是鳌斗山，哪里能直接看到朝鲜的地盘，鳌斗山的中文名字好听，叫做“统一角”。

韩国大概有 3000 万离散人口，一道人为的界线隔开了他们。几十年间再也没见过线那边的亲人。“韩国人很可怜”，导游说。

鳌斗山只是一个小山包，浅浅地站在被铁丝网困得严严实实的临津江边。临津江后来汇入汉江，但在这之前，它只是曲曲折折的冲当了两种意识形态的分界线。

江不宽，最宽处 3.6 公里，最窄处离鳌斗山不远，只有 460 米。估计江也不深，水面上露出很多小洲，惹的人脑子里尽是诗经的句子。另一个证据是临津江下的地道。据导游介绍，朝鲜曾挖过许多条从江底地下经过的隧道通往韩国。最大的一条可容许 2000 人轻装在 40 分钟内跑到汉城。

朝鲜当然不会在对岸也设置面向南韩的观望处，但是他们知道南韩这里每天很多游人向北方远眺。为了宣传他们的建设成就，朝鲜特地在江北修建了几动不住人的楼房来向世界展示。后来可能是宣传效果不够，朝鲜又在江北一线上建了几座村庄，迁人进去居住，权是比较现代化的那种公社模式，全部三层小楼。村子里专设偶像化金日成父子的礼堂——究竟怎样的偶像化，不得而知——以上的这些都得自鳌斗山统一观望台三层的展望室，那里还提供了整个三八线沿线的模型供人参观，比例尺很大，一线江山看得特别明显。

整个了望台，面北的一侧无论是展厅还是露天平台，都设置了望远镜“一了北韩”。望远镜是收费的，500 韩元换一个小钢蹦，扔进去能看两分半。从师兄那里要了一个钢蹦，扔进去大家轮流看，隐隐约约地能看见对岸的山丘和村庄，但是远不如在展望室的投影上看得真切，用相机来拍，也只得到雾气蒙蒙的一张照片，看不清什么东西。

展望台一层有一间“北韩展示室”，韩国搜集了关于北韩的各种资料和实物放在里面展览，另有几台电脑供人检索北韩“情报”。我正面对着满屏的韩文发愣，后边有个人用汉语问我，“能看得懂么”，回头一看，是个中年男子，可他是个韩国人，他跟我的交流仅限于知道我是中国人而他是韩国人，别的他也听不懂我也弄不明白。

整个统一角的展厅有很多，二层的统一展示室里面环绕的是南韩为了争



取统一而进行的种种努力，在这些图片介绍的中间，是一个朝鲜半岛的模型（顺便说一句，整个统一角的各种模型展台都是没有玻璃罩的，可以直接用手摸到模型），模型上有一排小灯标示着从汉城到平壤的两条路线，一条从海上，坐飞机绕好大一圈，一条从路上，坐车几个小时而已。金大中坐飞机来到平壤后，下飞机的第一句话就是“几个小时的路程，我走了五十年……”

据导游介绍，在北韩南部的开州地区，目前已经有限的允许南韩商人设厂生产，现在已经能在韩国买到很多北韩生产的轻工业品。第一批生产出来销售到韩国的产品是饭锅，据说一个下午就销售一空——购买者都是韩国的离散人口，能买到在故乡土地上做出来的锅，能吃上这锅里煮出来的饭，“死都瞑目了”，导游说。

离开统一角的路叫作“自由路”，路面很宽，南北各有两车道。路的中间空出四车道的宽度栽满了青草——据说这是为了统一而预留出的道路，等到统一后，自由路将拓宽成为八车并行的大道。

像是为了让我们多在自由路上为南北的统一祈祷一会，司机带着我们在自由路上转了两圈——开到头，转回来，再开到头。于是北边的江水连同江边的铁丝网和岗哨两度出现在我们眼前，和车轮下等待着统一扩建的自由路一起将一个民族的无奈深深地留在我们这些异族人的心里。

波州出版小区是韩国出版业的聚集地，各个出版商都将自己的产业挪到这里（关于规模和公司数，韩方只给了这样一个数字，规划建设 150 个“建筑物”，17 年来已经建成了 62 个），开始的时候，只不过是出版社自发的向这里迁徙（可是为什么呢？），后来政府介入并加以统一规划，逐步形成了今天的规模。这里进行着书籍从策划到印刷发行的全过程，每天有近 80 万册书从这里运往全国。这里的建筑都很特别，形制上很像明德楼的风格，不过是楼不高但是很有气势，颜色上十分接近人大红，走近一看是建筑的外表竟是生锈的钢板，用手一摸还能蹭下铁锈。小区的金部长告诉我们整个小区的建筑都力求最大限度地“亲近自然”，钢板外表不着任何化学油漆，任其自然生锈，两年后锈会自动脱落，露出光洁的外表（不明白其中的道理……）。据说小区基本建成后，久未光顾此地的候鸟又回到了小区的芦苇丛中，建设的环保成效可见一斑。



我们参观了一家印刷厂，金部长向我们展示了从制版到印刷的全过程，可惜印刷车间里的机器都只是看着眼熟，我又不敢开闪光灯，只草草拍下几张虚的照片，就跟着队伍走出了巨大的厂房。

出来送行的一位工作人员跟所有人握手话别，我是最后一个。他突然一把抓住我的胸牌，指着我的名字很兴奋地念道“劳（刘）”，然后递给了我一张他的名片，给我看他的名字——原来他也姓刘，名片上用汉字写着他叫刘明镇，是这个“宝晋斋”株式会社的出版部次长。“刘”在韩国不是大姓，而且平时也很少听说朝鲜族人有姓刘的，也难怪碰见一个姓刘的，他这么高兴，又或者他像我们的导游一样，父辈或祖辈就是华人，见到老乡，分外亲切。

KINTEX 是韩国的国家展览馆，就是 KORE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关于这个名字，一个来自上海的女孩还专门问了展馆的市场部经理金成位——你们为什么起这个名字？金经理说，我们想了很久，觉得这个名字最好。

KINTEX 作为韩国的国展馆出现，当然是极尽铺张，求大求全，场馆的本身构造可想而知。汉城地处东亚的几个展览中心（北京、上海、东京）的中心位置，地理位置相对优越，KINTEX 的建设目标之一就是成为东亚展览贸易的核心。值得一提的是两个尚未开工的展馆附属项目，一个是位于展馆东侧的“中国城”或“中国庭院”，另一个是在“中国城”东南的“韩流”区。虽然说是附属项目，两个工程的规模可都不小，“中国城”规划时就不是传统的“唐人街”模式，而是一个规模稍小于展馆的综合性商业区，据称清华大学将在其中设置自己的海外分校；“韩流”区就更大了，占地 99 万平方米，比天安门广场还大一倍多，专门做“韩流”相关的买卖。

这一天晚上尝试了盘腿坐在地上吃的朝鲜拌饭。

第三天要到国会访问，还要参加文化部副部长召开的“记者招待会”，由于一切已经定好，在回去的车上要分一下每个人的问题。教育台、中央台、北京台的摄像或策划们以自己的身份不是出境记者为由，找了几个学生代替他们第二天提问。李博士很不满意。学生记者最后出了一个人提问，那当然是青人的副总编辑。



回到宾馆的时候时间尚早，大家都没闲着，出去换钱，买电话卡。虽说时间尚早，但也已经九点出头，大多数写着大大的“EXCHANGE”和“两替”字样的店都已经在辉煌的灯光中显得暗淡。最后换钱的地方是在一个漂亮的洋酒店，插在架子上的酒瓶在灯光下炫耀着奇光异彩。走过酒架，把 500 元人民币从小窗口递给里面的一个瘦瘦的男人，他并不看真假，数过之后，从用点钞机数出一沓韩币给我——六万块。不过是六张纸而已，可是揣在兜里就从一个穷小子一下子变成了万元户，再看那超市里标价几百上千的东西便不再感到害怕。我和袁在梨泰院的街上闲逛。一路上还真有点异国的感觉，不过倒是并不陌生。梨泰院地区本身就是韩国的外国人聚集的地方，美军的总基地又在这里，街上多的是西方人，也能看见不少操着东北话的中国人，韩国人倒显得很少，除了街边的小摊老板和仍然有灯光的小店中坐着看电视的老人，路上只有几个偶尔结伴走过的年轻人。有一段马路上，街边的长椅和石墩上都坐着光脚的女子，像是在等什么人。大部分店铺都关门了，紧锁的玻璃门里还留着点白天的繁华，比如 NIKE-GOLF 的店，比如关了门依旧留一束灯光的车行。路边摊上的东西很贵，一条脏兮兮的普通帆布腰带就要 15000 韩币。在地铁车站里看了看，毕竟没有向导，又不知道想去到哪里，不敢买票更下一层，看了看地图便走出来。韩国是个山城，城市活在连绵的上下起伏中，梨泰院这条街像是一个小小的山腰小镇，东西方向望是远远的黑暗，街道的南北方向是曲曲折折向上的小径，偶尔也有一路向下的巷子，淡淡的灯光下空空的小路很有怀旧的感觉。捡几条“爬山”的路走了走，街边满是挂着小酒店或者舞厅（PUB），一例是用黑色帘子遮住门和窗，只在门缝中留着点诱人的灯光，印象中似乎还能听到淡淡的音乐。小路上外国人就更多，也能看到执勤的美国军人。在一条小路上还有一家专门的外国食品店，专门卖西洋货。超市很多，最多的是一家“My Family”，也有“Seven-Eleven”，不过和北京的形制不大一样。白天在车上也见过家乐福——牌子上当然写的是韩文，不过那个典型的标志我还是认得的。韩国的街上不是我们想象的一尘不染，也有成堆的垃圾对在路旁。在一家舞厅的旁边我们见到一辆面包车——其实第一天晚上从被采访的地方到酒店的路上就见过他——车主显然是以车为家，驾驶座后边被改造成了卧室，摆了一张床，一个小桌，桌上还有

一台电脑，主人是一个小伙子，聚精会神的坐在电脑前——据说韩国的网络普及水平在全世界是最高的，不知道他在车里能不能上网。逛满了一圈回来的时候在酒店楼下的超市里见到了那份登有我们照片的《朝鲜日报》，花 500 韩币买了下来。可惜只此一份，于是两个人又在梨泰院四下里寻觅，又走了整整一圈。这时候时间已过午夜，街上的行人更少，路上的灯光也黯淡了很多，有些地方甚至阴森的怕人。在几近绝望的时候，终于在早些时候买电话卡的一家小店里看到了“朝鲜日报”。

袁买了两份，回去后却意外地发现有一份是前一天的报纸，我向他买下了那份报纸，准备回来送人——最后我拿回国的报纸竟然有一本辞海那么厚，可能还要厚一点。

第三天在日程中是最重要的一天。高团长要求有正装穿正装，没正装穿团服——结果不幸带了正装的同志们在太热天不住地流汗，尽管是在比北京凉爽得多的汉城。

大家都准时起床，匆匆的吃过丰盛的早饭（由于吃不惯韩餐，很多人就等着早上大快朵颐，毕竟酒店的免费自助早餐丰富得很），上车赶往一个叫做“鲁依岛”的地方，这个岛似乎是汉江中的一个小岛，网上搜索不到相关的信息。这个岛有点韩国的华尔街的意思，韩国的三大电视台、国会还有 LG 的总公司都在岛上。

车子停在一栋大楼下，楼下是一条窄窄的街道，街道的另一面是一个小小的铁皮屋，导游说那是个擦鞋铺子。经营这么个铺子可不简单，首先一定要本人对国家有功或者是军烈属，才能获得由政府颁发的许可在此擦鞋。这地方是韩国最重要的办公区之一，这位擦鞋人垄断了整个办公区的擦鞋生意，每双收费 2000 韩币（相当于 16 元人民币），每天至少能擦几百双。小店可以转售，但想盘下这么个店面，至少要 1 亿韩元（相当于 80 万元人民币）。

那大楼的 9 层是我们早上的第一站，韩国世界杯文化市民运动促进委员会。这是个挺特殊的组织，在韩国举办奥运会和世界杯这两个大型文化赛事的时候，都有相应的民间组织出现，协助韩国政府举办赛事。世界杯文化市民运动促进委员会早在世界杯开始之前就开始工作，作为一个民间组织，它的主要工作之一是制作公益广告在电视台免费播放，这些公益广告是他们旨



在提高韩国人的国民素质的若干工作的一部分，广告涉及到排队文化、环境清洁、电梯文化、“红魔”文化、邻里关系等各方面的内容，从生活细节入手给人以潜移默化的思想改变。在长达数年的工作后，为了验证工作成果，委员会请了一个跨国公司对韩国人的“正直、人性”以及“国民礼仪”、“电梯文化”、“公厕清洁度”等几个方面做了等级评估，结果发现这些广告的宣传卓有成效，国民素质有了较大提高。这些广告中有一个宣传地铁文明的广告，号召国人在地铁中保持安静，不再喧哗，颇像国内移动电视上常见的“喧哗=不文明”的公益广告。韩国人借着举办大型体育赛事的机会全面提升了一把国民素质，稍带着整治环境，把一条发臭的汉江愣是由浊变清——而中国的奥运也近在眼前了。

委员会出门乘车不过三分钟便到了国会。那是个恢宏的地方，国会大厦面前是宽广的草坪，草坪两侧又分别是国会的办公机构，很有点天安门前的感觉，不过是在天安门广场四周都是旅游景点，这里的草坪加上四周的建筑全是国家机关——但是这个机关没有站岗的武警和张扬的便衣，导游一直跟我说“在韩国，主权是‘完全’在民的……”普通国民只要提交申请，都可以到国会来随意参观这个最高权力机构，没有什么障碍。草坪中央，喷泉围绕的是一尊象征自由的塑像，塑像西边的路上，远远地走过来两个人，只有两个人，左边的是在北京见过面的吴先生，不只是因为胖还是热，西服没有系扣子，被风吹起来，风尘仆仆的样子——他是国会议员郑清来的秘书长；吴先生右边一个精干的汉子，就是此次出面邀请我们来韩的郑清来议员。

郑议员脸上始终带着笑容，很亲切也很客气，非常内敛。他笑着在一群镜头中间和高团长客套，笑着甘当景物，让每一个异国客人站在身边留影，笑着告诉我们，身后的一丛盛开的花就是韩国的国花木瑾，接着又笑着匆匆和秘书长沿着长长的甬道返回办公室，他和我们的正式会面安排在中午的宴会上，现在不过是工作之余，先看一眼来自中国的客人。

回头去参观很西化的国会大厦，国会礼宾员申先生接待了我们。在国会的第二会议室，自学汉语的申先生为我们介绍韩国的国会制度。国会其实有两个会议室，第一会议室在很大程度上是为了南北统一后的国民大会准备的。韩国人无论建造什么东西，都想着半岛统一后的前景，可一边又战战兢兢的



生活在战争的恐惧之中，生怕自己朝思暮想的兄弟有一天突然对自己痛下杀手。

正在认真听讲，会议厅进来了一群小学生，一位女老师引领她们坐到离我们不远的座位上，给孩子们讲着什么。申先生解释说这就是很普通的韩国学生，假期跟着老师来参观国会大厦。

申先生说国会记录性的历史，会议室外边的走廊上就布满了国会相关的历史资料。大厦里面灯不是很明亮（我的理光相机光圈要开到 2.2 测光表才有微弱的反应），正如地上地下不过才四层的国会大厦本身，并不宏大辉煌，庄严的气氛也并不浓重。

郑清来议员在国会准备了午宴招待我们。郑议员是韩国 299 个国会议员中最年轻的一个，主要负责文化、体育方面的工作。1987 年 6 月，在韩国爆发了名为“民主主义战争”的民主运动，正在上大四的郑清来积极投身运动，曾四次被捕，两次入狱。郑议员在饭前向我们介绍韩国的政治发展史和韩国的文化，特别是网络及网络游戏的发展现状。郑议员介绍说韩国的游戏业、IT 行业、动漫产业、影视文化产业在全球都占有重要的份额，而这样的巨大成就，要特别感谢韩国目前的自由空气。在他眼里，金大中总统最大的功绩不只是首次提出并积极倡导南北的统一，更重要的是让韩国人有了说话的自由——这和下午在记者招待会上文化观光部副部长对我们说的一样，那位副部长告诉我们在韩国，以电影为代表的韩流文化，能得到巨大发展的基本原因在于自由，电影人可以自由地表达自己的思想。

午宴很丰盛，数了数有 5 个钵，1 个面碗，2 个汤碗，1 个粥碗，2 个鱼碟，1 个饭碗，9 个圆碟子。

午饭后先在国会附近的 KBS 电视台参观了一下摄影棚中的节目录制，之后就来到了文化观光部参加文化观光部副部长召开的记者招待会。观光部的大楼外边贴墙挂着一幅张扬的图片，一个韩国孩子正准备在向着世界前进，很能反映韩国人急于借文化之威称雄世界的心情。一切都是准备好的过场戏，此处无话。印象深刻的是这里的座椅和条桌都是全无色玻璃制作，晶莹剔透，十分可爱。

从文化观光部出来，大家的都很开心，因为本次行程中最“严重”的部



分已经结束，剩下的时间里，多是没有包袱的参观和感受。

紧挨着文化观光部的就是美国驻韩国大使馆，可称戒备森严，在围墙四周均有站岗的警察，甚至在一墙之隔的文化观光部院子里，也站着为美国人守卫的巡逻人员。在围墙靠街的一侧，还停着一辆货真价实的装甲车。韩国巡逻的警察穿的都很运动，黑色的衣服，黑帽子，很休闲的样子，手里拿着一根长长的棍子在巡逻地点四处走走，很亲民的感觉，不知道那根棍子有多大的威力。

走过停着装甲车的大街，韩国的信息通讯部 UBIQUITOUS 馆就在面前。那是一个旨在展示未来的信息生活的科技馆，韩国人把自己对网络的热情也深深地贯彻到了对未来的设计当中，科技馆里的各种模拟展示也非常的精彩，只是人们普遍觉得里面的未来生活有点太冷冰冰，科技已经凌驾于人的感情之上——这其实正和科幻界对人类未来的争执相类，究竟是人还是机器在未来起到更大的作用，似乎韩国的科技馆的这种设计更多的体现了旧的西方思想。

晚餐是自助餐，东家当然是这次活动的主办方，亚细亚文化产业交流财团，理事长申铉泽带着财团的员工来和我们共进晚餐。坐在我对面的两个韩国员工，一个姓金，一个姓片，我们用半生不熟的英语、必要时借助杨雪的翻译，居然也聊的宾主尽欢。

饭后的节目是被称为汉城十大景观之一的“乱打”表演。汉语的发音是“NANTA! ”。乱打，是利用各种生活用具（主要是厨房的炊具）表演的一种打击乐剧，演员在表演中除了打击乐外还融入了多种表演元素来增加节目的可看性，比如中国的武术（其中有一段两个演员用拖把杆和两个擀面杖的较量明显是中国的双节棍破枪套路）、魔术、杂技、幽默表演等等等等，为了使节目能被广泛接受，整个表演的两个小时的时间内演员的语言很少，完全没有传达重要内容的语言，都是靠世界通用的表情和动作来和观众交流。简单的情节交待完全由开场前的字幕交代，而这字幕本身就是一个重要的节目元素，摘录几句如下：

本剧的道具为“刀刃锋利 滚烫的油……”

“观看时鼓掌和尖叫是良好的习惯！”



“好 现在请女观众们尖叫”

“好 现在请男观众们尖叫”

等到人们被字幕折腾的差不多了，字幕打出“各位是世界上最最有水准的观众！”——台下绝倒。

剧情很简单，一家举行婚礼，请了三个厨师做洗宴，主管洗宴的管家又派了自己的外甥帮厨，五个人在厨房演出了一场“乱打”的闹剧，当然到最后是一切大吉，婚礼顺利举行。演员极尽搞笑之能，整个演出过程中台下笑声不断，观众几近失控。我们同团的杨师兄还被请上台糊里糊涂做了一回“新郎”，等到节目结束，舞台上打出了大大地新婚照片，令人喷饭。

乱打似乎是一个新的剧种了，但这个剧种只有这一出戏，虽然少了点但韩国人把它做成成了一个旅游景点，正如同文物古迹或是高楼大厦，谁来都看这一种，居然也风靡世界。

演出之后，采访团的兴致一下涨到最高，大家都异常兴奋。这回晚上回来得又早，几个人决定到白天经过的一个叫“中洞”的地方去转一转。

学生本就不多，男生总共四个，拿着地图指南针，就向着地铁站出发，一路英语问路，无数次被当成日本人，还被一个不知道中国除了台湾之外还有大陆和香港的大叔热情的主动帮忙，在韩国错综复杂的地铁站里居然也没迷路。韩国的地铁文化果然了得，在车上只偶有人拿着手机玩游戏，或者读报，人们若是交谈，至多是悄声低语，宽大的车厢安静得很。我们几个平常音量的交谈在车厢中显得尤为刺耳，赶紧闭口不言。

一路到站下车，却发现离目的地还要走路几分钟，对着地图前行，很快找到了中路，可惜来得太晚了。店铺几乎全关门了，可是街上人很多，人行道上有很多人热情的向你手里塞名片似的东西（说真的，这个可是没想到）。没走几步，碰上大雨，找了一家小超市避过大雨，打了一辆出租车回到酒店——这算是亲身体验了韩国的大众交通。

（顺便插句嘴，韩国的气象预报真准，导游说，明天有雨，结果刚过了十二点我们就被大雨拍到路上了）

第四天有雨。雨很大，在雨幕中乘车来到韩国的战争纪念馆，不过不是来参观纪念馆，是到纪念馆中的跆拳道训练馆接受为期三个小时的跆拳道训



练。

教练很严格，大家练的也很辛苦——虽然未必能严格按要求做，但至少出了一身大汗。每个人最后都掌劈了一块木板，木板上写好了每个人的愿望——看了周围的几个人，天真理想一点的人写的都是自己的梦想，涉世较深的人们都写上了“中韩友好”这样的愿望。我还披挂上阵，和来自清华的赫同学一决高下——但是打了个平局。据说我们打得很好看，我没戴眼镜，看不清楚，就听见导游在边上不断地喊“跆拳道！你打的是跆拳道（不是武术）！”

训练馆非常体贴，训练结束后，很庄严的，教练站在台上宣读着这次训练的成果，并发给我们“结业证书”，上边写着“我们很自豪的宣布，某同学在一天的训练中，顺利完成任务……”

下午的参观安排在韩国的奥林匹克公园——汉城奥林匹克纪念馆。“这里容纳着在过去一千年来我们民族最光辉的瞬间！”在纪念馆的宣传册上写着这样的句子。

奥林匹克纪念馆不仅纪念 88 汉城奥运会，同时也利用各种手段收录展示现代奥运会的 100 年发展史，那间展室的最后一栏空着，是留给 2008 年的北京奥运——韩国人为一切未来都做好了准备。

韩国是个小国，可是这个小国办过奥运会，办过世界杯；韩国让我们更深的体会到“地大物博”的含义，可是缺乏资源的韩国人自造资源，用影视剧吹出一股韩流，风靡亚洲——这些不能不令人佩服，即使在提起韩流的时候我觉得他们是夸大了某种文化的影响，带着膨胀的自尊心；即使在跆拳道训练馆我觉得这不过是中国武术的变种，变化还更加粗糙；但是在世界杯文化促进委员会和奥林匹克纪念馆参观之后，我更多的是在为北京的 2008 感到担忧，我们能把一个大国的国民素质在一届世界性的盛会之前或者是之后提高到一个较高的水平么？我们能把北京奥运会办成一个“过去一千年最伟大的瞬间”么？当然不能，这不是我的悲观。老子说“治大国若烹小鲜”，其实不然，治小国易，治大国难，尤其是治这样一个吃穿不愁的大国，没有危机感的大国。北京奥运，为中国人画了一个完美的饼，这个饼做出来什么味道，现在还不得而知，可是如果这个饼的味道不那么好，心理上的巨大落差就会引发一系列的信任危机。08 年的奥运，在我的心里打了一个重重的问号。同



时我盛赞韩国人的成就，他们让奥运成了一件真正划得来的商品，借奥运之鸡孵文明之蛋，如今小鸡成群。我们的奥运如果成了郑和下西洋式的展示，那奥运带来的将不是财富。我这才明白我们之前嘲笑过的那个问题，那是在文化观光部我们向副部长提出的问题，“如何将一个城市的奥运变成举国奥运？”，这其实正是中国奥运的症结所在，可惜获得的答复并不令人满意。

韩国人口不多，地方又小，唯一的资源就是人，在韩国，大学的普及率相当高，韩国的劳动力平均素质也比较高。在韩国为数不多的大城市里，集中了韩国的数所大学，当然最有名的三所大学都在汉城，分别是首尔大学、高丽大学、延世大学，三所大学的首字母拼起来恰好是英文“SKY”，在韩国，这三所大学处于超一流的位置。

最后一天的活动是参观高丽大学，名字上看其地位相当于清华——其实也正是如此。高丽大学是殖民时期韩国爱国商人们投资兴建的，建筑一色是罗马风格，以大石堆砌而成，虽然岁月变迁，建筑更替，但整体建筑风格从未改变。

学校特意向我们展示他们的中文图书（古书），据说有 10 万册之巨，据观察应该有相当数量的书是古时韩国出版的中文书。

学校的各种设施现代化气息十足，而且十分人性化。零散地用于旁听的椅子上会有折叠的小桌，网络接口无处不在，充分满足信息时代的要求。

在商学院的门口我拿到了商学院的学生报纸，商业化气息极浓，版式大气的很——相较于国内的学生报纸。后来和高丽大学《高大新闻》的学生记者见面，不过很仓促，基本上还没有交流便匆匆告辞。《高大新闻》的商业气息也很浓厚，但版式上比起本校商学院的报纸还略显稚嫩。

之后便是归途，本来到此便无话可说，可是韩亚航空的工作人员罢工，我们的飞机误了点，晚了几个小时出发。导游说韩国的工会权力很大，罢工事件还是时有发生。介绍到这，流水文章可以一结，但两相比较，还是要继续进行。韩国的旅程随着飞机的起飞而结束，当飞机下终于出现熟悉的土地，心里还是稍稍的紧张了那么一下，毕竟祖国的空气里，弥漫的是北京特有的那种顽固的炎热。

해외 TV 취재지원 초청사업 실적보고

〈 상해 동방 TV 전남다큐 제작 지원 〉

해외 TV 취재지원 초청사업 실적보고

<상해 동방 TV 전남다큐 제작 지원>

1. 행사제목

해외 TV 취재지원 초청사업, <상해 동방 TV 전남다큐 제작 지원>

2. 일시

2005년 8월 7일 ~ 2005년 8월 14일 (7박 8일)

3. 취지

중국 상해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동방TV의 전라남도 및 서울지역 문화/관광자원 취재 지원을 통하여 한국 문화를 중국 현지인들에게 알림으로써 한류의 지속 및 확산에 기여함.

4. 인원 : 총 4명

가. Qin Bao Shen(秦葆申) - 制片人

나. Shu Ke Ming(舒克明) - 电影频道主任

다. Liu Bai Sheng(刘白生) - 摄像

라. Hou Yun Zhen(侯云贞) - 主持人(MC)

5. 일정

가. 8월 7일 - 입국 및 전남대, 광주시내 촬영.

나. 8월 8일 - 소쇄원, 호정식품, 죽록원, 메타세콰이어길, 죽물박물관, 다압면 매화마을, 광양항 촬영.

다. 8월 9일 - 향일암, 천암사, 송광사, 낙안읍성, 순천만, 보성 대한다원, 미량항, 대흥사, 고산유적지, 땅끝 촬영.

라. 8월10일 - 완도 청해진, 해신촬영장, 구계등, 완도항, 보길도, 목포 해양유물 전시관, 자연사박물관 촬영.

마. 8월11일 - 유달산, 김길동화실, 서울타워.

바. 8월12일 - 한강, 청와대, SICAF, 장나라 인터뷰 등.

6. 방송개요

가. 기간

- 2005.08.07~2005.08.14 서울, 전남에서 8일 동안 참관, 방문.

나. 초청

- 한국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다. 구성

- 중국 상해 동방 TV 취재단 4명

라. 목적

- 한국의 지자체와 연계하여 한국의 관광자원을 중국에 알림
한국의 문화를 중국에 알려 한류의 지속 및 확산에 기여.

7. 관련 사진



8. 보도 실적

- 방송사 : 총 8회(재방영 포함)

해외 TV 취재지원 초청사업 실적보고

〈 베트남 기자단 한국문화사업 취재지원 〉

해외 TV 취재지원 초청사업 실적보고

<베트남 기자단 한국문화산업 취재지원>

1. 행사제목

해외 TV 취재지원 초청사업, <베트남 기자단 한국문화산업 취재지원>

2. 일시

2005년 10월 9일 ~ 2005년 10월 13일 (4박 5일)

3. 취지

베트남 지명 유력 방송과 일간지 문화담당 기자를 초청하여 부산영화제, 세계 지식포럼 엔터테인먼트 트랙을 비롯, 한국의 문화산업 시설 및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현지 한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향후 양국의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함.

4. 인원 : 총 17명

- 베트남 언론 문화담당 기자 15명
- 호치민 문화청 2명(호민청장 및 수행원)

	Name	Sex	Occupation
1	DO VEN	M	호치민 TV(HTV)
2	Nguyen Trong nhhia	M	호치민 TV(HTV)
3	Nguyen tTruong Xuan	M	Uy Vien ban chap hanh Hoi bha bao TP. HCM 호치민시 기자협
4	Lu Dac Long	M	Dien Anh 영화협회 발간지
5	Do Thi Ngoc	M	Uy Vien ban chap hanh Hoi bha bao TP. HCM 호치민시 기자협
6	Nguyen Thi Hoai	F	호치민 공산청년당 언론기관
7	Nguyen Ngoc Phuong Trang	F	Nuoi Lao Dong
8	Tran Truong Chien	M	Ha Noi Moi
9	Do Quang Hoan	M	Nhan Dan
10	Duong Phuong Vinh	F	Tien Phong
11	Trna Viet Van	M	Lao Dong
12	Dang Dieu Huong	F	베트남TV(VTV)
13	Nguyen Huu Trong	M	베트남TV(VTV)

14	Hoang Vinh Ha	F	Man anh san Khau
15	Dang Thieu Ngan	F	The gioi dien anh
16	김동환	M	수행통역
17	Nguyen Thi Viet Ha	F	문화정창 수행

5. 일정

- 가. 10월9일 - 입국 및 부산국제 영화제 참관 및 부산 국제 영화제 관계자 인사 취재
- 나. 10월10일 - 부산 영화제 및 영화제 자봉단 취재,
부산 시내 명소(해운대, 오륙도, 태종대) 취재 및 리셉션 참가
- 다. 10월11일 - 서울예술종합학교, 민속촌 취재 및 재단 이사장 취재
- 라. 10월12일 - 유비쿼터스관, 경복궁, 재단, 상암동 월드컵 기념관, CJ 미디어 취재
- 마. 10월13일 - 남양주 영화종합 촬영소, 문광부 박양우 문화산업정책국장 취재 및 출국

6. 기사개요

가. 기간

- 2005.10.9 ~ 2005.10.13 서울에서 5일 동안 참관, 방문.

나. 초청

- 한국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다. 구성

- 베트남 언론 문화담당 기자 15명
- 호치민 문화청 2명(호민청장 및 수행원)

라. 목적

- '한류'와 한국 문화 산업의 발전 상황 및 문화 전략,
- '문화산업'이 한국에 미친 전반적인 영향 등 .

7. 관련 사진



8. 보도 실적

- 언론사 : 총 37편 (제목/이름(소속)/발표 매체/글자수or시간)

방송사 :

가. 베트남 언론사 보도

(베트남 언론 매체에 발표된 글들은 다음과 같음.)

1) 김치의 나라 탐방, Phuong Trang, 예술문화 43호(2005.10.24)

제10회 부산 영화제 현장 스케치, 영화제 분위기 및 유명 스타를 맞이하는 한국 관객의 태도 등을 소개

2) 김치의 나라 탐방, Phuong Trang, 예술문화 43호(2005.10.24)

한국 관객의 영화에 대한 열정 및 한국인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 (창덕궁 등 문화재를 역사적 가치 뿐 아니라 대중문화와도 연계, 문화상품으로 발전시키는 태도와 종합촬영장 건설 등 문화발전을 위한 자세)

3) 한국에서 베트남 영화 보기, Vu Duy Giang, 문화1530(2005.10.24)

베트남의 한류열기가 한창임. 그런 한국의 <제10회 부산영화제>에서 베트남 영화를 관람.

4) 한국에서 베트남 영화 보기, Vu Duy Giang, 문화1530(2005.10.24)

베트남 영화를 통해 베트남의 현실에 대해 공감한 한국 관객들이 많았음. 또한 '한-베'의 문화적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음. 'Dynamic Korea'를 체험.

5) 여행-영화의 나라를 가다, Do Ngoc 기자, (2005.10.24)

진정한 의미의 멀티플렉스를 갖춘 월드컵 경기장 및 남양주 영화 종합촬영소 소개

6) 서울에서, Vu Duy Giang 기자, 문화 1531(2005.10.24)

문화관련 세미나 외 베트남 포함 각종 국제 문화 주최 예정인 Koface와의 미팅 내용 소개.

7) 서울에서, Vu Duy Giang 기자, 문화 1531(2005.10.24)

문화관련 세미나 외 베트남 포함 각종 국제 문화 주최 예정인 Koface와의 미팅 내용 소개.

8) 한국 및 부산 탐방, Lu Dac Long, 호치민시 영화(2005.10.24)

제10회 부산영화제의 각종 풍경과 종합촬영소에 대한 인상에 대한 소개

9) 한국 및 부산 탐방, Lu Dac Long, 호치민시 영화(2005.10.24)

제10회 부산영화제의 각종 풍경과 종합촬영소에 대한 인상에 대한 소개

10) 한국 남양주 영화종합촬영소 탐방기, Ha Linh, 영화와무대(2005.10.24)

남양주 영화종합 촬영소의 규모와 설비 등 소개

11) 한국 남양주 영화종합촬영소 탐방기, Ha Linh, 영화와 무대(2005.10.24)

남양주 영화종합 촬영소의 규모와 설비 등 소개

12) 제 10회 부산 국제영화제 탐방기, Ha Linh, 영화와 무대(2005.10.24)

부산 영화제에 대한 소개 및 제10회 부산 영화제에 대한 인상 소개

13) 제 10회 부산 국제영화제 탐방기, Ha Linh, 영화와 무대(2005.10.24)

부산 영화제에 대한 소개 및 제10회 부산 영화제에 대한 인상 소개

14) (한국)부산 국제 영화제('영화'로 국가 이미지를 마케팅), Vu Manh Long, 마케팅(2005.10.24)

부산 영화제는 한국 관객의 영화에 대한 애정과 한국의 영화인들의 열정이 담긴 행사라는 인상을 받음.

15) (한국)부산 국제 영화제('영화'로 국가 이미지를 마케팅), Vu Manh Long, 마케팅(2005.10.24)

부산 영화제는 한국 관객의 영화에 대한 애정과 한국의 영화인들의 열정이 담긴 행사라는 인상을 받음.

16)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Multiplex(세계 최초의 모형), Vu Manh Long, 마케팅(2005.10.24)

현대적인 이미지의 상암동 멀티플렉스를 소개.

17) 새로운 질서, Lu Dac Long, 호찌민시 영화(2005.10.24)

김의성 FnC 사장과의 인터뷰 내용

18) 새로운 질서, Lu Dac Long, 호찌민시 영화(2005.10.24)

김의성 FnC 사장과의 인터뷰 내용

19) 문화는 일방통행이 없다, Viet Van, 문화(2005.10.24)

문광부 문화산업정책국 박양우 국장과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신현택 이사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함. KOFACE의 사업이 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국 문화를 일방적으로 세계에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상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 교류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임.

20) 단풍잎이 변할 때, Viet Van, 노동신문(2005.10.25)

닷새 동안, 아시아문화교류재단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서울, 부산 등을 다니느라 매우 바빴지만, 한국의 문화를 심층취재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을 지나가던 미인을 촬영하려 하는 찰나, 경찰 한 명이 와서 “사진을 왜 찍느냐?”고 물었다. 인천공항에는 항상 경찰이 보이며, 특히 대테러 방지 경찰이 많았다.

21) 동대문 시장, Viet Van, 노동신문(2005.10.25)

기억에 남는 곳은 동대문 시장이었다. 이곳은 여러 가지 물건을 살수도 있고, 술을 한잔 할 수 있는 곳이다. 동대문시장의 인삼가게주인은 지나가는 베트남 손님들을 보고 베트남말로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라고 말했다. 그는 판매중인 인삼들에 대해 설명하며 “베트남 사람들은 우리 가게의 인삼을 좋아한다. 관련 자료도 있다.”며 베트남 사람들을 상대로 열심히 영업 중이었다. 재미있는 광경이었다.

22) 베트남에서 생활하는 한국인 기사, Viet Van, 노동신문(2005.10.25)

23) 한국의 경제성장사 (60~70~80년대), Viet Van, 노동신문(2005.10.25)

24) 베트남-한국의 문화적 공통점 관련 기사, Viet Van, 노동신문
(2005.10.25)

25) 한국인들은 자국의 영화를 좋아한다, Duong Phuong Vinh, Tien Phong신문
(2005.10.19)

인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부산영화제를 보기 위해 다시 비행기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했다. 베트남 팬들한테 익숙한 장동건, 이영애, 박신양 등을 볼수 있을 거란 기대감을 가지고 부산으로

향했다.

26) 부산시의 풍경에 대한 소개, Duong Phuong Vinh, Tien Phong신문 (2005.10.19)

27) 부산영화제의 현장 스케치, Duong Phuong Vinh, Tien Phong신문 (2005.10.19)

부산 영화제에 출품된 베트남 영화에 대한 언급 포함.

28) 남양주 영화종합 촬영소 소개, Duong Phuong Vinh, Tien Phong신문 (2005.10.19)

면적, 규모 포함.

29) 한국인과 김치의 관계 기사 및 한국의 음식문화 소개, Duong Phuong Vinh, Tien Phong신문(2005.10.19)

김치의 종류, 만든 방법. 동시에 한국의 음식문화를 소개. 불고기, 삼계탕, 비빔밥 등.

30) 부산 수산시장 소개, Duong Phuong Vinh, Tien Phong신문(2005.10.19)

한국에서 가장 큰 수산시장이며 수산물의 종류도 매우 많다. 팔리는 물고기들의 종류를 소개하고, 베트남의 수산시장과 비교하는 기사.

낙시대 및 수산물 관련상품 역시 소개함.

31) 한-베 음식문화 비교, Duong Phuong Vinh, Tien Phong신문(2005.10.19)
(주한 베트남대사의 인터뷰)

한국에는 베트남 문화 널리 알려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에는 베트남식 쌀국수 음식점이 수십 군데가 있다.

32) 한국인의 옷차림 및 베트남의 의류시장 소개, Duong Phuong Vinh, Tien Phong신문(2005.10.19)

베트남의 모 의류점 운영자에 따르면 몇몇 손님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마에서 나온 옷의 종류를 이야기하며 소개해 달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인들도 자국 드라마를 즐겨보며, 드라마에 나온 연기자들의 패션을 따라하는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보도함.

그러나 꼭 유행만을 좇는 것은 아니다. 한국 여인들은 항상 가방을 휴대한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자기의 패션, 자기의 옷차림에 많은 신경을 쓴다. 그러나 한국의 의류는 비싼 편이다. 한국 의류의 대부분은 베트남에서 가장 비싸다는 상점의 평균 가격보다도 2~3배 정도 더 비싸다. 가끔 거리에서 한복을 입은 여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한국인들은 옷차림에 많은 신경을 쓰지만, 남의 패션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한다. 한국인들은 옷은 물론 자신의 외형에도 많은 신경을 쓴다. 화장실에서도 빗, 비누, 화장품 등이 항상 비치되어 있다.

33) 한국에 상영되는 베트남 영화, Viet Van, 스포츠 신문(2005.10.17)

부산영화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제이다. 아시아는 물론 각국의 유명 인사들도 부산영화제에 참가한다. 부산영화제를 취재하러 온 베트남 기자들도 무수히 많다. 하지만, 미리 취재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각 나라의 기자들 때문에 기자회견장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영화 홍보에 열을 올리는 한국의 연기자들을 보고만 있다.

한국인들은 한국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한다. 어떤 학생은 보고싶은 영화를 보기 위해 며칠 동안 기다리기도 했다. 또한 밤을 세워 표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도 종종 눈에 띄었다.

베트남영화 <빗방울 떨어짐>을 보러 온 사람은 500여명 정도였다. 주로 젊은이들이 관람을 하러 왔으며, 상영 초반에는 졸린 모습을 보이는 관객도 몇몇 있었으나, 후반부에 가서는 영화가 재미있었는지, 잠을 깨고 영화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운동장주위의 극장: 2003년이 완료되어 <상암 운동장> 주위의 극장들은 아세아의 유일한 운동장-극장의 복합 지역입니다. 극장을 소개함.

34) 한국 연예인 관련 기사, Hoi Nan, Tuio Tre 신문(2005.10.20)

호텔 안을 거닐던 권상우의 모습을 보았다. 당장 달려가 권상우의 사진을 찍고 인터뷰하고 싶었으나, 경비가 너무도 삼엄했기에 불가능했다. 바깥에선 권상우의 이름을 외치는 팬들이 매우 많았다. 한국의 연예인들은 접촉 자체가 너무 힘들다. 베트남의 연예인들은 접촉이 가능하며, 그들은 굉장히 친절하다.

35) 한국의 영상산업 소개, Hoi Nan, Tuio Tre 신문(2005.10.20)

2005년 10월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194편의 영화/드라마를 수출했으며 수출총액은 5800만달러이다. 이는 2004년에 비해 200%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한국영화산업의 성공적인 이유는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때문이다. 한국정부는 일년에 수십억 불을 영화산업에 투자하여 영상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36) 한국 연예인의 몸값, Hoi Nan, Tuio Tre 신문(2005.10.20)

한국연예인의 출연료가 너무 비싸다. 물론 한국 연기자들의 주요 활동국이 선진국인 일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적정 수준을 벗어난 것 같다. 유명하지 않은 연기자의 경우에도 드라마 한 회당 출연료가 대개 100~200만원 사이이다. 유명한 연예인들은 회당 출연료가 2000만 원 정도이다.

배용준이 출연한 드라마의 촬영장을 보기 위해 한국에 관광 온 일본 관광객들 때문에 한국에 온 일본 관광객은 예전에 비해 30%정도 늘어났다. 나날이 발전하는 한국의 영상산업 덕분에, 한국은 일본관광객 유치에도 매우 성공적이다.

37) 남양주 영화종합 촬영소 소개, Hoi Nan, Tuio Tre 신문(2005.10.20)

한국과 베트남의 영상제작 차이점을 확실히 알려준다. 남양주 영화종합 촬영소는 한국의 유명한 shooting place다. 총면적이 12000ha이다. 촬영장에는 6개의 건물을 있으며 각 건물의 목적은 다르다.

한국에서 일년에 100편의 영화가 만들어진다면, 영화종합촬영소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는 60편 정도다. 이곳에는 집, 버스정류장, 시장 등 다양한 촬영이 가능하다. 촬영장의 구조는 현실생활과 똑같으며 특히 조선시대의 건축물을 재현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촬영장의 외부는 사진을 찍을 수 있으나 내부에서는 할 수 없다. 촬영소에는 이십만 종류가 넘는 다양한 효과음이 보관되어 있다.

나. 베트남 방송 보도

Xem phim Việt tại xứ Hàn

▲ VIỆT VÂN

Được thưởng thức bộ phim VN "Hạt mưa rơi bao lâu" ngay tại LHP Pusan (Hàn Quốc, vừa kết thúc 14.10), chúng tôi cảm nhận một phần không khí náo nhiệt của LHP quốc tế, được đánh giá là hàng đầu châu lục này.

Xem phim ở Pusan

Không khí của một LHP có thể cảm nhận ở sự náo nhiệt trước cổng các rạp chiếu, ở các shop nhỏ, ở các quán cà phê - bar, nơi người ta chẳng đầy các poster, bán đủ các loại sách, báo, các đồ lưu niệm quảng bá cho LHP Pusan. Báo Korean Times ra bản tin nhanh 4 trang hàng ngày về LHP...

LHP Pusan lần thứ 10 quy mô hơn hẳn các lần trước với 307 phim từ 73 quốc gia trên thế giới tham dự và quy tụ nhiều tên tuổi tầm cỡ thế giới như đạo diễn Abbas Kiarostami (Iran), Seijun Suzuki (Nhật), nhà sản xuất Peter Greenaway (Anh) và nhiều ngôi sao điện ảnh hàng đầu thế giới. VN có một phim "Hạt mưa rơi bao lâu" của đạo diễn Đoàn Minh Phượng và Đoàn Thành Nghĩa chiếu trong chương trình "Đối thoại" dành cho các nước trong khối APEC. Nữ diễn viên điện ảnh Trà Giang là khách mời của BTC. Hãng phim Việt (BHD) mang bộ phim "1.735km" đi chào hàng - một tín hiệu tích cực cho điện ảnh VN.

Dù BTC đã cố gắng làm thẻ báo chí (Press card) cho đoàn nhà báo VN sang đây (theo lời mời của Quỹ Giao lưu văn hoá Châu Á - Koface), nhưng vì số lượng phóng viên vào theo dõi LHP Pusan lần này quá đông nên các nhà báo VN chỉ có thể "ở vòng ngoài"... ngậm ngùi nhìn theo lưng của các ngôi sao, như Kwon Sang Woo (diễn viên Hàn Quốc nổi

tiếng với phim "Nấc thang lên thiên đường" đã chiếu ở VN) dáo dạt nhanh trong sự canh chừng của 4 cận vệ.

Nhưng, chúng tôi đã chứng kiến cảnh những phóng viên lính kinh đô nghề đứng chực thành cả dãy dài để chờ đón các ngôi sao Jackie Chan và Kwon Sang Woo... Nhìn thấy lửa đam mê trong mắt những bạn xếp hàng dài trước quầy vé và sẵn sàng ngồi bệt đất hàng giờ đồng hồ trước sân khấu cửa rạp đợi xem các diễn viên giao lưu. Kang-Chan-kyu (21 tuổi) một sinh viên đến từ Seoul đã phải đợi cả mấy ngày mới mua được vé. Anh ví việc mua vé xem được phim hay cũng như đi cầu vì đúng ngày chiếu chỉ có 10% số vé được bán ra. Kim Tae-jong - phóng viên của tờ Korean Times - viết rằng: Khi màn đêm buông xuống, các phòng bán vé đã đóng cửa,

nhưng với các fan màn bạc thì ngày chưa hết. Họ chầu chực cả đêm ở Megabox in Haeudae. Đến 4 giờ sáng vẫn có hơn 100 fan ngủ trên sàn hay chat với bạn để đợi phòng vé mở cửa trở lại...

Buổi chiếu "Hạt mưa rơi bao lâu", trong rạp khoảng 500 chỗ cũng gần kín. Đa phần là giới trẻ đến xem. Rạp khá hiện đại, tuy nhiên chất lượng phim không được tốt, phim bị nổ hạt khi chiếu trên màn ảnh rộng. Tiết tấu phim chậm và người xem phải khá kiên nhẫn. Xem hết đoạn kết một, tôi ngó sang bên thấy một số khán giả đã ngủ, nhưng họ lại đã tỉnh dậy nhanh chóng và hào hứng xem nốt vì càng về sau câu chuyện càng hấp dẫn hơn. Kim Hee Yoon - ngôi ngay cạnh tôi - bảo: "Phim có hương vị riêng của VN, nhưng tiết tấu chậm quá".

Rạp quanh sân vận động

Khán giả Hàn Quốc đến rạp ngày nay, họ không chỉ xem phim mà cần có không gian để giải trí. Các rạp chiếu phim Hàn Quốc đã trở thành những cụm rạp nhiều chức năng. Nhiều nước đã làm như

thế nhưng sự độc đáo của Hàn ở chỗ họ luôn sáng tạo.

Hệ thống rạp bao quanh sân vận động trung tâm ở Seoul nơi tổ chức các trận đấu bóng World Cup 2002 là hình thức có một không hai ở Châu Á, hoàn thành năm 2003.

Đạp ngay vào mắt khách đến rạp là bức tường in những dấu tay của những ngôi sao nổi tiếng thế giới và những nhánh hoa đủ màu - hết như một tác phẩm sắp đặt đương đại. Ngoài hệ thống siêu thị trong đó có những nhãn hiệu nổi tiếng toàn cầu, những quán cà phê, bar, dịch vụ làm đẹp, phòng tổ chức đám cưới, hội thảo, hội nghị... về chiếu bóng, hệ thống rạp mới xây xong, với 10 rạp chiếu phim (tổng đầu tư 10 triệu USD), trong đó có những rạp "miễn phí" dành riêng để chiếu phim độc lập và phim kinh điển.

Phòng VIP "Gold Class" dành cho khách, giá vé khá cao: 30USD xứng đáng tiền bát gạo. Rạp chỉ khoảng 30 chỗ nhưng rất tiện nghi.

Chợt nhớ đến ở ta ý tưởng về mô hình cụm rạp đã thực hiện từ sớm, nhưng chưa thành công mà nghĩ vu vơ: Vì sao nước người làm được mà ta vẫn mãi loay hoay!



◆ Các nhà báo đang tác nghiệp trong buổi giao lưu của diễn viên với khán giả tại Pusan. Ảnh: V.V

Trong văn hoá không thể áp đặt

Trong chuyến thăm Hàn Quốc gần đây, phóng viên Báo Lao Động đã có dịp gặp gỡ, phỏng vấn một số nhà quản lý văn hoá về những vấn đề nóng nhất trong quản lý văn hoá Hàn Quốc, quan niệm về sự hội nhập và làn sóng Hàn Quốc xâm nhập mạnh mẽ vào nhiều nước Châu Á hiện nay.



◆ Máy ảnh số đang là thời trang của những cô gái trẻ Hàn Quốc.

Ảnh: VIỆT VĂN

Hỗ trợ riêng cho từng lĩnh vực

◆ Ông có thể cho biết những ưu tiên trong chiến lược phát triển văn hoá của Hàn Quốc thời kỳ hiện nay?

Ông Park Yang Woo - Cục trưởng Cục Công nghiệp văn hoá: Phát triển văn hoá là một trong những trọng tâm trong chính sách của chính phủ. Thập niên năm 2000 tập trung vào phát triển văn hoá thông qua công nghệ. Chính phủ có chính sách bảo hộ đặc biệt cho hệ thống Internet và điện thoại di động. Điện thoại di động sẽ có thêm nhiều chức năng hỗ trợ con người: Không chỉ xem tivi, nghe nhạc mà còn cả hệ thống phiên dịch tự động. Tăng sự tiện dụng, tạo ra sự hứng thú và thoải mái

cho con người cũng là phát triển văn hoá.

Chúng tôi sẽ có những luật định, những chính sách cụ thể hỗ trợ riêng cho từng lĩnh vực: Điện ảnh, truyền hình, trò chơi... Hàn Quốc muốn thúc đẩy giao lưu văn hoá với các nước, mà sự ra đời của những quỹ như Quỹ Trao đổi văn hoá Châu Á (Koface) là câu nói tích cực.

Việt Nam và Hàn Quốc có những nét văn hoá tương đồng như cách thức giao tiếp, ứng xử, cùng chịu nỗi đau chia cắt của chiến tranh, cùng chịu ảnh hưởng của đạo Khổng (Nho giáo)... vì thế, chúng tôi tin hợp tác văn hoá giữa Việt Nam và Hàn Quốc sẽ càng bền chặt.

Đề cao giao lưu, tránh áp đặt

◆ Đây là những nét văn hoá đặc sắc, tiêu biểu của Hàn Quốc?

Ông Hyun Taek Shin - Chủ tịch Koface: Koface được sự hỗ trợ từ ngân sách chính phủ không muốn truyền bá văn hoá mà chỉ muốn giao lưu văn hoá với những nước Châu Á quan tâm tới những giá trị văn hoá Châu Á. Năm ngoái, chúng tôi đã mời ca sĩ Mỹ Linh sang biểu diễn tại một festival âm nhạc, năm nay sẽ là Mỹ Tâm. Thông qua hoạt động biểu diễn, người dân Hàn Quốc sẽ hiểu thêm về nghệ thuật âm nhạc của Việt Nam và muốn khám phá đất nước Việt Nam. Cũng như phim Hàn Quốc được ưa thích ở nhiều nước thì đó là cơ hội để nhiều người muốn tìm hiểu

thêm về đất nước chúng tôi. Trong văn hoá không thể có sự đơn phương, áp đặt.

Phim Hàn Quốc chiếu tại VN

Thực tế làn sóng phim Hàn Quốc đã xâm nhập mạnh mẽ vào nhiều nước Châu Á, dẫn tới sự xâm nhập về thời trang, xu hướng tiêu dùng của Hàn Quốc... Ở Việt Nam, từ lễ phim truyện nhựa và phim truyền hình Hàn Quốc công chiếu là khá cao, nhưng phần lớn chất lượng những bộ phim đó không cao.

Ông Joo Wan Soo - Giám đốc khoa Hoạt hình, Trường Đại học Nghệ thuật quốc gia Hàn Quốc: Tôi không hiểu vì sao phim Hàn Quốc lại có vị trí như vậy trên thị trường Châu Á. Ban đầu, phim làm ra để phục vụ khán giả trong nước, nhưng sau nó trở thành một làn sóng Châu Á. Đặc biệt, nhiều phim Hàn Quốc trong nước không được đón nhận, nhưng được Nhật Bản và nhiều nước hưởng ứng. Tôi xem cũng thấy mô típ nhiều phim truyền hình Hàn Quốc quá giống nhau. Nói thực tình thì chúng tôi không đánh giá cao những phim truyền hình Hàn Quốc chiếu tại Việt Nam, vì đó là những phim mang hơi hướng thị trường dành cho khán giả trẻ. Chúng tôi không cố tình sản xuất những loại phim như vậy, tôi bảo đảm điều đó, nhưng các nhà mua phim lại muốn mua loại phim ấy. Tôi muốn nói thêm, các bạn đừng lầm tưởng điện ảnh Hàn Quốc chỉ có bấy nhiêu, cũng như chúng tôi từng lầm tưởng văn hoá Mỹ chỉ là Coca Cola. Cần thấy rằng trong 5 năm trở lại đây, điện ảnh Hàn Quốc đã gặt hái nhiều thành công tại các liên hoan phim quốc tế hàng đầu thế giới.

VIỆT VĂN thực hiện

Diễn kiến "sao"!

Buổi tiệc dành cho khách mời và các nhà làm phim khối APEC trong khuôn khổ Liên hoan phim quốc tế Pusan chẳng khiến chúng tôi mặn mà. Lang thang trong hành lang khách sạn, chúng tôi phát hiện một căn phòng có vẻ rất bí mật khi có hai, ba vệ sĩ đứng canh trước cửa phòng. Mấy phút sau lại có một người hé cửa ra nhìn. Tò mò, chúng tôi đứng lại. Có bạn đi cùng giới tiếng Hàn Quốc (HQ) sau một hồi thăm dò, đã ô lên: "Ngôi sao đến ảnh Kwon Sang Woo đang trong căn phòng này!". Hồi người phụ trách thông tin của ngôi sao này thì lại nhận được lời phủ nhận: "Không phải anh ấy, là người khác. Anh ấy ở lầu 1, chuẩn bị cho buổi họp báo sắp tới. Các anh chị xuống đó đi". Nhưng "tin mật báo" khuyến chúng tôi cứ đứng chờ... Cửa phòng bật mở, đích thị là Kwon Sang Woo bước ra, chúng tôi lật đật mở máy ảnh nhưng các vệ sĩ cao to của Kwon Sang Woo đưa tay lên che ngay: "Không được chụp ảnh. Không được chụp ảnh...". Bốn cận vệ của Kwon Sang Woo xếp thành một hàng đón ánh vào... nhà vệ sinh và "bọc lót" anh trở lại căn phòng cũ rồi đóng cửa im lìm. Không chịu thua, chúng tôi "túm" được anh quản lý của Kwon Sang Woo nhưng anh này cũng lắc đầu từ chối: "Ở HQ có qui tắc nếu nhà báo muốn phỏng vấn các ngôi sao phải thông qua người quản lý, có hẹn trước và gửi câu hỏi trước. Dù chúng tôi biết bạn là nhà báo VN sang nhưng cũng không thể khác hơn. Hẹn gặp lại tại buổi họp báo lúc 8g..."

Chúng tôi quay trở lại tiền sảnh khách sạn. Trời ạ, trước mắt tôi là bốn hàng người hầu hết là phóng viên trong và ngoài nước, ước chừng khoảng gần 500 người, xếp hàng từ 6g chiều để vào phòng họp báo ra mắt bộ phim *Running wild* của đạo diễn Kim Soong Soo (kính phí 8 triệu USD) với sự tham gia của Kwon Sang Woo và Yoo Ji Tae (diễn viên trong phim *Old boy*). Tôi nghĩ nếu xếp hàng thì mình thua. Thế là tôi quyết định "đi đường tắt", len lỏi giả vờ

"Xem" phim Hàn từ sau "cánh gà"

Có bạn đồng nghiệp đến từ Thượng Hải, Trung Quốc sau hơn hai giờ chen lấn giữa một rừng vệ sĩ vừa chui được ra đã vui sướng hét lên: "Tôi chụp được ảnh Kwon Sang Woo rồi...!", nhưng khi xem ảnh chỉ thấy những cái lưng to bè của các chàng vệ sĩ!

Kỳ 2: "Sao Hàn" có khác "sao mình"?

■ HOÀI NAM

đến chụp hình cái poster gần cửa phòng họp báo. Đứng lúc cửa phòng mở ra tôi len vào trước tiên. Chưa kịp đứng yên thì cánh nhà báo dồn ép nhau tới tấp. Lưng tôi đau nhói vì thân chiếc máy quay phim đập

manh vào. Anh bạn Đài truyền hình MBC cau mày khi nhìn thấy cái máy chụp hình bé tí trên tay tôi. Liếc cái máy quay phim to đùng, tôi hiểu anh ta nghĩ gì nên đưa ngay thẻ báo chí của mình cho anh ta xem, lúc đó anh ta mới chịu ngừng không đẩy tôi mạnh bạo nữa, "đồng nghiệp mà".

Đèn flash chớp liên tục dù Kwon Sang Woo chưa xuất hiện. Rồi sự chờ đợi cũng được đáp trả, nhiều tiếng hò reo "Kwon Sang Woo". Và kìa, đạo diễn Kim Soong Soo, Kwon Sang Woo và Yoo Ji Tae cùng các diễn viên đi từ cánh gà bước ra sân khấu. Xung quanh là các cận vệ xếp thành hàng dài. Tuy phim sẽ ra mắt vào



Thứ hai và ba từ phải sang: ngôi sao điện ảnh Yoo Ji Tae và Kwon Sang Woo trong buổi họp báo giới thiệu bộ phim *Running wild*. Ảnh: HOÀI NAM

Yangsuri còn tồn tại hai phim trường của hai bộ phim nổi tiếng trước đây. Đó là phim *Chilwaseon*, nơi về họa sĩ nổi tiếng Jang Seung của HQ thế kỷ 19, do Im Kwon Tae đạo diễn, đoạt giải đạo diễn xuất sắc tại Liên hoan phim Cannes năm 2002. Bối cảnh phim là một ngôi làng cổ, các khu chợ cổ, cũ kỹ, dài tăm tắp. Khi quay các bối cảnh xưa ở đây, các nhà làm phim có thể đặt nhiều máy quay để một lúc có thể lấy được nhiều hình ảnh từ mọi góc độ mà không sợ "đỉnh" những bối cảnh rườm rà của cuộc sống hiện đại. Ngôi nhà của nhân vật chính trong phim nằm khuất trong một con đường nhỏ, xung quanh là bức tường rào bằng đất mộc đầy hoa dại. Mọi vật dụng trong nhà đều được bài trí sống động, tự nhiên, từ bộ ly bằng đất nung đến cái chén cũ sau nhà bếp. Mọi người tranh thủ bấm máy lia lịa như muốn thu vào máy mình tất cả khung cảnh tuyệt đẹp. Tôi đưa ánh mắt tò mò nhìn quanh, nhìn người phục vụ tí mỉ sửa lại cánh cửa, chính lại miêng đất có trồng cây bí đỏ trước nhà. Có nói: "Chúng tôi chăm sóc nơi này như chăm sóc ngôi nhà của mình, nếu bộ phim được dân chúng yêu thích thì nơi đây là địa điểm họ thấy tận mắt bối cảnh trong phim".

Phim trường thứ hai là của bộ phim đem lại doanh thu bậc nhất HQ - *JSA (Khu vực phi quân sự)* - phim đã có DVD tại VN từ rất lâu), kể về cuộc xung đột Nam - Bắc Triều Tiên do diễn viên Song Kang Ho, Lee Byung Hun, Lee Young Ae đóng. Tất cả bối cảnh trong phim như thế nào đều được giữ nguyên vẹn như dài quan sát của phía Hàn Quốc cao chót vót. Đón biên phòng của Cộng hòa dân chủ nhân dân Triều Tiên đắm một màu xanh, im lìm. Nhìn tòa nhà Bàn Môn Điếm ai nấy đều thất thốt lên sao giống quá, qui mô quá. Một đoàn khách tham quan hơn 50 học sinh chỉ trỏ, chụp hình và xuýt xoa: "Chỗ này anh Lee Byung

Bối cảnh phim trường bộ phim *Chilwaseon* trong giống một khu làng cổ xưa. Các nhà làm phim có thể đặt nhiều góc máy để một lúc có thể lấy được hình ảnh từ mọi góc độ mà không sợ "đỉnh" những bối cảnh khác. - Ảnh: LƯU ĐẮC LONG

Hun (diễn viên trong phim) đứng nè, anh ấy đọc thơ ở chỗ này, chỗ này anh ấy bị đánh..."

"Bộ sưu tập 200.000 tiếng động"

Xem cảnh trí một phim trường được xây dựng chỉ để quay cảnh tòa án thời cũng đủ thấy các nhà làm phim HQ rất nghiêm túc, phim trường giống y như thật, thậm chí đẹp hơn, qui mô hơn cả tòa án thật ngoài đời mà chúng tôi từng được tham quan. Vào khu vực hậu kỳ thì phải im phăng phắc, không được chụp hình và không được nói chuyện. Đi ngang phòng thu tiếng động (sound design studio), tôi ghé mắt nhìn vào. Ngạc nhiên thấy sao giống đạo cụ trong phim VN quá, cũng đủ thứ ngôn ngữ, chậu, thùng, cửa, cây, lá khô và cả... đất, cát... Hồi cô hướng dẫn viên Ahn Me Youn, cô giải thích: Không phải phòng thu bé nhỏ mà đó là những vật liệu nhân viên kỹ thuật sưu tầm để tạo âm thanh. Có khoảng hơn 200.000 tiếng động khác nhau được sưu tầm và lưu giữ trong thư viện âm thanh của hệ thống phòng thu này.

Cô Youn còn cho biết thêm: phần lớn những mô hình thông thường như phòng ốc, nhà cửa các bộ phim truyền hình dài tập đều được dựng sẵn. Tùy theo phim mà thay đổi cách trang trí. Khi cần quay bối cảnh nào, bộ phận kỹ thuật đáp ứng ngay sau đó chỉ vài phút (còn ở VN nhanh lắm cũng 2-3 ngày). Nhưng có những cái cần thời gian thì họ vẫn "chậm chạp" theo thời gian. Khi vào tận nơi thực hiện bộ phim hoạt hình 3D *Wonderful days*, tôi mới hiểu được điều này. Bộ phim có sự kết hợp các kỹ thuật máy tính và các công nghệ hiện đại với kinh phí 2,6 triệu USD được thực hiện trong bảy năm.

Khu vực phim trường quay ngoại cảnh của Yangsuri thì bất ngạt, và nói chung, muốn sao có vậy với sông ngòi, núi non, nhà cửa... Đứng trên đồi cao nhìn xuống là từng khu nhà liên hợp nối tiếp nhau, tùy từng bối cảnh phim yêu cầu để dựng lên. Siêu thị, trung tâm mua sắm, nhà chờ xe buýt... tất cả đều có sẵn. Thời điểm chúng tôi đến

có ba bộ phim đang thực hiện ngoại cảnh tại đây. Từng miêng xấp được quét màu dựng thành ngôi nhà để phục vụ cho một bộ phim hành động có cảnh quay cháy nổ. Hàng chục thân gỗ đang được dựng lên để thành... rừng cây, phía xa xa là cánh đồng có miệng mòng với những ngôi nhà ẩn hiện sau những ngọn đồi, nhưng ngay phía bên kia là phim trường cho những cảnh quay về biển - biển nhân tạo!

Hôm nay có bộ phim cổ trang của đạo diễn Kim Dae Woo (là tác giả kịch bản phim *Scandal*, đưa tên tuổi diễn viên Bae Jong Joon lên hàng ngôi sao phim HQ), chúng tôi tranh thủ cơ hội muốn được nhìn tận mắt. Ông Kim Jeong Ho sau vài phút suy nghĩ, gọi điện thoại cho chủ nhiệm đoàn phim, và gặt đầu đồng ý. Nhưng trước khi vào hiện trường ông dặn dò rất kỹ: "Đây là một ngoại lệ, chưa bao giờ đạo diễn cho người lạ vào trong khi đoàn phim đang quay. Các anh chỉ không được chụp hình, quay phim và trò chuyện lớn tiếng". Đáng tiếc diễn viên chính của phim Han Suk Kyu (diễn viên trong phim *Shiri*, rất nổi tiếng) hiện đang hóa trang nên không đồng ý tiếp xúc. Bộ phận thiết kế đang bài trí cảnh quay trong một ngôi nhà gỗ đứng tam. Người nào cũng tập trung chăm chú cho công việc. Do thu âm trực tiếp nên hiện trường quay được cách âm rất kỹ, không hề có một tiếng động từ bên ngoài lọt vào. Tranh thủ lúc đối cảnh quay, đạo diễn Kim Dae Woo bắt mí về nội dung và cũng là tiếp thị phim với chúng tôi: "Hấp dẫn và có nhiều cảnh nóng bỏng hơn cả *Scandal*, chỉ riêng cảnh quay này mà có đến ba camera được đặt theo mỗi góc khác nhau để có thể lấy cận, trung và toàn cảnh. Hãy đón xem phim! ...

Kỳ 2: "Sao Hàn" có khác "Sao minh"??

Từ thành phố Seoul đến phim trường Yangsuri (thuộc tỉnh Gyeonggi Ri) khoảng 100km. Đây là một trong những phim trường lớn nhất Hàn Quốc (HQ) hiện nay và còn là một khu du lịch rất hút khách năm châu. Giá vé cho mỗi khách vào tham quan là 3.000 won (khoảng 3 USD).

Khám phá Yangsuri

Cả đoàn lục tục lên xe, bác tài xế người Hàn mỉm cười thân thiện, ông bảo: "Có muốn gây chân sao mà đòi đi bộ?" rồi ông đưa tôi xem bản đồ phim trường. Tôi... choáng. Ông Kim Jeong Ho, quản lý phim trường, cho biết: "Phim trường Yangsuri rộng hơn 1.200ha, trong đó 280ha là diện tích xây dựng các trụ sở, tòa nhà chính gồm sáu phim trường nổi (quay nội cảnh) theo nhiều diện tích khác nhau: lớn, vừa, nhỏ và đặc biệt (thiết kế qui mô nhằm phục vụ những phim dùng kỹ xảo, 3D)". Chỉ nói riêng diện tích thì phim trường này lớn hơn cả những đại trang trại ở VN, còn phim trường được xem là lớn nhất VN trong tương lai cũng chỉ trên 10ha vừa được xây dựng từ ngày 29-10 tại Bình Dương do Công ty TVM đầu tư, phim trường đang sử dụng được xem là "đồ sộ" nhất hiện nay thì rộng 8.000m² của Công ty BHD!

Nếu một năm HQ sản xuất trên 100 bộ phim thì hơn 60 bộ phim thực hiện tại phim trường Yangsuri. Tất cả qui trình làm phim đều được thực hiện tại đây từ thiết bị, phòng thu, âm thanh, ánh sáng, hậu kỳ... nói chung là từ A đến 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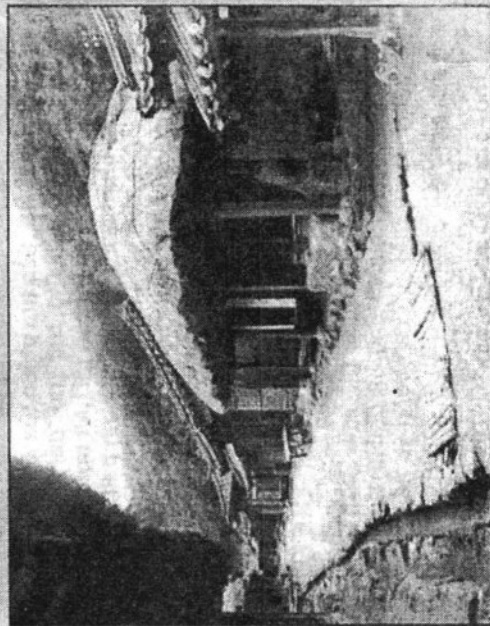
Xe lăn bánh, tôi bắt đầu khám phá một thế giới khác sau những gì mình đã xem mỗi mắt trên tivi khi còn ở bên nhà. Thật tình ban đầu tôi đoán có lẽ phim trường ở đây cũng sẽ na ná như VN, đứng lên với những vật liệu đơn giản, bình thường, hơn chẳng là kỹ thuật quay phim của họ giỏi nên lên hình trông đẹp hơn, bắt mắt hơn! Thế nhưng, xe

"Xem" phim Hàn từ sau "cánh gà"

Lần sống phim Hàn Quốc tràn vào VN, những cốt truyện đơn giản, quanh đi quẩn lại vẫn là những chuyện tình tay ba, tay tư, những mảnh đời nghiệt ngã... nhưng vẫn khiến khán giả xứ mình chờ đợi hàng đêm? Công nghệ phim Hàn Quốc có khác gì so với công nghệ làm phim VN mà sao "người ăn không hết kể lẫn không ra"? Phóng viên Tuổi Trẻ đã có mặt ở xứ Hàn để xem phim của họ từ sau... "cánh gà".

Kỳ 1: "Trang trại" ... phim trường

■ HOÀI NAM



càng vào sâu cảnh trí càng ấn tượng với những khóm hoa nở rộ mọc hai bên đường đi, những con đường dốc ngoằn ngoèo, những khu nhà xưa, nhà cổ, nhà hiện đại được phân chia theo từng khu riêng biệt, giống như nhà thật có người đang ở, xa xa là đồi núi trập trùng. Có bạn đồng nghiệp đi cùng tôi thốt lên: "Đây mới đúng là... phim trường, mọi thứ quá hoành tráng, y như thật". Mà đúng là hoành tráng thật.

Vào khu nhà xưa được xây dựng theo mô hình triều đại Choson gọi là khu nhà Woon-dang, ai cũng phải công nhận "giống như thật". Hang chục dãy nhà được thiết kế bề thế. Nhà quan lại trang trọng, tầng lớp rõ rệt, từng chi tiết mái ngói chạm trổ công phu, màu sắc tinh tế. Đây nhà của "dân đen" cũ kỹ, thô mộc, đậm nét cổ xưa. Ông Kim Jeong Ho rất tự hào khi nói khu nhà Woon-dang này được đem nguyên mẫu từ khu Jongno thuộc thành phố Seoul lên đây, "vì chúng tôi muốn mọi thứ giống như thật, từ mái ngói, mái tranh đến tấm ván, cánh cửa lên phim phải thật đẹp, thật giống và cũng để khách sau khi xem phim có dịp đến đây chiêm ngưỡng nó".

9

THỨ SÁU 28-10-2005

Yangsuri còn tồn tại hai phim trường của hai bộ phim nổi tiếng trước đây. Đó là phim *Chihwaseon*, nơi về hoa si nổi tiếng làng Seung của HQ thế kỷ 19, do Im Kwon Tae đạo diễn, đoạt giải đạo diễn xuất sắc tại Liên hoan phim Cannes năm 2002. Bối cảnh phim là một ngôi làng cổ, các khu chợ cổ, cũ kỹ, dài tập. Khi quay các bối cảnh xưa ở đây, các nhà làm phim có thể đặt nhiều máy quay để một lúc có thể lấy được nhiều hình ảnh từ mọi góc độ mà không sợ "đỉnh" những bối cảnh ruộng rả của cuộc sống hiện đại. Ngôi nhà của nhân vật chính trong phim nằm khuất trong một con đường nhỏ, xung quanh là bức tường rào bằng đất mộc đầy hoa dại. Mọi vật dựng trong nhà đều được bài trí song song, từ nhiên, từ bộ ly bằng đất nung đến cái chén cũ sau nhà bếp. Mọi người tranh thủ bám máy lia lịa như muốn thu vào máy mình tất cả khung cảnh tuyệt đẹp. Tôi đưa ánh mắt to mở nhìn quanh, nhìn người phục vụ tí mỉ sửa lại cánh cửa, chỉnh lại miếng đất có trồng cây bí đỏ trước nhà. Có nói: "Chúng tôi chăm sóc nơi này như chăm sóc ngôi nhà của mình, nếu bộ phim được dân chúng yêu thích thì nơi đây là địa điểm họ thấy tận mắt bởi cảnh trong phim".

Phim trường thứ hai là của bộ phim đem lại doanh thu bậc nhất HQ - *JSA (Khu vực phi quân sự)* - phim đã có DVD tại VN từ rất lâu), kể về cuộc xung đột Nam - Bắc Triều Tiên do diễn viên Song Kang Ho, Lee Byung Hun, Lee Young Ae đóng. Tất cả bối cảnh trong phim như thế nào đều được giữ nguyên vẹn như dài quan sát của phía Hàn Quốc cao chót vót. Đón biên phòng của Cộng hòa dân chủ nhân dân Triều Tiên đắm một màu xanh, im lìm. Nhìn tòa nhà Bàn Môn Điện ai nấy đều thốt lên sao giống quá, qui mô quá. Một đoàn khách tham quan hơn 50 học sinh chỉ trỏ, chụp hình và xuyết xoa: "Chỗ này anh Lee Byung

Bối cảnh phim trường bộ phim *Chihwaseon* trông giống một khu làng cổ xưa. Các nhà làm phim có thể đặt nhiều góc máy để một lúc có thể lấy được hình ảnh từ mọi góc độ mà không sợ "đỉnh" những bối cảnh khác. - Ảnh: LƯU ĐẠC LONG

Hun (diễn viên trong phim) đứng nè, anh ấy đọc thơ ở chỗ này, chỗ này anh ấy bị đánh..."

"Bộ sưu tập 200.000 tiếng động"

Xem cảnh trí một phim trường được xây dựng chỉ để quay cảnh tòa án thời cũng đủ thấy các nhà làm phim HQ rất nghiêm túc, phim trường giống y như thật, thậm chí đẹp hơn, qui mô hơn cả toà án thật ngoài đời mà chúng tôi từng được tham quan. Vào khu vực hậu kỳ thì phải im phăng phắc, không được chụp hình và không được nói chuyện. Đi ngang phòng thu tiếng động (sound design studio), tôi ghé mắt nhìn vào. Ngạc nhiên thấy sao giống đạo cụ trong phim VN quá, cũng đủ thứ ngón ngang, thau, thùng, cửa, cây, lá, khô và cả... đất, cát... Hồi có hướng dẫn viên Ahn Me Youn, cô giải thích, không phải phòng thu bé nhỏ mà đó là những vật liệu nhân viên kỹ thuật sử dụng để tạo âm thanh. Có khoảng hơn 200.000 tiếng động khác nhau được sưu tầm và lưu giữ trong thư viện âm thanh của hệ thống phòng thu này.

Có Youn còn cho biết thêm: phần lớn những mô hình thông thường như phòng ốc, nhà của các bộ phim truyền hình dài tập đều được dựng sẵn. Tùy theo phim mà thay đổi cách trang trí. Khi cần quay bối cảnh nào, bộ phận kỹ thuật đáp ứng ngay sau đó chỉ vài phút (còn ở VN nhanh lắm cùng 2-3 ngày). Nhưng có những cái cần thời gian thì họ vẫn "chậm chạp" theo thời gian. Khi vào tận nơi thực hiện bộ phim hoạt hình 3D *Wonderful days*, tôi mới hiểu được điều này. Bộ phim có sự kết hợp các kỹ thuật máy tính và các công nghệ hiện đại với kinh phí 2,6 triệu USD được thực hiện trong bảy năm.

Khu vực phim trường quay ngoại cảnh của Yangsuri thì bất ngạt, và nói chung, muốn sao có vậy với sông ngòi, núi non, nhà cửa... Đứng trên đồi cao nhìn xuống là từng khu nhà liên hợp nối tiếp nhau, tùy từng bối cảnh phim yêu cầu để dựng lên. Siêu thị, trung tâm mua sắm, nhà chờ xe buýt... tất cả đều có sẵn. Thời điểm chúng tôi đến

có ba bộ phim đang thực hiện ngoại cảnh tại đây. Từng miếng xốp được quét màu dựng thành ngôi nhà để phục vụ cho một bộ phim hành động có cảnh quay cháy nổ. Hàng chục thân gỗ đang được dựng lên để thành... rừng cây, phía xa xa là cánh đồng có mệnh mông với những ngôi nhà ẩn hiện sau những ngọn đồi, nhưng ngay phía bên kia là phim trường cho những cảnh quay về biển - biển nhân tạo!

Hôm nay có bộ phim cổ trang của đạo diễn Kim Dae Woo (là tác giả kịch bản phim *Scandal*, đưa tên tuổi diễn viên Bae Jong Joon lên hàng ngôi sao phim HQ), chúng tôi tranh thủ có vài phút suy nghĩ, gọi điện thoại cho chủ nhiệm đoàn phim, và gặt đầu đồng ý. Nhưng trước khi vào hiện trường ông dẫn đi rất kỳ: "Đây là một ngoại lệ, chưa bao giờ đạo diễn cho người lạ vào trong khi đoàn phim đang quay. Các anh chỉ không được chụp hình, quay phim và trò chuyện lớn tiếng". Đáng tiếc diễn viên chính của phim Han Suk Kyu (diễn viên trong phim *Shiri*, rất nổi tiếng) hiện đang hóa trang nên không đồng ý tiếp xúc. Bộ phận thiết kế đang bài trí cảnh quay trong một ngôi nhà gỗ đứng tam. Người nào cũng tập trung chăm chú cho công việc. Do thu âm trực tiếp nên hiện trường quay được cách âm rất kỹ, không hề có một tiếng động từ bên ngoài lọt vào. Tranh thủ lúc đổi cảnh quay, đạo diễn Kim Dae Woo bắt mí về nội dung và cũng là tiếp thị phim với chúng tôi: "Hấp dẫn và có nhiều cảnh nóng bỏng hơn cả *Scandal*, chỉ riêng cảnh quay này mà có đến ba camera được đặt theo mỗi góc khác nhau để có thể lấy cận, trung và toàn cảnh. Hãy đón xem phim!"...

Kỳ 2: "Sao Hàn" có khác "Sao mình"?

Phía sau công nghệ lạng xê là hàng loạt công nghệ khác để "lần sòng Hàn Quốc" đầy mạnh mẽ ảnh hưởng. Một liên minh kinh doanh, công nghệ không chỉ để kiếm tiền mà còn là quảng bá hình ảnh đất nước vô cùng hiệu quả.

Chiến dịch "nguồn nhân lực" ...

Hàn Quốc (HQ) rất chú trọng đến kế hoạch đào tạo tạo nghiệp sĩ. Ngoài những trường nghệ thuật chuyên nghiệp thì vai trò của các tập đoàn, công ty giải trí trong việc đào tạo và phát triển là không thể thiếu. Các công ty này ký hợp đồng với những đứa trẻ mới lên mười nhưng có khả năng diễn xuất hay ca hát, từ đó đào tạo và phát triển theo công nghệ lạng xê trong thời gian dài 5-7 năm, tất cả đều theo bài bản, quản lý chặt chẽ, nghiêm túc và phát triển theo một vòng tròn khép kín.

Hiệu quả nhất trong việc đào tạo "nguồn nhân lực" cho điện ảnh HQ là Công ty Siquis HQ - công ty quản lý và sản xuất có ảnh hưởng lớn nhất của làng giải trí HQ hiện nay và là bảo chứng cho những tên tuổi như Jung Woong Seong, Jun Ji Hyun, Lee Mi Yeon, Park Shin Yang... Kể đến là các công ty Yeon Young Entertainment, Tube Entertainment, Rose Art, CJ Entertainment, Dosul Entertainment... Phần lớn các công ty này trực tiếp sản xuất phim, phát hành phim nên các "gà nhà" của họ có đất để dụng võ. Dĩ nhiên để trở thành "sao" ngoài việc phải hội tụ nhiều yếu tố tài năng, sắc đẹp còn cần đến sự may mắn, công vào đó là lúc đây của nhà sản xuất và nhiều chiêu thức khác. Một điều đặc biệt là nhiều diễn viên ngôi sao của HQ xuất thân từ những gia đình quyền lực và giàu có như Baek Tu Na, con gái của phó chủ tịch Tập đoàn nông nghiệp Phulmwon, Lee Suh Jin có ông nội là tổng giám đốc Ngân hàng Seoul, Cha In Pyo có cha là chủ tịch tập đoàn kinh tế vận tải biển

"Xem" phim Hàn từ sau "cánh gà"

Kỳ cuối:

Phía sau công nghệ là... công nghệ

■ HOÀI NAM

hàng đầu HQ... Điện ảnh với họ không chỉ là công cụ kiếm tiền mà còn là con đường đi tìm ánh hào quang.

Trường đại học Nghệ thuật tổng hợp quốc gia HQ chứa phải là một ngôi trường bậc nhất trong việc đào tạo ngôi sao, nhân tài điện ảnh, nhưng xét về tầm cỡ và qui mô đào tạo thì có thể nói đây là môi trường học tập bài bản và hiện đại nhất HQ hiện nay dành cho những người đam mê nghệ thuật. Được thành lập năm 1993, đây là trường duy nhất được chính phủ hỗ trợ kinh phí hoạt động cộng với

sự đóng góp của những đạo diễn, ngôi sao đã thành danh. Trường chia làm sáu khoa (mỗi khoa là một trường nhỏ) gồm: kịch nghệ điện ảnh, kịch nghệ truyền thống, nghệ thuật cổ điển, múa, mỹ thuật và âm nhạc.

Mỗi trường nhỏ lại gồm năm khoa khác nhau. Ví dụ trường kịch nghệ điện ảnh gồm khoa điện ảnh, truyền hình, truyền thông, lý luận phê bình và hoạt hình. Giáo viên giảng dạy trực tiếp là những đạo diễn tên tuổi trong làng giải trí HQ, đây cũng là cơ hội để các đạo diễn tương lai tiếp xúc hiện trường với các thầy. Vào tham quan phòng trang thiết bị của khoa này, chúng tôi mới hiểu vì sao người HQ làm phim giỏi. Gần 100 máy Betacam và máy kỹ thuật số hiện đại nhất được ưu ái dành cho sinh viên thực tập. Ngay từ khi ngồi trên ghế nhà trường, các sinh viên đã tiếp cận với những tiến bộ khoa học kỹ thuật hiện đại nhất trong nghệ thuật thử bảy. Các đồ dùng đi kèm như chân máy, đồ chặn sáng hay máy đo ánh sáng, dụng cụ giữ mắt cho diễn viên... thì bao la. Ba, bốn máy quay phim nhựa ARRI luôn trong tư thế để các sinh viên thực hành...

Ngắm nghía mới thấy thương cho những người tâm huyết với điện ảnh nước nhà, học mấy năm trong trường mà chưa bao giờ đứng đến được chiếc máy quay Betacam chứ đừng nói chỉ đến máy quay phim nhựa. Có những đạo diễn, quay phim ra trường 3-4 năm mới có cơ hội



Tiến cảnh kỹ thuật hợp CGV tại sân vận động Seoul - một trong những mô hình liên doanh vì kinh doanh theo phim rất phổ biến ở HQ

Ảnh: LƯU ĐẮC LONG

được nhà sản xuất trao tay chiếc máy ARRI sau khi đã kiểm tra quá trình làm nghệ trước đó.

Ông Joo Wan Soo, trưởng khoa hoạt hình, cho biết: "Làn sóng phim HQ bùng nổ khiến lượng sinh viên đăng ký vào khoa kịch nghệ - điện ảnh rất đông. Chúng tôi để các em phát huy hết khả năng nghệ thuật của mình. Với những trường hợp vượt trội sẽ có khóa đào tạo riêng. Chúng tôi mong muốn tương lai đây là trường đào tạo điện ảnh lớn nhất thế giới". Không chỉ Trường Đại học Nghệ thuật Seoul, Chung Ang, Dong Kuk... luôn là niềm hi vọng, là nơi ươm mầm cho các thế hệ làm phim tương lai của HQ.

Và nghệ thuật kinh doanh

Sáng sớm, vừa bước lên xe thì ông Kim Eui Sung, giám đốc Công ty FNC, công ty con của Tập đoàn CJ Entertainment, đứng lên tuyên bố: "Sau khi tham quan phim trường, chúng tôi muốn đưa các bạn đi đến sân vận động Seoul, nơi tổ chức World Cup 2002". Tôi nghĩ trong đầu với chút ngạc nhiên, không lẽ sẽ có quảng cáo phim xem đá bóng bóng đá giữa HQ và Iran, hay là sẽ được chúng tôi không chỉ là một sản phẩm vận động tâm cổ nhất châu Á mà bao quanh sản phẩm là một khu phức hợp CGV gồm rạp chiếu phim - nhà hàng - trung tâm thương mại và giải trí do Công ty CGV (thuộc Tập đoàn CJ Entertainment) đầu tư. Đập vào mắt khi bước vào cụm rạp chiếu phim là bức tường lớn in hình 3D đầu tay của các diễn viên nổi sao điện ảnh châu Á để khách hàng chụp hình lưu niệm. Xem phim ở rạp Gold Class, bạn có thể vừa nằm vừa xem phim, nếu mỗi chiếc ghế duỗi thẳng ra bởi hệ thống nút tự động của ghế ngồi. Cầm gọi món gì thì nhân chủng yếu cầu. Dĩ nhiên giá vé không rẻ: 30.000 won, cao hơn bốn lần so với giá vé bình thường ở các rạp khác (7.000 won). Mặc thì rất mắc nhưng rạp này chưa bao giờ ế khách.

Ông Jonathan S. Kim, phụ trách phát triển kinh doanh

Một "kính đồ điện ảnh" châu Á tên Hallyu-wood

với kinh phí xây dựng khoảng 2.000 tỉ won (khoảng 1,85 tỉ USD) dự tính sẽ hoàn thành vào năm 2008 tại thành phố Koyang gồm các nhà hát, công viên chuyên đề, trung tâm giải trí, trường nghệ thuật, công ty sản xuất điện ảnh, phim trường, viện nghiên cứu, các dịch vụ mang tên các ngôi sao...

của Trung tâm CJ-CGV, rất tự hào: "Chúng tôi tận dụng tất cả diện tích quanh đây để phát triển khu phức hợp này từ năm 2003 với kinh phí 13 triệu USD. Hiện CGV có khoảng 32 rạp tương tự như vậy và sẽ đầu tư thêm bốn rạp trong năm nay. Trung bình mỗi ngày khu phức hợp này tiếp khoảng 5.000 lượt người, ngay cuối tuần khoảng 15.000 người. Tuy nhiên không phải tất cả đều là thường dân, kiểm tra, chúng tôi dành hẳn rạp số 5 để chiếu dòng phim nghệ thuật, kinh điển, chiến tranh, lịch sử...". Ông cho biết tương lai CJ-CGV sẽ mở hệ thống cụm rạp chiếu phim tại VN với số vốn đầu tư khoảng 23 triệu USD.

Có thể nói trước đây có rất ít công ty tham gia sản xuất hay phát hành phim, chủ yếu là các đài truyền hình như MBC, SBS, KBS... bỏ kinh phí ra làm. Sau này khi thấy kinh doanh ngành giải trí, nhất là phim ảnh của HQ đang có chiều hướng phát triển, các tập đoàn kinh tế lớn bắt đầu nhảy vào như Samsung, CJ, Cheil Communications, Dongyang, Lotte... Họ bắt tay phát triển chiến lược kinh doanh, tham gia nhiều dự án theo phim và họ đã thành công. Cách đây 10 năm, HQ chưa có thương hiệu nào có mặt trong top 100 Brand of the world (Thương hiệu thế giới). Thế nhưng hai năm gần đây, với sự phát triển mạnh mẽ trong kinh doanh lĩnh vực điện ảnh của Tập đoàn CJ Entertainment, một thương hiệu của Samsung đã đưa Samsung đứng vào hàng ngũ top 50 Biggest brand of the world (Thương hiệu tốt nhất thế giới). Không chỉ thế, mỗi bộ phim mới ra đời là ngành thời trang HQ lại thi nhau hot

bạc bởi các mốt quần áo, giày dép... trên phim bán chạy như tôm tươi.

Khi đồng phim Hàn tràn ngập thì việc khủng hoảng đề tài hay việc đầu tư kinh phí quá lớn cho sản xuất phim đôi lúc khiến các nhà làm phim chần chừ. Nhưng dựa vào những tiềm năng đang sẵn có: diễn viên nổi sao, đạo diễn tài ba, chính sách thông thoáng và hơn hết là người dân Hàn luôn ủng hộ phim trong nước thì nói như ông Kim Eui Sung: "Tích tiểu thành đại, chúng tôi đã tạo ra được con đường thì bây giờ cứ 1, 2, 3, 4... đi tiếp trên con đường ấy với những nỗ lực hết sức mình".

Hơn một tuần sục sạo sau "cánh gà" màn ảnh xứ kim chi, chẳng dám làm một ví dụ so sánh với công nghệ làm phim VN vì sợ sẽ bị... hăng. Những VN đầu thiếu người tài, phải chăng một cơ chế không thông thoáng, sự đầu tư không đúng chỗ, sự đào tạo không bài bản đã khiến chúng ta tụt xa hàng chục năm so với nước bạn. "Bao giờ điện ảnh VN khởi sắc?", hỏi và thở dài, rồi lại hi vọng một ngày không xa điện ảnh VN sẽ làm mọi người bất ngờ bởi "làn sóng phim Việt"...

Don doc so toi:

AI là người đầu tiên trong lịch sử thể thao VN quảng cáo cho Hãng Butterfly nổi tiếng thế giới? Thể thao thế giới đã từng rung động với các VĐV VN như thế nào? Chiếc cúp cao quý nhất của bóng đá VN tại Merdeka Cup 1966 nay đang ở đâu? Những người hùng của thể thao VN ngày xưa giờ đang làm gì?... Những câu hỏi thú vị này sẽ được trả lời trong loạt bài:

Dấu trường vinh quang - ngày ấy & bây giờ

Nơi cả nước say sưa phim ảnh, ẩm thực, thời trang

■ DƯƠNG PHƯƠNG VINH

Kỳ cuối: Trang phục - Rất thư giãn

Cuộc xâm nhập văn hóa về thời trang mà phim Hàn Quốc tạo ra từ mấy năm trước trong khán giả Việt Nam hình như vẫn chưa đến hồi thoái trào. Thông tin của nhà báo nữ viết điện ảnh cho báo Tuổi Trẻ: Đi chợ quần áo trong Sài Gòn, thỉnh thoảng bắt gặp những yêu cầu của khách hàng kiểu "kiếm giùm bộ Tinh si, bộ Ngôi nhà hạnh phúc". *Tinh si*, *Ngôi nhà hạnh phúc* là tên 2 bộ phim xà phòng Hàn Quốc, chiếu cả ở phía Bắc. Nội dung chẳng có gì nhưng thời trang thì, theo đồng đạo bà con: "Quá Relax" (thư giãn). Bền mang nhận xét đó sang đây để mà thẩm định. "Không biết dân Hàn có diện và ngoại hình có ổn, hay bao nhiêu người xuất sắc đi đóng phim hết chỉ còn người xấu trên đường", không ít khán giả nhà đã thốt thốt thế.

Điều Huang, biên kịch ở Hãng phim Truyền hình VN kể hồi năm ngoái sang thấy có cô mặc áo khoác cùn cùn ra ngoài sơ-mi, nghĩ bụng "đồ hơi". Sau khi được nữ diễn viên Kim Jeong Eun làng xê-ki lưỡng trong bộ phim *Chuyến tình Paris*, mới này tràn ngập nữ thanh niên thủ đồ. Khán giả phim Hàn bị tác động trước nhất, vì họ say mê phim ảnh nước nhà. Hà Nội và Sài Gòn vào cuộc. Nhưng bây giờ ở đây cũng hết thời rồi, kiểu ngộ nghĩnh nhưng tuổi thọ ngắn là đúng. Một trong những đáng sợ được chuộng năm nay là áo dài quá hông, chèn ở lưng - có thắt lưng hoặc không. Áo da, sơ mi hay áo khoác vải dày đều như vậy.

Thư giãn nghĩa là sao? Trong *Ngôi nhà hạnh phúc*, cặp nam thanh nữ tú vai chính mặc toàn màu sắc sỡ, pha táo bạo. Ví dụ áo hồng tươi đi với váy nền chuối, dây buộc tóc kết hợp cả 2 màu. Nam cũng mặc màu chói, áo hoa như nữ. Áo chin cò, áo cò họa tiết lớn. Có tròn hoặc cổ thuyền trông không ảnh hưởng nam tính mà chỉ thấy đẹp và trẻ trung, tất nhiên chỉ hợp lứa tuổi nhất định. Trông mát mắt, cảm giác dễ chịu. Phim Hàn người thích người chê, nhưng ngay cả bộ phim về vấn đề này cũng có những gợi ý tốt nhất về ăn mặc, mới nhất. Cho nên nhiều người đã nhầm lẫn mà bỏ qu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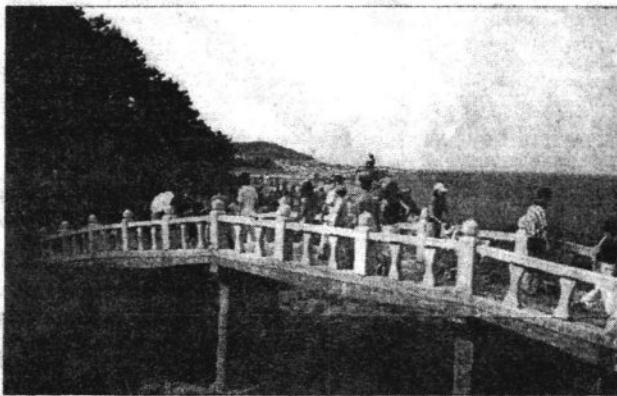
những tinh tiết vô lý, cả sự vô lý thường trực là nhân vật dù nghèo đến mấy cũng nay bộ này mai bộ nọ, chóng mặt. Thì mục đích của nhà sản xuất là đó: quảng bá hàng hóa, tạo dựng hình ảnh tươi đẹp về thiên địa nhân và nền kinh tế tiên tiến.

Hay nhất khi ngắm trang phục đường phố ở đây là sự không nhầm lẫn, do quần

Hà Nội có siêu thị VKO bán hàng Hàn Quốc nhưng sẫm soi kỹ nhiều khi vẫn nghi ngờ. Một số shop quần áo, mũ, giày Hồng Kông ở các phố lớn lại giả danh made in Hàn Quốc (mà đó Quảng Châu thì nổi lên thành Hồng Kông). Chuẩn bị sang xứ lạnh tôi đi mua ít chiếc để mặc độ đường thì bị người thân gần "sang xứ thời trang cơ mà". Đi chợ

phục tiếp viên nữ của Hãng hàng không châu Á hài hòa và không "hộp" như hình ảnh trong quá khứ. Váy màu be, ngoài có một lớp gi-lê mô phỏng chiếc tạp dề - màu đỏ, điểm mấy bông hoa nhả nhai. Vô cùng thoáng là trang phục ca sĩ trên sân khấu ca nhạc, với rất nhiều "túm tóc" nhưng là túm có kiểu của nó.

Màu công sở thể hiện trên



Người dân Hàn trong trang phục thoải mái tại một điểm du lịch

áo không bị gò theo một kiểu nào, vô cùng đa dạng, dù như đã nói - vẫn có những trào lưu mới. Kiểu cũ xen kiểu mới, "kinh điển" pha phá cách. Cặp bạn gái đi trên đường - một cô tóc tém diện váy bờ mi-ni, cô kia tóc buộc mắc váy bờ xoe rộng - bắt mắt như nhau. Hoặc váy xếp nếp rộng, đủ màu. Nhưng không hề có một đi-gan như Việt Nam và Trung Quốc năm nay thịnh. Giày boot cao, màu da, túm túm ở giữa chứ không sát cổ chân là một trong những mới gây thu hút năm nay. Ngoài ra, giày cao gót có thể có họa tiết, hoa dây nhỏ nhỏ, màu sắc thuộc gam trầm.

Mỗi phụ nữ không người nào thiếu trên mình một chiếc túi, chiếc nào cũng hợp lý, vô cùng ăn ý với quần áo. Túi muốn đẹp phải lưng ở shop. Siêu thị Dongdaemun nơi có 8 tầng bán đồ thời trang, 1 tầng không có túi đẹp, màu sắc u tối và giá chẳng rẻ gì. Và li Hàn Quốc có danh, nhưng đẹp nhất vẫn là mua ở khu vực miền thuế của sân bay, đó hiệu nổi tiếng hoặc không nổi tiếng lắm trông đều "khôn" hơn đồ ở siêu thị trung tâm.

quần áo bên này bị bạn đồng hành gần tiếp, rằng không đáng phải chịu đắt như thế, chiếc áo len cộc tay coi được một chút giá 48.000 won tức hơn 700.000 đ, đây là hàng chợ, còn hàng xịn chỉ có tính đô-la thôi. 200 USD trở lên mới được 1 chiếc tầm tầm. Họ nói Sài Gòn không thiếu thứ gì mà giá cả hợp lý hơn nhiều, đó hiệu ở siêu thị do người Mã Lai làm chủ trong Sài Gòn, chất lượng hơn hẳn nhé. Song người ta mặc trên đường trông mà bắt thêm, và lại về nhà để gi kiểm được một chiếc áo len màu "tím chết" đáng buồn độc đáo, hoặc chiếc quần túi hộp rất hip-hop mà vẫn lịch sự bởi màu sắc và đường kim mũi chỉ cố gọi là "đỉnh cao", thiết kế hợp lý, mặc vào trẻ hơn tuổi mà không bị mang tiếng đua đòi.

Có người bạn mê đồ da, đồ bự khẳng định đáng cấp con người ta thể hiện qua và li mang theo người khi đứng ở sân bay, và giày. Thảo nào các cô gái Hàn, đến chiếc và li màu đen (bằng da hoặc vải bạt pha nỉon) cũng điểm những chấm nhỏ màu trắng. Đi với váy áo màu đen và chiếc ruy băng đen chấm trắng trên đầu. Trang

đường phố với nam giới là một màu đậm của veston, may vừa khít, vải đẹp, đáng người mặc thanh thoát. Xứng đáng chuẩn châu Á. NSUT Thu Hà, đi Hàn Quốc 4 lần, có chồng từng làm trong công ty Hàn nhiều năm, lưu ý: Không người dân ông Hàn nào có bàn tay xấu đầu nhè - chắc có quá lời một tí.

Thỉnh thoảng trên đường phố hiện đại, một phụ nữ mặc Hanbok đắt con sang đường vội vã, chắc nhà có việc trọng, vẫn ăn nhập như



Một cô gái trong trang phục đầy năng động...

Ảnh: Việt Văn

không với thế giới new fashion.

Các cô gái chàng trai giờ không nhuộm tóc rực rỡ nữa rồi, qua rồi Tái nhiên nếu có những bộ tóc đen nhánh thì cũng là nhuộm nốt. Nay nhuộm tóc màu sáng chỉ các bà nhiều tuổi. Thanh nữ để tóc thẳng; càng nhiều tuổi tóc càng uốn, biểu hiện có chồng là tóc uốn. Như phụ nữ dân tộc Thái của ta búi tóc trên đỉnh đầu tức "Tăng cầu", chống rồi.

Người Hàn quốc ăn mặc đẹp nhưng hình như lại không có thói quen nhận xét ngoại hình và cách ăn mặc của nhau. Xem phim thì biết. Người Tây nếu tán thành gu của ai đó phải "đắc nhân tâm", khen thật lòng ngay. Điều mà tôi hi vọng giải đáp phần nào cho bạn đọc, rằng phim ảnh - đời thực khoảng cách thế nào, là: Ngoài đời - trên đường phố, trong rạp chiếu phim, nhà hàng, công sở, dân Hàn giao tiếp không quá khách sáo, kiêu căng, nặng hình thức như trong phim (chắc chuyện tình cảm cũng không tiết chế như các tình

huống phim), nhưng dân chúng thực sự ăn vận rất thẩm mỹ, rất văn minh. Đa số có nước da trắng mịn kể cả dân ông, đáng đi thẳng thớm tự tin. Đồng nghiệp nam trong đoàn chế báp chân các cô gái hơi to "chắc vì leo đồi núi nhiều", tôi lại thấy đáng đi dù vội vẫn đàng hoàng của họ rất đáng kính trọng. Lại có người kêu "quá điệu" (phụ nữ). Đa số resroom (khu phụ nữ công cộng) đều để sẵn bàn chải răng, thuốc đánh răng, vì luôn có người cần vệ sinh bất cứ lúc nào. Transit ở sân bay cũng tranh thủ rửa mặt bằng sữa, gel rửa mặt cầu kì, sạch kính khùng. Sạch quá cũng bị kêu là thế. Mặt độ người có hình thức khá trở lên, là cao hẳn hơn. Đến phim trường Nam Yang Ju gặp các nhà điện ảnh thấy như vậy đã đành, gặp sinh viên của Đại học tổng hợp Nghệ thuật quốc gia đã đành, mà dự thỉnh ở "Điện dân trí thức thế giới" gồm toàn trí thức cũng thế, hoặc ngắm khách thập phương tham quan di sản văn hóa thế giới - Cung Chang Teok, cũng thế...□

GIẢI TRÍ TRÊN TRUYỀN HÌNH ngày 21/10/2005

VTV1: 7h Phim Pháp: Đội trọng án 10h Sân khấu: Cội nguồn 13h Phim TQ: Đội chống lừa đảo 16h55 Phim HQ: Văn mại cổ đơn 22h Hố sơ.

VTV3: 6h Thể thao 8h Hành trình văn hóa 9h Phim Mỹ: Tazan 10h Khởi nghiệp 11h30 Chấn hưng cuộc sống: Khoa học và khám phá 12h Phim TQ: Mạnh Lệ Quân 13h30 Phim NN 18h Phim: Malcolm lên lịch 20h Trò chơi âm nhạc 21h Phim TQ: Ngón tay vàng 22h 360 độ thể thao.

Hà Nội TV: 8h30 Phim VN: Chuyện tình trên đảo cát 12h Phim TQ: Tình đạo bên Thượng Hải 17h30 Phim TQ: Bốn nữ luật sư 21h Phim Mỹ: Mặt nạ của Zorro.

VCTV1: 16h Phim: Colet người phụ nữ tự do 18h Phim: Đội đặc nhiệm 20h Phim: Có đầu Ấn Độ 22h5 Phim Pháp: Dưới

bóng điều hâu.

HCTV: 15h Phim HQ: Hương mùa hè 16h20 Phim TQ: Hoa thủy vu xanh 19h Phim VN: Cái vung 22h Phim Đức: Đối thủ trên đường đua.

Hà Tay: 6h30 Phim VN: Dốc tình 11h55 Phim HK: Độc Cò cầu bá 17h20 Phim TQ: Đắc Kỷ Trụ Vương 20h45 Phim TQ: Liều Tam Biện.

Hải Phòng: 6h Phim Đài Loan: Thiện nữ u hồn 9h Phim VN: Mãi số thần kỳ 11h45 Phim VN: Phụ nữ tuổi 30 15h Phim VN: Lạm mệ 17h Phim TQ: Đệ nhất bảo tiêu 21h15 Phim TQ: Mối tình hoa tử đằng.

Bắc Ninh: 12h40 Phim TQ: Hiệp khách hành 18h Phim Đài Loan: Sự thần tiên 21h15 Phim TQ: Đường Minh Hoàng.

▲ VIỆT VĂN

Hành trình của đoàn nhà báo VN sang Hàn Quốc theo lời mời của Quỹ Giao lưu văn hoá Châu Á (Koface) chỉ vùn vùn 5 ngày. Năm ngày hối hả, di chuyển liên tục từ Seoul - Busan rồi lại quay về Seoul. Đường như người Hàn muốn khéo léo phô bày những tinh hoa của họ trên nhiều lĩnh vực. Nhưng trong suốt hành trình, tôi chỉ đau đầu một điều: Làm sao một dân tộc từ tay trắng lại có thể lớn nhanh, mạnh đến như vậy.

Con người luôn có tiếng nói quyết định trong mọi trường hợp và ở đây không là ngoại lệ. Nói về tính cách một dân tộc mà chỉ qua năm ngày thật hồ đồ, nhưng những người tôi gặp gọi lên một nét chấm phá về tính cách Hàn.

Qua đường

Người Hàn Quốc đầu tiên tôi gặp là một cảnh sát trên ngực áo có ghi "Security" (An ninh). Khi tôi giờ máy ảnh lên định chụp một cô gái trẻ khá thời trang ngay tại sân bay Incheon thì viên cảnh sát ngăn lại và hỏi: "Anh chụp làm gì?". Tôi giải thích và anh ta bỏ đi, nhưng nhìn tôi không mấy thiện cảm. Té ra đó là một cảnh sát chống bạo động. Đông - một người Việt Nam làm việc ở sân bay cho biết: Cách đây ba hôm, ai đó vút giữa phòng chờ một vali đựng đồ: Lát sau hàng chục cảnh sát chống bạo động đến vây quanh, bên ngoài có xe cứu hoả, cứu thương sẵn sàng và một robot ra mở khoá vali... Cuối cùng thì chẳng có sự cố gì xảy ra, nhưng với người Hàn, thận trọng không bao giờ thừa. Họ đặt tính nguyên tắc lên hàng đầu.

Trên đường phố, các cảnh sát mặt lạnh và ít khi cười. Các công sở kể cả Bộ Văn hoá du lịch đều thấy lính gác. Người Hàn đi nhanh và rất tranh thủ. Thường thì hình ảnh một anh chàng vừa cầm cúi đi vừa nghe điện thoại di động là chuyện thường. "Bởi vì Hàn

Quốc tài nguyên không có, chỉ có nguồn nhân lực dồi dào. Chỉ có làm việc và làm việc không nghỉ". Kim Melvin - chàng "guide" của đoàn nhà báo VN nói vậy. To con, đeo kính, Kim Melvin luôn lặng lẽ, chu đáo với khách, và thực hiện mọi yêu cầu của khách dù là yêu cầu không dễ chịu. Vào quán ăn, sau khi hướng dẫn cho khách các món, anh mới lùi vào một góc ăn thật nhanh để đứng lên sớm nhất. "Thời gian rồi anh làm gì? Tôi làm gì có thời gian rồi. Tôi hạnh phúc với công việc". Lắm lúc cảm giác Kim Melvin oải lắm rồi nhưng anh vẫn gắng gượng, không kêu một lời và bước đi vẫn thẳng.

Người Hàn hay cười, nhưng cười để xả stress vì áp lực cuộc sống đè nặng. Kim See Yoon - một người Hàn đã 11 năm nay sống ở TPHCM nói vậy. Các nhà hàng, quán bar mở cửa đón khách 24/24h. Đàn ông uống rượu đã đành mà phụ nữ cũng chả kém. Chồng uống, vợ uống đến say mềm để hôm sau mất ngủ mất mớ đi làm. Kim See Yoon rời xứ Hàn, thuê nhà ở quận Tân Bình (TPHCM) sống. Tiền thuê nhà và tiền học hai đứa con cộng lại đã 1.000USD, nhưng Kim vẫn cười vì giá cả ở VN so với Hàn Quốc là thiên đường.

Anh bảo tôi: Ở Hàn, một sinh viên ra trường lương khởi điểm đã là 1.500USD. Tôi có quên đi mức giá sinh hoạt đắt đỏ ở Hàn để nhắm tính xem

Khi là



◆ Những người bán hàng rong ở Seoul.

Ảnh: VIỆT VĂN

lương mình với thâm niên gần 15 năm công tác bằng bao nhiêu phần lương của sinh viên Hàn, rồi thở dài.

Anh bán sâm lâu cá

Người đi xa thích mua đặc sản địa phương về làm quà. Hàn nổi tiếng bởi sâm và mỹ phẩm. Đặc biệt là sâm, có lẽ bởi vì thương hiệu sâm Cao Ly đã quá nổi tiếng từ xa xưa, loại sâm dùng để tiến vua. Chợ Nam Dae Mun ở Seoul. Bốn giờ sáng. Một cửa hàng nhỏ lối bước tôi vào vì dòng chữ: "Giảm giá đặc biệt cho khách VN". Anh chủ mặt còn bơ phờ vì rượu, tên Se Jun Kim tươi tỉnh hẳn. Bằng thứ tiếng Việt lơ lớ, anh giải thích cho tôi sâm 6 tuổi, sâm 5 tuổi... khác nhau như thế nào; dĩ nhiên là tuổi cao thì tiền cao. Tôi nghe ù cả tai mà bản khoăn: Không biết củ sâm tươi 6 tuổi kia liệu đã đủ thời gian để tạo thành phương thuốc trẻ lâu danh bất hư truyền Hàn Quốc!

Năm năm trước, Se Jun Kim phát hiện người Việt

thích mua sâm nên thuê công nhân và sinh viên VN ở Seoul phụ giúp bán. Anh tự học tiếng Việt và viết bản hướng dẫn công dụng của từng loại sâm. Chuyện giảm giá cho khách Việt được Se Jun Kim lý giải: Vì người Việt mua nhiều. Khi biết tôi là nhà báo và ngỏ ý muốn chụp ảnh. Kim thông thả xin vào phòng chứa đầu cần thận rồi mới ra đứng trước hàng.

Vào chợ mua đồ nhưng ra quán nhậu via hè để biết thêm tính cách

Ngồi ở một quán nhỏ có mái che nhỏ chỉ đủ ba, bốn bàn ăn nhỏ. Hai con cá nướng, đĩa sò huyết, chai rượu và đương nhiên không thể thiếu món kim chi, nhìn sang bàn kia thấy mấy người đàn ông Hàn say sưa mà chợt nghĩ: Đàn ông ngồi nhậu trên thế giới này ở đâu dường như cũng giống nhau. Cảm giác của một kẻ "giang hồ vật" trong một đêm hơi lạnh, nghe hơi gió co ro sườn ấm băng

phong đổi màu

chén rượu (dù rượu Hàn nhạt thớt) làm tôi nghĩ đến những trận nhậu bên hè ở Sài Gòn hay Hà Nội... Chợt nhìn sang bên đường, trên vỉa hè hai anh chàng gục đầu vào nhau như đôi tình nhân với mấy vỏ chai vứt lán lóc bên cạnh, mà thấy đồng cảm.

Mờ sáng, tôi ngồi hàng giờ để ngắm con kênh Jungkyeul 600 năm tuổi. Về đẹp của con kênh với những cột nước trắng xóa tung mình lên cao làm mất những ngôi nhà chọc trời, những tác phẩm sắp đặt tràn đầy cảm xúc và tính phát hiện, không hấp dẫn tôi bằng chuyện về con kênh. Con kênh Jungkyeul đã từng bị lấp đi để làm đường; ba năm gần đây lại được đào lên. Làm một con đường là kỳ công, đào một con kênh giữa lòng thành phố càng không đơn giản. Mất bao nhiêu thời

gian, tốn bao nhiêu tiền bạc. Vậy mà người Hàn sẵn sàng phá đi làm lại. Vì áp lực công chúng, vì cảnh quan cho thành phố hay vì thấy sai là sửa mà sửa bằng mọi giá.

Mỗi ngày một việc

Nhưng chính nhờ tính cách quyết liệt đó để thực hiện chiến lược phát triển kinh tế đúng đắn do tướng Park Chung Hy khởi xướng mà nước Hàn được như ngày nay. Hàn Quốc không có vàng, than, dầu lửa chỉ có nguồn nhân lực. Hàn Quốc đã phải tạo ra một nền công nghiệp xuất khẩu, với các sản phẩm đặc biệt, để nâng cao vị thế của nền kinh tế vào những năm 80. Người Hàn đã xuất khẩu những sản phẩm công nghiệp mang tính văn hoá, tạo ra một cá tính - một bản sắc Hàn Quốc không thể trộn lẫn.

Người tiêu dùng mua một sản phẩm công nghiệp cũng là tiếp cận với nền văn hoá Hàn. Thập niên 90 dành cho công nghiệp với chiến lược phát triển hệ thống thông tin và công nghiệp, đặc biệt là hệ thống Internet và công nghệ điện thoại di động thế hệ mới của Hàn là niềm tự hào của họ trên thế giới. Thập niên những năm 2000 tập trung phát triển văn hoá... "Tôi rất đau đớn khi người khác hỏi tôi là Nam Hàn hay Bắc Hàn"- ông Park Yang Woo - Cục trưởng Cục Công nghiệp văn hoá Hàn Quốc nói. Nỗi đau chia cắt đã hun đúc một ý chí, khát vọng vươn lên của một dân tộc. Nhưng điều chủ yếu là họ biết mạnh, yếu của mình. Mỗi bước đi của họ được tính toán, cân nhắc kỹ lưỡng với một khát vọng mạnh mẽ. "Đa dạng - hợp nhất và toàn cầu hoá"-

đó là ba phương châm của Tập đoàn truyền thông giải trí CGV nhưng cũng là của nền kinh tế Hàn Quốc.

Lá thay màu

Người Hàn có điểm tương đồng với người Việt là chịu ảnh hưởng của đạo Khổng, nhưng ở họ nghiêm ngặt hơn rất nhiều. Tứ đại đồng đường, chung một mái nhà. Người ông chưa ngồi vào bàn ăn là cả nhà phải đợi. Ông đi chơi về, người trong nhà đã ngủ cũng phải dậy chào. Trong sở làm, nhân viên bao giờ cũng đến trước sếp và về sau cùng... Sự khắc nghiệt đó đã tạo ra một trật tự: Trên dưới rõ ràng và tính cộng đồng luôn siết chặt. Nhưng người Hàn lại tránh nói về sự áp đặt. Có lẽ vì họ thấm thía sự tàn nhẫn nhiệt thành văn hoá Mỹ buổi đầu; để rồi sau đó phản ứng tự vệ của một dân tộc đã giúp họ chống lại.

Tôi nhớ đến sự thân thiện trong cái bắt tay của ông giám đốc điều hành Koface Yang Rae Kim. Luôn cúi gập người xuống, dường như ông dành tặng cho người đối thoại sự hiện diện trọn vẹn của mình. Đó cũng là một cách cho theo đạo Phật - đạo mà mà 22,3% dân số Hàn Quốc th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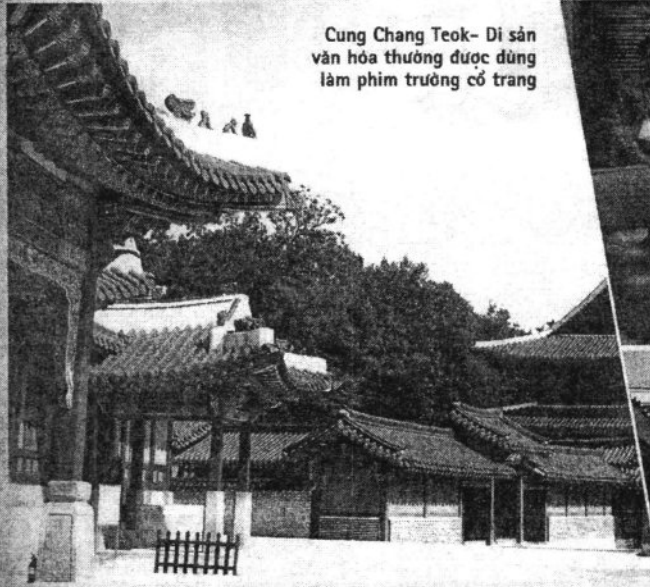
Một cô gái Hàn bảo tôi: Lá phong vàng rực chỉ sau một đêm đã biến thành màu đỏ. Màu đỏ là màu của khát vọng cũng là một trong ba màu trên lá cờ Hàn Quốc. Sức vươn lên nhanh chóng của một dân tộc cũng mạnh mẽ và bất ngờ như những chiếc lá phong đổi màu kia.



◆ Trẻ em cũng luôn vội vã trên đường.

Ảnh: VIỆT VĂN

Tháng 10.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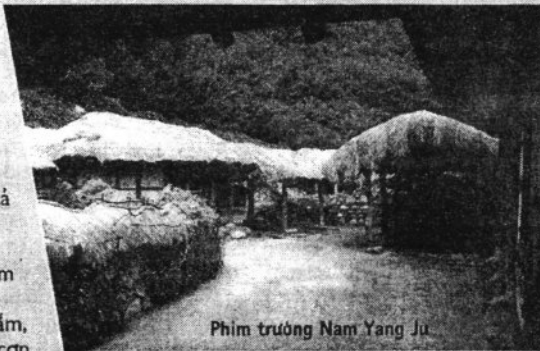
Cung Chang Teok- Di sản văn hóa thường được dùng làm phim trường cổ trang



Ban lãnh đạo Quỹ Giao Lưu và Phát triển Châu Á - Hàn Quốc và nhà báo VN chụp hình lưu niệm



Phim trường thu hút khách tham quan



Phim trường Nam Yang Ju

Đài Loan, Hồng Kông, Nhật Bản ... Trước đây rất ít các hãng phim tư nhân, chủ yếu các phim là do các đài truyền hình thực hiện, nhưng thời gian gần đây, nhu cầu kinh phí ngày càng tăng, nên cần phải có mặt của các công ty đối tác và đặc biệt là có sự hỗ trợ vốn của nước ngoài. Trước các kế hoạch làm phim, những đối tác nước ngoài luôn có được những chế độ ưu đãi, được ăn theo các dịch vụ của phim. Trước đây ở các tập đoàn lớn như Sam Sung, LG, Hyundai... phần lớn họ chỉ tham gia với tính chất thương mại, nhưng sau khi công nghệ điện ảnh phát triển thì hiện nay các tập đoàn lớn này đã trực tiếp tham gia sản xuất phim, để kinh doanh trong lĩnh vực nghệ thuật.



TRƯỚC CÔNG PHIM TRƯỜNG NƠI CẢNH



TRƯỚC LÃNG BẢO CỦA LHP

Thế còn vai trò của các diễn viên Hàn Quốc có quan trọng lắm không?

Vừa rồi các bạn đã tận mắt chứng kiến buổi họp báo của hai diễn viên Kwon Sang Woo và Yoo Ji Tae rồi đấy. Hàng trăm phóng viên từ các nơi đổ về tham dự, khán giả thì cuồng nhiệt đến phát... sốt, sẵn sàng chờ đợi cả buổi chỉ để mong được gặp diễn viên mà thôi! Còn diễn viên Bae Young Jun trong phim **Tuyết Thắm Tư**, dù ở Hàn Quốc không được ăn khách lắm, nhưng ở Nhật Bản lại là một cơn sốt, anh được người Nhật Bản đặt biệt danh là Usama, vì sự nổi tiếng của anh qua bộ phim **Chuyến Tinh Mùa Đông**. Và, khi đến Nhật Bản anh được đón tiếp còn hơn cả một nghệ sĩ nhân dân của nước này. Đây là một trường hợp ngoại lệ vì ở Nhật không có chuyện chọn các người mẫu hay diễn viên nước ngoài làm quảng cáo cho thương hiệu của nước mình, với Bae Young Jun thì ngoại lệ, thù lao một năm của anh là một triệu đô la, còn cao hơn cả diễn viên Tom Cruise của Mỹ khi nhận một hợp đồng quảng cáo ở Nhật.

Ngày trước nghệ sĩ Hàn Quốc nổi tiếng có thể là do may mắn theo thời cơ hay theo vai diễn nào đó. Nhưng hiện nay, đã có những phương án đầu tư, đào tạo dài hơi, chọn những đứa trẻ từ 12 đến 13 tuổi, ký kết hợp đồng giữa gia đình với công ty giải trí theo công nghệ lãg xê. Đây là mô hình phát triển rất phổ biến ở Hàn Quốc, không đơn thuần là qua một cuộc thi hay là sự may mắn, tất cả phải theo một dự án lớn, thì mới tạo ra được một làn sóng điện ảnh như hiện nay.

Vâng, xin cảm ơn ông Kim Eui Sung!



Khán giả Hàn Quốc luôn luôn ủng hộ phim Hàn Quốc



Liên hoan phim Pusan (Hàn Quốc):

Tiếp thị hình ảnh quốc gia bằng điện ảnh



Năm nay vào tuổi lên 10, liên hoan phim (LH quốc tế Pusan vừa qua đã được đánh giá là một trong những ngày hội điện ảnh có quy mô lớn nhất châu Á. Điều đặc biệt là thông qua LHP này, Hàn Quốc đã thành công trong việc tiếp thị hình ảnh của đất nước mình đến với công chúng khắp thế giới.

► VŨ MẠNH LONG ◀

Phóng viên Việt Nam tại LHP Pusan

Lần đầu tiên, một đoàn phóng viên Việt Nam (14 người, trong đó có phóng viên của Tiếp thị Việt Nam) đã có mặt tại Hàn Quốc để theo dõi LHP Pusan theo lời mời từ Quỹ Giao lưu văn hóa châu Á (KOFACE). Ngay khi vừa bước xuống sân bay, chúng tôi đã cảm nhận được không khí sôi động của ngày hội điện ảnh này. Trong những ngày diễn ra LHP, đi đâu cũng bắt gặp những lá cờ, áp phích, pa-nô khổng lồ quảng bá về hoạt động này được trưng bày khắp nơi, từ đường phố đến các siêu thị, quán ăn và cả hệ thống xe taxi. Trên những con phố chính, hàng chục gian hàng bán đồ lưu niệm liên quan đến phim, tặng quà khuyến mãi, tặng các tạp chí điện ảnh... luôn thu hút sự chú ý của khán giả trong và ngoài nước.

Đặc biệt, dọc theo bãi biển tuyệt đẹp của Pusan, ban chức còn bố trí nhiều địa điểm dành cho khách tham quan chụp ảnh, giao lưu... Tự nhiên, sân khấu ngoài trời mà chính là địa điểm náo nhiệt nhất, thu hút đông đảo khán giả nhất với nhiều hoạt động văn nghệ, giao lưu với các diễn viên nổi tiếng. Có mặt tại đây chúng tôi đã được dịp tham gia buổi giới thiệu các phim *Truyền hện ca* với sự xuất hiện của diễn viên Quan Cẩm Bằng và diễn viên Trịnh Tú Vũ và phim *Dã thú* với hai ngôi sao Kwon Sang Woo và Yoo Ji Ta. Hơn 300 phóng viên nước ngoài đã phải "cạnh tranh" nhau để tìm được vị trí tốt nhằm tiếp cận các ngôi sao này. Sự cuồng nhiệt của khán giả, sự say mê tác nghiệp của các phóng viên đã khiến cho những buổi giao lưu trở nên sôi động chưa từng thấy.

Cụm rạp chiếu phim trong sân vận động Seoul Mô hình *đầu tiên* trên thế giới



“Ai muốn mua vé, chỉ cần đến những chiếc máy tự động để lấy thẻ ghi số thứ tự, rồi sau đó cứ thoải mái đi dạo hay mua sắm. Thông tin trên các bảng điện tử sẽ cho bạn biết khi nào thì mình có vé để vào xem phim.”

Năm 2002, người dân Hàn Quốc tự hào khánh thành sân vận động Seoul có sức chứa khổng lồ để tổ chức những trận World Cup 2002. Sau khi giải đấu qua đi, một cụm rạp chiếu phim hoành tráng và hiện đại bậc nhất thế giới đã được xây dựng từ găm khán đài để tận dụng hết công suất của sân vận động này. Đây là mô hình cụm rạp chiếu phim tại sân vận động đầu tiên trên thế giới, do tập đoàn CVG Hàn Quốc đầu tư.

Cụm rạp trị giá 13 triệu USD

Giữa tháng 10/2005, lần đầu tiên được đến thủ đô Hàn Quốc, tôi thật sự bị choáng ngợp trước tầm vóc quy mô của sân vận động Seoul, mà càng “ngạt thở” hơn khi được nhìn ngắm cụm rạp hiện đại nằm... bên dưới nó.

Tập đoàn CVG đã đầu tư hơn 13 triệu USD cho công trình này. Ngay trước cửa ra vào, khách tham quan sẽ thấy ấn tượng mạnh trước bộ sưu tập những dấu tay của nhiều ngôi sao nghệ thuật nổi tiếng thế giới từng đến Hàn Quốc.

Vừa có dịp sang Hàn Quốc công tác theo lời mời của một tập đoàn điện ảnh xứ bạn, phóng viên TTVN đã ghi nhận được nhiều điều thật xứng đáng “đi một ngày đàng học một sàng khôn”. Một trong những gì đáng ghi chép nhất đã đến từ sân vận động Seoul

Sau đó vào khuôn viên rạp, tôi càng ngạc nhiên khi không hề thấy cảnh khán giả phải xếp hàng hay chen lấn mua vé. Ai muốn mua, chỉ cần đến những chiếc máy tự động để lấy thẻ ghi số thứ tự, rồi sau đó cứ thoải mái... đi dạo hay mua sắm. Thông tin trên các bảng điện tử sẽ cho bạn biết khi nào thì mình có vé để vào xem phim.

Phục vụ cho khách chờ xem phim quanh cụm rạp là cả một thế giới giải trí, tiêu dùng phong phú với các gian hàng lưu niệm, trò chơi điện tử, siêu thị, nhà hàng và cả... gian hàng của các “chiếm tinh gia” dành cho ai thích xem tử vi.

Mỗi phòng chiếu: Một phong cách riêng

Cụm rạp CVG này có cả thảy 10 phòng chiếu nhưng điều thú vị là mỗi phòng đều có một phong cách thiết kế và phục vụ khác nhau, cũng dành riêng cho từng thể loại phim khác nhau. Có phòng chuyên chiếu những bộ phim giải trí mới nhất, có phòng chỉ chuyên về phim nghệ thuật, có phòng lại chỉ dành riêng cho phim đề tài chiến tranh của tất cả các nước. Đặc biệt, có một phòng VIP chỉ 30 chỗ với ghế ngồi cao

cấp như trên khoang hạn của máy bay, có thể điều chỉnh độ nghiêng theo ý muốn, khách xem được phục vụ thức ăn và thức uống theo yêu cầu. Dĩ nhiên, giá vé của phòng VIP này cũng... “rất VIP”.

Không chỉ tạo phong cách riêng về thể loại phim, phòng chiếu đều có mùi hương khác nhau, theo ngày. Đặc biệt, khán giả cũng có thể yêu cầu hương tỏa trong phòng mình thí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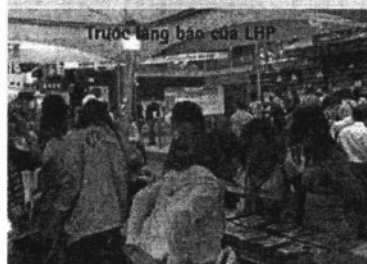
Ông Kim Eui Sung (Giám đốc FnC Media Group) biết: “Mỗi năm Hàn Quốc xuất từ 60 đến 80 phim ảnh, đủ để đáp ứng mọi cầu cho mọi tầng lớp khán giả. Cụm rạp này của chúng tôi được xây dựng theo công nghệ tiên tiến nhất với sự phối hợp thực hiện đồng bộ của một tập đoàn lớn tại Hàn Quốc, nó không chỉ là nơi xem phim mà còn gắn liền với nhiều hoạt động giải trí khác. Với thể riêng của một cụm rạp sân vận động, là chỉ cần số lượng nhỏ trong hàng ngàn khán giả sau khi bỏ đồng đô la chịu ghé vào xem phim là đã đủ làm đầy phòng chiếu”.

LIÊN HOAN PHIM

PUSAN

HÀN QUỐC NHỮNG KỶ NIỆM BÊN LỀ

Phim Hàn Quốc chiếm lĩnh gần như toàn bộ các kênh truyền hình, rạp hát, báo chí... Phim Hàn đã đổi mới cách nhìn của nhiều người, ảnh hưởng tới lối sống của một số lớp trẻ của ta ngày nay. Điều gì đã làm nên làn sóng đó? Một chuyến sang Hàn để dự liên hoan phim và cũng là dịp tham quan tìm hiểu đất nước, văn hoá Hàn do Công Ty FNC tổ chức, dưới sự tài trợ của Quỹ Giao Lưu & Phát Triển Văn Hóa Châu Á của Hàn Quốc diễn ra vào ngày 6/10 đến 14/10/2005 vừa qua, đã để lại một ấn tượng khó quên...



Rắc rối trước giờ bay!

Danh sách phóng viên TPHCM sang Hàn Quốc là 7 thành viên, nhưng đi chung còn có một đoàn phim Hàn Quốc vừa quay xong phần nhập của bộ phim nhiều tập **Mùi Ngõ Gai**, nên các dụng cụ của đoàn khá lỉnh kỉnh. Vào phòng sân bay làm thủ tục mọi thứ đều suôn sẻ, nhưng đến cửa lên máy bay lại xảy ra vấn đề! Các hộp phim bị một anh an ninh yêu cầu kiểm tra dù rằng đã có giấy phép đăng hoàng. Lý giải của anh chàng an ninh: "Giấy phép chỉ mới duyệt nội dung, ch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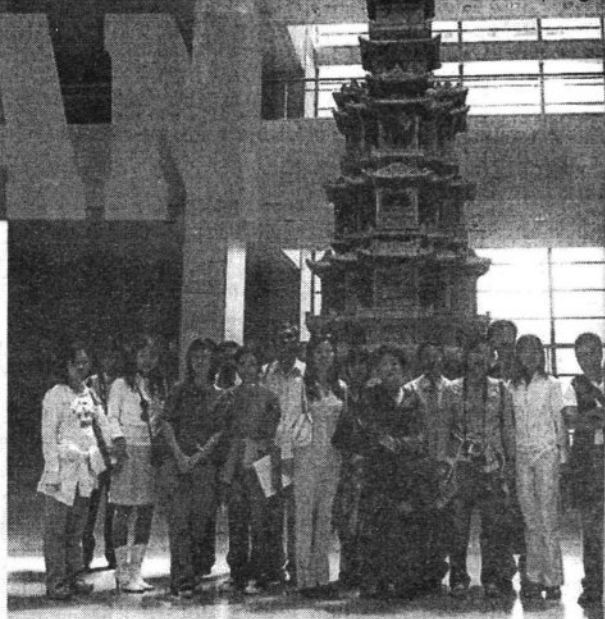
chưa duyệt trong đó có cái gì gây nguy hiểm không. Ở đây chỉ làm việc vì sự an toàn cho chuyến bay của quý vị, nên bắt buộc phải... xét!" Khó nổi, dụng cụ xét của Hải Quan là một cái túi thô sơ, mỏng manh, lại còn bị gián dây thun, nên đoàn phim gần như xám mặt mà nản nì. Điều đình giữa hai bên không tốt đẹp, chuyến bay trễ gần một tiếng, các tiếp viên chạy ra chạy vào hối thúc như con thoi, thế là anh Kim Se Hyuk - giám đốc Công Ty FNC, đành phải ở lại cùng với mấy người Hàn Quốc, cả đoàn lên đường trong tâm trạng chán chường vì cách làm việc hơi cứng nhắc của anh chàng!

Liên Hoan Phim Pusan ở thành phố Busan

Chỉ khoảng 5 giờ bay, chúng tôi đến được sân bay quốc tế của thành phố Busan. Trước đây thành phố là một bán đảo, chính phủ phải lấp biển giành đất xây nhà, lập nên các công

LỮ DẮC LONG
Bồi và ảnh

Tại Viện Bảo
Tàng trưng tâm
quốc gia



bằng một viên biết, qua, thay báo xanh ngan lạnh phút chút đưa t bằng bác hốc nhữn kiểu.

Vào

Mé cái d nập, một gian bán nhất diển xuất của diển viên Trương Ngọc Ánh.

Đương vào xem phim Việt.

Dù panô, áp phích, LHP treo nổi d 200 n là có khí t đầu t chí t của n Gun và c rap chiếu nằm trong một siêu đồng khá b đứng để xem, cả rạp im lặng để từ Ba thươg thức bộ phim, ai cũng "Tặng khen phim hay cảnh đẹp, nhưng thích không thấy diển viên Trương Ngọc Ánh và đạo diển Minh Phươg xuất hiện để giao lưu cùng khán giả. Đứng là một ngày buồn của phóng viên Việt Nam!

Anh

Đo khen

Sung Ty B như

trình hiện đại trong đó có một cây cầu dài 5 km - niềm tự hào của người dân Busan. Trung tâm thành phố rạp cỏ, hoa, những tấm panô to đùng được đặt ngay các vị trí bắt mắt nhằm tuyên truyền, cổ vũ cho ngày hội lớn nhất của Châu Á: LHP Pusan. Từ một liên hoan phim nội địa, nhưng với nền điện ảnh ngày càng phát triển mạnh mẽ, LHP Pusan đã thu hút sự chú ý của các nước về tham dự. Người dân dự LHP đón nhận ngày hội như niềm tự hào của dân tộc. Bởi từ lâu, dân chúng luôn xem điện ảnh là một vũ khí tiên phong trên mặt trận văn hóa, không chỉ mang tính chất tuyên truyền mà còn lưu, phát triển cùng với các nước trên thế giới.

Chiếc thẻ hành nghề

Vào đến LHP, công việc đầu tiên là liên hệ với Trung Tâm Báo Chí. Trước cổng trung tâm là một bãi đậu xe hơi, chứng tỏ đây là một nơi quan trọng. Ngay cửa ra vào, hàng loạt các ấn phẩm báo chí, tờ rơi, được trưng bày rất đẹp mắt, khách ra vào có thể lấy một cách vô tư. Quảng cáo cho Liên Hoan Phim mà, đâu ai tiếc gì! Trong gian phòng không lớn lắm, bày gần 20 máy vi tính san sát nhau để các phóng viên từ các nơi đổ về cập nhật thông tin hay truyền tải tin tức về các toà soạn. Các

phóng viên Việt Nam cũng "áo ạt" lên mạng, "chất, meo" 1 xèo. Khi anh Kim - người dẫn đoàn, lấy thẻ từ trung tâm thì mới biết ba phóng viên ở Hà Nội đã thất lạc hình nên việc làm thẻ phải đợi đến ngày mai thôi! Thẻ là không thể vào được làng LHP, đành đợi tới chiều đi xem phim Việt Nam **Hạt Mưa Rơi Bao Lâu** với sự diển xuất của diển viên Trương Ngọc Ánh.

Đương vào xem phim Việt.

Dù panô, áp phích, LHP treo nổi d 200 n là có khí t đầu t chí t của n Gun và c rap chiếu nằm trong một siêu đồng khá b đứng để xem, cả rạp im lặng để từ Ba thươg thức bộ phim, ai cũng "Tặng khen phim hay cảnh đẹp, nhưng thích không thấy diển viên Trương Ngọc Ánh và đạo diển Minh Phươg xuất hiện để giao lưu cùng khán giả. Đứng là một ngày buồn của phóng viên Việt Nam!

Thoát chết trên đường... cao tốc!

Ở Hàn Quốc thường khi



Pho Chu Tich quý giao lưu
phát triển văn hóa châu Á

bằng qua đường phải đi qua một đường hầm, nhưng phóng viên mình lần đầu mới sang đầu biết, cả bốn người tự ý băng qua, đến khi ra giữa lộ, xe hơi thay nhau tăng tốc, lao vun vút, báo hại cả bốn người mặt mũi xanh lè, phía trước thì xe lướt ngang qua mặt, phía sau thì lạnh xương sống, phải gần 10 phút sau, xe mới giãn được đôi chút, thế là máu liều nổi lên, cứ đưa tay, vẩy nón liên tục mới băng được qua đường, khiến các bác tài và người đi đường cứ há hốc ngạc nhiên, vì sao lại có những người qua đường theo kiểu... cascadeur!

Vào làng liên hoan phim!

Mới nhìn sơ qua cứ như một cái chợ, người và xe ra vào tấp nập. Một sân khấu được dựng một cách tạm bợ, hàng trăm gian hàng lưu niệm được bày bán tự do và náo nhiệt. Vui nhất là có MC duyên dáng nói chuyện duyên dáng nói chuyện quảng cáo cho một trò chơi phóng phi tiêu. Bên trong là một con đường dài, người dân nối đuôi nhau xếp hàng hơn 200 mét, cứ tới mỗi gian hàng là có người phát quà lưu niệm, khi thì gói xà bông, một tép chỉ thơm, có nơi tặng tờ tạp chí tuyệt đẹp với các hình ảnh của ngôi sao như Jang Dong Gun, Won Bin, Kim Hyun Joo và cả Thành Long... Nếu chịu khó xếp hàng, khoảng một giờ đồng hồ bạn sẽ thu nhập được khá bộn các "chiến lợi phẩm" từ Ban Tổ Chức. Có người bảo: "Tặng như thế ai lại không thích, vừa được quà vừa được chiêm ngưỡng ngôi sao, làm khán giả chỉ sướng được trong các ngày hội này..."

Anh bạn Hàn hóa Việt.

Đó là lời của các phóng viên khen tặng cho anh Kim Eui Sung - Tổng Giám Đốc Công Ty FNC tại Hàn Quốc. Nếu như các ngày đầu, lịch trình có

nhieu trục trặc, thì khi qua Thành Phố Seoul gặp anh Sung dường như mọi việc đều diễn ra tốt đẹp. Anh tận tình hướng dẫn đoàn tham quan Viện Bảo Tàng Trung Tâm Quốc Gia, dù rằng nơi này chưa khánh thành. Dùng uy tín của mình báo lãnh cho đoàn tới thăm phim trường Nam Yang Ju, đây là một ngoại lệ đặc biệt ở Hàn Quốc, vì trước nay chưa một ai được hướng "đặc ân" này, nhất là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thế mà đoàn Việt Nam lại được tiếp đón rất trịnh trọng với một điều kiện: Tuyệt đối không được chụp hình, quay phim! Sau đó còn được tới ngôi nhà mơ tưởng trong tương lai, với những thiết bị vô cùng hiện đại; tham quan Cung Chang Teok - một di sản văn hóa của Hàn Quốc đồng thời cũng là phim trường của các bộ phim nổi tiếng **Thần Y Huh Joon**, **Nàng Dae Jang Gum**...; đến cụm rạp chiếu phim hiện đại duy nhất ở Châu Á nằm trong sân vận động nổi tiếng. Tất cả cứ như là mơ, bởi sự hoành tráng và hiện đại. Đi đâu, làm gì Kim Eui Sung cũng vui vẻ, hòa đồng, tạo mọi điều kiện tốt nhất cho đoàn Việt Nam. Hỏi anh vì sao như thế, anh cười: "Tôi muốn các bạn hiểu được nhiều về đất nước, văn hóa, con người Hàn Quốc. Chúng ta có những nét tương đồng về văn hóa, cũng bị xâm lược, cũng bị chia cắt hai miền Nam Bắc, phải hiểu nhau hơn để cùng nhau phát triển và tiến bộ..."

Sau chuyến đi, anh được bà Trương Ngọc Thủy - Giám Đốc Sở Văn Thông Tin TP.HCM, nhận làm em kết nghĩa, với một cái tên rất Việt: Trương Thành Nam. Nhìn anh rạng ngời niềm vui khi khoe với mọi người là mình đã có tên mới, anh em trong đoàn báo nhau: "Anh Kim Hàn Quốc đã bị hóa Việt mất rồi..."

>> Spike Lee làm phim tài liệu về Katrina

Nhà làm phim danh tiếng của Mỹ, Spike Lee, sắp sản xuất và đạo diễn một phim tài liệu nói về hậu quả của cơn bão Katrina tại New Orleans. Năm nay 48 tuổi, Lee từng thực hiện những bộ phim ăn khách như **Malcolm X** (1992), **Do the Right Thing** (1989) và đang tiến hành làm phim **When the Levee Broke** cho truyền hình cáp HBO. Chưa có chi tiết nào cụ thể về bộ phim tài liệu trên còn Lee đang



hoàn tất khâu cuối cho tác phẩm mới nhất, **The Inside Man**, với sự góp mặt của diễn viên Denzel Washington, Jodie Foster và Clive Owen.

>> Howard Shore không làm nhạc cho King Kong



Hãng Universal khẳng định Howard Shore (nhà viết nhạc cho bộ ba phim **Lord of the Ring**) sẽ không tiếp tục làm nhạc cho phim mới nhất của đạo diễn Peter Jackson, **King Kong**. Thay vào đó sẽ là James Newton Howard, nổi tiếng qua **The Sixth Sense**,

Collateral và **Batman Begins**. Quyết định này tung ra khi phim đang trong giai đoạn hậu kỳ và **King Kong** chỉ còn gần hai tháng nữa là phải chiếu rạp theo kế hoạch. Đạo diễn Jackson cho biết ông rất ngưỡng mộ tài năng của Howard Shore vì từng hợp tác qua **Lord of the Ring** nhưng trong phim này, mỗi người có chủ ý khác nên thay vì mất thời gian tranh cãi, để người khác thay thế là tốt nhất. Kế hoạch tiếp theo của Shore là làm phim cho **The Fall** của đạo diễn Tarsem Singh và **The Departed** của Martin Scorsese.

>> Khai mạc LHP London

LHP London khai mạc vào 19/10 vừa qua và sẽ kết thúc vào ngày 3/11. Mở màn cho lễ khai mạc là buổi chiếu phim **The Constant Gardener** của đạo diễn Fernando Meirelles, do Ralph Fiennes và Rachel Weisz đóng vai chính. LHP sẽ giới thiệu 180 phim đến từ 50 nước chiếu tại 13 rạp. Dự kiến sẽ có nhiều ngôi sao điện ảnh đến dự khi phim họ đóng chiếu tại đây như Gwyneth Paltrow, Susan Sarandon, Kirsten Dunst... Bé mạc LHP sẽ chiếu **Good Night and Good Luck**, phim thử nhí của George Clooney trong



vai trò đạo diễn. Khác với các LHP khác như Cannes hay Venice, LHP London không phải là dịp để các phim tranh giải nhưng, theo ban tổ chức, họ cũng sẽ khen tặng những tài năng trẻ hay các nhà làm phim mới vào ngh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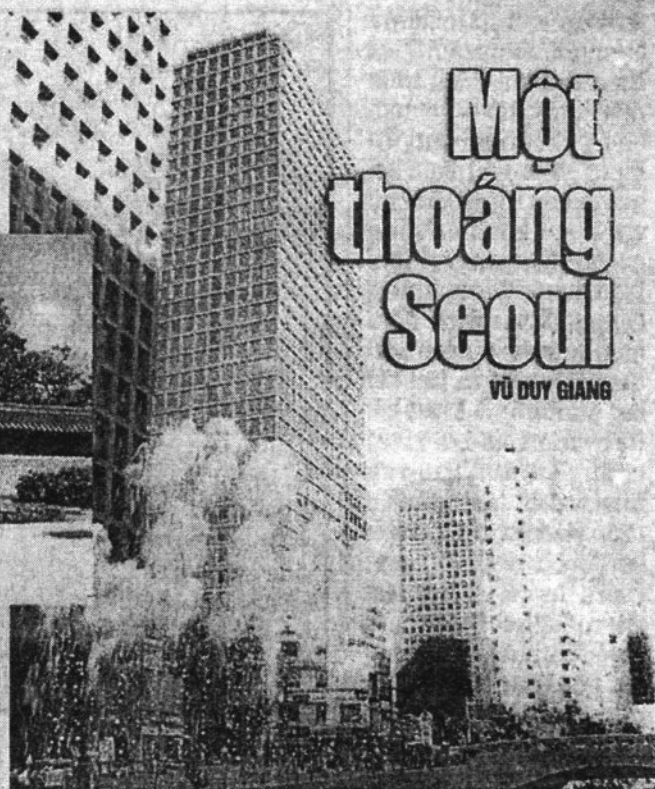
ĐẾN với Seoul thủ đô của một nước được mệnh danh là con hổ kinh tế của châu Á như Hàn Quốc mà chỉ trong ba ngày ngắn ngủi, thì cũng chỉ như "cỡi ngựa xem hoa"... Thời gian không cho phép để có thể hiểu hết được con người, cảnh vật và bước phát triển ngoạn mục của đất nước Hàn Quốc. Nhưng những gì chúng tôi ghi nhận được trong lần đầu tiên diện kiến Seoul cũng rất thú vị, cho dù chỉ một thoáng nhìn...

Từ sân bay quốc tế Incheon rộng lớn và hiện đại mới xây dựng cách đây 4 năm đi về Seoul cách xa đến 70 km, nhưng lại rất gần khi chạy trên đường cao tốc thực sự là cao tốc! Không như bên mình gọi là cao tốc nhưng xe chạy chậm rì vì sợ bẩn tốc độ. Con đường cũng bằng phẳng qua thị trấn làng mạc, ruộng đồng... nhưng không hề có nhà ai lấy lộ làm mặt tiền! Đường bằng qua thị trấn có tường cao che chắn hai bên ngăn tiếng ồn vào nhà dân... và không hề có ngã tư cắt ngang, chỉ có cầu vượt... Đôi khi cầu vượt lên đến 3,4 tầng! Và trên đường về Seoul chúng tôi thật sự thán phục về kỹ thuật xây cầu của nước bạn, bởi có cây cầu dài đến 5 km rộng đến 4 làn xe, băng qua eo biển... nhưng có đến hai tầng!

Những người đến Seoul lần đầu tiên như chúng tôi cũng sẽ có cảm giác quen mà lạ. Bởi trong các bộ phim Hàn chiếu trên truyền hình Việt, cảnh vật Seoul rất đẹp có con sông chảy ngang thành phố luôn xuất hiện với những cảnh hẹn hò, chia tay thậm chí cả những lúc nhảy cầu tự tử của các nhân vật phim khi thất tình. Con sông Hàn trông thấy quen mà lạ ấy lớn thứ hai của Hàn Quốc dài đến 480 km, có đến 28 chiếc cầu nổi hai bờ Seoul trong đó có bốn cây cầu có đường xe lửa. Và hai bên bờ sông là những công viên đẹp với nhiều hàng cây và nội cơ... Rồi thành phố HCM nắng nóng sau 6 giờ bay, đến Seoul chúng tôi như tìm gặp được không khí lạnh mát của Đà Lạt cùng nắng lụa vàng. Trời mùa thu thời tiết thuận tiện cho du khách đến Seoul, nhất là các cuộc hội thảo quốc tế đều được



Yul-en hoàng cung, nơi nàng Dea Chang Geum làm thuốc



tổ chức vào mùa này...

Chúng tôi có dịp đến tham dự Diễn đàn Tri thức Thế giới 2005 (World Knowledge Forum 2005) do Quỹ Trao đổi và Giao lưu Văn hóa châu Á của Hàn Quốc (KOFACE) tổ chức tại Seoul. Các diễn giả đến từ nhiều nước Á châu, đã mang đến diễn đàn những kinh nghiệm cũng như những khó khăn trong phát triển công nghệ giải trí trên các hệ thống truyền thông đại chúng. Đặc biệt trên hệ thống truyền hình. Một cuộc hội thảo quốc tế với đề tài khác cũng được tổ chức tại đây: Diễn đàn Công nghiệp Văn hóa Toàn cầu lần thứ 2 (2nd Global Culture Industry Forum). Cùng tổ chức song song nhưng ai muốn tham gia diễn đàn nào cũng được, với tài nghe gồm bốn thứ tiếng: Anh, Hàn, Trung Quốc và Nhật...

Ông Shin Hyu Taik, Chủ tịch Quỹ Trao đổi và Giao lưu Văn hóa châu Á của Hàn Quốc (KOFACE) tiếp đoàn nhà báo Việt Nam sau buổi hội thảo, cho biết: Bên cạnh việc tổ chức các diễn đàn quốc tế hàng năm về lĩnh vực văn hóa, KOFACE còn tổ chức các cuộc giao lưu văn hóa với các nước trong đó có Việt Nam. Năm 2004 đã mời nữ ca sĩ Mỹ Tâm tham gia Liên hoan nhạc nhẹ ở Seoul... Hình ảnh cũng như tiếng hát của ca sĩ này

không chỉ được biết đến ở Hàn Quốc qua sóng truyền hình mà còn đến tận các nước như Nhật Bản, Trung Quốc, Thái Lan... Dự kiến Liên hoan ca nhạc nhẹ năm nay sẽ mời ca sĩ Mỹ Linh tham gia. Và trong tương lai gần cũng sẽ mời các nhà hoạt động văn hóa của Việt Nam tham gia các diễn đàn quốc tế do KOFACE tổ chức tại Seoul...

Trong thời gian ở Seoul chúng tôi cũng đã được đến thăm trường Đại học Tổng Nghệ thuật Quốc gia nổi tiếng, với học phí dành cho du học sinh nước ngoài là 2500 USD/tháng. Nhưng các sinh viên được nhận học bổng của trường thì ngoài việc ăn ở đi lại do trường đài thọ còn nhận được 800 USD/tháng để tiêu vật. Chúng tôi cũng đi ngang qua Đại học được mệnh danh là Harvard của Hàn Quốc mang tên Yonsei và Đại học nữ Lee Hwa danh tiếng trên 100 năm. Nơi đào tạo các mệnh phụ phu nhân của Hàn Quốc. Thăm con kênh cổ xưa có đến 400 năm tuổi bị lấp làm đường, nay được đào lên khơi nguồn chảy giữa lòng thành phố với khung cảnh nên thơ và hữu tình...

Đặc biệt nhất là được tham quan cung điện Changdeok, một di sản thế giới được UNESCO công nhận vào năm 1997. Cung điện được xây dựng

từ năm 1405, là cung điện lớn thứ 2 nhưng là cung đẹp nhất của triều đại Joseon. Sau khi bị Nhật xâm lăng cung điện bị tàn phá, vào năm 1592 được xây dựng lại và được vương triều Joseon sử dụng đến 270 năm. Đặc biệt vườn ngự uyển nằm sau cung điện là một tuyệt tác của thiên nhiên rất hài hòa với kiến trúc của con người. Changdeok là một cung điện được bảo quản tốt nhất của triều đại Joseon. Đồng đảo du khách đến đây không chỉ để được chứng kiến một di sản thế giới, mà còn tò mò muốn thăm nơi đã được làm bối cảnh cho hai bộ phim cổ trang Hàn Quốc nổi tiếng châu Á, đã từng được chiếu trên màn ảnh nhỏ Việt Nam: **Nàng Dae Jang**

nhân. Các hãng phim có thể thuê phim trường để thực hiện nội cảnh cũng như ngoại cảnh với giá 1.000 USD/ngày. Ở đây có cả một làng cổ nguyên sơ, được chuyển nguyên trạng về đặt tại đây. Tại ngôi làng cổ này, đạo diễn gạo cội của Hàn Quốc Lim Kwon Taek đã đoạt giải Đạo diễn xuất sắc của Liên hoan phim Cannes khi thực hiện bộ phim Chung Hwa Son - cũng là tên của một họa sĩ nổi tiếng trong lịch sử hội họa Hàn Quốc. Và một trong những vai chính của bộ phim, diễn viên nổi tiếng Ahn Sung Ki tốt nghiệp khoa tiếng Việt của Đại học Ngoại ngữ Seoul, và cũng là diễn viên chính trong bộ phim **Tạm biệt sông Ba**, được thực hiện tại Việt N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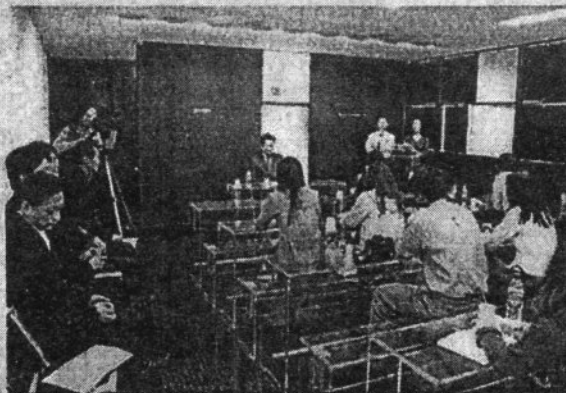
chúng tôi được chứng kiến đạo diễn Kim Dae Woo đang thực hiện bối cảnh và chuẩn bị quay bộ phim Um Lam Seo Sang. Tại đây chúng tôi không được phép chụp hình và phải tuyệt đối im lặng.

Ở phim trường Nam Yang Ju cũng đã xây dựng lại nguyên mẫu của Bản Môn Điểm với vùng phi quân sự chia cắt đất nước Hàn Quốc ở vĩ tuyến 38 vào năm 1945, để làm bối cảnh cho một bộ phim nói về chiến tranh Nam-Bắc Triều Tiên. Bộ phim không chỉ rất ăn khách ở Hàn Quốc mà còn cả ở Nhật. Ngày nay người ta còn giữ nguyên bối cảnh này và trở thành sản phẩm du lịch với tour DMZ (Vùng phi quân sự). Nhiều đoàn học sinh tiểu học đến đây tham quan và học ngoại khóa về một giai đoạn lịch sử mà dân Hàn xem là đau xót nhất của họ.

"Đất nước Hàn Quốc và Việt Nam đều có nét tương đồng về Văn Hóa cũng như con người. Cùng có cuộc đấu tranh giành độc lập. Chúng tôi có khát vọng được thống nhất đất nước như ở Việt Nam. Chúng tôi rất đau lòng khi đi ra nước ngoài, người ta thường hỏi tôi rằng: "Anh là người Bắc Hàn hay Nam Hàn...". Ông Cục trưởng Cục Công nghệ Văn hóa đã nói như thế khi tiếp chúng tôi tại phòng họp báo của Bộ Văn hóa - Du lịch Hàn Quốc. Được biết, Cục Công nghệ Văn hóa là cơ quan duyệt chỉ các đề án và chiến lược phát triển văn hóa, trong đó có sự bảo trợ rất lớn đối với các bộ môn nghệ thuật truyền thống và nhất là điện ảnh và truyền hình. Tại buổi tiếp, ông đã bày tỏ niềm vui khi được đón tiếp đoàn đến tìm hiểu về các hoạt động văn hóa của Hàn Quốc. Ông cho rằng Hàn Quốc và Việt Nam cần có thêm nữa những cuộc giao lưu và trao đổi văn hóa để hiểu nhau hơn và cùng nhau phát triển không chỉ trong kinh tế - Hàn Quốc đang xếp thứ hai trong những nước đầu tư vào Việt Nam - mà còn cả văn hóa nữa...

Thành phố Seoul đi từ phía nam sang đến phía bắc rộng đến 17 km và từ phía đông đến phía tây dài đến 34 km chưa kể vùng đất đồi núi ngoại ô bao chung quanh, với rất nhiều di tích lịch sử và văn hóa. Không thăm thú hết mọi nơi... Vì thế chúng tôi không thể có một cái nhìn rộng hơn sâu hơn về Seoul trong thời gian ít ỏi lưu lại nơi đây... Thôi thì đành "cởi ngựa xem hoa" vậy! Và Seoul ơi, xin hẹn gặp lại! ■

● Ông Cục trưởng Cục Công nghệ văn hóa Hàn Quốc tiếp đoàn nhà báo Việt Nam.
● Làng cổ trong phim trường Nam Yang Yu



Geum và Thấn y Herjun.

Và ở đây trở nên đông đảo du khách khi trở thành điểm du lịch của một tour du lịch mang tên bộ phim nổi tiếng dài đến 50 tập này, với ngôi sao điện ảnh Lee Young Ae đắt giá nhất của Hàn Quốc hiện nay mà báo chí Trung Quốc ví như một thiên thần vì khuôn mặt và cốt cách trong sáng của cô trong vai

nàng Dae Jang Geum. Đến với cung điện Changdeok du khách nhất là Nhật Bản, Trung Quốc, Hồng Kông, Singapore... cũng như Việt Nam cảm nhận được nơi nào là nơi Dae Jang Geum thì nấu ăn, nơi sắc thuốc cho vua, cả nơi hò hẹn của nàng với đại nhân Min...

Cách thủ đô Seoul một giờ xe hơi, chúng tôi đến thăm phim trường Nam Yang Ju. Một phim trường rất lớn tọa lạc trên 120 ngàn héc-ta đồi núi. Hơn 70% kinh phí đầu tư là của chính phủ, phần còn lại là của các tập đoàn tư

Trong khu vực rộng lớn của phim trường Nam Yang Ju, người ta cũng đã dựng những bối cảnh không chỉ là làng cổ nguyên xi mà cả những dinh thự của quan lại triều đình rất cổ được mang đến từ trung tâm thủ đô Seoul... Tại khu vực phim trường dùng thực hiện nội cảnh của phim, chúng tôi được xem một bộ phim hoạt hình hình ảnh ba chiều (3D) rất đẹp và hiện đại những bối cảnh nhỏ xíu được thiết kế cùng với camera tỉ hon hoạt động và với kỹ xảo vi tính rất hấp dẫn. Tại một khu nội cảnh khác của phim trường



Bà Trương Ngọc Thủy (ngồi – bên phải) GD Sở VHNT TPHCM cùng đoàn phóng viên Việt Nam tại buổi gặp gỡ thân mật với Chủ tịch Quý Trao đổi văn hóa Châu Á của Hàn Quốc

Lần đầu đến

Bài và ảnh: Phương Trang

Một người bạn Hàn Quốc bảo rằng mùa thu là mùa đẹp nhất và dễ chịu nhất trong năm của xứ sở kim chi. May mắn thay, lần đầu tiên chúng tôi đến Hàn Quốc (theo lời mời của Quý trao đổi văn hóa Châu Á Koface) lại vào đúng thời điểm tuyệt vời nhất này.

Sau năm giờ bay từ TPHCM, chúng tôi đến Hàn Quốc vào rạng sáng ngày 9-10, và tiếp tục đáp chuyến bay từ sân bay quốc tế Incheon - bối cảnh của những cuộc chia tay hiện diện trong khá nhiều bộ phim truyền hình nhiều tập từng phát sóng tại VN - đến Pusan khi Liên hoan phim quốc tế Pusan lần thứ 10 đã bước sang ngày thứ tư. Thấm mệt vì chặng đường dài nhưng tất cả đều không giấu được vẻ hào hứng vì sắp được chiêm ngưỡng một trong những thành phố biển đẹp nhất thế giới - nơi đang diễn ra một sự kiện điện ảnh trọng đại đối với người dân Hàn Quốc. Du khách khắp nơi nườm nượp đổ về Pusan để du lịch kết hợp tham dự liên hoan với hy vọng được một lần tận mắt chiêm ngưỡng ngôi sao điện ảnh minh hăm mộ. Vì thế, khi được tin

ngôi sao Kwon Sang Woo đang có mặt tại khách sạn Westin Chosun chuẩn bị cho buổi họp diễn ra vào tối 10-10, hàng ngàn khán giả hăm mộ cùng cánh phóng viên đã ngồi chờ sẵn tại sảnh khách sạn từ chiều. Khi "sao" vừa xuất hiện, cả một rừng người ủa vào phòng, đèn flash chớp liên tục mặc sự ngăn trở của bảo vệ. Khắp thành phố, các hoạt động trong khuôn khổ liên hoan diễn ra rất sôi nổi, từ trung tâm báo chí đặt cạnh bãi biển đầy nắng cho đến các cụm rạp, hội chợ phim. Không chỉ các công ty truyền thông, các doanh nghiệp từ mỹ phẩm cho

đến điện thoại di động cũng nhân cơ hội này quảng bá sản phẩm. Bên cạnh những buổi giao lưu ngắn ngoài trời với nghệ sĩ, những chiếc xe chiếu phim lưu động với những màn ảnh lớn hai bên hông xe, du khách không khỏi ngỡ ngàng trước cảnh một hàng dài người xếp hàng trật tự trên một đoạn đường hàng trăm mét để nhận những món quà tuy bé nhưng vô cùng thú vị từ các đơn vị tham gia (dây đeo điện thoại, sơn móng tay, nước tăng lực, postcard, tạp chí điện ảnh, dấu gọi đầu, dịch vụ chụp ảnh miễn ph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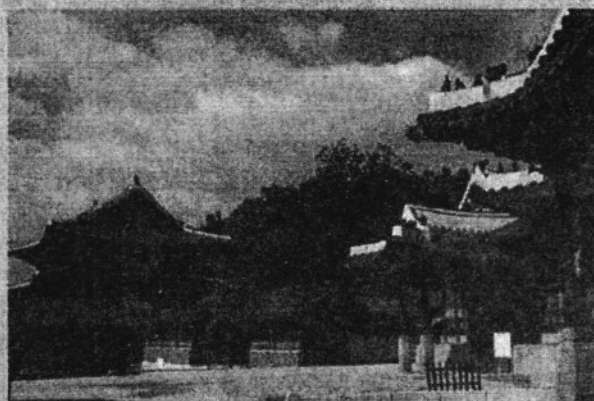
Ngôi sao điện ảnh Hàn Quốc Kwon Sang Woo (thứ 2, trái qua) và Yoo Ji Tae (thứ 3, trái qua) tại buổi họp báo giới thiệu bộ phim Running wild dự kiến khởi chiếu vào tháng 12 năm nay



Vừa chớm thu, lá chưa kịp chuyển màu nhưng cái lạnh xứ Hàn đã khiến chúng tôi rùng mình. Nhưng tất cả cũng sớm quen và thích thú ngửa cổ đón từng làn gió biển, dần dần cảm thấy dễ chịu trước cái lạnh se se này. Nghe nói khoảng hơn một tuần nữa, lá cây sẽ chuyển sang vàng, rồi đỏ, rồi tạo thành một thảm lá trên đường.

Người dân Hàn Quốc có thói quen đi bộ. Đây đó trên đường, trong các công viên, tại các trung tâm thương mại, trên những chuyến xe buýt, ở các rạp chiếu phim... những đôi tình nhân hoặc tay trong tay hoặc khoác vai nhau thật lãng mạn. Ngay tại thủ đô Seoul, tháng 10 này, chính quyền vừa khánh thành con kênh Chonghe có chiều dài khoảng 5km có rất nhiều cây cầu bắc ngang với dòng nước trong lành từ sông Hàn đổ vào. Đặc biệt, bước xuống vài bậc thang, một thế giới thật lạ mắt và độc đáo liền mở ra trước mắt du khách. Những tác phẩm nghệ thuật sắp đặt với chất liệu chính được lấy từ thiên nhiên được đặt rải rác dọc hai bên bờ kênh. Từ có

cây hoa lá cho đến từng mảnh vỏ sò, vỏ ốc..., dưới bàn tay tài hoa của người nghệ sĩ, những bức tranh thiên nhiên đầy màu sắc và phong cách nối tiếp nhau hiện ra, điểm tô thêm cho vẻ đẹp sẵn có của con kênh. Cả một quảng đường dài luôn tấp nập du khách trong và ngoài nước, từ những cặp tóc đã ngả màu cho đến những đôi bạn trẻ. Với độ cao nước phun lên đến 220m, đài phun nước ở đây được xem là lớn nhất thế giới. Một khoảng xanh nhỏ nhố trong lành và mát mẻ với âm thanh của nước róc rách bên tai đủ để chinh phục tự hào, đủ để người dân thành phố tạm quên đi cái náo nhiệt thường ngày và để du khách phương xa tìm đến, chiêm ngưỡng rồi mơ ước, con kênh Chon-ghe đã làm



Cung Jang-Duk (nơi quay ngoại cảnh bộ phim *Nàng Dae Jang Geum*)

rất nổi tiếng, sau khi trở thành chốn hò hẹn của nàng Dae Jang Geum trong bộ phim *Báu vật hoàng cung*, ngày càng trở thành một

trung quyền lực của các vị hoàng đế Hàn Quốc cùng bức tranh được treo bên trên, phía sau ngai, lắng nghe như uống từng lời hướng dẫn viên: "vòng tròn đỏ tượng cho vua, vòng tròn vàng tượng trưng cho hoàng hậu, 5 ngọn núi là 5 vị thần bảo hộ Hàn Quốc, hai ngọn tháp là...".

Đến đúng giờ, xem phim trong sự yên lặng, không hề bỏ vẻ giữa chúng: văn hóa xem phim của người dân xứ Hàn thực sự để lại ấn tượng sâu đậm nơi tôi trong lần đầu tiên được xem một bộ phim Việt (*Hạt mưa rơi bao lâu - đạo diễn Đoàn Minh Phượng - Đoàn Thành Nghĩa, được chính Ban tổ chức chọn chiếu giới thiệu ở mục Đối thoại*) trên đất Hàn ngay ngày đầu tiên đặt chân đến đây. Điểm đến kế tiếp của chúng tôi khi đến Seoul là cụm rạp chiếu phim tiện nghi và vô cù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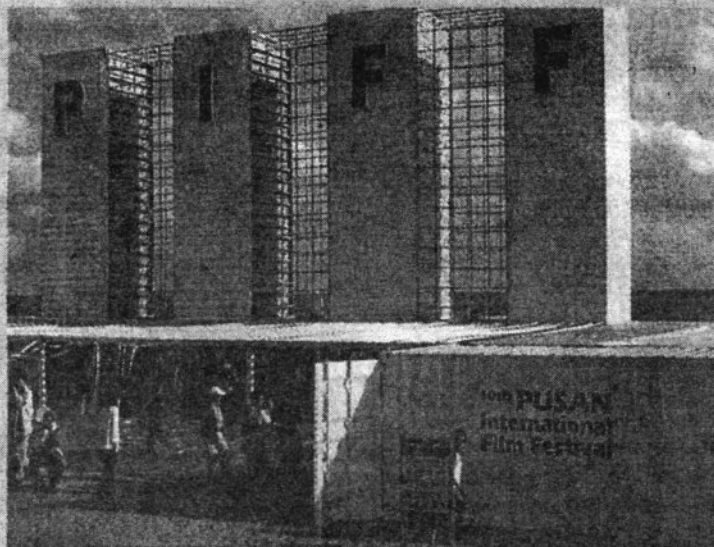
USD/vé). Số đầu phim Hàn Quốc luôn chiếm từ 70% trở lên tại các rạp. Chính sách khuyến khích điện ảnh của chính phủ luôn được công chúng nhiệt liệt hưởng ứng. Người dân Hàn Quốc vẫn luôn ủng hộ điện ảnh nước nhà. Điều thú vị là cụm 10 rạp CGV trên có vị trí nằm ngay phía dưới Sân vận động quốc gia Seoul - nơi đã diễn ra những trận tranh tài nảy lửa mùa World Cup 2002 - , ngay trong một khu phức hợp trung tâm thương mại, bar, nhà hàng, nơi tổ chức hội nghị, tiệc cưới. Người dân đất nước kim chi vẫn không thôi tự hào về mô hình đa chức năng sân vận động - siêu thị - rạp chiếu bóng - nhà hàng... có một không hai trên thế giới này. Ông Kim Eui Sung, Tổng giám đốc tập đoàn FnC cho biết có thể trong năm tới, một mô hình tương tự CJV sẽ được thực hiện ngay tại TPHCM.

Sẽ là một thiếu sót rất lớn nếu đến Hàn Quốc mà không ghé thăm tổ hợp phim trường Seoul, cách trung tâm thành phố khoảng 40 phút xe buýt. Hiện nay, ngoài hoạt động chính là cho thuê nhà xưởng, trang thiết bị, nhân lực..., khu phim trường Seoul với diện tích hơn 1.300 km² còn là địa điểm tham quan nổi tiếng của du khách trong và ngoài nước, đặc biệt là dân điện ảnh đến từ các nước châu Á.

Đường như Seoul chưa bao giờ ngủ. Ban đêm, mọi hoạt động mua bán diễn ra nhộn nhịp không kém ban ngày, đặc biệt ở khu chợ Dong Dae Moon và Nam Dae Moon (chuyên kinh doanh mặt hàng nhân sâm) từ sau 10 giờ tối cho đến 5 giờ sáng. Người bán, người mua í ới mặc cả. Tuy nhiên, người Hàn Quốc không có thói quen nói thách quá cao. Nếu bạn cứ trả giá thật thấp rồi bỏ đi, sẽ chẳng ai gọi bạn lại như ở VN. Giá cả ở đây cũng không rẻ hơn so với các trung tâm thương mại khác. Tuy vậy, cô bạn đi cùng rất thích thú trước một số món hàng trang sức "chắc chắn là hàng độc khi mang về VN". Các mặt hàng được bày bán từ hệ phổ cho đến cửa hàng càng thêm hấp dẫn du khách bởi nụ cười tươi tắn cùng câu chào luôn thường trực trên môi những người bán hàng.

Tôi trộm nghĩ: văn hóa đầu chỉ phải lúc nào cũng đầu tư tốn kém (?)■

XỨ SỞ CỦA...



Một góc LHP quốc tế Pusan lần X

được điều đó.

Sự nhạy bén, sáng tạo trong kinh doanh du lịch của Hàn Quốc rất đáng khâm phục. Từ Jang Duk (còn có tên là Secret garden), với hơn 600 năm tuổi - nơi sống và ra đi của vị hoàng đế Hàn Quốc cuối cùng (năm 1926), nơi một hoàng hậu nổi tiếng bị ám sát - vốn dĩ đã

điểm đến đầy hấp dẫn đối với du khách đã từng say mê theo dõi số phận long đong của người phụ nữ đặc biệt này. Du khách dù mọi lứa tuổi, đồng nhất vẫn là học sinh đi thành từng đoàn thay nhau tạo dáng trước tòa nhà được xem là y viện trên phim, tò mò chiêm ngưỡng chiếc ngai vàng - biểu

hiện đại của tập đoàn CJ (công ty mẹ của Công ty FnC tại VN), nơi mà giá vé xem phim trong phòng VIP (CGV Gold Class) lên đến 30 USD nhưng người dân vẫn không cảm thấy tiếc bởi chất lượng phục vụ khá hoàn hảo, gấp nhiều lần so với mức giá thông thường (5.000 - 7.000 won, tương đương 5 - 7



TẠI Việt Nam, phim Hàn Quốc chiếm lĩnh trên sóng truyền hình của cả nước trong vài năm gần đây là không bàn cãi... Cứ mở TV của Đài truyền hình trung ương cũng như địa phương sẽ bắt gặp cảnh sáng phim Hàn Quốc, trưa phim Hàn Quốc, chiều phim Hàn Quốc, tối phim Hàn Quốc. Không chỉ là thời gian gần đây mà ngay hôm nay, bạn mở TV vào các buổi sáng trưa chiều tối ở một số Đài truyền hình danh giá của Việt Nam cũng sẽ thấy ngay sự chiếm lĩnh của làn sóng phim Hàn Quốc. Sức thu hút của các bộ phim nhiều tập Hàn Quốc cũng không phải bàn, Vì nếu khán giả không thích thì nhà đài đâu mua phim về chiếu? Không chỉ người Việt ở trong nước yêu thích phim Hàn, Việt kiều ở các nước cũng mê mẩn phim Hàn, khi về nước là ra chợ trời Huỳnh Thúc Kháng ẩm một mớ DVD phim Hàn! Bản thân người viết cũng được đưa em gái ở tận bên Mỹ nhắn nhe nhờ mua hộ... phim Hàn. Nói thế đ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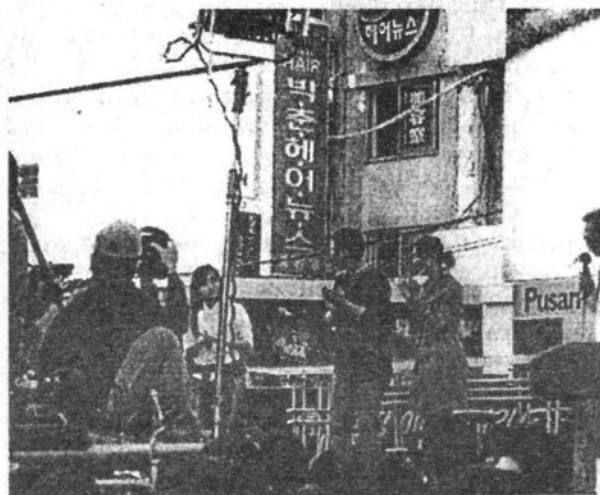
thấy chúng tôi có được một chuyến đi xem phim Việt ở xứ Hàn thì quả là thú vị làm sao!

Chúng tôi, một số anh chị em phóng viên viết về lĩnh vực văn hóa - nghệ thuật của TP.HCM được Quý Trao đổi và giao lưu Văn hóa châu Á của Hàn Quốc (KOFACE) mời tham quan và tìm hiểu về các hoạt động văn hóa ở Busan và Seoul. Tại Busan chúng tôi được xem bộ phim Việt Nam "*Hạt mưa rơi bao lâu*" của đạo diễn Đoàn Minh Phượng và Đoàn Thành Nghĩa, tham gia Liên hoan Phim Quốc tế Pusan lần thứ 10. Liên hoan lần này quy tụ 307 phim đến từ 73 quốc gia trên thế giới. Bộ phim Việt Nam đến với Liên hoan phim được đổi tên là *Bride of silence* với phụ đề Anh ngữ và chúng tôi được xem bộ phim chưa ra mắt ở Việt Nam này, trong một cụm rạp lớn nằm tầng 5 của một siêu thị khá lớn của thành phố biển Pusan.

Rạp chiếu bóng có khoảng 350 ghế khi chúng tôi lấy thẻ báo chí

của LHP đổi được vé vào cửa thì khán giả đã ngồi đặc kín. Rất trật tự và tuyệt đối im lặng là ấn tượng đầu tiên đối với khán giả Hàn Quốc khi chúng tôi khi vào xem bộ phim *Cô dâu im lặng* này. Một bộ phim lấy bối cảnh một miền quê trung du phía bắc Việt Nam cách đây khoảng 200 năm. Câu chuyện kể về một cô gái không chồng mà chửa (Trương Ngọc Anh) đợi đến khi sinh con, trưởng làng đem cô gái gọt đầu bôi vôi... làm bè thả đưa con tội lỗi ra

sông. Nhưng trong khi bị hành xử theo lệ làng thì cơn mưa lũ bỗng ập tới khiến nhiều dân làng bị chết... Thế là cô gái và con cô ta thoát chết. Đứa con được ba người thợ mộc đem về nhà nuôi. Và trong một lần tình cờ họ cứu thoát được cô gái đang bị dân làng giam giữ.... Cả bốn người trốn lên mạn ngược vắng vẻ dựng nhà, trồng ngô khoai đắp đê qua ngày. Nhưng cả ba người đàn ông sống chung nhà đều yêu thương cô gái, nên cô buộc phải bỏ nhà ra đi và chết ở một bến sông... để lại đứa con mới ba tuổi. Đứa con lớn lên đi tìm lại nguồn cội và trở thành là người dẫn truyện. Vì sử dụng quá nhiều thủ pháp playback nên kết cấu câu chuyện hơi bị dàn trải, tiết tấu trở nên chậm rì và cách chuyển cảnh còn non tay. Nhưng hình ảnh của từng thước phim được chăm chút một cách đặc biệt với cảnh trí hùng tráng của con sông lớn miền cao... làm nên một bức tranh quê tuyệt đẹp. Màn ảnh rộng, âm thanh khá tốt... nếu phim được



Giao lưu với diễn viên đến từ Trung Quốc

cắt gọt lại ngắn hơn súc tích hơn và cân trọng hơn trong cách chấm câu, chuyển cảnh đúng logic có thể hay hơn và cũng biết đâu sẽ có thể làm nên cơn mưa rào ở Liên hoan phim này. Các bạn Hàn Quốc khi xem phim này cũng có chung cảm nghĩ như thế. Nhưng có bạn cho rằng đó cũng là một phong cách Việt Nam!

Cùng tham gia liên hoan phim lại có một bộ phim Việt khác nhưng lại do một nhà sản xuất phim Úc thực hiện đó là bộ phim: *Việt Nam Symphony* bộ phim đang được đề cử cho giải phim quốc tế. Chuyện phim rất cảm động với nhân vật dẫn truyện là nghệ sĩ Vũ Hường kể lại câu chuyện Nhạc viện Hà Nội nơi anh xuất thân, vào năm 1965, phải đi sơ tán vì Mỹ thả bom hàng loạt. Nhạc viện phải sơ tán lên Bắc Giang, các giáo viên và học sinh đã có những chuyến đi phục vụ bộ đội. Nhưng ấn tượng nhất là việc các học sinh vẫn học nhạc dưới hầm, trong đạn bom. Tất cả đều được kể lại theo ký ức không chỉ của nghệ sĩ Vũ Hường mà còn của nữ nghệ sĩ piano Tuyết Minh và cô ca sĩ Thúy Hà... Bộ phim rất xúc động nói về chiến tranh Việt Nam bằng một góc nhìn khác. Nếu như *Bản giao hưởng Việt Nam* ký sự xúc động ghi lại những nét đẹp rất đáng tôn vinh trong cuộc chiến tranh khốc liệt đã qua... thì ngược lại một nhóm người chống cộng một cách cuồng tín ở hải ngoại cũng mang tới Liên hoan một bộ phim được dàn dựng và thực



hiện ở Thái Lan, nói về chuyện đã cũ: Vượt biên, nhằm ghi nhớ 30 năm chính quyền Sài Gòn cũ sụp đổ. Đó là bộ phim *Journey from the fall* (Ra đi từ sụp đổ) của Lâm Trần, với các diễn viên Kiều Chinh, Diễm Liên, Long Nguyễn... tất nhiên bộ phim rất thiếu thiện cảm với chế độ xã hội Việt Nam hiện nay. Tại Liên hoan phim còn có bộ phim *«1735 km»* do hãng phim Việt (BHD) sản xuất, đang chiếu ở các rạp trong TP. HCM, đang được chào bán tại liên hoan phim...

Trong hai ngày ở Liên hoan phim Quốc tế lần thứ 10 ở Pusan, một thành phố lớn đứng thứ hai sau Seoul, chúng tôi nhận ra rằng, dân Hàn Quốc rất mê xem phim. Có lẽ chính nhờ động lực này mà nền điện ảnh Hàn Quốc phát triển chẳng? Ở bất cứ cụm rạp nào dành cho các phim tham gia liên hoan người xem nườm nượp người, xếp hàng rồng rắn để mua vé xem phim đến 5 USD! Người ta cũng phải chờ

chực rất lâu để chờ xem những diễn viên điện ảnh nổi tiếng đến giao lưu trong một hẻm phố mà chung quanh có nhiều cụm rạp. Mỗi khi diễn viên xuất hiện là đám đông nào loạn cả lên. Và hàng rào nhân viên an ninh bao quanh các diễn viên nổi tiếng là điều dễ hiểu.

Trong một buổi ra mắt bộ phim mới của Hàn Quốc, diễn viên nổi tiếng Kwon Sang Woo xuất hiện phải có đến 4 tay cận vệ vạm vỡ cùng những nhân viên tháp tùng hoạt động rất vất vả để đưa được diễn viên này từ lầu 2 xuống hội trường nơi có buổi ra mắt phim. Không chỉ có công chúng ái mộ ào vào xin chữ ký mà hầu như các nhà báo của Hàn Quốc cũng như các hãng thông tấn quốc tế tham gia liên hoan phim cũng đã cật lực để có thể tiếp cận các diễn viên nổi tiếng, từng xuất hiện trong bộ phim *«Nấc thang lên thiên đường»* chiếu ở Việt Nam.

Pusan đối với chúng tôi như một điểm dừng

chân đầu tiên trên đất Hàn trong một chuyến đi ngắn ngày. Hai ngày ở Pusan chúng tôi không kịp theo dõi hết thời gian diễn ra cuộc Liên hoan phim Quốc tế lần thứ 10, nhưng những gì chúng tôi nhìn thấy ở một thành phố biển rất đẹp này tạo cho chúng tôi một ấn tượng mạnh về một đất nước đang lấy sự năng động làm khẩu hiệu (Dynamic Korea) trong tăng trưởng kinh tế cũng như trong sự phát triển văn hóa Hàn Quốc. Một đất nước có rất nhiều điểm tương đồng với Việt Nam. Đặc biệt sự phát triển của nền điện ảnh Hàn Quốc đã làm cho rất nhiều người trong chúng tôi khâm phục. Nền điện ảnh này đang chinh phục một cách thuyết phục các nước châu Á và cũng đang làm xâm nhập kinh đô điện ảnh Hollywood của Mỹ bằng những tác phẩm điện ảnh thu hút người xem. Và đang trở thành "làn sóng Hàn Quốc". Chúng tôi tự hỏi điện ảnh Việt Nam: " Bao giờ cho đến tháng mười?"... ■

du lịch

Thăm xứ sở của điện ảnh

Đến Hàn Quốc, bạn dễ dàng nhận thấy đời sống và phim ảnh Hàn Quốc rất gần gũi. Các cô gái Hàn dáng vóc cao ráo, mảnh mai, ăn mặc đẹp, thời trang vào hàng nhất châu Á như bước ra từ màn ảnh. Đây đó bên lề những phố vắng, bờ sông, bên cảng... là những tiểu quán quây quẩn có trong nhiều phim Hàn. Ở nhiều địa điểm công cộng, di tích lịch sử của Seoul, du khách thường được giới thiệu: "Cảnh này có trong phim *Người mẫu*", "Đây là một bối cảnh trong phim *Dae Jang Gum*"... Seoul còn có hai địa điểm hấp dẫn du khách:

Sân vận động Olympic Seoul

Khánh thành trong dịp khai mạc đại hội Olympic 2002, sân vận động Olympic Seoul (SVĐOS) sau đó đã trở thành điểm đến thu hút với khách du lịch. Nơi đây cũng được coi là SVĐ duy nhất tại châu Á có ý tưởng kinh doanh độc đáo được khai thác rất hiệu quả.

Thường các SVĐ chỉ đóng cửa vào những dịp tổ chức

các trận đấu thi SVĐOS hoạt động tập nập mỗi ngày. Ngày thường khoảng 5.000 khách, ngày cuối tuần có 15.000 khách đến đây mua sắm và giải trí. Trong lòng khán đài bao quanh SVĐ là những rạp chiếu phim, nhà hàng, quán cà phê và những sảnh mua sắm rộng lớn nối tiếp nhau thành vòng tròn khép kín kéo dài cả cây số. Hai "đại gia" đầu kinh doanh tại SVĐ này là Carefour với hệ thống mua sắm hàng cao cấp và CJ với hệ thống rạp chiếu phim CGV.

Giá vé vào tham quan, giải trí tại SVĐOS là 7.000 won (khoảng 100.000VNĐ). Bạn có thể mua từ chiếc nơ kẹp tóc đến quần áo thời trang, đồ trang sức, dụng cụ thể thao tại hàng trăm gian hàng của hệ thống Carefour. Hàng trăm trò chơi điện tử cũng như hút đồng đảo du khách. Nhà hàng ăn nhẹ, bar cà phê được bài trí đẹp, lãng mạn là điểm dừng chân thú vị để nhấm nháp những món ăn Hàn Quốc độc đáo và cà phê Starbucks nổi tiếng.

10 rạp chiếu phim của hệ thống CGV luôn tập nập khách



Bối cảnh trong phim *Chung Hua Son* được lưu lại tại phim trường Seoul

đa số là người trẻ. Bạn có thể xem phim tình cảm, phim hành động, phim cổ trang, hoạt hình... rạp số 5 được dành riêng để chiếu loại phim chiến tranh giành độc lập của các dân tộc trên thế giới.

Một rạp VIP 30 chỗ ngồi dành riêng cho khách có nhu cầu thuê bao cho gia đình hoặc nhóm bạn thưởng thức phim trong điều kiện phục vụ... VIP. Những chiếc ghế dựa có thể điều chỉnh tạo cho bạn thế ngồi, đưa thoải mái. Trong khi xem phim, bạn có thể nhấm nháp snack hoặc bắp rang thơm ngon với thức uống đắt tiền.

Mới đây, một chàng trai Seoul đã thuê bao rạp để tỏ tình với một cô gái. Sau bộ phim tình cảm lãng mạn, chàng đã tặng hoa và ngỏ lời cầu hôn với nàng. Tập đoàn CJ (đại diện là công ty FNC) đã có kế hoạch xây dựng một cụm rạp chiếu phim CGV tương tự tại TP.HCM trong năm tới.

Thăm phim trường lớn nhất châu Á

Phim trường Seoul Studio Complex nằm trong thung lũng Cine Kofic với diện tích 140.000m² giữa bốn bề rừng núi, cách trung tâm Seoul 46 phút xe hơi. Đây là phim trường lớn nhất châu Á do chính phủ Hàn Quốc đầu tư xây dựng cho các hãng phim thuê làm phim. Mỗi năm có khoảng 50 phim nhựa được quay tại phim trường này.

Ngoài 6 phim trường quay nội cảnh, nơi đây còn có một khu đất rộng 12 hecta dành

cho các hãng phim dựng bối cảnh lớn ngoài trời, xong lại đổ đi. Tiền thuê phim trường khoảng 1.000USD/ngày. Nơi đây còn lưu lại bối cảnh của một số phim cổ trang nổi tiếng là hoàng thành cổ xưa, chợ, làng cổ... Đa số bối cảnh được dựng từ những ngôi nhà gỗ cổ tuổi đời hai, ba trăm năm được đem từ nơi khác về phục chế như thật.

Ngôi làng cổ trong phim *Chung Hua Son* đoạt giải đạo diễn xuất sắc nhất tại liên hoan phim Cannes 2002 thật sự là một công trình kiến trúc có giá trị, là niềm tự hào của phim trường lớn nhất châu Á này. Bối cảnh Bản Môn Điện, khu phi quân sự giữa hai miền Nam, Bắc Triều Tiên trong phim JSA - bộ phim đạt doanh thu cao nhất trong lịch sử điện ảnh Hàn Quốc, được thực hiện năm 2001 với hai diễn viên ngôi sao Lee Byung Hun và Lee Young Ae cũng thu hút nhiều khách tham quan.

Bối cảnh trong phim trường gợi nhắc cho phim hoạt hình với những cảnh trí 3D (không gian ba chiều) là những không gian thần tiên được thực hiện rất kỳ công. Bối cảnh trong phim hoạt hình hoành tráng *Wonderful Day* được thực hiện trong hai năm có kinh phí đầu tư 2,6 triệu USD. Hàn Quốc được xếp hàng tốp ba trên thế giới sau Mỹ và Nhật về quy mô sản xuất và chất lượng phim hoạt hình và điện ảnh. Một trong những "lò" điện ảnh lớn của thế giới.

Bà Lê Anh ĐO NGUYỄN



DIỆN ẢNH TRUYỀN HÌNH

cinema của những người hướng dẫn, mang theo bên mình để hỗ trợ cho việc tăng âm mỗi khi giải thích, giới thiệu về tổ hợp trường quay Yangsuri cho khán giả.

Cũng như nhiều điểm du lịch khác, các nhân viên làm công việc hướng dẫn tại tổ hợp trường quay Yangsuri đều có ngoại hình xinh đẹp, lời ăn nói duyên dáng và đặc biệt, họ thể hiện được tính chuyên nghiệp rất cao, thông qua sự hiểu biết khá kỹ về kiến thức điện ảnh và lại lịch, lịch sử của từng chi tiết trong tổ hợp trường quay Yangsuri.

Hàn Quốc có trên 500 rạp chiếu phim, nhưng rất đông khán giả vẫn từ chối những cơ hội thưởng thức phim ảnh trong nội thành, để về tận Yangsuri xem phim. Họ nói, giữa khung cảnh núi rừng, bầu không khí trong lành hơn, cảm giác như thoáng hơn, để thấy mình đang rất cần một sự chia sẻ. Xa xa, có



PHÒNG UỐNG TRÀ CỦA WOONDANG

bóng khói đang lên, có những ánh dương đang dần tàn xuống, thì xem phim, chắc chắn sẽ hiệu và giữ ấn tượng một cách tuyệt vời hơn tại một không gian náo nhiệt. Vừa bước ra khỏi phòng chiếu, là bị lừa mắt bởi ánh điện, hay lấp ló bị dính tại, nhức óc vì tiếng còi xe, chắc chắn, cảm giác về bộ phim vừa xem sẽ chẳng thể nào đọng lại được lâu như lúc đầu mình muốn.

Đến tổ hợp trường quay Yangsuri, ấn tượng đầu tiên, sẽ là khu Woondang, khu nhà cổ truyền thống tại hiện tại đời sống của một quan chức cấp cao thời đại Choson. Nếu tính mức độ ảnh hưởng như hiện nay, đây sẽ là nhà ở của một vị Bộ trưởng, với đầy đủ khu nhà ngang, là phòng học, phòng khách, phòng làm việc và khu nhà đọc, là



phòng ngủ, phòng chứa lương thực, phòng bếp, phòng cho gia nhân...

Không phải là làm mới, mà điểm đặc biệt của Woondang, chính là ở chỗ đây là khu nhà cổ, được bề nguyên xi từ Jongno - Seoul về vào năm 1994. Căn nhà này, nguyên là của một quan lại thời đại Choson nên khi đưa về tổ hợp trường quay Yangsuri, đã đáp ứng đúng yêu cầu về một khu trường quay phim đã sử

TRƯỜNG NGHỆ THUẬT XẠO CỦA CÁC NHÀ LÃNH PHẠM HÀN QUỐC ĐƯỢC TRƯNG BÀY



MỘT PHẦN KHU WOONDANG

Ngoài ra, một ngôi làng cổ cũng được phục hồi nguyên trạng tại đây. Bởi vậy, 90% phim cổ trang Hàn Quốc sử dụng bối cảnh ở tổ hợp trường quay Yangsuri nên với tất cả mọi người trong nhiều đoàn phim khác nhau, tổ hợp trường quay Yangsuri giống như nhà của mình.

Tất cả những tác phẩm điện ảnh nổi tiếng như *JSA*, *Chuyhwason*, *Vũ an tiên gia* (đang chiếu ở Việt Nam)... đều sử dụng bối cảnh tại tổ hợp trường quay Yangsuri. Đặc biệt, trường quay ngoại cảnh được dựng riêng cho *Chuyhwason* và *JSA* được giữ nguyên, hiện trở thành điểm tham quan quan trọng cho du khách mỗi khi ghé thăm Yangsuri. Rất nhiều trường phổ thông ở Hàn Quốc, đã đưa học sinh đến đây học ngoại khóa để tìm hiểu thêm về lịch sử dân tộc, thông qua những bối cảnh trong phim, được tái hiện rất sinh động và chính xác như Bản Mối Diêm, Nhà Hòa Bình...

Ngoài ra, tổ hợp trường quay Yangsuri có một bãi đất rộng trên 5ha, dành để phục vụ những đoàn phim có nhu cầu dựng bối cảnh mới.

Chờ tác hậu kỳ tại tổ hợp trường quay Yangsuri đạt tiêu chuẩn chất lượng tối ưu nhất nên hầu như ngày nào, cũng có đoàn phim mới về đây để dựng, in trang, lồng tiếng... Khu nhà nghỉ rộng 44.665m², bao

gồm 17 phòng nghỉ kiểu châu Âu, 26 phòng nghỉ kiểu truyền thống Hàn Quốc (không có giường). Bên cạnh đó, hệ thống nhà hàng, phòng tắm... luôn phục vụ rất chu đáo, tạo cho khách nghỉ cảm giác cực kỳ thoải mái.

Ngoài việc cung cấp thiết bị, máy móc, đạo cụ, bối cảnh... cho các đoàn làm phim, tổ hợp trường quay Yangsuri còn là nơi tổ chức hội thảo rất lý tưởng, với hàng loạt phòng họp cao cấp, kèm theo những dịch vụ lễ tân hết sức hoàn hảo, trông nom.

Hoạt động theo quy chế nghiêm ngặt, trên tinh thần phát triển hơn nữa sức ảnh hưởng của nền điện ảnh trong nước, tổ hợp trường quay Yangsuri thực sự là một điểm tham quan lý tưởng, thể hiện rất rõ sự trân trọng, tôn vinh nghệ thuật, đặc biệt là phim ảnh của người Hàn Quốc.

HÀ LINH

ĐIỆN ẢNH TRUYỀN HÌNH

Từ trước khi Làn sóng Hàn Quốc lan rộng và phát triển mạnh ở nhiều nước châu Á, khu tổ hợp trường quay nổi tiếng Yangsuri ở Nam Yang Joo Kun - Kyungkido đã là một trong những niềm tự hào của điện ảnh Hàn Quốc, hàng năm thu hút rất đông du khách đến tham quan. Và đây cũng là một điểm dừng chân để lại nhiều ấn tượng cho đoàn phóng viên Việt Nam trong khuôn khổ chuyến đi giao lưu, tìm hiểu văn hóa Hàn Quốc vừa qua.



KHUNG CẢNH NGÔI LÀNG CỔ

Thăm trường quay **YANGSURI** ở **HÀN QUỐC**



CÁC NHÀ LAM PHIM ĐANG DỰNG BỐI CẢNH CHO BỘ PHIM MỚI

Đ là hình Hàn Quốc, với 3/4 diện tích là núi non nên để xây dựng một khu tổ hợp trường quay quy mô, hoành tráng như Yangsuri, Ủy ban điện ảnh Hàn Quốc đã phải dày công lập dự án, thực hiện trong quá trình gần 10 năm mới có được kết quả như bây giờ.

Cách thủ đô Seoul khoảng hơn 1h chạy xe, khu trường quay Yangsuri nằm giữa thung lũng, bao bọc xung quanh là núi. Màu xanh của thiên nhiên, những ngọn núi hùng vĩ, bóng dáng của các khu trường quay, những con đường thẳng tắp... để lại dấu ấn đặc biệt cho du khách. Và, với những người làm về điện ảnh, từ nghệ sĩ, nhân viên kỹ

thuật, chuyên viên phát hành... đều tìm thấy ở Yangsuri cảm giác hài lòng, yên tâm vì đây là một khu tổ hợp, có đầy đủ mọi yếu tố để đáp ứng tất cả các nhu cầu của những đối tượng khác nhau.

Khu tổ hợp Yangsuri rộng 132ha, có 6 trường quay nội, và có khu quay ngoại cảnh rộng tới gần 10ha. Đây là khu trường quay hoàn chỉnh, hiện đại, có nhiều thiết bị tối tân nhất châu Á.

Ủy ban điện ảnh Hàn Quốc vô cùng hài lòng với khu tổ hợp trường quay này. Vì tất cả những tác phẩm điện ảnh kinh điển và hoành tráng nhất của Hàn Quốc, đều có xuất xứ kịch bản từ Trung tâm sáng tạo Yangsuri, sau đó được thực hiện tại đây ở cả hai khâu tiền và hậu kỳ. Khái niệm One - stop, được nhấn mạnh và

cũng là đặc trưng riêng của khu tổ hợp trường quay Yangsuri vì rất ít những khu trường quay nổi tiếng, lại có thể đầu tư khu làm hậu kỳ, với hệ thống máy móc hiện đại, tư hóa âm, in trắng, lồng tiếng, kỹ xảo... như ở Yangsuri. Hơn thế, tại Yangsuri, có kho bảo quản đạo cụ cực lớn, với hàng vạn món đồ, đủ cung cấp cùng lúc cho nhiều đoàn quay khác nhau, từ phim cổ trang đến phim tâm lý, từ các đoàn quay quảng cáo, đến những



PHÒNG DUNG TẠI PHIM TRƯỜNG

nhóm quay Music Video.

Sau năm 2000, những chính sách phát triển điện ảnh trong nước được hỗ trợ tích cực hơn, nên Yangsuri cũng được đầu tư quy mô hơn. Tính đến nay, hàng năm có trên 40 vạn lượt khách tham quan đến Yangsuri để được tận mắt chứng kiến những bối cảnh mà mình đã thấy qua màn ảnh.

Làn sóng Hàn Quốc phát triển mạnh, tổ hợp trường quay Yangsuri cũng trở thành một trong những điểm du lịch được khách nước ngoài quan tâm đặc biệt, bên cạnh những địa danh nổi tiếng như đảo Namjison (phim *Chuyến tình mùa đông*), Soklo (phim *Trái tim mùa thu*), đảo Cheju (phim *All In*).

Mùa đông, tổ hợp trường quay Yangsuri mở cửa đến 5h chiều, ngày từ đầu, du khách đã cảm nhận được không khí phim trường, nhờ trang thiết bị âm thanh siêu...



QUẢ CÀ PHÊ TRONG PHIM TRƯỜNG



MỘT TRONG SỐ CÁC PHÒNG CHIẾU TẠI PHIM TRƯỜNG



DIỆN ẢNH TRUYỀN HÌNH

chiều trong lễ bế mạc. Hơn 40 nghệ sĩ, diễn viên nổi tiếng của Hàn Quốc như **Bea Yong Joon** (phim *Tuyệt thánh Tú*), **Lee Byung Hun** (phim *Cuộc sống tươi đẹp*), **Jang Dong Gun** (phim *Cơn bão*), **Kwon Sang Woo** (phim *Dã thú*), **Kim Hee Sun** (phim *Thần thoại*)... đều có mặt tại Pusan để tham dự buổi lễ ra mắt những tác phẩm ĐA có mình tham gia.

Một điều đáng tiếc, theo nhận định của báo giới Hàn Quốc, đó là sự vắng mặt của các ngôi sao điện ảnh gạo cội như Ahn Sung Ki, Kang Soo Yeon, Jang Mi Hee... nên không tạo được không khí trang trọng như nhiều LHP trước.

Đoàn đại biểu Việt Nam, dẫn đầu là bà Trương Ngọc Thủy, giám đốc Sở văn hóa thông tin Thành phố Hồ Chí Minh, cùng 15 phóng viên của các báo Nhân dân, Thế giới điện ảnh, Lao động, Tuổi trẻ, Người lao động, Tiền phong, Điện ảnh Thành phố Hồ Chí Minh, Màn ảnh Sân khấu... đã đến Pusan, theo lời mời của Quỹ giao lưu văn hóa châu Á (Koface) Hàn Quốc. Rất tiếc, vì phải tham dự một số hoạt động nghi lễ cứu văn hóa khác, nên đoàn Việt Nam không có điều kiện dự lễ khai mạc, cũng như bế mạc Liên hoan phim Pusan lần thứ 10. Tuy vậy, đoàn Việt Nam đã đến dự buổi chiếu phim *Hạt mưa rơi bao lâu* tại Mega Box - Hyewundae, ghé thăm Rạp chiếu bóng Pusan để cảm nhận không khí náo nhiệt, của liên hoan phim đặc biệt hoành tráng này. Ai cũng thấy vui khi được thưởng thức một tác phẩm điện ảnh của mình trên xứ người và vui hơn nữa khi thấy 500 chỗ ngồi của Mega Box - Hyewundae chật kín, bản thân các phóng viên Việt Nam phải mua vé... đứng. Khán giả Hàn Quốc rất thích xem phim Việt Nam, họ cho biết, có người đã phải đặt vé trước đó từ 3 tháng mới có thể chọn được giờ chiếu và chỗ ngồi tốt cho bộ phim này. Ngoài ra có một điều cũng rất đáng tiếc là trong khuôn khổ LHP, có diễn ra buổi họp báo ra mắt tác phẩm điện ảnh mới *"Dã thú"* với sự góp mặt của nam diễn viên đang rất ăn khách tại Việt Nam qua bộ phim *"Nấc thang thiên đường"* Kwon Sang Woo, phóng viên Việt Nam vô tình nhận được thông tin này đã tìm đến tận nơi Kwon

Sang Woo gặp fan hâm mộ, trả lời phỏng vấn báo chí trước lễ ra mắt nhưng không thể gặp riêng Kwon Sang Woo, thậm chí muốn xin chụp chung với anh một tấm hình cũng không được vì chưa hẹn

trước... Cánh phóng viên nhà ta đành an ủi nhau rằng dù sao thì cũng đã nhìn được tận mắt Kwon Sang Woo bằng xương bằng thịt...

HÀ LĨNH



PHÓNG VIÊN MÀN ẢNH SÂN KHẤU TẠI LH PHIM PUSAN VÀ CHỤP HÌNH KỶ NIỆM CÙNG NỮ DIỄN VIÊN HÀN QUỐ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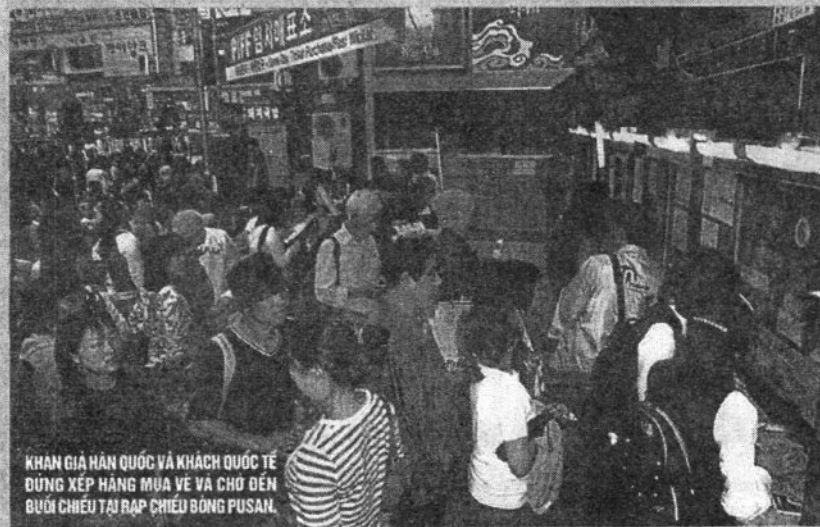
MÀN ẢNH
SÂN KHẤU

9

ĐIỆN ẢNH TRUYỀN HÌNH



DIỄN VIÊN NHẬT BẢN KSUMABUKI SATOSHI CÙNG LEE BYUNG HUN GIAO LƯU TẠI LHP.



KHÁN GIẢ HÀN QUỐC VÀ KHÁCH QUỐC TẾ ĐỨNG XEP HÀNG MUA VÉ VÀ CHỜ ĐẾN BUỔI CHIẾU TẠI RẠP CHIẾU BONG PUSAN.

Trong suốt 10 năm qua, Liên hoan phim Quốc tế Pusan đã khẳng định được vai trò, vị trí của mình, trở thành Liên hoan phim quy mô lớn nhất khu vực châu Á. Từ ngày 6 -14.10.2005, Liên hoan phim Quốc tế Pusan lần thứ 10 diễn ra trong không khí hoành tráng, được đánh giá là hoạt động văn hóa có ý nghĩa đặc biệt với điện ảnh Hàn Quốc nói riêng và nền điện ảnh thế giới nói chung.

Bãi biển Hyewundae xinh đẹp của thành phố Pusan vốn đã nhộn nhịp, nhưng từ những ngày giữa tháng 9, đã đón nhận thêm rất nhiều du khách, họ đến để tìm hiểu thông tin về LHP Quốc tế Pusan, để tận mắt chứng kiến không khí yêu phim ảnh của người Hàn Quốc. Đầu tháng 10, Pusan dường như quá tải khi tất cả các khách sạn đều không còn phòng trống, thành phố tăng cường thêm rất nhiều tuyến xe, hàng ngàn thanh niên tình nguyện có mặt ở đây để hướng dẫn khách. Không khí náo nhiệt, cờ hoa, biểu ngữ treo khắp nơi.

Đối với người Hàn Quốc, đây là một hoạt

động văn hóa có ý nghĩa rất lớn, tạo cơ hội để Hàn Quốc khẳng định hình ảnh của mình hơn nữa trên trường quốc tế.

LHP Quốc tế Pusan lần thứ 10, có sự tham gia của 73 nước, với 307 tác phẩm điện ảnh, bao gồm nhiều thể loại, phim truyện, phim tài liệu, phim ngắn, hoạt hình,... Trong tổng số 307 phim trình chiếu tại Pusan, điện ảnh Việt Nam tham dự với hai tác phẩm *Hạt mưa rơi bao lâu* của cặp đạo diễn Đoàn Minh Phượng, Đoàn Thành Nghĩa và *Mùa len trâu* của đạo diễn Nguyễn Võ Nghiêm Minh.

Đến Pusan lần này, có 1.559 phông

viên quốc tế. Riêng khách mời của Ban tổ chức là 6.088 người. Tổng số khán giả trong và ngoài nước đến xem phim trong khuôn khổ liên hoan phim là 19 vạn 2 ngàn người.

64% quan khách là những người làm về điện ảnh trong khu vực châu Á. Còn trong tổng số quan khách tham dự liên hoan, 73% là những người làm về công tác phê bình, nghiên cứu điện ảnh và đạo diễn.

Pusan chuẩn bị 31 rạp chiếu phim với tổng số 283.308 chỗ ngồi để hỗ trợ tối đa cho công tác trình chiếu những tác phẩm điện ảnh xuất sắc nhất. Lịch chiếu phim được in trước gần 3 tháng, thông báo rộng rãi trên mạng internet và trên trang web của Liên hoan phim Quốc tế Pusan, để khán giả tiện đặt chỗ xem phim.

Hàn Quốc là một đất nước mà người dân dành nhiều sự quan tâm cho nền điện ảnh, nên từ hai tháng trước khi diễn ra LHP, những bộ phim được thông báo là hấp dẫn đã hoàn toàn hết vé.

Riêng thẻ báo chỉ dành cho phóng viên, được chuẩn bị trước gần 1 tháng. Số lượng thẻ hạn chế, và điều kiện cấp thẻ cũng khá nghiêm ngặt. Trung tâm thành phố Pusan, biển Hyewundae là hai nơi diễn ra những hoạt động chính của LHP.

Cùng trong khuôn khổ LHP, ngoài việc trình chiếu những tác phẩm điện ảnh của Hàn Quốc và thế giới, còn diễn ra hội thảo về điện ảnh, về phát hành phim,... với sự tham gia của những công ty điện ảnh lớn nhất Hàn Quốc như: CJ Entertainment, The Core Studio, KM Culture, Show box,...

Đại diện các tổ chức nước ngoài, tham dự Liên hoan phim Quốc tế Pusan có: Focus Films, Fortissimo Films, Golden Network Asia, Universe Films Distribution Co. Ltd của Hồng Kông. Pony Canyon, UniJapan của Nhật Bản. Singapore Film Office của Singapore. Taiwan Cinema của

VÀI GHI NHẬN TỪ LHP QUỐC TẾ PUSAN LẦN THỨ 10

Đài Loan. Thai Film Federation của Thái Lan. EFP, AFIN Lounge của Ủy ban điện ảnh châu Âu và Vietnam Media Corp - đại diện cho điện ảnh Việt Nam,...

Ban tổ chức LHP Quốc tế Pusan, cùng với những chuyên gia về điện ảnh trên thế giới, đại diện các công ty chế tác lớn, đã quyết định thành lập Asian Film Industry Network và Asian Film Academy, dành để đào tạo những tài năng của điện ảnh Á châu.

Bộ phim *Three Times* của đạo diễn Hưu Hưu Hiền - Đài Loan được trình chiếu trong lễ khai mạc. Phim *Wedding Campaign* của đạo diễn Hwang Byung Gook - Hàn Quốc



Phát triển văn hóa để quảng bá đất nước

Trong suốt những ngày diễn ra LHP Pusan, không chỉ tiếp đón trọng các khách mời nước ngoài, các nhà tổ chức cũng tận dụng cơ hội này để giới thiệu những thắng cảnh du lịch nổi tiếng, những nét văn hóa đặc trưng của Hàn Quốc. Bên cạnh các hoạt động của LHP, đoàn phóng viên Việt Nam còn được tham quan đảo Oh Ryuk, chợ hải sản Ja Kal Chi, phim trường Nam Yang Ju, trường đại học Nghệ thuật quốc gia Hàn Quốc, "Tòa nhà mơ ước" trong tương lai, con kênh Cheong Kye Cheon dài 5,8 km nằm ngay trung tâm thành phố Seoul... Đặc biệt nhất là cung điện Changdeok-di sản văn hóa thế giới của Hàn Quốc, nơi được dùng làm bối cảnh của nhiều bộ phim như *Thần Y Huh Joon*, *Damo*, *Nàng Dae Jang Geum* và viện bảo tàng Trung tâm quốc gia, nơi trưng bày những bảo vật lịch sử của Hàn Quốc.

Ông Daniel Park Yang Woo - Cục trưởng Cục Công nghiệp Văn hóa (Bộ Văn hóa & Du lịch Hàn Quốc) cho biết: "Nếu như vào thập niên 70, chính phủ và nhân dân Hàn Quốc tập trung xây dựng cơ sở hạ tầng, thập niên 80 ưu tiên phát triển kinh tế, thập niên 90 đầu tư vào công nghệ thông tin thì sang thế kỷ 21 này, chúng tôi xem việc phát triển văn hóa như một mũi nhọn để tạo thế mạnh cho mình và cũng là để "tiếp thị" hình ảnh đất nước mình".



Đó cũng là lý do vì sao Hàn Quốc đã không tiếc tiền đầu tư để biến LHP Pusan thành một ngày hội điện ảnh đạt đẳng cấp quốc tế. Trước đây, người dân Hàn Quốc chỉ chờ xem phim qua băng đĩa, nhưng đến đầu thập niên 90, chính phủ nước này đã bắt đầu chiến dịch "Làm phim Hàn cho dân Hàn xem". Hàng trăm người trong làng điện ảnh đã được tuyển chọn đưa sang đào tạo tại những nước có nền điện ảnh phát triển nhằm học hỏi công nghệ làm phim mới. Mục đích của Hàn Quốc không chỉ nhằm nhắm đến việc xuất khẩu phim ảnh sang các nước khác. Và giờ đây họ đã đạt được mục tiêu ấy, không chỉ với điện ảnh mà còn cả truyền hình. Những cơn sốt phim Hàn đang bùng nổ khắp châu Á đã giúp Hàn Quốc quảng bá hiệu quả hình ảnh đất nước và văn hóa của mình đến khán giả nước ngoài.

“ Sự cuồng nhiệt của khán giả, sự say mê tác nghiệp của các phóng viên đã khiến cho những buổi giao lưu trở nên sôi động chưa từng thấy. ”



LHP Pusan 2005 qua những con số

► **307:** Số lượng phim đến từ 73 quốc gia và vùng lãnh thổ tham gia LHP Pusan năm nay. Trong đó, Việt Nam cũng có một đại diện là *Hạt mưa rơi bao lâu* của 2 đạo diễn Việt kiều Đức Đoàn Minh Phượng, Đoàn Thành Nghĩa. Kết quả, bộ phim *Grain in Ear* của đạo diễn Trung Quốc gốc Hàn Quốc Trương Lộ đã giành được giải New Currents, nổi dung tranh giải duy nhất tại LHP này.

► **1.800:** Số lượng phóng viên tác nghiệp tại LHP, trong đó đoàn phóng viên nước ngoài đông nhất là Nhật Bản và Trung Quốc với 70 người.

► **153.000:** Số lượng vé bán ra trong vòng 3 ngày đầu tiên của LHP năm nay, trong khi đó suốt hơn 1 tuần lễ của LHP năm 2004 chỉ tiêu thụ được 166.000 vé. Một phần là do năm nay có sự xuất hiện của nhiều ngôi sao nổi tiếng như Thành Long, Kim Hee Sun, Lee Byung Hun, Trịnh Tú Văn, Kwon Sang Woo, Yoo Ji Tae...

► **1,5 tỉ won:** Kinh phí đầu tư của chính quyền thành phố Pusan cho mỗi kỳ LHP hàng năm nhưng thu về được lợi nhuận lên đến 22,5 tỉ won và tạo việc làm cho hơn 1.700 người trong thành phố.

► **20.000 USD:** là số tiền thưởng chính quyền thành phố Pusan tài trợ cho giải thưởng cao nhất của chương trình Pusan Promotion Plan, một hoạt động nằm trong LHP nhằm giúp đỡ các đạo diễn trẻ tìm kiếm tài trợ cho dự án điện ảnh mới của mình. Kết quả, giải thưởng này đã thuộc về kịch bản *Fairy Tale of a Picture Tree* của đạo diễn Hàn Quốc Lee Kwang-mo và *Heartbreak Pavilion* của 2 đạo diễn Thái Lan Thunska Pansittivorakul và Sompot Chidgasompong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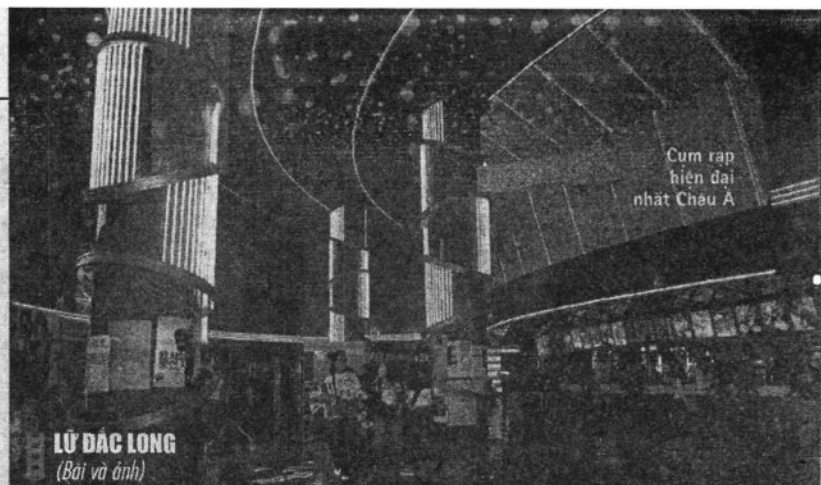
Lần đầu tiên, một đoàn nhà báo Việt Nam được Quỹ Giao Lưu & Phát Triển Văn Hóa Châu Á của Hàn Quốc (Công Ty FNC tổ chức) mời tham dự Liên Hoan Phim Pusan Lần Thứ 10 ở thành phố biển Busan. Tại đây chúng tôi đã có một cuộc trò chuyện với ông Kim Eui Sung Tổng Giám Đốc Công Ty FNC, hiện có công ty đại diện ở TP.HCM, là một trong những người đầu tư cụm rạp chiếu phim CJ Media lớn nhất Châu Á và cũng là công ty Hàn Quốc đầu tiên đưa công nghệ sit-com vào Việt Nam để sản xuất bộ phim nhiều tập *Lãng Hoa Tình Yêu* đã phát sóng trên HTV năm 2004 vừa qua..

Chào ông Kim, chỉ trong một thời gian ngắn, nhưng điện ảnh Hàn Quốc đã tạo được những làn sóng yêu thích phim Hàn, ông có thể lý giải hiện tượng này?

Kim Eui Sung: Nếu như trước đây, nói đến phim là người ta nói tới Mỹ, Ấn Độ, Hồng Kông, Trung Quốc v.v... Nhưng bây giờ đã có một sự thay đổi nhất định. Vì chính phủ Hàn Quốc luôn có những dự án đầu tư thích đáng, cộng với sự hỗ trợ của các tập đoàn lớn trong nước, phim Hàn làm theo những công nghệ tân tiến nhất, với những chiến lược phát triển như: Đào tạo những ngôi sao, đưa người sang nước ngoài du học, phát động chiến dịch người Hàn xem phim Hàn, và đặc biệt là người dân Hàn rất yêu thích phim Hàn bởi phim luôn đạt chất lượng cao, phù hợp với thị hiếu của nhiều tầng lớp khán giả, nhằm



Bà Trương Ngọc Thủy - GD Sở VH TT và anh Kim Eui Sung Tổng GD công ty FNC



LỮ ĐẮC LONG
(Bãi và ảnh)

TRẬT TỰ ĐÃ ĐỔI THAY

thúc đẩy nền điện ảnh phát triển đến cực đại. Như các bạn đã biết điện ảnh Hàn Quốc đang vươn tầm trên thế giới, liên tiếp đoạt nhiều giải thưởng lớn trong các kỳ liên hoan phim đã ít nhiều tạo được sự ngưỡng mộ của nhiều nơi trên thế giới.

Sở với những nơi khác, điện ảnh Hàn Quốc có gì giống và khác nhau?

Điện ảnh Mỹ quá mạnh vì số tiền họ bỏ ra đầu tư quá khổng lồ, nhưng bỏ tiền nhiều cũng có khuyết điểm của nó vì, chỉ cần một sơ suất nào đó phim không ăn khách là coi như nguy cơ mất vốn rất cao, dễ dẫn đến suy sụp. Ở Đài Loan có khác hơn, họ luôn tập trung sản xuất những bộ phim nghệ thuật, nên đi dự LHP cứ đoạt giải hoài, nhưng bù lại, dạng phim này cũng rất kén khán giả, các rạp cũng không đông khách. Với hai ưu khuyết này, Hàn Quốc luôn sản xuất phim theo tỷ lệ song hành giữa phim nghệ thuật để lấy tên tuổi trên thị trường, dạng phim này phải có chính phủ đầu tư tối đa. Ngoài ra chúng tôi tập trung sản xuất những bộ phim thị trường thật hấp dẫn để thu hút khách, dạng phim này có sự hợp tác với những tập đoàn lớn, tạo nguồn kinh phí dồi dào, để thực hiện những ý đồ của phim, tạo sự phát triển về kinh tế và cũng nhằm phục vụ cho số đông khán giả.

Hiện nay, theo công nghệ làm phim tân tiến, Hàn Quốc đã đầu tư những gì cho chiến lược phát triển phim của mình?

Chúng tôi có phim trường Nam Yang Ju, nơi đây một năm có thể quay được từ 50 tới 60 phim, chiếm tỉ lệ 2/3 phim trên Hàn Quốc. Trong phim trường này có những dãy nhà được bê nguyên xi từ nhà thật để bảo đảm tính trung thực. Những bãi đất trống rộng lớn là nơi dàn dựng những bối cảnh hoành tráng theo ý đồ của phim.

Ngoài ra còn có tới sáu phim trường nội với đầy đủ các thiết bị hiện đại, đủ năng suất hoạt động cùng một lúc cho nhiều đoàn phim, giá cả thuê mặt bằng cũng vừa phải, khoảng 1.000 đô la một ngày, để tạo điều kiện cho các nhà sản xuất phim.

Riêng ở khu vực chợ, cũng phải dùng một cái chợ thật để đem về. Trong quá trình quay, đạo diễn có thể quay một cú đồ - ly suốt cả một phân đoạn để lấy được nhiều góc máy khác nhau, tạo nên những cảnh quay độc đáo. Đặc biệt nhất là khu vực biên giới hai miền Nam-Bắc Triều Tiên, có ngôi nhà nổi tiếng Bàn Môn Điểm. Đây là bối cảnh chính làm nên bộ phim *Khu Vực Phi Quân Sự*, bộ phim có số doanh thu cao nhất từ trước tới nay và bây giờ nơi này cũng là nơi thu hút khách du lịch đến tham quan nhiều nhất. Ngoài ra có Cung Chang Teik, là nơi ở của các vua chúa thời xưa, ngoài việc là điểm du lịch của du khách còn là một phim trường rộng lớn, đảm trách hầu hết các bộ phim cổ xưa nổi tiếng như: *I Huh Joon, Damo, Nàng Dae Jang Kum...* Ngoài các rạp chiếu phim, chúng tôi tự hào còn có một cụm rạp chiếu phim đủ các dịch vụ giải trí cho khán giả, nằm trong sân vận động Seoul, đây là cụm rạp hiện đại nhất duy nhất hiện nay ở Châu Á, mô hình này đã được nhiều nước bạn sang tham quan và học hỏi.

Vậy trong thời gian tới, chiến lược phát triển phim Hàn Quốc sẽ diễn ra như thế nào?

Mấy năm đầu Hàn Quốc sản xuất phim hầu hết đều chú ý vào văn hóa dân tộc của Hàn, nhưng càng về sau, nhu cầu phát triển lớn hơn, nhằm vào việc xuất khẩu phim ra nước ngoài, nên phải có phong cách sáng tác mới, những câu chuyện mới cho phù hợp với các khán giả các nơi như:

해외 TV 취재지원 초청사업 실적보고

< 인도 기자단 한국문화사업 취재지원 >

해외 TV 취재지원 초청사업 실적보고

<인도 기자단 한국문화산업 취재지원>

1. 행사제목

해외 TV 취재지원 초청사업, <인도 기자단 한류 취재지원>

2. 일시

2005년 10월 31일 ~ 2005년 11월 6일 (6박 7일)

3. 취지

가. KBS 드라마 '해신' 인도 방영과 때를 같이해 한류 잠재 지역인 인도의 언론을 통해 한류 취재를 지원함으로써 인도지역 한류 형성에 기여 하고자 함.

나. 상대적으로 민간 교류 실적이 적은 인도를 대상으로 직접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향후 인도 지역과의 민간교류를 확대하기 위함.

다. 주인도 한국대사관과의 협조를 통해 앞으로 현지와의 협력관계를 증진코자 함.

4. 인원 : 총 7명

o NDTV(최대영어뉴스채널) - 2명

- Ms. Richa Khemani : NDTV 엔터테인먼트 담당

- Mr. Vinod Pandey : 카메라맨

o Hindustan Times(뉴델리 최대유평지) -1명

-Ms. Archana Khare Pant : 동지 문화담당기자

o Star TV(뭄바이 유평채널) - 2명

- Ms. Stella Turner : Star News(힌디채널)의 엔터테인먼트 담당

- Mr. Atul Ramchandra Kadam : 카메라맨

o Doordarshan TV(DD, '해신' 방영 채널) - 2명

- Ms. Lalima Monga, ASD

- Mr. Shri B.P. Raju, PEX

5. 일정

가. 10월31일 - 입국 및 국립중앙 박물관, 정통부 유비쿼터스관

나. 11월 1일 - 남양주 영화종합 촬영소, 양주 대장금 세트장, KBS 드라마 촬영장, 한강투어

다. 11월 2일 - 통일전망대, 청와대투어, CJ미디어, 난타관람

라. 11월 3일 - 팬택 앤 큐리텔 및 완도 이동

마. 11월 4일 - 완도 '해신' 촬영장 및 완도 명소 투어

바. 11월 5일 - 서울 명소 투어 및 출국

6. 기사개요

가. 기간

- 2005.11.8~2005.11.12 서울 및 완도에서 6일 동안 참관, 방문.

나. 초청

- 한국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다. 구성

- 인도 유력 언론사(NDTV, Hindustan Tims, DDTV, Star TV) 취재단 7명

라. 목적

- '해신'의 제작국인 한국의 전통문화 및 한국내의 인도문화 소개.
- 한국의 문화산업에 대한 현황 및 관련 업계의 전략 보고.

7. 관련 사진



8. 보도 실적

- 언론사 : 총 8편 (제목/이름(소속)/발표 매체/글자수 or 시간)
힌두스탄 타임즈(Hindustan Times) - 8편 (사진기사 4편)
- 방송사 : 총 6회
NDTV - 4회(2005.11.08/2005.11.09/2005.11.11/2005.11.12)
Star TV - 2회(2005.11.08/2005.11.09)

가. 인도 언론사 보도

(인도 신문에 발표된 글들은 다음과 같음.)

1) Spunky 18, and raring to go, A.K.Pant, Hindustan Times(2005.11.11)

현재 한국에서 촬영 중인 인도영화 <Gangster>의 여주인공인 'Kangana'는 “부모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화계에 진출했으며, 이번 영화는 폭력단원의 사랑에 대한 영화로서 내년 3월에 개봉 예정”이라고 말함.

2) From Korea with Love, A.K.Pant, Hindustan Times(2005.11.12)

“한국 음식에는 채식자를 위한 김치, 비빔밥, 전 등이 있고 육식자를 위한 불고기가 있다”면서 각 음식의 요리법 등을 소개함. “민속식당에는 온돌방이 있으며 낮은 식탁 위에 밥, 국, 각종 반찬, 전통술 및 차 등 한국의 전통음식들을 서빙한다”면서 “채식주의자들도 한국에서는 음식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함.

3) Chasing those Gangsters, A.K.Pant, Hindustan Times(2005.11.14)

인도 영화 <Gangster>를 촬영하기 위해 서울에 체류중인 'M.Batt'는 인도영화계(Bollywood)를 위해 로케이션 장소를 개척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도 관광객들은 열심히 우리를 따라왔다. 우리는 세킬레서, 쿠알라룸푸르, 방콕, 모리셔스에서 최초로 로케이션을 했으며, 이제는 한국을 개척하고 있다”고 말함.

4) Decoding the street - 'In Seoul, don't miss', A.K.Pant, Hindustan Times(2005.11.23)

서울은 모든 것이 자동화 되어 있어 매우 편리하다면서 깔끔한 거리, 고층 아파트, 한강의 26개 교량을 소개하고, 가을을 맞이하여 노랗고 붉게 물든 은행나무, 단풍나무 등이 매우 아름다워 관광객의 발길을 잡는다고 설명함.

서울은 볼 것이 매우 많으나 한강유람선 탑승이 최고였다면서 한국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데이트장소라고 설명하고 한국은 확실히 방문할 만한 곳이라고 언급

그 외 난타공연, 인사동, 통일전망대 및 남양주 영화종합 촬영소를 서울 및 근교의 볼거리로 소개하고 청계천, 복합영화관, 가을풍경 등의 사진을 게재.

5) Decoding the street - 'Namyangju Studios', A.K.Pant, Hindustan Times(2005.11.23)

진정한 의미의 멀티플렉스를 갖춘 월드컵 경기장 및 남양주 영화 종합촬영소 소개

6) Decoding the street - 'The laughing Buddha of Seoul', A.K.Pant, Hindustan Times(2005.11.23)

7) Decoding the street - 'The foyer of CGV which is the biggest multiplex in Seoul with 12 screens and a mall), A.K.Pant, Hindustan Times(2005.11.23)

8) Decoding the street - 'A City Square in Seoul', A.K.Pant, Hindustan

Times(2005.11.23)

* 5), 6), 7), 8)은 사진기사

나. 인도 방송 보도

1) NDTV

- 2005.11.08(23:55~24:00) "Bollywood in Kora"

M.Batt(프로듀서)는 "사상 최초로 한국에서 인도영화 <Gangster>를 촬영 중인데, 한국 유적 등은 정말 아름답고 환상적이다. 한국관광공사, 영화 진흥위원회 및 한국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 촬영료를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았다"고 말함.

A.Bose 영화감독은 "한국에서 시사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한국극장에서 개봉하기 위해 한국어 자막을 넣고 싶어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영화진흥위원회측과 협의중"이라 밝힘.

인도 촬영팀은 "한국은 언어문제를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고도로 조직화되어있다"고 하며,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의 김양래 사무처장은 "이와같은 문화 교류를 통해 관광지로서 한국이 소개되기를 희망함"이라 언급함.

- 2005.11.09(23:55~24:00) "Films settings in Korea"

한국은 최대의 영화촬영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훌륭한 로케이션 장소가 많아 아시아의 영화제작자들이 몰려들고 있음. 완도에 있는 장보고 세트장은 500만불을 투자하여 건립된 한국영상계의 최대 촬영장소중의 하나로서 한국인과 외국인들의 인기를 끌고 있음.

남양주 영화촬영소에서 '해신', '공동경비구역' 등 인기 있는 한국 및 중국의 영화가 많이 촬영되었는데, 8개의 스튜디오에서 항시 영화나 드라마가 촬영되고 있음. 한국은 이제 인도영화계를 주목하면서 인도영화인들이 한국을 로케이션 장소로 고려해 주기를 바라고 있음.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의 김양래 사무처장은 "인도 영화의 한국촬영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향후 한국도 인도에서 영화를 찍어 한-인도 양국간 문화교류가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함.

- 2005.11.11(23:55~24:00) "Night out in Seoul"

한강 유람선을 보여 주면서 탑승한 내외국인들의 소감을 보도하고, 난타공연을 소개하면서 외국인들의 "재미있고 놀랍다(wonderful)"는 반응을 보도함. 이외에도 한국의 쇼핑가를 보여줌.

- 2005.11.12(00:00~00:10) "Cinema India"

약 10분에 걸쳐 상기 "Bollywood in Korea"와 "Film settings in Korea"를 방영.

2) Star TV 특별 프로그램 <Raabaki(Night and still alive)(힌디어)>

- 2004.11.08(20:30~21:00), 2004.11.09(12:30~13:00) 2회 방영

서울의 복합영화관을 수차례 보여주면서, 할리우드영화와 한국영화 등 각종 영화가 상영되고

있다고 소개.

인도영화 사상 최초로 한국에서 로케이션 중인 인도영화 <Gangster> 제작진의 노량진수산시장 촬영현장을 상세 보도.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의 집무실이자 관저로서 보안통제지역이며, 노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맞고 있다고 소개.

남양주 영화 촬영소에서 제작중인 드라마 촬영 현장을 보도하면서, 조선 시대의 역사를 반영한 사극이라고 언급.

#뒷면 첨부 : 힌두스탄 타임즈 기사 full 번역 및 외국 보도물

#1 제목 : 힘껏 날고 싶은 활기찬 18세

Mumbai에 있는 커피숍에서 뜨거운 커피를 마시다가 스타로 떠오르는 행운을 잡을 수 있다. 더구나, 그것이 빛나는 세상으로의 입장권이 될 수도 있다. 어느 날 저녁, Manali 출신의 18세 소녀 kangana에게 일어났던 일처럼 말이다. kangana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연출가(Director)Anurag Bose("of fame"으로 유명한)의 눈에 띄어, 현재 한국에서 촬영이 시작된 Mukesh-Bhatt감독의 Gangster의 주역을 따냈다.

"지난 2~3년 동안 저는 열심히 영화배우가 될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저의 포트폴리오 사진이 나오자마자, 곧 기회를 잡기위해 mumbai로 그것을 보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제의를 받은거죠." Batt가 연출을, Bose가 감독을 맡은, Emraan Hashmi와 Shiny Ahuja가 함께 출연하는 영화 Ganster를 촬영하고 있는 쌀쌀한 겨울 저녁에 서울 한강변에서 이렇게 말했다.

잠정적으로 2006년 3월 개봉될 예정인 이 영화는 한 갱 멤버와 정상적인 생활을 원하는 그의 여자 친구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 여자는 남편과 가정이 있는 가정을 원해요."그러나, 이 역할과 그녀의 실제 생활과는 전혀 다르다고 Kangana는 말하고 있다.: "나는 좀 왈가닥이에요. 시간이 있으면 저는 항상 무술, 체조, 요가 등을 하곤하죠." 이 신출내기 아가씨는 자신의 갑작스런 출세에 대해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삶은 놀라움으로 가득차 있지요." Bollywood로 가려는 그녀의 결심을 어렵게 부모님께 설득시킨 그녀는 "처음에 부모님들이 탐탁치 않게 생각했지만, 내가 화려하게 데뷔한 후로는 만족하고 계세요."라고 덧붙였다. 그녀의 행운이 계속되길 여기에서 다시 한번 기대한다.

11월12일 두 번째 기사에서는 "From Korea with love"라는 제목으로 "한국음식에는 채식자를 위한 김치, 비빔밥, 전 등이 있고, 육식자를 위한 불고기가 있다"며 각 음식의 요리법을 소개했다. 또 "한국 민속식당은 온돌방의 낮은 식탁 위에 밥, 국, 각종 반찬, 전통술 및 차 등 한국의 전통음식들을 서빙한다"면서, 채식주의자들도 한국에서 음식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했다.

#2 제목 : 사랑을 담아 한국에서

내 친구가 나를 염려해서, 내 채식주의적인 식습관 때문에 한국에서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다고 충고하기 전까지 나는, 한국으로의 여행에 대해 마냥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한국에서의 여행에서 예상과는 달리, 많은 이야깃거리 뿐 아니라, 기름기가 없는 한국의 채식위주의 풍성한 음식에 대해서도 칭찬할 것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정성스

쉽게 준비된 고기요리를 빼고서는 한국 음식을 상상할 수 없다고 하겠지만, 한국에는 저 지방, 혹은 기름기가 전혀 없는 많은 야채요리가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양념과 기름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 지친 심신을 치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김치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야채 음식인데, 100가지가 넘는 다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김치는 소금과 고춧가루(혹은 고춧가루없이)로 절여져 오랫동안 먹을 수 있도록 보존할 수 있습니다. 김치에 사용된 가장 중요한 야채와 양념 물기를 보존하는 요리법으로 인해, 오랜 보존 기간에도 불구하고 아삭거림이 유지됩니다.

비빔밥(쌀밥과 야채가 매운 고추장과 함께 나오는)과 전(야채를 쌀가루에 묻혀 얇게 구운 것, Uttapam과 비슷하다.)은 또 다른 맛있는 야채요리입니다. 그러나 한국 음식은 인도 요리보다 부드러워 보이지만, 한국인들도 인도 사람처럼 음식 맛을 돋우는데 여러 가지 양념과 소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식주의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생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상대적으로 그렇게 다양하진 않지만)등 광범위하게 수 없이 많은 음식을 맛 볼 기회가 있습니다. 불고기(소고기가 주재료인)는 가장 인기있는 한국 음식입니다. 간장 설탕등으로 양념을 한 불고기는 부드럽게 만들어져, 혀의 모든감각을 일깨워 줍니다. 야채 음식이나, 아니냐의 경계에 있는 것이 잡채입니다. - 약간 씹히는 맛이 있는 투명한 국수가 아삭한 야채와 달걀 부침과 함께 버무려져 준비된 음식-

전통적인 한국 음식을 즐기는 최고의 방법은, 음식이 낮은 상위에 차려져 바닥에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전통적인 민속 음식점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날이 추워지면 음식을 먹기에 적당하도록 바닥이 따뜻합니다. 한국 음식은 기본적으로 밥과 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반찬과 함께 나오는데 그 반찬의 수와 종류는 경우에 따라, 계절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통차와 과자, 신선한 과일도 한국 음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음식에 대해서는 두려워 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다른 요리법을 경험할 준비를 하세요. 나를 믿으세요.

(그림 설명:전통적으로 한국 음식은 낮은 상 위에 차려진다.)

마지막 11월 14일 기사 “Chasing those Gangsters”에서는 인도영화 “Gangster”를 촬영하기 위해 서울에 체류중인 M.BATT가 “한국은 훌륭한 인프라를 갖췄으나, 개척되지 않은 로케이션 장소”라고 소개하며 “언어 이외에는 다른 문제는 크게 없다. 내년 초 서울에서 ‘Gangster’의 시사회를 계획 중”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이 영화의 감독 A.Bose는 “아름다운 단풍과 은행나무 등 한국의 가을이 찬란하다고 격찬하면서, 로케이션에는 가을철의 한국이 가장 좋다”고 말하기도 했다.

#3 제목 : “Gangster”들을 쫓아서

-한국에서 촬영되고 있는 최초의 Bollywood 영화 촬영팀과 함께
맨 오른쪽:연출자 Mukesh Batt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Hindustan Times)

서울에서 Archana

Mukesh Bhatt는 낯선 언어와 생소한 음식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그의 일정을 즐기고 있다. 앞으로 야심적으로 영화 Gangster를 촬영할 이 도시에서, Bhatt는 “Bollywood에 낮

선 지역을 처음으로 소개하게되는"자기 자신과 그의 팀에게 계속 사기를 복돋아야 했다. 그리고 인도의 여행객들은 우리가 소개한 이런 곳을 방문하고 있다. 우리는 Seychelles, Kuala Lumpur, bangkok, Mauritius 에 이어 이 곳 한국을 소개하고 있다. Bhatt는 촬영 장면을 살피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에서 촬영되는 최초의 인도 영화인 Gangster는 Ahuja와 함께 Emerran Hashmi이 출연한다.

색 다른 모습(Being different)

"이 영화는 Murder, Zeher, Raaz 등과 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영화의 세 가지 에피소드를 한국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영화 제작자는 뛰어난 기반 시설을 가진 새로운 촬영 장소가 필요했고, 한국은 그 두 가지를 충족시켰습니다. 언어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라고 Bhatt는 이야기 했다. 그러나 음식만 은 최 우선으로 준비하고 있다.

가을에 사로 잡혀

Gangster의 감독 Anurag Bose(muder로 우리에게 알려진)는 울긋 불긋 아름답게 물든 단풍잎과 은행나무들이 있는 한국 가을의 황홀함에 대해 격찬을 금할 수 없었다. "어느 지역에서 촬영하는가 하는 것(Location)은 영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델리(Delhi)는 1월이 최고로 아름다운 것처럼, 가을 풍경으로는 단연 한국이 최고입니다."라고 했다.

한강 가에서의 Diwali

저녁 무렵의 Diwali는 팀들에게 있어서 특별하다. 한강(한국에서 두 번째로 긴 강)가 에서의 촬영을 위해, 카메라와 조명이 준비되기 전에 멤버들은 고향에서 가져온phuljhadis와 추억어린 Diwali를 찾으려고 Bhatt의I 가방을 뒤진다.

조출한 모임 자리에서 우리는 mwahmwahing으로 기억되고 있는 Hashmi에게 배우로서의 그의 이미지에 대해 물었다. "나는 사람들이 왜 그 이상을 보려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Gangster에 단지 키스 장면 만 있는 것은 아니죠."라고 자신을 변호하며 말했다. 그리고 그는 "나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왔지만, 이제 나는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cleaner)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우리 함께 어떻게 Gangster가 어떻게 완성될지, 그리고 한국이란 요소 이외에 어떤 새로운 곳을 보여줄 수 있을지 두고 지켜보자.

<그림설명>

맨 위: Emeraan Hashmi와 Kangana가 나오는 Gangster의 한 장면
오른쪽:감독 Anurag Bose가 인근 시장에서 생선을 집어들고 있다.

Chasing those Gangsters

Catching up with the unit of the first Bollywood film to be shot in Korea

Archana in Seoul

Makesh Bhatt was enjoying his Korean sojourn notwithstanding the alien tongue and 'different' cuisine. In the city to shoot for his forthcoming venture *Gangster* Bhatt couldn't stop patting himself and his team for "being the first to open up the virgin locales for Bollywood."

"And the Indian tourist has enthusiastically followed. We opened up Seychelles, Kuala Lumpur, Bangkok, Mauritius and now it's Korea," Bhatt chatted away at the fish market of Seoul where director Anurag Bose was canning a shot with actor Shiny Ahuja.

Gangster, the first Indian film to be shot in Korea, features Emraan Hashmi and newcomer Kangana in the lead besides Ahuja.

Being different

"The film is radically different from *Murder*, *Zelma* and *Raaz*. We are picturising three songs in Korea. A passionate filmmaker needs a virgin location with excellent infrastructure and Korea has given us both. Except for the language, there is no problem whatsoever," gushed Bhatt. But let us tell you, Bhatt played safe on the food front. He travelling with a cook in tow who whipped up excellent *ghar ka khana* for the

unit. He is also planning to hold a premiere of *Gangster* in Seoul early next year.

Arresting autumn

Gangster director Anurag Bose (who gave us *Murder*) just couldn't stop raving about the splendour of autumn in Korea with its beautiful red and gold maple and gingko trees. "Location is extremely crucial for a film. Like Delhi is best in January, Korea is best in autumn," he said.

Diwali by the Han

The evening of Diwali was special for the unit. Before readying the cameras and the lights for a shot by the Han

river (the second largest river of Korea), the unit dug deep into Bhatt's bag for *phulhadis* and a memorable Diwali away from home.

At the small get-together, we asked Hashmi about his image as the actor who doesn't think twice before mowing. "I don't know why people can't look beyond that. But *Gangster* is not just about kissing," said Hashmi by way of defending himself. He went on to add, "I've played a variety of characters, but I would like to do the so-called 'cleaner' roles." Let's wait and watch how *Gangster* shapes up, and if there is anything new it can offer besides Korea of course.



Photos: Archana

Hindustan Times

(MT City - Pg 2)

From Korea with love

Archana

I was excited about my Korea trip till my well-meaning friends gently reminded me that I would starve there given my vegetarian status quo. Well, sports, the trip is done and I have lived not only to tell the tale but also to extol the virtues of non-greasy vegetarian Korean fare.

True, one cannot imagine Korean food minus elaborate non-vegetarian

platters but it is also true that there is an inviting range of low/zero fat vegetarian dishes as well. This helps heal a system assaulted by a maverick mix of spices and oils.

Kimchi is the most important vegetarian food in Korea and there are more than a hundred varieties of it. It consists of vegetables marinated with salt and/or red pepper powder and preserved for use over a long period of time. Cabbage is



the most important vegetable used in Kimchis and the beauty of this spicy, juicy dish is that the vegetables stay crisp despite long periods of preser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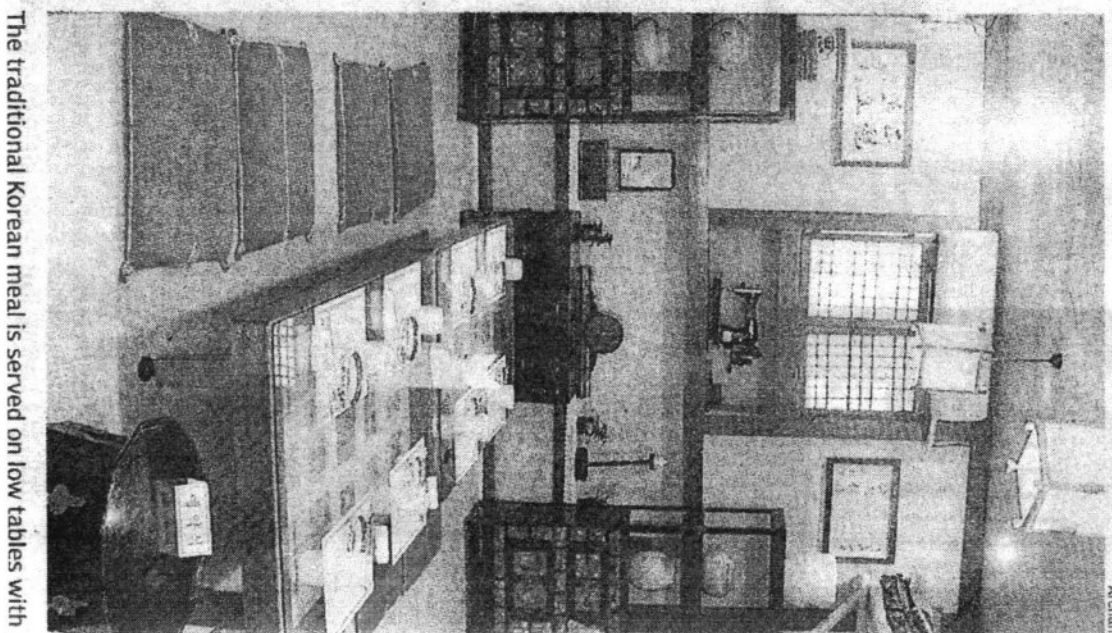
Bitimbap (rice and vegetables served with the tangy red pepper paste) and Jun (a rice flour crepe cooked with vegetables, very like Uttapam) are other vegetarian delights. Though Korean food looks tamer than Indian food, Koreans too, like Indians, use an assortment of spices and sauces to pep up their food.

For non-vegetarians, Korea offers limitless possibilities with its wide array of fish, beef, pork and chicken (to a lesser extent). Bulgogi (a beef preparation) is the most popular Korean food

Bulgogi is seasoned with soy sauce and sugar, making it mild and palatable for all types of taste buds. And bordering on the veg and non-veg domains is Japchae — a preparation of chewy, cellophane noodles prepared with crunchy vegetables and eggs.

The best way to enjoy a traditional Korean meal is to visit an ethnic restaurant where the food is served on low-tables with diners sitting on the floor on either side. In the colder months, the floor is heated from below to keep the dining area comfortable. A Korean meal consists of the basic rice and soup, served with an assortment of side dishes, the number and type of which varies with the occasion and the season. Traditional liquors, tea as well as cookies and fresh fruit are an integral part of a Korean meal.

So, when you are in Korea, fear not about the food. Get ready for a completely different culinary experience. Trust me, it is



The traditional Korean meal is served on low tables with



Spunky 18, and raring to go

Archana in Seoul

Sipping a hot cuppa in a coffee shop in Mumbai can be rewarding if your stars are on the ascendant. What's more, it can be your ticket to tinsel town. Like it happened one evening with Kangana, an 18-year-old girl from Manali. Director Anurag Bose (of *Murder* fame) spotted Kangana and before she knew, she had bagged the lead role in the Mukesh Bhatt-produced *Gangster*, currently being shot in Korea.

"Over the past couple of years, I had become passionate about a career in films. I had just got my portfolio shot and shifted to Mumbai for the right break. And one fine day, this offer came along," says Kangana on a chilly winter evening at Seoul by the Han river, where she is shooting for *Gangster* in the company of producer Bhatt, director Bose and co-stars Emraan Hashmi and Shiny Ahuja.

The film, tentatively slated for a March 2006 release, tells of a gangster's love story and also about his girlfriend's constant yearning for a normal life. "She wants a home

with husband and kids," says Kangana. That's quite unlike her real self. "I am more like a tomboy. — I love practising martial arts, gymnastics and yoga whenever I get the time."

The debutante is unabashedly excited about the big break. "Life, indeed, is full of surprises," says the actor who had a tough time convincing her parents about her decision to join Bollywood. "They weren't happy initially but since my debut happens with a big banner, they are comfortable now," she adds.

Here's hoping her good luck streak continues.

Archana



Kangana, an 18-year old girl from Manali, was spotted for *Gangster* by director Anurag Bose in a coffee shop



Top: A song from *Gangster* being picturised on Emraan Hashmi and Kangana
 Right: Director Anurag Bose pulls a fishy one at a local market
 Extreme right: Producer Mukesh Bhatt strikes a pose



Hindustan Times

(HT City-Pg 1)

Chasing those Gangsters

Catching up with the unit of the first Bollywood film to be shot in Korea

Archana in Seoul

Mukesh Bhatt was enjoying his Korean sojourn notwithstanding the alien tongue and 'different' cuisine. In the city to shoot for his forthcoming venture *Gangster* Bhatt couldn't stop patting himself and his team for "being the first to open up the virgin locales for Bollywood."

"And the Indian tourist has enthusiastically followed. We opened up Seychelles, Kuala Lumpur, Bangkok, Mauritius and now it's Korea." Bhatt chatted away at the fish market of Seoul where director Anurag Bose was canning a shot with actor Shiny Ahuja.

Gangster, the first Indian film to be shot in Korea, features Emraan Hashmi and newcomer Kangana in the lead besides Ahuja.

Being different

"The film is radically different from *Murder*, *Zehar* and *Raaz*. We are picturising three songs in Korea. A passionate filmmaker needs a virgin location with excellent infrastructure and Korea has given us both. Except for the language, there is no problem whatsoever," gushed Bhatt. But let us tell you, Bhatt played safe on the food front. He travelling with a cook in tow who whipped up excellent *ghar ka khana* for the

unit. He is also planning to hold a premiere of *Gangster* in Seoul early next year.

Arresting autumn

Gangster director Anurag Bose (who gave us *Murder*) just couldn't stop raving about the splendour of autumn in Korea with its beautiful red and gold maple and gingko trees. "Location is extremely crucial for a film. Like Delhi is best in January, Korea is best in autumn," he said.

Diwali by the Han

The evening of Diwali was special for the unit. Before readying the cameras and the lights for a shot by the Han

river (the second largest river of Korea), the unit dug deep into Bhatt's bag for *phullhadi*s and a memorable Diwali away from home.

At the small get-together, we asked Hashmi about his image as the actor who doesn't think twice before mwal-mwaling. "I don't know why people can't look beyond that. But *Gangster* is not just about kissing," said Hashmi by way of defending himself. He went on to add, "I've played a variety of characters, but I would like to do the so-called 'cleaner' roles." Let's wait and watch how *Gangster* shapes up, and if there is anything new it can offer besides Korea of course.



Photos: Archana

Hindustan Times

(MT City - P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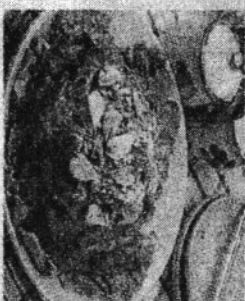
From Korea with love

Archana

I was excited about my Korea trip till my well-meaning friends gently reminded me that I would starve there given my vegetarian status quo. Well, sports, the trip is done and I have lived not only to tell the tale but also to extol the virtues of non-greasy vegetarian Korean fare.

True, one cannot imagine Korean food minus elaborate non-vegetarian platters but it is also true that there is an inviting range of low-zero fat vegetarian dishes as well. This helps heal a system assaulted by a maverick mix of spices and oils.

Kimchi is the most important vegetarian food in Korea and there are more than a hundred varieties of it. It consists of vegetables marinated with salt and/or red pepper powder and preserved for use over a long period of time. Cabbage is



the most important vegetable used in Kimchi and the beauty of this spicy, juicy dish is that the vegetables stay crisp despite long periods of preservation. Bibimbap (rice and vegetables served with the tangy red pepper paste) and Jun (a rice flour crepe cooked with vegetables, very like Uttapam) are other vegetarian delights. Though Korean food looks tanner than Indian food, Koreans too, like Indians, use an assortment of spices and sauces to pep up their food.

For non-vegetarians, Korea offers limitless possibilities with its wide array of fish, beef pork and chicken (to a lesser extent). Bulgogi (a beef preparation) is the most popular Korean food

Bulgogi is seasoned with soy sauce and sugar, making it mild and palatable for all types of taste buds. And bordering on the veg and non-veg domains is Japchae — a preparation of chewy, cellophane noodles prepared with crunchily vegetables and eggs.

The best way to enjoy a traditional Korean meal is to visit an ethnic restaurant where the food is served on low-tables with diners sitting on the floor on either side. In the colder months, the floor is heated from below to keep the dining area comfortable. A Korean meal consists of the basic rice and soup, served with an assortment of side dishes, the number and type of which varies with the occasion and the season. Traditional liquors, teas as well as cookies and fresh fruit are an integral part of a Korean meal.

So, when you are in Korea, fear not about the food. Get ready for a completely different culinary experience. Trust me, it is



So, when you are in Korea, fear not about the food. Get ready for a completely different culinary experience. Trust me, it is

The traditional Korean meal is served on low tables with



The traditional Korean meal is served on low tables with

Films

In our Audio-Visual Room, Cultural Section

- 15th (Fri) The Way Home
3:00 p.m. Director - Lee Jung-hyang
- 21st (Thurs) My Boss, My Hero
3:00 p.m. Director - Yun Je-gyun
- 29nd (Fri) Oollala Sisters
3:00 p.m. Director - Park Je-Hyeon

The Way Home

Sang-woo's mom, who separated with her husband at Sang-woo's birth, visits her mother's house to leave Sang-woo for a while. Her recent hardship makes it difficult for her to earn enough money to raise him. Upon parting with his mother, he seems not to miss her much. He's already become used to being left alone while his mom is busy managing the household. But, this mundane rural life is really boring for him, as there is nothing to play with. His grandmother has a hunched over back and no teeth left, not to mention she's mute. He has neither friend nor playing shere, only a portable game machine and character postards brought from Seoul. It is strange as well as dull for him to stay here with his ancient grand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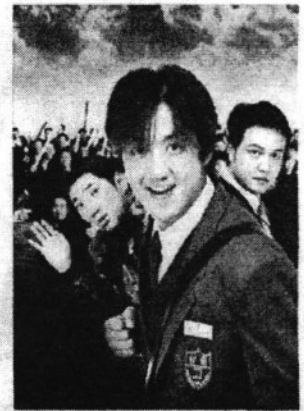


Director - Lee Jung-hyang
Duration - 87 Minutes



My Boss, My Hero

Doo-shik is a medium-ranking boss of a large crime syndicate. Though he has successfully expanded his boss' territory by defeating a rival gang, he is prevented from moving up in the criminal



organization due to his lack of a high school diploma. It seems that all his contemporaries have at least a high school education, with some having even attended college, and Doo-sik's lack of formal education is downright embarrassing— he is even oblivious to the existence of the Internet and has yet to discover what an e-mail address is. Thus, Doo-sik is given an ultimatum by his boss - he must go back to school and graduate if he wants to continue as a gangster....



Director
- Yun Je-gyun
Duration - 98 Minutes



해외 TV 취재지원 초청사업 실적보고

〈 중국북경인문올림픽연구기지 및
언론취재단 한국문화산업 취재지원 〉

해외 TV 취재지원 초청사업 실적보고

<중국북경인문올림픽연구기지 및 언론취재단 한국문화산업 취재지원>

1. 행사제목

해외 TV 취재지원 초청사업, <중국북경인문올림픽연구기지 및 언론취재단 한국문화산업 취재지원>

2. 일시

2005년 11월 8일 ~ 2005년 11월 12일 (4박 5일)

3. 취지

- 가. 중국 북경 인문올림픽 연구기지에게 한국의 국제대회 경험 및 자원봉사 활동 등을 취재케 해 이를 통한 향후 한중 교류 확대를 모색함.
- 나. 이들의 교류활동과 한국의 문화산업을 중국 주요 언론이 동행 취재토록 함으로써 현지의 눈으로 한국문화산업과 시민캠페인 등을 조명해 현지 문화소비자들이 거부감없이 한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다. 향후 재단이 북경올림픽을 계기로 한중 민간 교류의 역할을 확고히 함.

4. 인원 : 총 19명

	Name	Sex	Occupation
1	CHEN YU LU	M	Renmin University of China (Vice President, Head of Delegation)
2	JIN YUAN PU	M	Beijing Humanistic Olympics Studies Base (Executive Director)
3	WANG YUE	F	Beijing Committee of the Communist Youth League , Deputy Party Secretary
4	WEI NA	F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Renmin University of China, Prof.
5	YI NA	F	Beijing Humanistic Olympics Studies Base , Assistant of Director
6	ZENG FAN WEN	M	Humanistic Olympics Studies Center, Renmin University of China, Assistant of Director
7	QI SHU YU	M	National School of Administration , Director
8	ZHANG XIAO MING	M	Research Center for Humanities at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Vice Director
9	YIN QIANG	M	National Union of University Photo Education
10	LI HUAI LIANG	M	Culture Trade Institution ,

			Communication University of China , Superintendent
11	WANG DA LONG	M	Beijing Huliantianxia Information Technological Limited Company, General Manager
12	DUAN YONG	M	China UNICOM Group, Marketing department
13	YU HONG YU	F	Beijing Lianfeng Communicate Technological Limited Company , Deputy General Manager
14	HUO XIAO GUANG	M	Xinhua News Agency, Reporter
15	HUO WEN	F	Beijing TV, Olympic Programming Department Producer
16	JI HUA	M	Beijing TV, Cameraman
17	LI FANG	F	People Daily Newspaper, Reporter
18	BAI QIANG	M	Newspaper of THE FIRST, Reporter
19	LIU XIAO FAN	F	The Website of Humanistic Olympics, Reporter

5. 일정

- 가. 11월8일 - 입국 및 환영만찬(재단)
- 나. 11월9일 - 서울 올림픽 기념관, 서울시 홍보관, 문화시민운동 중앙협의회, CJ미디어
- 다. 11월10일 - 경복궁, 문화관광부, G-Star2005, 난타관람
- 라. 11월11일 - SK Communications, 부산외국어대학, Asia Song Festival
- 마. 11월12일 - 부산 시내 관광

6. 기사개요

가. 기간

- 2005.11.08~2005.11.12 서울에서 5일 동안 참관, 방문.

나. 초청

- 한국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다. 구성

- 북경인문올림픽 연구기지 연구위원 6명
- 공청단 북경시 부서기 등 정부인사 5명
- 신화사 통신, 북경TV 등 언론매체 8명

라. 목적

- '한류'와 한국 문화 산업의 발전 상황, 문화 전략, 한중 청년 발전 및 교육 협력,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이 한국에 미친 전반적인 영향 등에 대해 연구.

7. 관련 사진



8. 보도 실적

- 언론사 : 총 19편 (제목/이름(소속)/발표 매체/글자수or시간)
- 방송사 :

가. 중국 언론 매체의 관련 보도

(중국 언론 매체에 발표된 글들은 다음과 같음.)

1) 한국의 '인문올림픽' 경험, 霍小光(후오샤오광), Xinhua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웃나라를 방문하여 올림픽 문화를 직접 느낌.

‘문화 시민운동’은 지속시키는 것이 더 중요.

한국 문화시민 운동 중앙협회 책임자가 알려준 바로는, 88올림픽 개최 이전부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질을 높이는 활동’을 벌였지만, 아쉽게도 올림픽이 끝난 후 이런 활동들은 느슨해졌음.

그래서 ‘2002년 월드컵’ 유치 결정이 된 1997년도에, ‘문화 시민운동’을 위한 전문적인 민간 조직을 결성함. 또 이 조직은 ‘문화 시민운동’을 벌여 오늘까지 지속했음. 협회의 창립 목표는 ‘시민의 올바른 정신문화 건설을 추진하고, 월드컵을 치루기에 좋은 인문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음.

한국 문화시민 운동의 핵심은 ‘친절, 청결, 질서’임. 수만 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 외국 운동선수과 관광객들에게 주도면밀한 서비스를 실시했음. 특히 세계에 널리 알려진 축구 응원단 ‘붉은악마’는 한국만 응원한 게 아니라 각국 축구팀에게도 열띤 응원을 해 줬음(진정한 스포츠 정신). 붉은악마는 경기가 끝난 후 자발적으로 쓰레기까지 치우는 모습을 보임.

여기에 관해 한국정부는 한 번도 개입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음. 이 모든 것이 자발적인 행위라는 것. 이것이 바로 문화시민 운동의 성공을 설명해 주고 있음.

지속성은 정말 중요함. 택시를 탔는데 한국택시기사들이 영어를 하나도 못 하는 것을 발견. 한국사회는 월드컵 때 택시기사들에게 영어를 공부하라고 호소했다고 함. 그러나 지금의 결과는 지속성이 결여된 결과임.

'화합'이라는 문화이상을 움켜쥐자

서울시 'Hi Seoul'의 뜻 설명. 'Hi Seoul'은 서울 시민들의 친절, 화합, 단결이라는 문화 추구를 세계에 전하는 것. 올림픽 정신에 대해서도 설명. 그래서 한국 88올림픽의 구호도 '인류 화합'이었으며 올림픽공원의 문도 '평화의 문'이라고 이름 지었음.

중국에 있어서 '화합'은 더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짐. '평화'와 '화목'은 우리(중국)가 견지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과학발전관', '조화로운 사회 건설'에 대한 노력이라는 총체적인 목표와 완전히 일치. '조화로운 사회'란 전면적인 시스템의 목표임. GDP 성장만 갖고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실현시킬 수 없음. 올림픽 개최는 우리(중국)에게 과학발전관을 구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임.

인문 도시 건설

서울에는 북경 천안문 옆의 '창포천'과 비슷한 청계천이 있음. 청계천의 역사 서술. 현재는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상징이 됨. 88올림픽과 2002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성장을 달성한 후, 서울시와 시민들은 더욱 개방적이고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하자는 원대한 포부를 세우게 되었음.

서울시는 "서울이 예전의 이미지인 공업도시에서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생태도시로 변할 수 있느냐가 다음 세기에도 서울이 존립할 수 있는 토대"라고 말함. 청계천을 바꿈으로써 서울시는 사람과 자연을 조화시키는 도시문화의 면모를 보여줌과 동시에 외국 투자자 유치의 중심이 되길 바라고 있음.

2) 한국의 '창포천', 霍小光(후오샤오광), Xinhua

청계천

11월 서울의 풍경 묘사. 황금색으로 빛나는 은행잎과 청계천 등. 청계천의 역사를 자세하게 서술. 청계천 복원 안이 나왔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청계천 복원을 위해 '복원 사업'을 진행했음.

복원되고 난후 청계천은 현재 서울 시민들의 쉼터이며, 관광객들의 관광지로 변했음. 청계천의 역사와 현재의 모습을 보니, 중국 천안문 동쪽의 '창포천'이 생각남. 한-중의 '창포천'과 '청계천'은 비슷한 과정을 겪음. 청계천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이유로 40년이 지난 2002년에 다시 복원되었음.

'복개천 사업'도 도시의 발전의 필요성 때문임, 복원하여 시민들의 문화 휴식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발전과 건설의 필요 때문임. '창포천'과 '청계천'의 다른 점은, 경제발전이 이제 더 이상 유일한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연에 더 근접한 것을 필요로 하고, 더 높은 차원에서 역사를 돌아보길 원함.

Hi Seoul

앞에 쓴 수필과 비슷한 내용임.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서술하고 있음. 'Hi Seoul'의 의미. 문화시민 운동 중앙협회 방문 후 이해하게 된 문화시민 운동 소개. 일본 동경올림픽의 성공적인 문화시민 운동과 지금까지 잘 유지되어온 친절 운동 소개. 한 줄 서기 운동의 좋은 점을 자세하게 설명. 영어 못하는 택시 기사 일화 소개.

같은 세계, 같은 꿈

청계천에서 올림픽을 얘기한다고 해서 화제를 벗어나는 건 아님. 둘 다 인류의 '화합'에 대한 기원을 나타내고 있음.

11월 11일은 2008년 북경올림픽 카운트다운 1000일이 되는 날인데, 한국에서 이런 기념일을 맞으니 감회가 새로움. 올림픽 정신에 대해 설명. '같은 세계, 같은 꿈'은 북경올림픽의 주된 구호. 조화, 평화, 화목이 중국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 북경올림픽 개최가 과학발전관을 구현할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적음.

올림픽은 세계의 위대한 문화 실천임. 세계 문화 창조의 다양성을 호소하고,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호소하고, 문화, 경제, 정치의 상호 보완을 호소하며, 전인 교육을 호소함. 이 모든 것은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짐.

3) 올림픽 박물관이 교육기지가 됨. 한국 올림픽 이후의 체험, SINA넷, (2005.12.21)

한국식의 인문올림픽을 체험했음

올림픽박물관, 교육기지가 됨

올림픽박물관 위치와 건물 소개. 박물관의 규모와 역사 설명. 박물관을 방문한 시민들의 대부분이 어린이와 청소년인 것을 보니, 이곳은 이미 한국인의 '올림픽 교육 기지'가 되었음을 알 수 있음.

월드컵경기장, 돈을 제일 잘 벌어

편리한 교통, 넓은 주차공간이라는 장점을 이용하여 월드컵 이후에도 많은 돈을 벌어들임. 지하1층에 대형 할인매장이 있음. 경기장 내의 회의실, 사무실, 무대 등 시설도 다 임대함. 방문했을 때, 대통령 전용 엘리베이터도 타보고, 대통령 관람석에도 앉아 봄. 월드컵경기장의 배려로 대통령이 된듯한 즐거움을 한번 누리 봤음.

한국의 택시기사, 영어 못해

영어 못하는 택시 기사 얘기. 문화시민 운동이 지속되지 않은 탓. 그러나 문화시민 운동 중앙협회에서 상영한 홍보영화를 보면서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웃과의 화목을 비유한 장면이 다정하고도 쉽게 받아들여졌음. 그와 마찬가지로 한국을 방문한 5일간 집에 도착한 것 같은 안전감을 느꼈음.

4) 인민대학 부총장의 인솔로 한국을 방문한 북경 인문올림픽 연구 기지 대표단, 인문뉴스넷, (2005.12.15)

인민대학 부학장이 인솔한 방문단은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의 초청을 받아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한국을 방문함. 방문단은 연구기관, 기업, 언론매체의 19명으로 구성.

방문단은 한국에서 재단, CJ그룹, SK그룹, 한국 문화시민 운동 중앙협회 및 부산 외국어대학 등과 회담을 진행했고, 올림픽박물관, 월드컵경기장, 2005 아시아 G-Star 게임 박람회와 2005 APEC 전야행사인 제 2회 아시아송 페스티벌을 관람.

방문단은 재단과 함께 장기 합작에 대한 양측의 합의서를 교환함. 재단이 방문단의 연구 과제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 줌. 방문단은 그 외 한국의 관련 업체와 합작에 대한 공동 의견을 유출해냈음. 이번 방한 이후, 북경 인문올림픽 연구 기지는 한국 재단 및 업체와 연락을 취해 한 단계 더 발전한 합작을 협상할 것임.

5) 인민대학 부학장의 인솔로 한국을 방문한 북경 인문올림픽 연구 기지 대표단, 인문올림픽넷, (2005.12.25)

바로 앞의 인문뉴스넷과 똑 같은 기사. 한 글자도 안 틀림.

6) 수필 : 한국의 '인문올림픽' 경험, 인문올림픽넷, 霍小光(후오샤오팡), (2005.12.25)
방문 수기의 첫 번째 수필과 같은 글임.

7) 한국의 '창포천' - 인문올림픽넷, 霍小光(후오샤오팡), (2005.12.25)
방문 수기의 두 번째 수필과 같은 글임.

8) 하천의 변천, 한국의 올림픽 경험에 대한 소견, 신화넷, 霍小光(후오샤오팡), (2005.11.14)

한국의 수도 서울에는 북경 '창포천'과 비슷한 경력을 갖고 있는 '청계천'이 있다. 도시 건설에 따라 지하에 묻혀서 '복개천'이 되었다가, 지금은 사회 경제 발전에 따른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또 다시 복원되었다. 이는 뚜렷한 인문정신의 표출이며,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임.

서울 청계천의 풍경 묘사. 황금색으로 빛나는 은행잎과 휴식을 취하는 시민, 관광객 등. 청계천의 역사 서술. 청계천의 역사는 600년 이전부터 시작됨. 인왕산과 백악산 남쪽의 산기슭에서 발원, 다시 중랑천과 합해져 한강으로 흘러 듦. 도시의 생활 폐수가 이곳을 거쳐 한강으로 흘러갔음. 예전에는 서울 시민들의 생활의 중심이었음. 위생 문제로 40년대부터 시작해 1978년까지 하수도관을 설치하여 청계천이 점점 지하에 묻힘.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70년대 말에 하천을 덮은 후 고가도로를 설치함.

88올림픽과 2002월드컵을 치른 한국은 경제 발전은 이루었지만 아름다운 도시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게 됨. 바다에 가까운 도시인 서울에 물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2002년부터 다시 복원 공사를 시작. 2005년 9월에 완공. 청계천의 역사와 현재의 모습을 보니, 중국 천안문 동쪽의 창포천이 생각남. 비슷한 과정을 겪음. 청계천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이유로 복개천이 된지 40년이 지난 2002년에 다시 복원되었음.

복개천도 발전과 건설의 필요 때문이고, 복원하여 시민들의 문화 휴식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발전과 건설의 필요 때문임. 다른 점은, 경제발전이 이젠 더 이상 유일한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연에 더 근접한 것을 필요로 하고, 더 높은 차원에서 역사를 돌아보길 원함.

9) 한국에서 체험한 화합 참고소식, 霍小光(후오샤오광), (2005.11.17)

두 편의 방문 수기와 내용 비슷함. 순서는 약간씩 바뀌어 있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됨. 소제목은 약간 다름.

첫째, 작은 하천은 '화해'를 보여줌. 둘째, 화합을 제창한 정부. 셋째, 작은 일이 화합을 반영. 마지막 단락에 택시기사와의 일화를 자세하게 소개. 밤에 쇼핑하러 동대문시장에 갔다가 새벽 2시쯤 호텔로 돌아오려고 했음. 호텔 명함을 잃어버려서 택시기사에게 영어로 호텔을 얘기했는데, 4대나 붙들고 물어봤지만 한 명도 영어로 대화가 안 되어 막막했다고 함. 우여곡절 끝에 겨우 호텔에 돌아온 사연을 적음.

10) 문화산업이 '중국 창조'를 외침 인민넷, 李舫(리팡), (2005.11.02)

11월 1일 청두(成都)에서 4회 한중일 문화산업 평가회의를 진행. 일본 애니메이션 사업이 세계 시장의 62% 차지, 애니메이션 관련 시장 규모도 2만억엔을 넘어섰음.

예전에는 문화산업이나 스포츠산업을 중요시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문화/스포츠 산업이 세계 경제의 지주 산업이 됨. 올림픽과 월드컵도 마찬가지. 문화산업의 규모는 미국이 1위 일본이 2위를 차지함. 영국도 GDP의 8.2%를 문화산업이 차지.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한국이 선두를 달림. 한국 정부는 '문화입국'이라는 전략 구호를 내세워 빠른 발전을 이루고 있음.

세계 문화시장은 크게 네 부류로 나눌 수 있음. 미국이 전체 문화시장의 42.6%를 차지, 유럽은 33.9%, 아시아와 남태평양 국가가 19%, 그 외의 나라가 남은 부분을 차지. 19% 내에서는 일본이 10%, 한국이 3.5%이고, 중국은 미미한 점유율임.

중국의 문화산업은 사상초유의 기회와 도전에 직면해 있음. 중국의 문화산업이 평균 20%의 성장률을 보이고는 있지만, 미국과 일본과 비교한다면 아직 발전의 초기단계임.

산업구조면에서도 중국의 문화산업은 전통적인 연출, 영상, 음향, 광고 등 초보적인 단계이며, 창의디자인, 애니메이션, 게임 산업 등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음. 산업 기술의 개발 능력도 취약함. 문화시장에 많은 장벽이 있음. 중국의 문화기업들 역시 국제시장의 요구와 규칙에 익숙하지 않음. 그리고 전 세계의 판매 루트 확보 능력도 부족함.

2주 전, 선저우6호가 우주 공간에 '중국 창조'라는 글을 썼고, 전 세계에 중국의 첨단 과학 기술과 자력 연구 개발의 실력을 보여줬음. 이제 중국도 문화산업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중국 창조'를 기대함.

11) 올림픽 이후의 한국 체험, 월드컵경기장이 돈을 제일 잘 벌어 경보, Sina넷,

(2005.12.21)

앞의 SINA넷 기사, '올림픽 박물관이 교육기지가 됨. 한국 올림픽 이후의 체험'과 같음.

12) 문화산업이 '중국 창조'를 외침 SINA넷, 李舫(리팡), (2005.11.02)

앞의 인민넷 기사, '문화산업이 '중국 창조'를 외침'과 같음.

13) 하천의 변천, 한국의 올림픽 경험에 대한 소견, CCTV, 霍小光(후오샤오광), (2005.11.17)

앞의 신화넷 기사, '하천의 변천, 한국의 올림픽 경험에 대한 소견'과 같음.

14) 하천의 변천, 한국의 올림픽 경험에 대한 소견, 북방넷, (2005.11.17)

앞의 신화넷 기사, '하천의 변천, 한국의 올림픽 경험에 대한 소견'과 같음.

15) 한국 '인문올림픽' 체험, Geo Sport, (2005.11.21)

앞의 첫 번째 방문 수기와 같은 내용.

16) 하천의 변천, 한국의 올림픽 경험에 대한 소견, shoue, (2005.11.17)

앞의 신화넷 기사, '하천의 변천, 한국의 올림픽 경험에 대한 소견'과 같음.

17) 하천의 변천, 한국의 올림픽 경험에 대한 소견, 텅쑤뉴스, (2005.11.17)

앞의 신화넷 기사, '하천의 변천, 한국의 올림픽 경험에 대한 소견'과 같음.

18) 문화산업이 '중국 창조'를 외침, huaxia, (2005.11.02)

앞의 인민넷 기사, '문화산업이 '중국 창조'를 외침'과 같음.

19) 문화산업이 '중국 창조'를 외침, 허남 문화시장정보넷, (11월 경)

앞의 인민넷 기사, '문화산업이 '중국 창조'를 외침'과 같음.

<끝>.(뒷면에 신화통신의 허샤오광 기자의 글 두 편 full 번역 첨부)

첨부 : 허샤오광의 한국 방문기 기사 1.

[해외칼럼] 한국의 '인문 올림픽' 경험

휘샤오광(霍小光)

얼마 전 기자는 '베이징인문올림픽연구기지'의 학자와 취재차 한국 수도 서울을 방문해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개최한 아시아 이웃 나라의 올림픽 문화를 직접 느끼고 왔다.

지속적으로 해야 더욱 빛나는 문화시민운동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김 담당자는 기자에게 "88올림픽 개최 전에는 서울에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주제행사가 붐을 이루었는데 올림픽이 끝나고 안타깝게도 흐지부지됐다"고 말했다.

그 후 서울시는 1997년 2002년 월드컵 개최권을 따내고 전문 민간기구를 설립하여 문화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였고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다. 그는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가 건전한 시민 정신문화를 함양하고 월드컵을 위한 인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설됐다"고 말했다.

한국 문화시민운동의 핵심은 '친절, 청결, 질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덕, 사회풍조를 제창하는 것이다. 문화시민운동의 호소력으로 한국은 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외국 선수와 관광객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서울 월드컵은 세계를 놀라게 한 '붉은 악마' 응원단을 탄생시켰다. 그들은 한국 팀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팀을 응원했다. 한국이 터키와 3~4위전을 치를 때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은 축구팬은 800만에 달했다. 그들은 거리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경기를 관람했다. 한국 팀이 패했지만 붉은 악마는 소란은커녕 떠날 때 자율적으로 길위의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가 어떻게 응원단을 모집하고 육성했는지를 물었을 때 김 담당자는 "정부 개입은 없었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간단명료하게 대답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설명하려는 문화시민운동의 성공이 아닐까.

지속적인 문화시민운동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이 있다. 한국에서 택시를 탈 때 만난 택시 기사들은 하나같이 영어를 못했다.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되지 않았다. 기자의 한국인 친구는 "올림픽 개최 전에 국가 차원에서 택시기사한테 영어 공부를 권했지만 사실상 계속되지 못했다"고 알려줬다.

조화로운 '문화 이상(理想)' 추구

11월 11일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개최 1000일 전이자 올림픽 마스코트가 발표된 날이다. 이런 날을 올림픽을 성공리에 개최한 한국에서 보내는 것도 매우 특별했다. 한국 문화관광부 산하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신현택 이사장은 기자에게 “88올림픽은 한국을 전세계에 소개했다. 서울올림픽의 성공과 부족한 점을 더욱 잘 이해하기 바라고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홍보전시관에 가면 정면으로 ‘Hi Seoul(하이 서울)’이라는 로고가 보인다. 안내원은 서울 시청이 이 로고를 서울시 이미지를 나타내는 슬로건으로 선정했다고 소개했다. ‘hi’는 인사말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영어의 ‘high’와도 동음이다. ‘Hi Seoul’은 전세계에 서울 시민의 친절, 화합, 단결의 문화 지향점을 보여준다.

중국 런민(人民)대학 인문학 교수인 베이징 인문올림픽연구기지 진위엔푸(金元浦) 집행주임은 ‘인문 올림픽’을 연구하는 학자다. 그는 “<올림픽헌장>에 올림픽 정신의 정수는 스포츠가 인간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힘써 인간의 존엄과 평화를 지키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88올림픽의 구호는 ‘인류 화합’의 염원을 표현했다. 서울 올림픽공원의 대문은 ‘평화의 문’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는 현재 중국에서 ‘조화’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평화, 화목, 다양성, 협력은 중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과학적 발전관’, ‘조화로운 사회 건설’의 전체 목표와 완벽하게 일치한다. ‘조화로운 사회 건설’은 전체적인 목표다. GDP 증가만으로는 중산층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면적인 ‘샤오강(小康) 사회’ 건설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역사적 중책을 이루기 힘들다. 하지만 올림픽 개최는 중국에게 과학적 발전관을 이행하는 좋은 계기를 제공했다.

‘인문도시’ 건설

서울시내에는 베이징 텐안먼(天安門) 동쪽의 창푸허(菖蒲河)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심 하천인 청계천이 있다. 청계천 또한 도시 건설로 지하에 묻혀 ‘판자로 덮인 개천’이 되었다. 하지만 경제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인문정신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지금은 어두운 곳에서 벗어나 복원돼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다.

청계천의 총 길이는 8.14킬로미터다. 1930년대 이전, 청계천의 가장 주된 기능은 방수와 도시에 집중되는 생활하수를 한강으로 흘려보내는 것이었다. 서울시 홍보전시관에 진열된 옛날 사진을 보면 청계천은 도시 서민의 거주지로 개천변에 판자촌이 형성돼 있었다. 주민들은 이곳에 오수를 흘려보내고 쓰레기도 버렸다.

청계천의 위생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1940년대부터 1978년까지 수 차례의 공사를 거쳐 천변에 하수도를 매설했고 청계천은 지하에 묻혔다. 또한 1970년대 말 서울시는 날로 심해지는 교통체증을 해소하려고 ‘판자로 덮인 개천’ 위에 고가도로를 건설했다. 길이가 6킬로미터이고 4차선인 청계고가도로는 근대화의 상징이었다.

88올림픽과 2002 월드컵을 거쳐 한국 특히 서울시는 경제건설에서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으며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빠른 경제 발전으로 서울시정부와 시민들은 더욱 개방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려는 야심을 가지게 됐다. 서울은 바다와 인접해 있고 한강이 전체를 관통하는 도시

로 수경(水景)이 부족하지 않다. 하지만 서울시정부는 과감하게 2002년 7월부터 청계천 복원 공사를 시작했다. 기획, 동원에서 고가도로 철거, '개천(開川)', 자연과 인문 경관 재건에 이르기 까지 3년간의 노력을 거쳐 2005년 9월 청계천 복원사업이 완공됐다. 개조된 청계천은 시민과 외국 관광객의 휴식처이자 서울시의 얼굴이 되었다.

서울시청 직원 '김난희'씨는 "서울이 21세기에 잘 안착하는가는 산업도시에서 역사와 문화에 민감한 생태도시로의 발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청계천 개조는 서울의 새로운 도시문화 면모와 사람과 자연간의 균형을 보여 준다. 서울시는 더 나아가 이 곳을 외국인 투자 유치 중심으로 만들고자 한다.

첨부 : 허샤오광의 한국 방문기 기사 2.

한국의 '창푸허(菖蒲河)'

허샤오광(霍小光)

서울 시내에는 베이징 텐안먼(天安門) 동쪽의 창푸허(菖蒲河)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심 하천인 청계천이 있다. 청계천 또한 도시 건설로 지하에 묻혀 '판자로 덮인 개천'이 되었다. 하지만 경제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인문정신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지금은 어두운 곳에서 벗어나 복원돼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다.

유유히 흐르는 청계천

가을빛이 완연한 11월 서울, 길가에 서있는 은행나무는 잎을 흘날리며 이 도시를 위해 황금빛 옷을 입었다. 대학 시절 지도 교수인 베이징인문올림픽연구기지 집행주임, 중국 런민(人民)대학 인문학 진위옌푸(金元浦) 교수와 함께 한국을 찾았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강북 시내 청계천 광장에 갔다. 눈 앞에 비치는 것은 유유히 흐르는 작은 하천이었다. 이름과 같이 물이 매우 맑았고 밤의 어스름 속에서 푸른 빛을 발산하며 황금빛 은행나무 잎과 함께 빛났다. 청계천변에는 보도와 조형물이 멋진 풍경을 이루고 있었다. 이곳은 서울시민과 외국 관광객의 휴식처이자 견학 장소이다. 청계천 개조 사업이 3년을 거쳐 9월에 막 완공됐고 청계천은 서울시의 얼굴이 되었다.

청계천의 역사는 60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아주 오래 전 일이라 일일이 고증해 볼 수는 없었지만 주마간산격의 관광과 한국 친구의 소개로 최근 몇 년간 청계천의 큰 변화를 엿볼 수 있었다.

청계천, 서울시 인왕산과 백악산 남쪽 산기슭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는 동대문을 거쳐 중랑천과 합쳐져 한강으로 흘러가며 총 길이는 8.14킬로미터이다. 서울시 홍보전시관에 진열된 옛날 사진을 보면 청계천은 도시 서민의 거주지로 개천변에 판자촌이 형성돼 있었다. 주민들은 이곳에 오수를 흘려보내고 쓰레기도 버렸다.

청계천의 위생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1940년대부터 1978년까지 수 차례의 공사를 거쳐 천변에 하수도를 매설했고 청계천은 지하에 묻혔다. 또한 1970년대 말 서울시는 날로 심해지는 교통체증을 해소하려고 '판자로 덮인 개천' 위에 고가도로를 건설했다. 길이가 6킬로미터이고 4차선인 청계고가도로는 근대화의 상징이었다.

88올림픽과 2002 월드컵을 거쳐 한국 특히 서울시는 경제건설에서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으며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빠른 경제 발전으로 서울시정부와 시민들은 더욱 개방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려는 야심을 가지게 됐다. 서울은 바다와 인접해 있고 한강이 전체를 관통하는 도시로 수경(水景)이 부족하지 않다. 하지만 서울시정부는 과감하게 2002년 7월부터 청계천 복원 공사를 시작했다. 기획, 동원에서 고가도로 철거, '개천(開川)', 자연과 인문 경관 재건에 이르기

까지 3년간의 노력을 거쳐 올해 9월 청계천 복원사업이 완공됐다. 개조된 청계천은 시민과 외국 관광객의 휴식처이자 서울시의 얼굴이 되었다.

그러나 기획안이 나왔을 때 고가도로를 철거하면 교통혼잡이 더욱 심화되고 양쪽 도로변의 가게, 공장을 철거하면 경영자에게 막대한 경제 손실을 주게 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우리의 중국어 통역을 맡은 정귀옥씨는 “어차피 대다수의 사람이 환영한다”며 서울 시민으로서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서울특별시 중문판 사이트 담당자 김난희씨는 서울이 21세기에 잘 안착하는가는 산업도시에서 역사와 문화에 민감한 생태도시로의 발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청계천 개조는 서울의 새로운 도시문화 면모와 사람과 자연간의 균형을 보여 준다. 서울시는 더 나아가 이 곳을 외국인 투자 유치 중심으로 만들고자 한다. 최종 목표는 서울시를 상하이, 동경, 베이징과 필적하는 매력적인 상업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머리 속으로 단번에 톈안먼(天安門) 동쪽의 창푸허(菖蒲河) 공원을 떠올렸다. 창푸허(菖蒲河) 또한 베이징 역대 황궁의 중요한 물줄기로서 40여년간 복개(覆蓋)된 후 2002년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도심 하천을 복개(覆蓋)하는 것은 발전과 건설의 요구에 의한 것이다. 그것을 복원하여 문화 휴식처로 만드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다른 점이라면 경제 발전이 유일한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연에 더 가깝게 다가가고 더 높은 차원에서 역사로 되돌아가길 원한다.

청계천은 과거 600년 동안의 유구한 세월 동안 서울 시민과 동고동락했다. 국민 생활과 문화의 근간 역할을 지금까지 묵묵히 해왔다.

하이 서울

청계천 광장은 청계천 복원 후 경관 조성 공사의 시작점으로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시청이 있다. 서울시 홍보전시관에 가면 정면으로 ‘Hi Seoul(하이 서울)’이라는 로고가 보인다. 안내원은 서울 시청이 이 로고를 서울시 이미지를 나타내는 슬로건으로 선정했다고 소개했다. ‘hi’는 인사말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영어의 ‘high’와도 동음이다. ‘Hi Seoul’은 전세계에 서울 시민의 친절, 화합, 단결의 문화 지향점을 보여준다.

한국에 있는 동안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를 탐방하며 한국인이 고수하는 이러한 문화정신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이 협의회는 1997년에 창설되었고 그 해 서울은 2002년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됐다.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는 건전한 시민 정신문화를 함양하고 월드컵을 위한 인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설됐다”고 진대의(Jin Dae Ihee) 사무총장은 말했다. 그는 “88올림픽 개최 전에는 서울에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주제행사가 붐을 이루었는데 올림픽이 끝나고 안타깝게도 흐지부지됐다”고 알려주었다. 반면 일본은 동경 올림픽 개최 전에 펼친 ‘친절운동’이 올림픽의 폐막과 함께 사라지지 않고 일본 국민의 친절과 우호의 문화 이미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후 한국은 월드컵 개최 전 몇 년간 문화시민운동을 다시 벌였고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다. 한국 문화시민운동의 핵심은 '친절, 청결, 질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덕, 사회풍조를 제창하는 것이다.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공익광고를 보고 친절이란 이웃과의 화목, 외국인에 대한 미소, 친절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청결이란 환경위생을 지키는 것 특히 공중화장실 개선을 뜻하며 한국은 해마다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을 선정한다. 질서란 줄서기 같은 가장 기본적인 행동 규범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광고에는 여러 대의 현금자동인출기 앞에 줄이 있다면 모든 줄의 줄어드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줄 서서 기다리는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고 나온다. 만약 모든 사람이 한 줄 서기를 한다면 어떤 곳이 비든지 간에 기다리는 사람이 순서에 따라 나와 공정과 효율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사무총장은 문화시민운동은 서울시가 성공적으로 월드컵을 개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소개했다. 문화시민운동의 호소력으로 한국은 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외국 선수와 관광객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서울 월드컵은 세계를 놀라게 한 '붉은 악마' 응원단을 탄생시켰다. 그들은 한국팀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팀을 응원했다. 한국이 터키와 3~4위전을 치를 때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은 축구팬은 800만에 달했다. 그들은 거리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경기를 관람했다. 한국팀이 패했지만 붉은 악마는 소란은 커녕 떠날 때 자율적으로 길 위의 쓰레기를 주웠다.

정부가 어떻게 응원단을 모집하고 육성했는지를 물었을 때 사무총장은 정부 개입은 없었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간단명료하게 대답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설명하려는 문화시민운동의 성공이 아닐까.

사람들의 얘기를 며칠 만에 일일이 검증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서울을 떠나기 전날 밤 작은 사건을 겪으며 이를 어느 정도 체험할 수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동료와 청계천 하류 한국 최대의 류도매 시장인 동대문 시장에서 물건을 샀다. 새벽 1시가 넘었지만 길가에는 차가 즐비하게 늘어져 있었고 여유롭게 쇼핑을 하는 인파가 끊이지 않았다. 호텔로 돌아가려 할 때 호텔 이름, 주소가 한글로 적혀 있는 명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영어로 택시기사와 얘기했다. 잇달아 4대의 택시를 세웠지만 영어를 할 줄 아는 기사가 없었다. 주위는 아직 떠들썩했지만 나는 내심 망연자실하고 있었다. 이때 한 젊은 연인이 지나갔고 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을 불렀다. 영어는 나보다도 서툴렀지만 그들은 내가 길 잃은 중국관광객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이때 나는 그들의 얼굴에 미소를 보았다. 공익 광고 속의 바로 그 모습이었다. 호텔의 영문 이름과 데스크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는데 그들은 이 호텔을 잘 알고 있었고 청년이 휴대폰으로 호텔에 연락했다. 주소를 확인하고 택시를 세운 뒤 우리에게 친절하게 손을 흔들었다. 때는 이미 새벽 2시였다.

길을 묻는 것은 소소한 일이지만 이국에서 길을 잃은 외국인에게 있어서는 잊지 못할 일이다. 몇 명의 택시기사가 영어를 하나도 할 줄 몰라 초조했던 일을 이튿날 가이드에게 얘기했다. 그는 올림픽 개최 전에 국가 차원에서 택시기사한테 영어 공부를 권했지만 사실상 계속되지 못했

다고 알려주었다. 베이징도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공익 광고든지 시 전체적으로 생겨난 영어학습 열풍이든지 간에 올림픽 한 때를 위한 거라면 근시안적인 행동일 뿐이다.

같은 세계, 같은 꿈

청계천과 올림픽은 결코 서로 동떨어진 화제가 아니다. 양자는 모두 '조화' 즉 화합에 대한 인류의 염원을 담고 있다. 11월 11일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개최 1000일 전이자 올림픽 마스코트가 발표된 날이다. 이런 날을 올림픽을 성공리에 개최한 한국에서 보내는 것도 매우 특별했다. 한국 문화관광부 산하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신현택 이사장은 기자에게 "88올림픽은 한국을 전세계에 소개했다. 서울올림픽의 성공과 부족한 점을 더욱 잘 이해하기 바라고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같은 세계, 같은 꿈', 이 우렁찬 베이징 올림픽 구호는 문화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 올림픽 정신에 보내는 위대한 찬사다. 진위옌푸(金元浦) 교수는 인문올림픽 연구에 종사하는 학자로서 "현 세계에서 인류는 거대한 고난과 충돌에 직면해 있다. 이것은 주로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회, 사람과 사람, 문명과 문명, 영혼과 실체간의 충돌로 나타난다. <올림픽현장>에는 올림픽 정신의 정수는 스포츠가 인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힘써 인간의 존엄과 평화를 지키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에서 '조화'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평화, 화목, 다양성, 협력은 중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과학적 발전관', '조화로운 사회 건설'의 전체 목표와 완벽하게 일치한다. '조화로운 사회'는 전체적인 목표다. GDP 증가만으로는 중산층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면적인 '샤오강(小康) 사회' 건설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역사적 중책을 이루기 힘들다. 하지만 올림픽 개최는 중국에게 과학적 발전관을 이행하는 좋은 계기를 제공했다.

올림픽은 현 세계의 위대한 문화 실천으로서 세계 문화 창조의 다양성, 사람과 자연의 공존, 친환경 문명의 전 지구적 확산, 현 사회의 문화·경제·정치적 상생, 건전한 인격 수양과 육체, 영혼의 조화를 호소한다. 이 모든 것은 인류가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北京人文奥运研究基地 工 作 简 报

第二十六期

(北京人文奥运研究基地代表团赴韩国访问特刊)

2005 · 11 · 13

简 讯

北京人文奥运研究基地代表团赴韩国访问	1
我基地与韩国亚洲文化产业交流财团签订合作协议	2
我基地赴韩国奥林匹克博物馆参观	2
我基地访问韩国文化市民运动中央协议会	3
我基地与韩国 CJ 集团会谈	3
我基地与韩国 SK 集团会谈	4
我基地参观韩国 2002 年世界杯比赛场	4
我基地参观 2005 亚洲 G-Star 游戏博览会	4
我基地观看 2005APEC 亚洲演唱会	5
国内媒体报道基地访韩情况	5

访问手记

域外随笔：韩国的“人文奥运”经验	7
韩国有条“菖蒲河”	8

北京市中关村大街 59 号 中国人民大学 100872
No. 59 ZhongGuanCun, Beijing, Renmin University of China, Zip code: 100872
Tel: +86 10-62511149 +86 10-82050685 Fax: +86 10-62511149

北京人文奥运研究基地代表团赴韩国访问

11月8日至12日,以我校陈雨露副校长为团长,执行主任金元浦教授为副团长的北京人文奥运研究基地代表团,受韩国亚洲文化产业交流财团邀请赴韩国访问。代表团由来自11家研究机构、公司和媒体的19名成员组成。我中心副主任魏娜,工作人员意娜、曾繁文、刘晓帆、王大隆随团前往。在韩国期间,代表团与韩国亚洲文化产业交流财团、韩国CJ集团、韩国SK集团、韩国文化市民运动中央协议会及釜山外国语大学等单位举行了会谈,并考察和参加了韩国奥林匹克博物馆、2002年世界杯比赛场、2005亚洲G-Star游戏博览会和2005APEC亚洲演唱会。

在访问期间,陈雨露副校长代表北京人文奥运研究基地和中国人民大学分别与韩国亚洲文化产业交流财团董事长申铉泽先生签订了长期合作协议和对中国人民大学韩语学习班的捐赠协议。财团将长期为北京人文奥运研究基地介绍韩国奥运会与世界杯比赛筹办的经验,并对基地其他活动的开展提供帮助。

代表团与韩国有关单位就一系列项目达成了合作共识,并将进一步协商和落实。

代表团还通过考察和会谈,学习了韩国1988年汉城奥运会和2002年世界杯市民文明礼仪提升和奥林匹克与民族传统文化弘扬的经验,为基地下一步的研究和实践提供了思路。

此次访问的邀请是今年4月韩国文化观光部陈载水先生和韩国亚洲文化产业交流财团秘书长金良来先生访问我校，与基地主任冯惠玲副校长会见中提出的。在此次访问之后，基地还将进一步与财团和韩国有关单位联络商谈进一步的合作。

我基地与韩国亚洲文化产业交流财团签订合作协议

11月8日晚，北京人文奥运研究基地赴韩访问团与韩国亚洲文化产业交流财团举行了签字仪式，就双方的长期合作签订了意向性协议。我校陈雨露副校长和韩国文化产业交流财团董事长申铉泽先生分别代表双方在协议书上签字。

协议约定，韩国文化产业交流财团将对北京人文奥运研究中心研究课题中涉及韩国1988年汉城奥运会和2002年世界杯筹备的有关资料的收集提供帮助，并将协助基地其他相关项目的顺利实施。

我基地赴韩国奥林匹克博物馆参观

11月9日上午，北京人文奥运研究基地赴韩访问团赴韩国1988年汉城奥运会奥林匹克博物馆参观。访问团一行参观了奥林匹克从古代开始发展的历史，了解了韩国汉城奥运会从申办到提交组委会总体

报告书的全过程，还与馆长交流了整个博物馆运营的经验 and 情况。此次参观对于北京建立类似的奥林匹克纪念和博物场馆有很大的启发意义。

我基地访问韩国文化市民运动中央协议会

11月9日下午，北京人文奥运研究基地赴韩访问团赴韩国文化市民运动中央协议会访问。访问团听取了在韩国2002年世界杯期间韩国如何进行市民素质培训和红魔的介绍，并对感兴趣的话题进行了深入的交流。这对北京2008年奥运会相应方面的准备提供了启发。

我基地与韩国 CJ 集团会谈

访韩期间，北京人文奥运研究基地赴韩访问团赴韩国 CJ 集团 Media 媒体公司访问，并与相关负责人举行会谈。双方就共同感兴趣的项目举行了磋商，初步确定了两个值得进一步讨论的合作内容。并约定由 CJ 集团的北京公司继续与基地保持联系与合作。

我基地与韩国 SK 集团会谈

访韩期间，北京人文奥运研究基地赴韩访问团赴韩国 SK 集团赛我网访问，并与相关负责人举行会谈。双方就共同感兴趣的项目举行了磋商，初步确定了值得进一步讨论的合作内容。并约定由 SK 集团的北京公司继续与基地保持联系与合作。

我基地参观韩国 2002 年世界杯比赛场

访韩期间，北京人文奥运研究基地赴韩访问团参观了韩国 2002 年世界杯比赛场，访问团一行参观了比赛场的各项设施，还与负责人交流了整个博物馆运营的经验 and 情况。

我基地参观 2005 亚洲 G-Star 游戏博览会

访韩期间，北京人文奥运研究基地赴韩访问团参观了由韩国文化观光部主办的 2005 亚洲 G-Star 游戏博览会。该博览会是目前世界最大规模的游戏博览会。此次参观对于国内动漫游戏产业发展有很大的启发。

我基地观看 2005APEC 亚洲演唱会

访韩期间,北京人文奥运研究基地赴韩访问团受韩国亚洲文化产业交流财团的邀请,参加 2005APEC 亚洲演唱会。该演唱会是由亚洲文化产业交流财团主办的,邀请了中国大陆、中国台湾、中国香港、韩国、日本、泰国等国家和地区的多位歌手参加,相当精彩。

国内媒体报道基地访韩情况

此次北京人文奥运研究基地赴韩访问团访韩,得到了国内新华社、《人民日报》等几大媒体的关注。报道情况统计如下表:

序号	媒体名称	报道名称	时 间
1	《参考消息》	《在韩国感受和谐》	2005 年 11 月 17 日
2	《人民日报》	《文化产业呼唤“中国制造”》	2005 年 11 月
3	《竞报》	《感受韩国后奥运时代》	2005 年 12 月 21 日
4	北京电视台	北京人文奥运研究基地代表团访韩纪录片	2005 年 11 月 20 日
5	中国人民大学	《人大副校长陈雨露率北京人文奥运研究基地代表团访问韩国》	2005 年 12 月 15 日
6	人文奥运网	《人大副校长陈雨露率北京	2005 年 12 月 25 日

		人文奥运研究基地代表团访问韩国》	
7	人文奥运网	《管窥韩国的奥运经验》	2005 年 12 月 25 日
8	人文奥运网	《韩国有条菖蒲河》	2005 年 12 月 25 日
9	新华网	《一条河流的变迁：管窥韩国的奥运经验》	2005 年 11 月 17 日
10	人民网	《文化产业呼唤“中国制造”》	2005 年 11 月
11	新浪网	《奥林匹克博物馆成教育基地 感受韩国后奥运时代》	2005 年 12 月 21 日
12	新浪网	《文化产业呼唤中国创造》	2005 年 11 月
13	CCTV 网站	《一条河流的变迁：管窥韩国的奥运经验》	2005 年 11 月 17 日
14	北方网	《一条河流的变迁：管窥韩国的奥运经验》	2005 年 11 月 17 日
15	时讯体育	《感受韩国的“人文奥运”》	2005 年 11 月 21 日
16	收易资讯	《一条河流的变迁：管窥韩国的奥运经验》	2005 年 11 月 17 日
17	腾讯新闻	《一条河流的变迁：管窥韩国的奥运经验》	2005 年 11 月 17 日
18	华夏经纬	《文化产业呼唤中国创造》	2005 年 11 月
19	河南文化市场信息网	《文化产业呼唤中国创造》	2005 年 11 月

访问手记

域外随笔：韩国的“人文奥运”经验

霍小光

日前，记者随北京人文奥运研究基地的学者一起走访了韩国首都首尔（汉城），亲身感受了这个曾经成功举办奥运会的亚洲邻国的奥运文化。

文化市民运动贵在持之以恒

韩国文化市民运动中央协会负责人金先生向记者介绍说，早在1988年举办奥运会之前，首尔就掀起了促进市民积极参与并提高自身素质的主题活动。但非常遗憾的是，奥运会结束后这方面的工作就松懈了。

因此，当首尔在1997年获得2002年世界杯足球赛的举办权后，成立了专门的民间性组织，积极开展文化市民运动并坚持到今天。“协会的成立正是为了推动市民的精神文化建设，为举办世界杯赛营造良好的人文环境。”金先生说。

韩国文化市民运动的核心是倡导以“亲切、清洁、秩序”为主要内容的社会道德风尚。在文化市民运动的感召下，韩国招募了上万人的志愿服务队伍，为到来的外国运动员和游客提供热情周到的服务。在首尔世界杯期间还产生了一支闻名于世的“红魔”拉拉队，他们不仅为韩国队加油，还热情友好地为各国运动队加油助威。当韩国队与土耳其队争夺第三名时，整个韩国身穿“红魔”球衣的球迷人数达到800万。他们走上街头通过大屏幕观看比赛。虽然比赛以韩国队失利告终，但没有发生球迷骚乱事件，“红魔”拉拉队员在解散离去时还主动带走了地上的垃圾。

当被问及政府是如何招募和培训拉拉队员时，金先生回答得干脆利落：政府从未介入，完全是自发自觉的行为。这也许正是他想说明的文化市民运动的成功之处。

与文化市民运动的持续推动形成鲜明对照，记者在韩国打出租车时发现，所遇到的出租车司机都不会讲英语，连最简单的沟通也无法进行。一位韩国朋友告诉记者，在举办奥运会之前，国家也号召出租车司机学习英语，但事实上没有能够坚持下来。

秉持和谐的文化理想

11月11日是北京2008年奥运会倒计时1000天，也是北京奥运会吉祥物发布的日子，在曾经成功举办奥运会的韩国度过这个日子别有意义。隶属于韩国文化观光部的亚洲文化产业交流财团理事长申铉泽先生对记者说：“1988年的奥运会将韩国介绍给了世界。希望北京能够更多地了解首尔奥运会的成功与不足，祝愿北京奥运会获得成功。”

记者在首尔市政厅展览馆看到，迎面的主题墙上用艺术字写着“Hi seoul”（嗨，首尔）。

讲解员介绍说，首尔市政府将其确定为展示城市形象的呼号。“hi”除了表示打招呼外，还与英文“high”（高度）这个词发音相同。“Hi seoul”向世界传达了首尔人民亲切、和谐、团结的文化追求。

作为从事人文奥运研究的学者，中国人民大学人文学教授、北京人文奥运研究基地执行主任金元浦介绍说，《奥林匹克宪章》明确提出：“奥林匹克主义的宗旨是使体育运动为人的和谐发展服务，以促进建立一个维护人的尊严的、和平的社会。”1988年韩国奥运会的口号便表达了“人类和谐”的祈愿。首尔奥林匹克公园的造型大门也被命名为“和平门”。

他说，当代中国，和谐具有更为重要的意义。和平、和睦，和而不同，和衷共济，它与我们坚持的可持续发展，科学发展观，努力建设和谐社会的总体目标完全一致。和谐社会，是一个全面系统的目标，单一的GDP增长，无法完成全面建设小康社会，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的历史重任。而举办奥运会，给了我们落实科学发展观的一个良好契机。

建设人文城市

在首尔市中心，有一条与北京天安门东侧菖蒲河有着类似经历的市内河流——清溪川。它曾经伴随城市建设被掩埋于地下，成为了一条“盖板河”。如今，随着经济社会发展进程中人文精神的彰显又重见天日，成为人与自然和谐相处的见证。

清溪川全长8.14公里。上个世纪30年代之前，它最主要的功能是泄洪并汇集都城内的生活废水流放到汉江。在首尔市政厅展览馆陈列的历史图片上可以看到，清溪川曾是城市平民聚居的地方，沿岸建有很多低矮民房，除了排放生活污水外，生活在这里的居民还将生活垃圾倾倒入河中。那时候的清溪川颇有点“龙须沟”的意思。

为了改变清溪川的卫生状况，上个世纪40年代开始到1978年经过数次工程，在河道内埋设了下水管道，清溪川被盖入地下。同时，为了缓解日益增加的交通压力，上世纪70年代末，首尔市在“盖板”的河道上又建成了高架路。6公里长4车道宽的清溪高架桥一度成为韩国现代化的象征。

经过1988年举办奥运会，2002年举办世界杯足球赛，韩国，特别是首尔市在经济建设上创造了令世人瞩目的“汉江奇迹”。经济的快速发展促使首尔市政府和人民树立了建设更加开放、美好城市的雄心。作为临海城市，同时又有著名的汉江横贯全城，首尔可不是一个缺少水景的城市。但首尔市政府仍果断决定从2002年7月起启动清溪川复原工程。从规划、动员到拆除高架桥、挖掘原有河道，再到重新建设自然和人文景观，经过3年多的努力，今年9月清溪川复原工程完工。经过改造、美化的清溪川为市民和外国观光客提供了休闲的好去处，已经成为首尔市的一张城市名片。

在首尔市政府工作的金兰姬女士说，首尔能不能立足于新世纪，在于它能不能从一个工业城市转变为灵敏感受历史和文化的生态城市。改造清溪川除了展现首尔新的城市文化风貌，平衡人与自然的的关系外，首尔市的决策者还希望这片区域成为吸引外国投资者的中心。

韩国有条“菖蒲河”

霍小光

在韩国首都首尔（汉城）有一条与北京菖蒲河有着类似经历的市内河流——清溪川。它

也曾经伴随城市建设被掩埋于地下，成为了一条“盖板河”。如今，随着经济社会发展进程中人文精神的彰显又重见天日，成为人与自然和谐相处的见证。

静静的清溪川

11月，已入深秋。首尔街头遍栽的银杏树大把地挥撒着叶片，为这座城市穿上了金黄色的风衣。我随大学时的导师，中国人民大学人文学院教授、北京人文奥运研究基地执行主任金元浦一行来到韩国参观交流。抵达首尔的第一天，便被带到了位于汉江北岸市中心的清溪广场，映入眼帘的就是这条静静流淌着的小河。河水清澈如她的名字，在薄薄的夜幕中，闪现着海洋的蓝色，与金黄的银杏树叶遥相辉映。紧临河岸是步行道和人工景致，这里是首尔市民和外国观光客休闲、参观的场所。改造、美化清溪川的工程历时三年于今年9月刚刚完工。清溪川已经成为首尔市的一张城市名片。

清溪川的历史可以追溯到600多年以前。对过于久远的事情我还来不及细细考证，只是通过走马观花和韩国朋友的介绍，对它近几十年的沧桑巨变略有了解。

清溪川，从首尔市的仁王山和百岳山南边山脚发源，向东经过东大门在中浪川汇集后流入汉江，全长8.14公里。在上个世纪30年代之前，清溪川最重要的功能是泄洪并汇集都城内的生活废水流放到汉江。在首尔市政厅展览馆陈列的历史图片上可以看到，清溪川曾是城市平民聚居的地方，沿岸建有很多低矮民房，除了排放生活污水外，生活在这里的居民还将生活垃圾倾倒入河中。那时候的清溪川颇有点“龙须沟”的意思。

为了改变清溪川的卫生状况，上个世纪40年代开始到1978年经过数次工程，在河道内埋设了下水管道，清溪川被盖入地下，从人们的视野中渐渐消失。同时，为了缓解日益增加的交通压力，上世纪70年代末，首尔市在“盖板”的河道上又建成了高架路。6公里长4车道宽的清溪高架桥一度成为韩国现代化的象征。

经过1988年举办奥运会，2002年举办世界杯足球赛，韩国，特别首都首尔市开始进入高速发展时期，在经济建设上创造了令世人瞩目的“汉江奇迹”。经济的快速发展促使首尔市政府和市民树立了建设更加开放、美好城市的雄心。作为临海城市，同时又有著名的汉江横贯全城，首尔可不是一个缺少水景的城市。但首尔市政府仍果断决定从2002年7月起启动清溪川复原工程。从规划、动员到拆除高架桥、挖掘原有河道，再到重新建设自然和人文景观，经过3年多的努力，2005年9月清溪川复原工程完工。

但是在规划方案出台的时候也有过不少反对的声音：拆掉高架路会加剧交通拥堵，拆迁道路两边的店铺、工厂会给经营者带来经济损失。“但这毕竟是一件为大多数人欢迎的事情”，陪同我们的中文翻译郑贵玉小姐以一名首尔市民的身份表达了她的想法。

首尔市政府网站中文版负责人金兰姬女士介绍说，首尔能不能立足于新世纪，在于它能不能从一个工业城市转变为灵敏感受历史和文化的生态城市。改造清溪川除了展现首尔新的城市文化风貌，平衡人与自然的系统外，首尔市的决策者还希望这片区域成为吸引外国投资者的中心。最终的目标是使首尔成为具有吸引力的商业大都市，能与上海、东京、北京匹敌。

我的脑海中一下子联想起位于天安门东侧的菖蒲河公园。作为北京历史上皇城内的重要组成水系——菖蒲河也是在被封盖了40余年之后于2002年重露容颜的。

将城市内的河流埋入地下是发展与建设的需要，而将它复原并建成人们文化休闲的场所，也是发展与建设的需要。所不同的是，经济发展已不是唯一的目标。今天，人们需要更加贴近自然，需要在更高的层面上返回历史。

清溪川在过去600年长久的岁月中和首尔人民同甘共苦，善尽人民生活和文化根基的角色，默默地走到如今。

嗨，首尔

清溪广场是复原后的清溪川景观工程的起点，离此地不远便是首尔市政厅。走进市政厅展览馆，迎面的主题墙上用艺术字写着“Hi seoul”（嗨，首尔）。讲解员介绍说，首尔市政府将其确定为展示城市形象的呼号。“hi”除了表示打招呼外，还与英文“high”（高度）这个词发音相同。“Hi seoul”向世界传达了首尔人民亲切、和谐、团结的文化追求。

在韩国期间，通过走访韩国文化市民运动中央协会，加深了对韩国人民秉持的这些文化精神的理解。这个协会成立于1997年，那年首尔获得了2002年世界杯足球赛的举办权。“协会的成立正是为了推动市民的精神文化建设，为举办世界杯赛营造良好的人文环境。”协会秘书长Jin Dae lhee介绍说。

他告诉记者，早在1988年举办奥运会之前，首尔就掀起了促进市民积极参与并提高自身素质的主题活动。但非常遗憾的是，奥运会结束后这方面的工作就松懈了。相比之下，日本在举办东京奥运会之前推出的“亲切运动”就没有因为奥运会的落幕而中止，对培育和树立日本民众亲切、友好的文化形象起到了积极作用。

因此，在举办世界杯赛之前的几年间，韩国重新开始推动文化市民运动并坚持到今天。文化市民运动的核心就是倡导以“亲切、清洁、秩序”为主要内容的社会道德风尚。

在文化市民运动中央协会播放的公益宣传片中记者看到：亲切，是提倡邻里和睦，对外国人面带微笑，热情友好；清洁，是倡导对环境卫生的维护，特别是大力开展改造和美化公共厕所的活动，现在韩国每年都要评选最佳公厕；秩序，则是从排队这个最基本的行为规范讲起，画面展现的是面对多台自动取款机，如果排成若干队伍，由于每个队列的前进速度不同，这样会大大降低排队等候的效率，如果所有人只排成一队，无论哪台取款机空闲下来，后面等候的人依次上前，则可以兼顾公平与效率。

这位秘书长介绍说，文化市民运动对于首尔市成功举办世界杯赛起到了重要作用。他举例说，在文化市民运动的感召下，韩国招募了上万人的志愿服务队伍，为到来的外国运动员和游客提供热情周到的服务。在首尔世界杯期间还产生了一支闻名于世的“红魔”拉拉队，他们不仅为韩国队加油，还热情友好地为各国运动队加油助威。当韩国队与土耳其队争夺第三名时，整个韩国身穿“红魔”球衣的球迷人数达到800万。他们走上街头通过大屏幕观看比赛。虽然比赛以韩国队失利告终，但没有发生球迷骚乱事件，“红魔”拉拉队员在解散离去时还主动带走了地上的垃圾。

当被问及政府是如何招募和培训拉拉队员时，秘书长回答得干脆利落：政府从未介入，完全是自发自觉的行为。这也许正是他想说明的文化市民运动的成功之处。

对于主人所做的这些“宣传”，当然无法在几天的时间中一一印证。但当我离开首尔的前夜却有机会从一件小事中得到一些体验。那晚，我和同伴一起到位于清溪川下游韩国最大的服装批发市场东大门市场购物。虽已凌晨1点多，但路上仍是车水马龙，休闲购物的人流穿梭不息。当我们准备返回酒店的时候，却发现用韩文写有酒店名称、地址的卡片不见了。我们只好试着用英语与出租车司机交流，但先后拦下四辆出租车却没有一位司机能够用英语对话。虽然周围人声鼎沸，可我的内心感到一阵无助与茫然。这时，一对年轻情侣正好从身边走过，我迫不及待地地上前打招呼，尽管他们的英语比我的还要蹩脚，但总算是明白了我们是迷路的中国游客。此时，我看到的他们脸上露出的微笑与公益宣传片中亲切的表情毫无二致。我们只能提供出酒店的英文名称和前台电话，显然他们也并不熟悉这家酒店。于是，那个小伙子掏出手机与酒店取得联系，在问清地址后又帮助我们拦下出租车，与我们热情地挥手道别。此时已是凌晨2点钟了。

问路，是一件小事，但对于一个在异国他乡迷路的外国人来说，却令人难忘。而碰到的那几位出租车司机一点英语都说不上来也使我耿耿于怀，以至于第二天专门向导游提起这件

事。他告诉我，在举办奥运会之前，国家也号召出租车司机学习英语，但事实上没有能够坚持下来。我想，北京也面临着同样的问题。无论是为了提高市民素质而开展的公益道德宣传，还是全市掀起的市民学习英语热潮，如果只是为了奥运会一时之用，恐怕就是一种短视的行为。

同一个世界，同一个梦想

从清溪川说到奥运会，并未离题。两者都表达着人类对“和谐”的祈愿。11月11日，是北京2008年奥运会倒计时1000天，也是北京奥运会吉祥物发布的日子。在曾经成功举办过奥运会的亚洲近邻韩国度过这个纪念日，别有一番滋味。隶属于韩国文化观光部的亚洲文化产业交流财团理事长申铉泽先生对记者说：“1988年的奥运会将韩国介绍给了世界。希望北京能够更多地了解首尔奥运会的成功与不足，祝愿北京奥运会获得成功。”

“同一个世界，同一个梦想”，这一响亮的北京奥运会主题口号是在尊重多元文化并存的前提下，对奥林匹克运动精神的伟大颂扬。作为从事人文奥运研究的学者，金元浦教授对我谈了他的看法：当代世界，人类面临着巨大的困境与冲突。这主要表现为人与自然、人与社会、人与人、文明与文明以及人的灵魂与体魄之间的冲突。《奥林匹克宪章》明确提出：“奥林匹克主义的宗旨是使体育运动为人的和谐发展服务，以促进建立一个维护人的尊严的、和平的社会。”

当代中国，和谐具有更为重要的意义。和平、和睦，和而不同，和衷共济，它与我们坚持的可持续发展，科学发展观，努力建设和谐社会的总体目标完全一致。和谐社会，是一个全面系统的目标，单一的GDP增长，无法完成全面建设小康社会，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的历史重任。而举办奥运会，给了我们落实科学发展观的一个良好契机。

奥林匹克运动作为当代世界的伟大文化实践，诉诸世界文化创造的多样性，诉诸人与自然的和谐共存和绿色文明的全球推动，诉诸当代社会的文化与经济、政治的相辅相成，诉诸人的健全人格的培育和躯体与灵魂的协调，这一切对于构建人类和谐社会都具有重要的意义。

奥林匹克博物馆成教育基地 感受韩国后奥运时代

<http://sports.sina.com.cn> 2005年12月21日11:12 竞报

17年的光阴足以改变世上很多事情,而举办过1988年奥运会的首尔(汉城)在17年后又给韩国人带来了什么?记者日前与北京人文奥运研究基地的学者踏上了这片亚洲邻国的土地,切身感受了“韩式人文奥运”。

奥林匹克博物馆成教育基地

奥林匹克博物馆位于首尔市中心区,与奥林匹克公园相映成趣,交通十分便利。这座4层的建筑物与周围的高楼大厦相比,外形像一个“矮胖子”。

一进博物馆大门,首先映入眼帘的是大厅中铜制的圣火雕塑,一层展厅中一组奥运会历史上公认的著名运动员雕塑栩栩如生,非常引人注目。展厅中不断播放的1988年奥运会期间的精彩比赛片断,让人仿佛又回到了那个令人激动的时刻。博物馆利用声、光、电等高科技手段惟妙惟肖地展示了奥运会从起源到1988年汉城奥运会的历史。

博物馆的讲解员介绍,奥林匹克博物馆是于2001年建成对外开放的,占地总面积约250平方米,是世界上仅有的6座奥林匹克博物馆之一。奥林匹克博物馆的一位负责人特别说明,建设这座博物馆也是记录奥运会在韩国成功举办的历史,给韩国留下一份特殊的奥运礼物。

参观奥林匹克博物馆要购买门票,而奥林匹克公园是免费开放的。令人印象深刻的是,来公园游玩和到博物馆的观众中大多是少年儿童,这里显然已成为韩国的“奥林匹克教育基地”。

2002年

世界杯体育场最赚钱

“我们是韩国体育场中唯一赚钱的。”在参观2002年韩日世界杯主赛场时,体育场的一位主要负责人骄傲地向北京人文奥运研究基地的成员“抖搂”着自己的生意经。

韩日世界杯主赛场从外表看与国内的体育场没有什么区别。世界杯结束后,体育场管理方充分利用场地交通便利、停车位充足等特点,在地下一层开设特大型超级市场,据说生意非常好。而体育场的会议室、办公室、舞台等设施全部被租出去了,因为很多人就是冲着世界杯这份名气来的。但这位负责人说,这块场地只对职业球队开放,不接待社会上的业余球队。

“中国北京的许多官员也到我们这里来考察过。”也许正是出于这种原因,这位负责人还专门开放了总统专用电梯和总统观看比赛的黄金位置,让我们享受了一回总统待遇。

就在参观韩日世界杯主赛场近尾声之时,记者却在体育场内部世界杯展厅的大幅照片上看到一行行“某某到此一游”的汉字。这一意外发现,令所有北京人文奥运研究基地的成员

不是滋味。

韩国“的哥”不会英语

在首尔打车时,记者发现所遇到的韩国“的哥”都不会英语,即使简单的日常会话也无法沟通。一位曾到中国

留学的韩国翻译说,在奥运会举办前,政府也曾号召韩国的

出租车司机学英语,但实际上并没有推广起来。外国游客一般是通过酒店的前台要车,并用韩语写好下榻酒店的名称。

韩国文化市民运动中央协会负责人介绍说,1988年举办奥运会之前,首尔曾掀起了促进市民积极参与并提高自身素质的主题活动,效果还是相当显著的。在介绍这些活动的宣传册里,记者发现,这种宣传都是以家庭为单位的,宣传如何与邻居、同事和睦相处,让人感觉非常亲切,也很容易接受。

宣传片的最后一句话令人印象深刻:要对每一位来韩国的外国人友好并抱以微笑,要让人们有到家的安全感。这也正是记者在韩国的5天行程中所真实感受到的。

文/本报记者 白强

<http://sports.sina.com.cn/s/2005-12-21/1112737405s.shtml>

[学校主页](#) | [综合新闻](#) | [专题新闻](#) | [图片新闻](#) | [视频新闻](#) | [人大之子](#) | [通知公告](#) | [活动看板](#) | [传媒人大](#) | [教育资讯](#) | [在线广播](#)

您的位置: [首页](#) > [综合](#) > [时政要闻](#) > 当前页

人大副校长陈雨露率北京人文奥运研究基地代表团访问韩国

(2005-12-15)



应韩国文化观光部和韩国亚洲文化产业交流财团的邀请, 11月8日至12日, 中国人民大学副校长陈雨露率北京人文奥运研究基地代表团赴韩国访问, 代表团由来自国内11家研究机构、公司和媒体共19名成员组成。陈雨露副校长任代表团团长, 人大人文奥运研究基地执行主任金元浦任副团长。

在韩国期间, 代表团与韩国亚洲文化产业交流财团、韩国CJ集团、韩国SK集团、韩国文化市民运动中央协议会及釜山外国语大学等单位举行了会谈, 并考察和参加了韩国奥林匹克博物馆、2002年世界杯比赛场、2005亚洲G-Star游戏博览会和2005APEC亚洲演唱会等。

陈雨露副校长分别代表北京人文奥运研究基地和中国人民大学与韩国亚洲文化产业交流财团董事长申铉泽先生签订了长期合作协议和对中国人民大学韩语学习班的捐赠协议, 财团将长期为北京人文奥运研究基地介绍韩国奥运会与世界杯比赛筹办的经验, 并对基地其他活动的开展提供帮助。

代表团与韩国有关单位就一系列项目达成了合作共识,并将进一步协商和落实。代表团还通过考察和会谈,学习了韩国1988年汉城奥运会和2002年世界杯市民文明礼仪提升和奥林匹克与民族传统文化弘扬的经验,为基地下一步的研究和实践提供了思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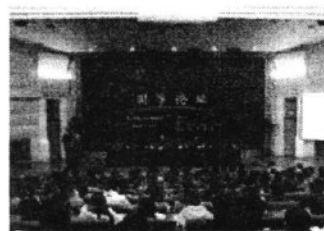
在此次访问之后,北京人文奥运研究基地还将进一步与韩国亚洲文化产业交流财团及韩国有关单位联络商谈进一步的合作。



中国人民大学隆重召开先进性教育活动总结大会



中关村科技园区管委会与人大大学共建文化科技园



建立窗口树立品牌 人大面向社会开设论坛

中国人民大学征兵工作正式展开 (组图) 纪念大师诞辰 “金秋京韵”唱响 (组图)

人大新闻网版权与免责声明:

- ① 凡本网未注明其他出处的作品, 版权均属于人大新闻中心, 未经本网授权不得转载、摘编或利用其它方式使用上述作品。已经本用作品的, 应在授权范围内使用, 并注明“来源: 人大新闻网”。违反上述声明者, 本网将追究其相关责任。

② 凡本网注明其他来源的作品, 均转载自其它媒体, 转载目的在于传递更多信息, 并不代表本网对其负责。

③ 有关作品内容、版权和其它问题请与本网联系。

※ 联系方式: 人民大学新闻中心 电话: 010—62511553

Copyright © 2001-2002 news.ruc.edu.cn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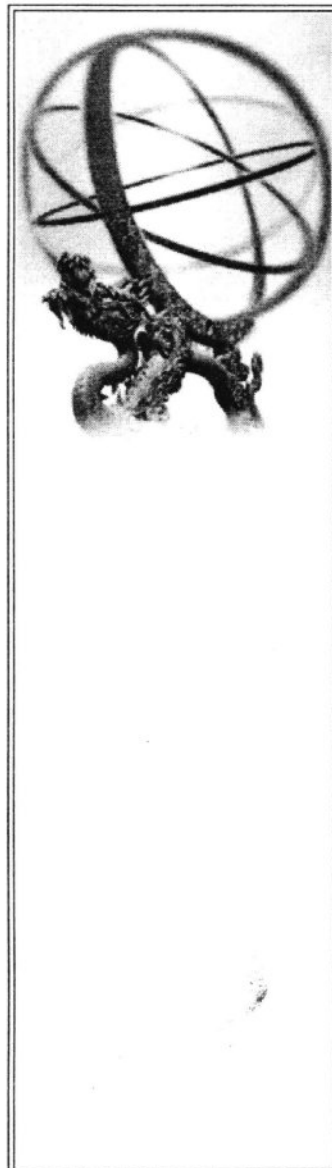
中国人民大学新闻中心主办

中国人民大学 网络新闻社 承办

技术支持: 南京大汉网络公司 慧聪国际咨询 慧聪软件中心



首 页 新 闻 中心简介 专家团队 研究成果 读书频道 图话北京 奥运知识 人文奥运社区 月



人大副校长陈雨露率北京人文奥运研究基地代表团访问韩国

作者: 发布时间: 2005-12-25 17:46:12

应韩国文化观光部和韩国亚洲文化产业交流财团的邀请, 11月8日至12日, 中国人民大学陈雨露率北京人文奥运研究基地代表团赴韩国访问, 代表团由来自国内11家研究机构、媒体共19名成员组成。陈雨露副校长任代表团团长, 人大人文奥运研究基地执行主任金元团长。

在韩国期间, 代表团与韩国亚洲文化产业交流财团、韩国CJ集团、韩国SK集团、化市民运动中央协议会及釜山外国语大学等单位举行了会谈, 并考察和参加了韩国奥博物馆、2002年世界杯比赛场、2005亚洲G-Star游戏博览会和2005APEC亚洲等。

陈雨露副校长分别代表北京人文奥运研究基地和中国人民大学与韩国亚洲文化产业团董事长申铉泽先生签订了长期合作协议和对人民大学韩语学习班的捐赠协议, 财团为北京人文奥运研究基地介绍韩国奥运会与世界杯比赛筹办的经验, 并对基地其他活展提供帮助。

代表团与韩国有关单位就一系列项目达成了合作共识, 并将进一步协商和落实。代通过考察和会谈, 学习了韩国1988年汉城奥运会和2002年世界杯市民文明礼仪提升匹克与民族传统文化弘扬的经验, 为基地下一步的研究和实践提供了思路。

在此次访问之后, 北京人文奥运研究基地还将进一步与韩国亚洲文化产业交流财团有关单位联络商谈进一步的合作。

» 全部互联网中关于人文奥运研究基地的结果共1657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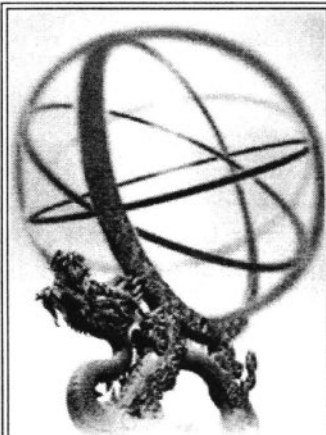
中国人民大学人文奥运研究中心

地址: 中国·北京·中关村大街59号 邮政编码: 100872

电话: 86-10-62511149 传真: 86-10-62511149



首 页 新 闻 中心简介 专家团队 研究成果 读书频道 图话北京 奥运知识 人文奥运社区 月



域外随笔：韩国的“人文奥运”经验

作者：霍小光 发布时间：2005-12-25 17:48:50

日前，记者随北京人文奥运研究基地的学者一起走访了韩国首尔（汉城），亲身感受了这个曾经成功举办奥运会的亚洲邻国的奥化。

（小标题）文化市民运动贵在持之以恒

韩国文化市民运动中央协会负责人金先生向记者介绍说，早1988年举办奥运会之前，首尔就掀起了促进市民积极参与并提高素质的主题活动。但非常遗憾的是，奥运会结束后这方面的工作懈了。

因此，当首尔在1997年获得2002年世界杯足球赛的举办权后立了专门的民间性组织，积极开展文化市民运动并坚持到今天。会的成立正是为了推动市民的精神文化建设，为举办世界杯赛营好的人文环境。”金先生说。

韩国文化市民运动的核心是倡导以“亲切、清洁、秩序”为内容的社会道德风尚。在文化市民运动的感召下，韩国招募了上的志愿服务队伍，为到来的外国运动员和游客提供热情周到的服在首尔世界杯期间还产生了一支闻名于世的“红魔”拉拉队，他仅为韩国队加油，还热情友好地为各国运动队加油助威。当韩国土耳其队争夺第三名时，整个韩国身穿“红魔”球衣的球迷人数800万。他们走上街头通过大屏幕观看比赛。虽然比赛以韩国队告终，但没有发生球迷骚乱事件，“红魔”拉拉队员在解散离去主动带走了地上的垃圾。

当被问及政府是如何招募和培训拉拉队员时，金先生回答得利落：政府从未介入，完全是自发自觉的行为。这也许正是他想的文化市民运动的成功之处。

与文化市民运动的持续推动形成鲜明对照，记者在韩国打出时发现，所遇到的出租车司机都不会讲英语，连最简单的沟通也进行。一位韩国朋友告诉记者，在举办奥运会之前，国家也号召车司机学习英语，但事实上没有能够坚持下来。

（小标题）秉持和谐的文化理想

11月11日是北京2008年奥运会倒计时1000天，也是北京奥运祥物发布的日子，在曾经成功举办奥运会的韩国度过这个日子别义。隶属于韩国文化观光部的亚洲文化产业交流财团理事长申铉生对记者说：“1988年的奥运会将韩国介绍给了世界。希望北京更多地了解首尔奥运会的成功与不足，祝愿北京奥运会获得成功

记者在首尔市政厅展览馆看到，迎面的主题墙上用艺术字写“Hi seoul”（嗨，首尔）。讲解员介绍说，首尔市政府将其确为展示城市形象的呼号。“hi”除了表示打招呼外，还与英文“high”（高度）这个词发音相同。“Hi seoul”向世界传达了人民亲切、和谐、团结的文化追求。

作为从事人文奥运研究的学者，中国人民大学人文学教授、人文奥运研究基地执行主任金元浦介绍说，《奥林匹克宪章》明出：“奥林匹克主义的宗旨是使体育运动为人的和谐发展服务，进建立一个维护人的尊严的、和平的社会。”1988年韩国奥运会口号便表达了“人类和谐”的祈愿。首尔奥林匹克公园的造型大被命名为“和平门”。

他说，当代中国，和谐具有更为重要的意义。和平、和睦，不同，和衷共济，它与我们坚持的可持续发展，科学发展观，努设和谐社会的总体目标完全一致。和谐社会，是一个全面系统的标，单一的GDP增长，无法完成全面建设小康社会，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的历史重任。而举办奥运会，给了我们落实科学发展观的良好契机。

（小标题）建设人文城市

在首尔市中心，有一条与北京天安门东侧菖蒲河有着类似经历内河流——清溪川。它也曾经伴随城市建设被掩埋于地下，成为了“盖板河”。如今，随着经济社会发展进程中人文精神的彰显又重

日，成为人与自然和谐相处的见证。

清溪川全长8.14公里。上个世纪30年代之前，它最主要的功能泄洪并汇集都城内的生活废水流放到汉江。在首尔市政厅展览馆的历史图片上可以看到，清溪川曾是城市平民聚居的地方，沿岸很多低矮民房，除了排放生活污水外，生活在这里的居民还将生垃圾倾倒入河中。那时候的清溪川颇有点“龙须沟”的意思。

为了改变清溪川的卫生状况，上个世纪40年代开始到1978年数次工程，在河道内埋设了下水管道，清溪川被盖入地下。同时为了缓解日益增加的交通压力，上世纪70年代末，首尔市在“盖板河道上又建成了高架路。6公里长4车道宽的清溪高架桥一度成为现代化的象征。

经过1988年举办奥运会，2002年举办世界杯足球赛，韩国，是首尔市在经济建设上创造了令世人瞩目的“汉江奇迹”。经济迅速发展促使首尔市政府和人民树立了建设更加开放、美好城市的心。作为临海城市，同时又有著名的汉江横贯全城，首尔可不是缺少水景的城市。但首尔市政府仍果断决定从2002年7月起启动清溪川复原工程。从规划、动员到拆除高架桥、挖掘原有河道，再到建设自然和人文景观，经过3年多的努力，今年9月清溪川复原完工。经过改造、美化的清溪川为市民和外国观光客提供了休闲的去处，已经成为首尔市的一张城市名片。

在首尔市政府工作的金兰姬女士说，首尔能不能立足于新世纪，在于它能否从一个工业城市转变为灵敏感受历史和文化的生态城市。改造清溪川除了首尔新的城市文化风貌，平衡人与自然的的关系外，首尔市的决策者还希望这区域成为吸引外国投资者的中心。（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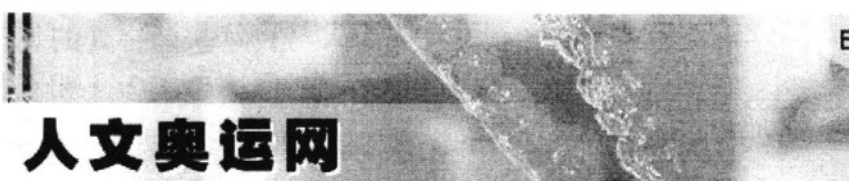
» 全部互联网中关于文化市民运动的结果共9840000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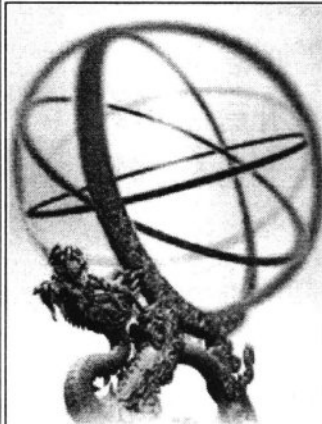
中国人民大学人文奥运研究中心

地址：中国·北京·中关村大街59号 邮政编码：100872

电话：86-10-62511149 传真：86-10-62511149



首 页 新 闻 中心简介 专家团队 研究成果 读书频道 图话北京 奥运知识 人文奥运社区 联



韩国有条“菖蒲河”

作者: 霍小光 发布时间: 2005-12-25 17:50:19

在韩国首都首尔（汉城）有一条与北京菖蒲河有类似经历的市内河流——清溪川。它也曾经伴随城市建设被掩埋于地下，成为了一条“盖板河”。如今随着经济社会发展进程中人文精神的彰显又重见天日，成为人与自然和谐相处的见证。

静静的清溪川

11月，已入深秋。首尔街头遍栽的银杏树大把地挥撒着叶片，这座城市穿上了金黄色的风衣。我随大学时的导师，中国人民大学文学院教授、北京人文奥运研究基地执行主任金元浦一行来到韩国观交流。抵达首尔的第一天，便被带到了位于汉江北岸市中心的清广场，映入眼帘的就是这条静静流淌着的小河。河水清澈如她的名字，在薄薄的夜幕中，闪现着海洋的蓝色，与金黄的银杏树叶遥相映。紧临河岸是步行道和人工景致，这里是首尔市民和外国观光客闲、参观的场所。改造、美化清溪川的工程历时三年于今年9月刚完工。清溪川已经成为首尔市的一张城市名片。

清溪川的历史可以追溯到600多年以前。对过于久远的事情我来不及细细考证，只是通过走马观花和韩国朋友的介绍，对它近几十年的沧桑巨变略有了解。

清溪川，从首尔市的仁王山和百岳山南边山脚发源，向东经过大门在中浪川汇集后流入汉江，全长8.14公里。在上个世纪30年代前，清溪川最重要的功能是泄洪并汇集都城内的生活废水流放到汉江。在首尔市政厅展览馆陈列的历史图片上可以看到，清溪川曾是市平民聚居的地方，沿岸建有很多低矮民房，除了排放生活污水外

生活在这里的居民还将生活垃圾倾倒入河中。那时候的清溪川有点“龙须沟”的意思。

为了改变清溪川的卫生状况，上个世纪40年代开始到1978年连续数次工程，在河道内埋设了下水管道，清溪川被盖入地下，从人们视野中渐渐消失。同时，为了缓解日益增加的交通压力，上世纪70年代末，首尔市在“盖板”的河道上又建成了高架路。6公里长4车道的清溪高架桥一度成为韩国现代化的象征。

经过1988年举办奥运会，2002年举办世界杯足球赛，韩国，特别是首都首尔市开始进入高速发展时期，在经济建设上创造了令世人瞩目的“汉江奇迹”。经济的快速发展促使首尔市政府和市民树立了建设更加开放、美好城市的雄心。作为临海城市，同时又有著名的汉江贯穿全城，首尔可不是一个缺少水景的城市。但首尔市政府仍果断地从2002年7月起启动清溪川复原工程。从规划、动员到拆除高架桥挖掘原有河道，再到重新建设自然和人文景观，经过3年多的努力，2005年9月清溪川复原工程完工。

但是在规划方案出台的时候也有过不少反对的声音：拆掉高架桥会加剧交通拥堵，拆迁道路两边的店铺、工厂会给经营者带来经济损失。“但这毕竟是一件为大多数人欢迎的事情”，陪同我们的中文翻译郑贵玉小姐以一名首尔市民的身份表达了她的想法。

首尔市政府网站中文版负责人金兰姬女士介绍说，首尔能不能立足于新世纪，在于它能不能从一个工业城市转变为灵敏感受历史和文化生态的城市。改造清溪川除了展现首尔新的城市文化风貌，平衡人与自然的关系外，首尔市的决策者还希望这片区域成为吸引外国投资者的中心。最终的目标是使首尔成为具有吸引力的商业大都市，自上海、东京、北京匹敌。

我的脑海中一下子联想起位于天安门东侧的菖蒲河公园。作为北京历史上皇城内的重要组成水系——菖蒲河也是在被封盖了40年之后于2002年重露容颜的。

将城市内的河流埋入地下是发展与建设的需要，而将它复原并成人们文化休闲的场所，也是发展与建设的需要。所不同的是，发展已不是唯一的目标。今天，人们需要更加贴近自然，需要在夏

的层面上返回历史。

清溪川在过去600年长久的岁月中和首尔人民同甘共苦，善尽生活和文化的角色，默默地走到如今。

嗨，首尔

清溪广场是复原后的清溪川景观工程的起点，离此地不远便是首尔市政厅。走进市政厅展览馆，迎面的主题墙上用艺术字写着“Hi seoul”（嗨，首尔）。讲解员介绍说，首尔市政府将其确定为展示城市形象的呼号。“hi”除了表示打招呼外，还与英文“high”（高度）这个词发音相同。“Hi seoul”向世界传达了首尔人民亲切、和谐、团结的文化追求。

在韩国期间，通过走访韩国文化市民运动中央协会，加深了对韩国人民秉持的这些文化精神的理解。这个协会成立于1997年，那年首尔获得了2002年世界杯足球赛的举办权。“协会的成立正是为了推动市民的精神文化建设，为举办世界杯赛营造良好的人文环境。”该秘书长Jin Dae Ihee介绍说。

他告诉记者，早在1988年举办奥运会之前，首尔就掀起了促进市民积极参与并提高自身素质的主题活动。但非常遗憾的是，奥运会结束后这方面的工作就松懈了。相比之下，日本在举办东京奥运会之前推出的“亲切运动”就没有因为奥运会的落幕而中止，对培育和树立日本民众亲切、友好的文化形象起到了积极作用。

因此，在举办世界杯赛之前的几年间，韩国重新开始推动文化市民运动并坚持到今天。文化市民运动的核心就是倡导以“亲切、清洁、秩序”为主要内容的社会道德风尚。

在文化市民运动中央协会播放的公益宣传片中记者看到：亲切是提倡邻里和睦，对外国人面带微笑，热情友好；清洁，是倡导环境卫生的维护，特别是大力开展改造和美化公共厕所的活动，现在韩国每年都要评选最佳公厕；秩序，则是从排队这个最基本的行为讲起，画面展现的是面对多台自动取款机，如果排成若干队伍，每个队列的前进速度不同，这样会大大降低排队等候的效率，如果有人只排成一队，无论哪台取款机空闲下来，后面等候的人依次

前,则可以兼顾公平与效率。

这位秘书长介绍说,文化市民运动对于首尔市成功举办世界杯起到了重要作用。他举例说,在文化市民运动的感召下,韩国招募上万人的志愿服务队伍,为到来的外国运动员和游客提供热情周到服务。在首尔世界杯期间还产生了一支闻名于世的“红魔”拉拉队。他们不仅为韩国队加油,还热情友好地为各国运动队加油助威。当韩国队与土耳其队争夺第三名时,整个韩国身穿“红魔”球衣的球迷数达到800万。他们走上街头通过大屏幕观看比赛。虽然比赛以韩国队失利告终,但没有发生球迷骚乱事件,“红魔”拉拉队员在解围去时还主动带走了地上的垃圾。

当被问及政府是如何招募和培训拉拉队员时,秘书长回答得干脆利落:政府从未介入,完全是自发自觉的行为。这也许正是他想说的文化市民运动的成功之处。

对于主人所做的这些“宣传”,当然无法在几天的时间中一一验证。但当我离开首尔的前夜却有机会从一件小事中得到一些体验。晚,我和同伴一起到位于清溪川下游韩国最大的服装批发市场东大门市场购物。虽已凌晨1点多,但路上仍是车水马龙,休闲购物的人穿梭不息。当我们准备返回酒店的时候,却发现用韩文写有酒店名称、地址的卡片不见了。我们只好试着用英语与出租车司机交流,先后拦下四辆出租车却没有一位司机能够用英语对话。虽然周围人声鼎沸,可我的内心感到一阵无助与茫然。这时,一对年轻情侣正从我身边走过,我迫不及待地上前打招呼,尽管他们的英语比我的还要蹩脚,但总算是明白了我们是迷路的中国游客。此时,我看到的他们脸上露出的微笑与公益宣传片中亲切的表情毫无二致。我们只能提供酒店的英文名称和前台电话,显然他们也并不熟悉这家酒店。于是那个小伙子掏出手机与酒店取得联系,在问清地址后又帮助我们拦出租车,与我们热情地挥手道别。此时已是凌晨2点钟了。

问路,是一件小事,但对于一个在异国他乡迷路的外国人来说却令人难忘。而碰到的那几位出租车司机一点英语都说不上来也耿耿于怀,以至于第二天专门向导游提起这件事。他告诉我,在2002年奥运会之前,国家也号召出租车司机学习英语,但事实上没有能够

持下来。我想,北京也面临着同样的问题。无论是为了提高市民素质而开展的公益道德宣传,还是全市掀起的市民学习英语热潮,果只是为了奥运会一时之用,恐怕就是一种短视的行为。

同一个世界,同一个梦想

从清溪川说到奥运会,并未离题。两者都表达着人类对“和平的祈愿。11月11日,是北京2008年奥运会倒计时1000天,也是北京奥运会吉祥物发布的日子。在曾经成功举办过奥运会的亚洲近邻韩国过这个纪念日,别有一番滋味。隶属于韩国文化观光部的亚洲文化工业交流财团理事长申铉泽先生对记者说:“1988年的奥运会将韩国介绍给了世界。希望北京能够更多地了解首尔奥运会的成功与不足,愿北京奥运会获得成功。”

“同一个世界,同一个梦想”,这一响亮的北京奥运会主题口号是在尊重多元文化并存的前提下,对奥林匹克运动精神的伟大颂扬。作为从事人文奥运研究的学者,金元浦教授对我谈了他的看法:“同一个世界,人类面临着巨大的困境与冲突。这主要表现为人与自然、人与社会、人与人、文明与文明以及人的灵魂与体魄之间的冲突。《奥林匹克宪章》明确提出:“奥林匹克主义的宗旨是使体育运动为人的和谐发展服务,以促进建立一个维护人的尊严的、和平的社会。”

当代中国,和谐具有更为重要的意义。和平、和睦,和而不同和衷共济,它与我们坚持的可持续发展,科学发展观,努力建设和谐社会的目标完全一致。和谐社会,是一个全面系统的目标,单靠GDP增长,无法完成全面建设小康社会,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的历史重任。而举办奥运会,给了我们落实科学发展观的一个良好契机。

奥林匹克运动作为当代世界的伟大文化实践,诉诸世界文化创造的多样性,诉诸人与自然的和谐共存和绿色文明的全球推动,诉诸当代社会的文化与经济、政治的相辅相成,诉诸人的健全人格的培育与躯体与灵魂的协调,这一切对于构建人类和谐社会都具有重要的意义。(完)

► 全部互联网中关于首尔奥运会的结果共151000条;



中国人民大学人文奥运研究中心

地址: 中国·北京·中关村大街59号 邮政编码: 100872

电话: 86-10-62511149 传真: 86-10-62511149

一条河流的变迁：管窥韩国的奥运经验

www.XINHUANET.com 2005年11月17日 12:07:19 来源: 新华网

【字体: 大 中 小】 【打印本稿】 【读后感言】 【进入论坛】 【推荐  】 【关闭】

韩国媒体：中国借奥运展示和平形象

霍小光

在韩国首都首尔（原译汉城）有一条与北京菖蒲河有着类似经历的市内河流——清溪川。它也曾经伴随城市建设被掩埋于地下，成为了一条“盖板河”。如今，随着经济社会发展进程中人文精神的彰显又重见天日，成为人与自然和谐相处的见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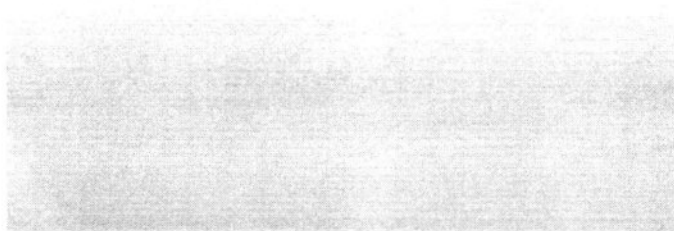
静静的清溪川

11月，已入深秋。首尔街头遍栽的银杏树大把地挥撒着叶片，为这座城市穿上了金黄色的风衣。我随大学时的导师，中国人民大学人文学院教授、北京人文奥运研究基地执行主任金元浦一行来到韩国参观交流。抵达首尔的第一天，便被带到了位于汉江北岸市中心的清溪广场，映入眼帘的就是这条静静流淌着的小河。河水清澈如她的名字，在薄薄的夜幕中，闪现着海洋的蓝色，与金黄的银杏树叶遥相辉映。紧临河岸是步行道和人工景致，这里是首尔市民和外国观光客休闲、参观的场所。改造、美化清溪川的工程历时三年于今年9月刚刚完工。清溪川已经成为首尔市的一张城市名片。

清溪川的历史可以追溯到600多年以前。对过于久远的事情我还来不及细细考证，只是通过走马观花和韩国朋友的介绍，对它近几十年的沧桑巨变略有了解。

清溪川，从首尔市的仁王山和百岳山南边山脚发源，向东经过东大门在中浪川汇集后流入汉江，全长8.14公里。在上个世纪30年代之前，清溪川最

重要的功能是泄洪并汇集都城内的生活废水流放到汉江。在首尔市政厅展览馆陈列的历史图片上可以看到，清溪川曾是城市平民聚居的地方，沿岸建有很多低矮民房，除了排放生活污水外，生活在这里的居民还将生活垃圾倾倒入河中。那时候的清溪川颇有点“龙须沟”的意思。



为了改变清溪川的卫生状况，上个世纪40年代开始到1978年经过数次工程，在河道内埋设了下水管道，清溪川被盖入地下，从人们的视野中渐渐消失。同时，为了缓解日益增加的交通压力，上世纪70年代末，首尔市在“盖板”的河道上又建成了高架

路。6公里长4车道宽的清溪高架桥一度成为韩国现代化的象征。

经过1988年举办奥运会，2002年举办世界杯足球赛，韩国，特别首都首尔市开始进入高速发展时期，在经济建设上创造了令世人瞩目的“汉江奇迹”。经济的快速发展促使首尔市政府和市民树立了建设更加开放、美好城市的雄心。作为临海城市，同时又有著名的汉江横贯全城，首尔可不是一个缺少水景的城市。但首尔市政府仍果断决定从2002年7月起启动清溪川复原工程。从规划、动员到拆除高架桥、挖掘原有河道，再到重新建设自然和人文景观，经过3年多的努力，2005年9月清溪川复原工程完工。

但是在规划方案出台的时候也有过不少反对的声音：拆掉高架路会加剧交通拥堵，拆迁道路两边的店铺、工厂会给经营者带来经济损失。“但这毕竟是一件为大多数人欢迎的事情”，陪同我们的中文翻译郑贵玉小姐以一名首尔市民的身份表达了她的想法。

首尔市政府网站中文版负责人金兰姬女士介绍说，首尔能不能立足于新世纪，在于它能不能从一个工业城市转变为灵敏感受历史和文化的生态城市。改造清溪川除了展现首尔新的城市文化风貌，平衡人与自然的的关系外，首尔市的决策者还希望这片区域成为吸引外国投资者的中心。最终的目标是使首尔成为具有吸引力的商业大都市，能与上海、东京、北京匹敌。

我的脑海中一下子联想起位于天安门东侧的菖蒲河公园。作为北京历史上皇城内的重要组成水系——菖蒲河也是在被封盖了40余年之后于2002年重露容颜的。

将城市内的河流埋入地下是发展与建设的需要，而将它复原并建成人们文化休闲的场所，也是发展与建设的需要。所不同的是，经济发展已不是唯一的目标。今天，人们需要更加贴近自然，需要在更高

的层面上返回历史。

清溪川在过去600年长久的岁月中和首尔人民同甘共苦，善尽人民生活和文化根基的角色，默默地走到如今。

下一页 >>

(责任编辑:汪东)

招商加盟 精品项目 特别推荐
www.u88.cn

★

想开家特色小店
有品味有效益有前景

相关新闻/图片:

- 韩国统一部长官：韩朝有望2020年实现经济联盟
- 韩国宣布承认中国市场经济地位
- 卢武铉宣布：韩国承认中国的市场经济地位
- 胡锦涛会见韩国友好团体负责人
- 胡锦涛抵首尔 对韩国进行国事访问
- 韩国媒体：中国借奥运展示和平形象
- 韩国科技创新的奥秘

发表评论： 用户名

密码

☒ 匿名

发送

查看评论

请注意：

- 遵守国家有关法律、法规，尊重网上道德，承担一切因您的行为而直接或间接引起的法律责任。
- 新华网拥有管理笔名和留言的一切权利。

NarrowAD 加入窄告>> [历史] [全部]

在线订购，戴尔送优惠！

万网一企业上网，致胜之道！

[答疑]

★清华大学总裁领导力培训
经清华教育培训管理处批准 卓越
管理理念精选核心课程

★为快乐生活有我-林中鸟
倡导现在生活时尚 创造一流休闲
品牌

★湟源县人民政府信息网
节假日旅游的好去处 湟源旅游
您的选择

◇从北京一赴各地旅游
天下美景任您选，应有尽有 在中
海国旅报名，价格从优

频道精选



布兰妮向《美国周刊》索赔2000
万 指责其虚假报道



有多少生命可以重来 全球794个
物种濒临灭绝



“花花公子”老板死后要与梦露
做伴



韩国总统卢武铉和机器人即兴扭
手腕

新华网版权与免责声明：

①

凡本网注明“来源：新华网”的所有作品，版权均属于新华社，未经本网授权不得转载、摘编或利用其它方式使用上述作品。已经本

网授权使用作品的，应在授权范围内使用，并注明“来源：新华网”。违反上述声明者，本网将追究其相关法律责任。

② 凡本网注明“来源：XXX（非新华网）”的作品，均转载自其它媒体，转载目的在于传递更多信息，并不代表本网赞同其观点和对其真实性负责。

③ 如因作品内容、版权和其它问题需要同本网联系的，请在30日内进行。

※ 联系方式：新华网管理协调部 电话：010--63070922

Copyright © 2000 - 2005 XINHUANET.com All Rights Reserved. 制作单位：新华通讯社网络中心

版权所有 新华网

参考消息

CANKAO XIAOXI 新华通讯社主办

国内统一刊号: CN11-0048 参考消息报社出版

2005年11月17日

星期四
第17078期

2005年11月17日

参考消息

域外写真 · 13·

在韩国首都首尔(汉城)有一条与北京菖蒲河有着类似经历的市内河流——清溪川。它也曾伴随城市建设被埋于地下,成为了一条“盖板河”。如今,随着经济社会发展进程中人文精神的彰显又重见天日,成为人与自然和谐相处的见证。

小河见证和谐

11月,已入深秋。首尔街头遍栽的银杏树大把地挥洒着叶片,为这座城市穿上了金黄色的风衣。我随大学时的导师,中国人民大学人文学院教授、北京人文奥运研究基地执行主任金元浦一行来到韩国参观交流。抵达首尔的第一天,我们一行便被带到了位于汉江北岸市中心的清溪广场,映入眼帘的就是这条静静流淌着的小河。河水清澈如她的名字清溪川,在薄雾的夜幕中,闪烁着海洋的蓝色,与金黄的银杏树叶遥相辉映。紧邻河岸是步行道和人工景观,成为当地市民和外国观光客休闲、参观的场所。改造、美化清溪川的工程历时三年,清溪川已成为首尔市的一张城市名片。

清溪川,从首尔市的仁王山和百岳山南边山脚发源,向东经过东大门在中浪川汇集后流入汉江,全长8.14公里。在上个世纪30年代之前,清溪川最重要的功能是泄洪并汇集都城内的生活废水流放到汉江。在首尔市政厅展览馆陈列的历史图片上可以看到,清溪川曾是城市平民聚居的地方,沿岸建有很多低矮民房,除了排放生活污水外,生活在这里的居民还将生活垃圾倾倒入河中。那时候的清溪川颇有“龙须沟”的意思。为了改变清溪川的卫生状况,上个世纪40年代开始到1978年经过数次工程,在河道内埋设了下水管道,清溪川被盖入地下,从人们的视野中渐渐消失。同时,为了缓解日益增加的交通压力,上世纪70年代末,首尔市在“盖板”的河道上又建成了高架路,6公里长4车道宽的清溪高架桥一度成为韩国现代化的象征。

经过1988年奥运会和2002年世界杯足球赛,韩国开始进入高速发展时期,在经济建设上创造了令人瞩目的“汉江奇迹”。经济的快速发展促使首尔市政府和市民树立了建设更加开放、美好城市的雄心。作为临海城市,同时又有著名的汉江横贯全城,首尔可不是一个缺少水景的城市。但首尔市政府仍果断决定从2002年7月起启动清溪川复原工程。从规划、动员到拆除高架桥、挖掘原有河道,再到重新建设自然和人文景观,经过3年多的努力,2005年9月清溪川复原工程完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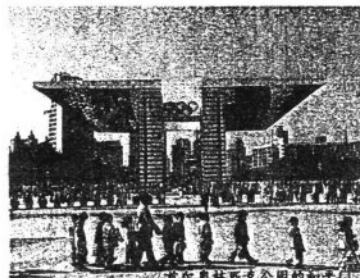
但是,在规划方案出台的时候也有过不少反对的声音:拆掉高架路会加剧交通拥堵,拆迁道路两边的店铺、工厂会给经营者带来经济损失。“但这毕竟是一件为大多数人欢迎的事情”,陪同我们的翻译郑贵玉小姐以一名首尔市民的身份表达了她的想法。

首尔市政府网站中文版负责人金兰姬女士介绍说,首尔能不能立足于新世纪,在于它能不能从一个工业城市转变为灵敏感受历史和文化的生态城市。改造清溪川除了展现首尔新的城市文化风貌,平衡人与自然的关系外,首尔市的决策者还希望这里成为吸引外国投资者的中心。

我脑海中一下子联想起位于天安门东侧的菖蒲河公园。作为北京历史上皇城内的组成水系——菖蒲河也是在被封盖了40余年之后于2002年重露容颜的。将城市内的河流埋入地下是发展与建设的需要,而将它复原并建成人们文化休闲的场所,也是发展与建设的需要。所不同的是,经济发展已不是唯一的目

在韩国感受和谐

□本报记者 霍小光



标。今天,人们需要更加贴近自然,需要在更高的层面上返回历史。

政府倡导和谐

清溪广场是复原后的清溪川景观工程的起点,离此地不远便是首尔市政厅。走进市政厅展览馆,迎面的主题墙上用艺术字写着“Hi Seoul”(嗨,首尔)。讲解员介绍说,首尔市政府将其确定为展示城市形象的符号。“hi”除了表示打招呼外,还与英文“high”(高度)这个词发音相同。“Hi Seoul”向世界传达了首尔人民亲切、和谐、团结的文化追求。

在韩国期间,我们走访了韩国文化市民运动中央协会,加深了对韩国人民秉持的这些文化精神的理解。这个协会成立于1997年,那年首尔获得了2002年世界杯足球赛的举办权。“协会的成立正是为了推动市民的精神文化建设,为举办世界杯赛营造良好的人文环境。”协会官员介绍说。

他告诉记者,早在1988年举办奥运会之前,首尔就掀起了促进市民积极参与并提高自身素质的主题活动。但非常遗憾的是,奥运会结束后这方面的工作就松懈了。因此,在举办世界杯赛之前的几年间,韩国重新开始推动文化市民运动并坚持到今天。文化市民运动的核心就是倡导以“亲切、清洁、秩序”为主要内容的社会道德风尚。

在文化市民运动中央协会播放的公益宣传片中记者看到:亲切——提倡邻里和睦,对外国人面带微笑,热情友好;清洁——倡导对环境卫生的维护,特别是大力开展改造和美化公共厕所的活动,现在韩国每年都要评选最佳公厕;秩序——则是从排队这个最基本的行为规范做起,画面展现的是面对多台自动取款机,所有人自觉排成一队,无论哪台取款机空闲下来,后面等候的人依次上前,兼顾了公平与效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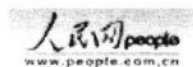
协会的官员向我们介绍说,文化市民运动对于首尔成功举办世界杯赛起到了重要作用。他举例说,在文化市民运动的感召下,韩国招募了上万人的志愿服务队伍,为到来的外国运动员和游客提供热情周到的服务。

小事反映和谐

对于主人所做的这些“宣传”,当然无法在几天的时间中一一印证。但当我离开首尔的前夜却有机会从一件小事中得到一些体验。那晚,我和同伴一起到位于清溪川下游韩国最大的服装批发市场东大门市场购物。虽已凌晨1点多,但路上仍是车水马龙,休闲购物的人流穿梭不息。当我们准备返回酒店的时候,却发现用韩文写着酒店名称、地址的卡片不见了。我们只好试着用英语与出租车司机交流,但先后拦下四辆出租车却没有一位司机能够用英语对话。虽然周围人声鼎沸,可我的内心感到一阵无助与茫然。

这时,一对年轻情侣正好从身边走过,我迫不及待地上前打招呼,尽管他们的英语比我的还要蹩脚,但总算算是明白了我们是迷路的中国人。此时,我看到他们脸上露出的微笑与公益宣传片中亲切的表情毫无二致。我们只能提供出酒店的英文名称和前台电话,显然他们也并不熟悉这家酒店。于是,那个小伙子掏出手机与酒店取得联系,在问清地址后又帮助我们拦下出租车,与我们热情地挥手道别。此时已是凌晨2点钟了。

问路,是一件小事,但对于一个在异国他乡迷路的外国人来说,却令人难忘。而碰到的那位出租车司机一点英语都说不上来也使我耿耿于怀,以至于第二天专门向导游提起这件事。他告诉我,在举办奥运会之前,国家也号召出租车司机学习英语,但事实上没有能够坚持下来。(摄影 霍小光)



人民网 >> 观点 >> 报系言论

(人民时评)

人民日报：文化产业呼唤“中国创造”

李舫

2005年11月02日07:59

【字号 大 中 小】 【留言】 【论坛】 【打印】 【关闭】

11月1日在成都举办的第四届中韩日文化产业论坛透露,日本动画产业已占据世界市场份额的62%,与动漫有关的市场规模已超过2万亿日元,动漫产业成为日本第三大产业。

20年前,如果有人说跳舞、音乐、体育是经济的一个组成部分,那似乎是天方夜谭。但今天,以电影、电视、MTV、世界杯足球赛、奥林匹克运动会为代表的娱乐文化已毫无疑问地成为当今世界经济中的支柱产业,文化产业的增长速度已远远高于全球经济的整体发展速度,被称为21世纪的黄金产业。

在这个巨大产业面前,各个国家都在打造自己的文化产业平台。美国创造了世界最强大的文化产业,媒体娱乐业年出口900亿美元,文化产业是与军事工业并驾齐驱、主导美国经济的支柱产业。英国现已成为动画、游戏、音乐、出版、广播等行业强国,文化产业占GDP的8.2%。

在亚洲,20世纪末期,日本明确制定了振兴文化产业的国家战略,文化产业市场规模迅猛发展,成为仅次于美国的第二大文化产业强国。韩国政府也提出了“文化立国”的战略口号,文化产业实现了跨越式发展,一跃而成世界第五大文化产业强国。

这是一场文化市场的竞争。目前世界文化市场可谓四分天下:美国占有市场总额的42.6%,欧洲33.9%,亚洲、南太平洋国家19%,其他国家占有剩余的份额。而在19%的市场份额中,除去日本的10%和韩国的3.5%,留给中国的确已“不多矣”。

与此同时,许多国家已经看到,中国将成为21世纪世界最大的文化消费市场。美国、加拿大、欧盟国家纷纷抢滩登陆,在电影、电视等优势项目上增加力度;日本、韩国也看到中国巨大的文化市场空间,电影、电视、卡通,乃至游戏机、玩具、花道等等,都在伺机而动。

中国的文化产业面临着前所未有的历史性机遇与挑战。虽然,我国文化产业以平均20%的年增长率递增,增长速度明显高于国民经济增长速度,文化产业已成为我国经济发展的一个新的增长点,但与美国、日本等文化产业强国相比,中国的文化产业整体上仍处于发展初期——

从产业结构来看,文化产业仍以传统的演出业、影视业、音像业、广告业等为主体,创意设计业、动漫产业、网络游戏业等数字内容产业仍处于起步状态;产业技术的开发能力还很薄弱,在国际分工中仍处于产业链的中低端;计划体制下的条块分割使得文化市场存在着部门壁垒、行业壁垒、地域壁垒;文化企业普遍不熟悉国际市场的要求和规则,缺乏全球营销渠道和能力。

在这样的情势下,发展我们的文化产业确实已不仅是一种现实的迫切要求,更是一种重要的国家文化方略。

两个星期以前，神舟六号在浩瀚的宇宙空间中写下了雄壮的“中国创造”，向全世界显示了中国高新科技与自主研发的实力。今天，文化产业的崛起也期待着更多的“中国创造”。

更多《人民时评》请登录人民网[www. people. com. cn](http://www.people.com.cn)

《人民日报》（2005年11月02日 第五版）

来源：人民网-《人民日报》

（责任编辑：黄维）

相关专题

- 人民日报重要言论库
- 网上第一评——人民时评

[我要纠错](#) [查看留言](#) [强国社区](#) [给编辑写信](#) [E-mail推荐:](#)

Go

文化产业呼唤中国创造

<http://finance.sina.com.cn> 2005年11月02日 13:41 人民网-人民日报

李舫

11月1日在成都举办的第四届中韩日文化产业论坛透露,日本动画产业已占据世界市场份额的62%,与动漫有关的市场规模已超过2万亿日元,动漫产业成为日本第三大产业。

20年前,如果有人说跳舞、音乐、体育是经济的一个组成部分,那似乎是天方夜谭。但今天,以电影、电视、MTV、世界杯足球赛、奥林匹克运动会为代表的娱乐文化已毫无疑问地成为当今世界经济中的支柱产业,文化产业的增长速度已远远高于全球经济的整体发展速度,被称为21世纪的黄金产业。

在这个巨大产业面前,各个国家都在打造自己的文化产业平台。美国创造了世界最强大的文化产业,媒体娱乐业年出口900亿美元,文化产业是与军事工业并驾齐驱、主导美国经济的支柱产业。英国现已成为动画、游戏、音乐、出版、广播等行业强国,文化产业占GDP的8.2%。

在亚洲,20世纪末期,日本明确制定了振兴文化产业的国家战略,文化产业市场规模迅猛发展,成为仅次于美国的第二大文化产业强国。韩国政府也提出了“文化立国”的战略口号,文化产业实现了跨越式发展,一跃而成世界第五大文化产业强国。

这是一场文化市场的竞争。目前世界文化市场可谓四分天下:美国占有市场总额的42.6%,欧洲33.9%,亚洲、南太平洋国家19%,其他国家占有剩余的份额。而在19%的市场份额中,除去日本的10%和韩国的3.5%,留给中国的确已“不多矣”。

与此同时,许多国家已经看到,中国将成为21世纪世界最大的文化消费市场。美国、加拿大、欧盟国家纷纷

抢滩登陆,在电影、电视等优势项目上增加力度;日本、韩国也看到中国巨大的文化市场空间,电影、电视、卡通,乃至游戏机、玩具、花道等等,都在伺机而动。

中国的文化产业面临着前所未有的历史性机遇与挑战。虽然,我国文化产业以平均20%的年增长率递增,增长速度明显高于国民经济增长速度,文化产业已成为我国经济发展的一个新的增长点,但与美国、日本等文化产业强国相比,中国的文化产业整体上仍处于发展初期——

从产业结构来看,文化产业仍以传统的演出业、影视业、音像业、广告业等为主体,创意设计业、动漫产业、

网络游戏业等数字内容产业仍处于起步状态;产业技术的开发能力还很薄弱,在国际分工中仍处于产业链的中低端;计划体制下的条块分割使得文化市场存在着部门壁垒、行业壁垒、地域壁垒;文化企业普遍不熟悉国际市场的要求和规则,缺乏全球营销渠道和能力。

在这样的情势下,发展我们的文化产业确实已不仅是一种现实的迫切要求,更是一种重

要的国家文化方略。

两个星期以前,

神舟六号在浩瀚的宇宙空间中写下了雄壮的“中国创造”,向全世界显示了中国高新科技与自主研发的实力。今天,文化产业的崛起也期待着更多的“中国创造”。

更多精彩评论,更多传媒视点,更多传媒人风采,尽在新浪财经新评谈栏目,欢迎访问新浪财经新评谈栏目。

<http://finance.sina.com.cn/review/20051102/13412087822.shtml>

2005 CCTV.com 年网络广告报价

■ 首页 > 新闻频道 > 财经新闻 > 正文

一条河流的变迁：管窥韩国的奥运经验

央视国际 (2005年11月17日 14:30)

霍小光

在韩国首都首尔（原译汉城）有一条与北京菖蒲河有着类似经历的市内河流——清溪川。它也曾经伴随城市建设被掩埋于地下，成为了一条“盖板河”。如今，随着经济社会发展进程中人文精神的彰显又重见天日，成为人与自然和谐相处的见证。

静静的清溪川

11月，已入深秋。首尔街头遍栽的银杏树大把地挥撒着叶片，为这座城市穿上了金黄色的风衣。我随大学时的导师，中国人民大学人文学院教授、北京人文奥运研究基地执行主任金元浦一行来到韩国参观交流。抵达首尔的第一天，便被带到了位于汉江北岸市中心的清溪广场，映入眼帘的就是这条静静流淌着的小河。河水清澈如她的名字，在薄薄的夜幕中，闪现着海洋的蓝色，与金黄的银杏树叶遥相辉映。紧临河岸是步行道和人工景致，这里是首尔市民和外国观光客休闲、参观的场所。改造、美化清溪川的工程历时三年于今年9月刚刚完工。清溪川已经成为首尔市的一张城市名片。

清溪川的历史可以追溯到600多年以前。对过于久远的事情我还来不及细细考证，只是通过走马观花和韩国朋友的介绍，对它近几十年的沧桑巨变略有了解。

清溪川，从首尔市的仁王山和百岳山南边山脚发源，向东经过东大门在中浪川汇集后流入汉江，全长8.14公里。在上个世纪30年代之前，清溪川最重要的功能是泄洪并汇集都城内的生活废水流放到汉江。在首尔市政厅展览馆陈列的历史图片上可以看到，清溪川曾是城市平民聚居的地方，沿岸建有很多低矮民房，除了排放生活污水外，生活在这里的居民还将生活垃圾倾倒入河中。那时候的清溪川颇有点“龙须沟”的意思。

为了改变清溪川的卫生状况，上个世纪40年代开始到1978年经过数次工程，在河道内埋设了下水管道，清溪川被盖入地下，从人们的视野中渐渐消失。同时，为了缓解日益增加的交通压力，上世纪70年代末，首尔市在“盖板”的河道上又建成了高架路。6公里长4车道宽的清溪高架桥一度成为韩国现代化的象征。

经过1988年举办奥运会，2002年举办世界杯足球赛，韩国，特别首都首尔市开始进入高速发展时期，在经济建设上创造了令世人瞩目的“汉江奇迹”。经济的快速发展促使首尔市政府和市民树立了建设更加开放、美好城市的雄心。作为临海城市，同时又有著名的汉江横贯全城，首尔可不是一个缺少水景的城市。但首尔市政府仍果断决定从2002年7月起启动清溪

相关专题

- 用央视通看直播定单
- 《治安管理处罚法》
集宣传作品
- 48小时新闻排行
- 一周新闻排行
- 网评天下论坛
- 国新办、国台办、
外交部新闻发布会
- 《每周质量报告》

资讯信息

- 无漫游●打长途几分
- 长途——包月打！
- 生产木炭赚钱新途径
- 月月赚十万新韩国女
- 虫虫新女装漂亮才靓
- 万元开店每月赚5万
- 50个好赚钱的精品项
- 学生卡通文具店，稳赚
- 开小店，赚大钱！
- 关注●百莲凯美容业
- 名品服饰 一折供货
- 名品分类搜索财富快
- 特色餐饮，如此火爆
- 1.2万办厂年利超百
- 黛丽诺美容院生日酬
- 低风险投资高利润巨
- 低价补钙席卷全国
- 轻松治疗——皮肤痒
- 新年迎财神平安赚百
- 肾病、尿毒症怎么治

川复原工程。从规划、动员到拆除高架桥、挖掘原有河道，再到重新建设自然和人文景观，经过3年多的努力，2005年9月清溪川复原工程完工。

但是在规划方案出台的时候也有过不少反对的声音：拆掉高架路会加剧交通拥堵，拆迁道路两边的店铺、工厂会给经营者带来经济损失。“但这毕竟是一件为大多数人欢迎的事情”，陪同我们的中文翻译郑贵玉小姐以一名首尔市民的身份表达了她的想法。

首尔市政府网站中文版负责人金兰姬女士介绍说，首尔能不能立足于新世纪，在于它能不能从一个工业城市转变为灵敏感受历史和文化的生态城市。改造清溪川除了展现首尔新的城市文化风貌，平衡人与自然的系统外，首尔市的决策者还希望这片区域成为吸引外国投资者的中心。最终的目标是使首尔成为具有吸引力的商业大都市，能与上海、东京、北京匹敌。

我的脑海中一下子联想起位于天安门东侧的菖蒲河公园。作为北京历史上皇城内的的重要组成部分水系——菖蒲河也是在被封盖了40余年之后于2002年重露容颜的。

将城市内的河流埋入地下是发展与建设的需要，而将它复原并建成人们文化休闲的场所，也是发展与建设的需要。所不同的是，经济发展已不是唯一的目标。今天，人们需要更加贴近自然，需要在更高的层面上返回历史。

清溪川在过去600年长久的岁月中和首尔人民同甘共苦，善尽人民生活和文化根基的角色，默默地走到如今。

 本篇文章共有 3 页，当前为第 1 页

1 2 3 下一页 >>

 打印本页  转发好友  关闭本窗口

[CCTV介绍](#) | [CCTV.com介绍](#) | [央视人力资源储备库](#) | [网站地图](#) | [站长信箱](#) | [版权声明](#) | [联系我们](#) | [广告服务](#)

中国中央电视台版权所有
建议使用：1024*768分辨率，16位以上颜色、
Netscape6.0、IE5.0以上版本浏览器和中文大字符集
系统集成：长天集团施贝尔公司
网页设计：中视河图





新闻前线 | 娱乐风暴 | IT浪潮 | 旅游e站 | 游戏情结 | 滨海新区 | 北方论坛 | 泰达足球
时代财经 | 体育节拍 | 汽车新地 | 求职招聘 | 军事博览 | 红桥在线 | 北方博客 | 企业建站
天津频道 | 科技无限 | 置业旺角 | 健康之家 | 时尚呼吸 | 分类广告 | English | 北方网点



您当前的位置：北方网 > 新闻前线 > 国际 > 全球纵横 正文

一条河流的变迁：管窥韩国的奥运经验

【专题】展望2008年奥运

<http://www.enorth.com.cn> 2005-11-17 13:44

中华人民共和国和大韩民国联合公报(全文)

刘淇谈北京奥运开幕式 有13家创意方案进入评审

北京奥运餐饮制服亮相上海(图)

在韩国首都首尔(原译汉城)有一条与北京菖蒲河有着类似经历的市内河流—清溪川。它也曾经伴随城市建设被掩埋于地下，成为了一条“盖板河”。如今，随着经济社会发展进程中人文精神的彰显又重见天日，成为人与自然和谐相处的见证。

静静的清溪川

11月，已入深秋。首尔街头遍栽的银杏树大把地挥撒着叶片，为这座城市穿上了金黄色的风衣。我随大学时的导师，中国人民大学人文学院教授、北京人文奥运研究基地执行主任金元浦一行来到韩国参观交流。抵达首尔的第一天，便被带到了位于汉江北岸市中心的清溪广场，映入眼帘的就是这条静静流淌着的小河。河水清澈如她的名字，在薄薄的夜幕中，闪现着海洋的蓝色，与金黄的银杏树叶遥相辉映。紧临河岸是步行道和人工景致，这里是首尔市民和外国观光客休闲、参观的场所。改造、美化清溪川的工程历时三年于今年9月刚刚完工。清溪川已经成为首尔市的一张城市名片。

清溪川的历史可以追溯到600多年以前。对过于久远的事情我还来不及细细考证，只是通过走马观花和韩国朋友的介绍，对它近几十年的沧桑巨变略有了解。

清溪川，从首尔市的仁王山和百岳山南边山脚发源，向东经过东大门在中浪川汇集后流入汉江，全长8.14公里。在上个世纪30年代之前，清溪川最重要的功能是泄洪并汇集都城内的生活废水流放到汉江。在首尔市政厅展览馆陈列的历史图片上可以看到，清溪川曾是城市平民聚居的地方，沿岸建有很多低矮民房，除了排放生活污水外，生活在这里的居民还将生活垃圾倾倒入河中。那时候的清溪川颇有点“龙须沟”的意思。

为了改变清溪川的卫生状况，上个世纪40年代开始到1978年经过数次工程，在河道内埋设了下水管道，清溪川被盖入地下，从人们的视野中渐渐消失。同时，为了缓解日益增加的交通压力，上世纪70年代末，首尔市在“盖板”的河道上又建成了高架路。6公里长4车道宽的清溪高架桥一度成为韩国现代化的象征。

经过1988年举办奥运会，2002年举办世界杯足球赛，韩国，特别首都首尔市开始进入高速发展时期，在经济建设上创造了令世人瞩目的“汉江奇迹”。经济的快速发展促使首

尔市政府和市民树立了建设更加开放、美好城市的雄心。作为临海城市，同时又有著名的汉江横贯全城，首尔可不是一个缺少水景的城市。但首尔市政府仍果断决定从2002年7月起启动清溪川复原工程。从规划、动员到拆除高架桥、挖掘原有河道，再到重新建设自然和人文景观，经过3年多的努力，2005年9月清溪川复原工程完工。

但是在规划方案出台的时候也有过不少反对的声音：拆掉高架路会加剧交通拥堵，拆迁道路两边的店铺、工厂会给经营者带来经济损失。“但这毕竟是一件为大多数人欢迎的事情”，陪同我们的中文翻译郑贵玉小姐以一名首尔市民的身份表达了她的想法。

首尔市政府网站中文版负责人金兰姬女士介绍说，首尔能不能立足于新世纪，在于它能不能从一个工业城市转变为灵敏感受历史和文化的生态城市。改造清溪川除了展现首尔新的城市文化风貌，平衡人与自然的关系外，首尔市的决策者还希望这片区域成为吸引外国投资者的中心。最终的目标是使首尔成为具有吸引力的商业大都市，能与上海、东京、北京匹敌。

我的脑海中一下子联想起位于天安门东侧的菖蒲河公园。作为北京历史上皇城内的重要组成部分水系—菖蒲河也是在被封盖了40余年之后于2002年重露容颜的。

将城市内的河流埋入地下是发展与建设的需要，而将它复原并建成人们文化休闲的场所，也是发展与建设的需要。所不同的是，经济发展已不是唯一的目标。今天，人们需要更加贴近自然，需要在更高的层面上返回历史。

清溪川在过去600年长久的岁月中和首尔人民同甘共苦，善尽人民生活和文化根基的角色，默默地走到如今。

嗨，首尔

清溪广场是复原后的清溪川景观工程的起点，离此地不远便是首尔市政厅。走进市政厅展览馆，迎面的主题墙上用艺术字写着“Hi seoul”（嗨，首尔）。讲解员介绍说，首尔市政府将其确定为展示城市形象的呼号。“hi”除了表示打招呼外，还与英文“high”（高度）这个词发音相同。“Hi seoul”向世界传达了首尔人民亲切、和谐、团结的文化追求。

在韩国期间，通过走访韩国文化市民运动中央协会，加深了对韩国人民秉持的这些文化精神的理解。这个协会成立于1997年，那年首尔获得了2002年世界杯足球赛的举办权。“协会的成立正是为了推动市民的精神文化建设，为举办世界杯赛营造良好的人文环境。”协会秘书长Jin Dae Ihee介绍说。

他告诉记者，早在1988年举办奥运会之前，首尔就掀起了促进市民积极参与并提高自身素质的主题活动。但非常遗憾的是，奥运会结束后这方面的工作就松懈了。相比之下，日本在举办东京奥运会之前推出的“亲切运动”就没有因为奥运会的落幕而中止，对培育和树立日本民众亲切、友好的文化形象起到了积极作用。

因此，在举办世界杯赛之前的几年间，韩国重新开始推动文化市民运动并坚持到今天。文化市民运动的核心就是倡导以“亲切、清洁、秩序”为主要内容的社会道德风尚。

在文化市民运动中央协会播放的公益宣传片中记者看到：亲切，是提倡邻里和睦，对外国人面带微笑，热情友好；清洁，是倡导对环境卫生的维护，特别是大力开展改造和美化公共厕所的活动，现在韩国每年都要评选最佳公厕；秩序，则是从排队这个最基本的行

为规范讲起,画面展现的是面对多台自动取款机,如果排成若干队伍,由于每个队列的前进速度不同,这样会大大降低排队等候的效率,如果所有人只排成一队,无论哪台取款机空闲下来,后面等候的人依次上前,则可以兼顾公平与效率。

这位秘书长介绍说,文化市民运动对于首尔市成功举办世界杯赛起到了重要作用。他举例说,在文化市民运动的感召下,韩国招募了上万人的志愿服务队伍,为到来的外国运动员和游客提供热情周到的服务。在首尔世界杯期间还产生了一支闻名于世的“红魔”拉拉队,他们不仅为韩国队加油,还热情友好地为各国运动队加油助威。当韩国队与土耳其队争夺第三名时,整个韩国身穿“红魔”球衣的球迷人数达到800万。他们走上街头通过大屏幕观看比赛。虽然比赛以韩国队失利告终,但没有发生球迷骚乱事件,“红魔”拉拉队员在解散离去时还主动带走了地上的垃圾。

当被问及政府是如何招募和培训拉拉队员时,秘书长回答得干脆利落:政府从未介入,完全是自发自觉的行为。这也许正是他想说明的文化市民运动的成功之处。

对于主人所做的这些“宣传”,当然无法在几天的时间中一一印证。但当我离开首尔的前夜却有机会从一件小事中得到一些体验。那晚,我和同伴一起到位于清溪川下游韩国最大的服装批发市场东大门市场购物。虽已凌晨1点多,但路上仍是车水马龙,休闲购物的人流穿梭不息。当我们准备返回酒店的时候,却发现用韩文写有酒店名称、地址的卡片不见了。我们只好试着用英语与出租车司机交流,但先后拦下四辆出租车却没有一位司机能够用英语对话。虽然周围人声鼎沸,可我的内心感到一阵无助与茫然。这时,一对年轻情侣正好从身边走过,我迫不及待地地上前打招呼,尽管他们的英语比我的还要蹩脚,但总算明白了我们是迷路的中国游客。此时,我看到的他们脸上露出的微笑与公益宣传片中亲切的表情毫无二致。我们只能提供出酒店的英文名称和前台电话,显然他们也并不熟悉这家酒店。于是,那个小伙子掏出手机与酒店取得联系,在问清地址后又帮助我们拦下出租车,与我们热情地挥手道别。此时已是凌晨2点钟了。

问路,是一件小事,但对于一个在异国他乡迷路的外国人来说,却令人难忘。而碰到的那几位出租车司机一点英语都说不上来也使我耿耿于怀,以至于第二天专门向导游提起这件事。他告诉我,在举办奥运会之前,国家也号召出租车司机学习英语,但事实上没有能够坚持下来。我想,北京也面临着同样的问题。无论是为了提高市民素质而开展的公益道德宣传,还是全市掀起的市民学习英语热潮,如果只是为了奥运会一时之用,恐怕就是一种短视的行为。

同一个世界,同一个梦想

从清溪川说到奥运会,并未离题。两者都表达着人类对“和谐”的祈愿。11月11日,是北京2008年奥运会倒计时1000天,也是北京奥运会吉祥物发布的日子。在曾经成功举办过奥运会的亚洲近邻韩国度过这个纪念日,别有一番滋味。隶属于韩国文化观光部的亚洲文化产业交流财团理事长申铉泽先生对记者说:“1988年的奥运会将韩国介绍给了世界。希望北京能够更多地了解首尔奥运会的成功与不足,祝愿北京奥运会获得成功。”

“同一个世界,同一个梦想”,这一响亮的北京奥运会主题口号是在尊重多元文化并存的前提下,对奥林匹克运动精神的伟大颂扬。作为从事人文奥运研究的学者,金元浦教授对我谈了他的看法:当代世界,人类面临着巨大的困境与冲突。这主要表现为人与自然、人与社会、人与人、文明与文明以及人的灵魂与体魄之间的冲突。《奥林匹克宪章》明确提出:“奥林匹克主义的宗旨是使体育运动为人的和谐发展服务,以促进建立一个维护人的尊严的、和平的社会。”

当代中国，和谐具有更为重要的意义。和平、和睦，和而不同，和衷共济，它与我们坚持的可持续发展，科学发展观，努力建设和谐社会的总体目标完全一致。和谐社会，是一个全面系统的目标，单一的GDP增长，无法完成全面建设小康社会，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的历史重任。而举办奥运会，给了我们落实科学发展观的一个良好契机。

奥林匹克运动作为当代世界的伟大文化实践，诉诸世界文化创造的多样性，诉诸人与自然的和谐共存和绿色文明的全球推动，诉诸当代社会的文化与经济、政治的相辅相成，诉诸人的健全人格的培育和躯体与灵魂的协调，这一切对于构建人类和谐社会都具有重要的意义。(完)

稿源： 新华网 编辑： 郑映映

[\[发表评论\]](#)

90天治愈脂肪瘤

特效治骨坏死,各种骨病

肝肾囊肿、多囊肾新突破 非手术治疗胆囊息肉

黑眼睛,一眼看到月球上!! 风心病,冠心病在这里康复! 脱发白发、斑秃有办法! 中医治愈纤维瘤!

北方网精彩内容推荐

世界十大魅力步行街(组图)

五台山今冬不封山 推出“451”旅游套餐活动

王昭君墓“单于庭”明年五一正式对外开放

各路报价逐个数 年末旅游最是“丰俭由人”

民航总局：航班不得随意变更

奇趣：美国海底音乐节

哈尔滨冰雪节首次推出“冰上夜婚礼”

颐和园、天安门广场一日游

桂林漓江阳朔北海海南兴隆三亚海陆空八日

杭州西湖厦门集美鼓浪屿武夷山九曲溪双飞六日

塘沽规划未来发展布局 打造滨海中心商务商业区

甘肃省委原宣传部副部长石星光在家中被人杀死

日击山西沁源车祸逝者葬礼：哭泣声在村里回荡

中国内地确定两例人感染禽流感病例 湘皖各一例

地铁一号线各站台工程进入收尾阶段(组图)

女孩被校车碾死 尸体血肉模糊被弃停车场(图)

单位缴费不进个人账户 养老司称不牺牲职工待遇

观察06年毕业生：研究生留津最多 挑剔观念得变

天津网民抢注福娃域名 奥组委称将收回抢注域名

今年寒冬有点儿晚：11月中下旬有冷空气来袭

[关于北方网](#) | [广告服务](#) | [诚聘英才](#) | [联系我们](#) | [网站律师](#) | [设为首页](#)

Copyright (C) 2000-2005 Enorth.com.cn, Tianjin ENORTH NETNEWS Co.,LTD.All rights reserved.
本网站由天津北方网版权所有

| 首页 | | 新闻 | | 贵州 | | 社会 | | 要闻 | | 专题 | | 西部 | | 房产 | | 时尚 | | 健康 | | 餐饮 | | 购物 | | 财富 | | 体育 |
| 娱乐 | | 教育 | | 汽车 | | 英语 | | 反腐 | | 求职 | | 企业 | | 酒店 | | 直播 | | 论坛 | | 分类 | | 短信 | | 招商 | | 邮箱 |



@mail.gywb.com.cn



体育新闻 | 林城彩讯 | 绿茵动态 | 媒体推荐 | 数据分析 | 热点赛事 | 全民健身 | 手机短信 | 彩票公告 | 体彩开奖 | 福彩开奖

NarrowAD 加入窄告>> 历史 | 全部

在线订购, 戴尔送优惠!

万网—企业上网, 致胜之道!

答疑

给网民内容, 为站长创收, 尽在窄告

申请加盟
中国搜索 联盟名单

请输入关键字

所在位置:

阅读13次

上传日期:2005-11-21

感受韩国的“人文奥运”

日前, 记者随北京人文奥运研究基地的学者一起走访了韩国首都首尔, 亲身感受了这个曾经成功举办奥运会的亚洲邻国的奥运文化。

文化市民运动贵在持之以恒

韩国文化市民运动中央协会负责人金先生向记者介绍说, 早在1988年举办奥运会之前, 首尔就掀起了促进市民积极参与并提高自身素质的主题活动。但非常遗憾的是, 奥运会结束后这方面的工作就松懈了。

因此, 当首尔在1997年获得2002年世界杯足球赛的举办权后, 成立了专门的民间性组织, 积极开展文化市民运动并坚持到今天。“协会的成立正是为了推动市民的精神文化建设, 为举办世界杯赛营造良好的人文环境。”金先生说。

韩国文化市民运动的核心是倡导以“亲切、清洁、秩序”为主要内容的社会道德风尚。在文化市民运动的感召下, 韩国招募了上万人的志愿服务队伍, 为到来的外国运动员和游客提供热情周到的服务。在首尔世界杯期间还产生了一支闻名于世的“红魔”拉拉队, 他们不仅为韩国队加油, 还热情友好地为各国运动队加油助威。当韩国队与土耳其队争夺第三名时, 整个韩国身穿“红魔”球衣的球迷人数达到800万。他们走上街头通过大屏幕观看比赛。虽然比赛以韩国队失利告终, 但没有发生球迷骚乱事件, “红魔”拉拉队员在解散离去时还主动带走了地上的垃圾。

当被问及政府是如何招募和培训拉拉队员时, 金先生回答得干脆利落: 政府从未介入, 完全是自发自觉的行为。这也许正是他想说明的文化市民运动的成功之处。

与文化市民运动的持续推动形成鲜明对照, 记者在韩国打出租车时发现, 所遇到的出租车司机都不会讲英语, 连最简单的沟通也无法进行。一位韩国朋友告诉记者, 在举办奥运会之前, 国家也号召出租车司机学习英语, 但事实上没有能够坚持下来。

秉持和谐的文化理想

11月11日是北京2008年奥运会倒计时1000天, 也是北京奥运会吉祥物发布的日子, 在曾经成功举办奥运会的韩国度过这个日子别有意义。隶属于韩国文化观光部的亚洲文化产业交流财团理事长申铨泽先生对记者说: “1988年的奥运会将韩国介绍给了世界。希望北京能够更多地了解首尔奥运会的成功与不足, 祝愿北京奥运会获得成功。”

记者在首尔市政厅展览馆看到, 迎面的主题墙上用艺术字写着“Hi Seoul” (嗨, 首尔)。讲解员介绍说, 首尔市政府将其确定为展示城市形象的呼号。“Hi”除了表示打招呼外, 还与英文“high” (高度) 这个词发音相同。“Hi Seoul”向世界传达了首尔人民亲切、和谐、团结的文化追求。

作为从事人文奥运研究的学者, 中国人民大学人文学教授、北京人文奥运研究基地执行主任金元浦介绍说, 《奥林匹克宪章》明确提出: “奥林匹克主义的宗旨是使体育运动为人

的和谐发展服务,以促进建立一个维护人的尊严的、和平的社会。”1988年韩国奥运会的口号便表达了“人类和谐”的祈愿。首尔奥林匹克公园的造型大门也被命名为“和平门”。

他说,当代中国,和谐具有更为重要的意义。和平、和睦,和而不同,和衷共济,它与我们坚持的可持续发展,科学发展观,努力建设和谐社会的总体目标完全一致。和谐社会,是一个全面系统的目标,单一的GDP增长,无法完成全面建设小康社会,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的历史重任。而举办奥运会,给了我们落实科学发展观的一个良好契机。

建设人文城市

在首尔市中心,有一条与北京天安门东侧菖蒲河有着类似经历的市内河流——清溪川。它也曾伴随城市建设被掩埋于地下,成为了一条“盖板河”。如今,随着经济社会发展进程中人文精神的彰显又重见天日,成为人与自然和谐相处的见证。

清溪川全长8.14公里。上个世纪30年代之前,它最主要的功能是泄洪并汇集都城内的生活废水流放到汉江。在首尔市政厅展览馆陈列的历史图片上可以看到,清溪川曾是城市平民聚居的地方,沿岸建有很多低矮民房,除了排放生活污水外,生活在这里的居民还将生活垃圾倾倒入河中。那时候的清溪川颇有点“龙须沟”的意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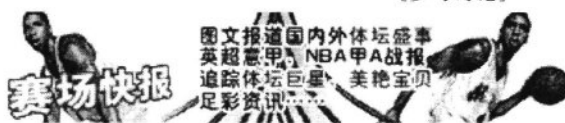
为了改变清溪川的卫生状况,上个世纪40年代开始到1978年经过数次工程,在河道内埋设了下水管道,清溪川被盖入地下。同时,为了缓解日益增加的交通压力,上世纪70年代末,首尔市在“盖板”的河道上又建成了高架路。6公里长4车道宽的清溪高架桥一度成为韩国现代化的象征。

经过1988年举办奥运会,2002年举办世界杯足球赛,韩国,特别是首尔市在经济建设上创造了令世人瞩目的“汉江奇迹”。经济的快速发展促使首尔市政府和人民树立了建设更加开放、美好城市的雄心。作为临海城市,同时又有著名的汉江横贯全城,首尔可不是一个缺少水景的城市。但首尔市政府仍果断决定从2002年7月起启动清溪川复原工程。从规划、动员到拆除高架桥、挖掘原有河道,再到重新建设自然和人文景观,经过3年多的努力,今年9月清溪川复原工程完工。经过改造、美化的清溪川为市民和外国观光客提供了休闲的好去处,已经成为首尔市的一张城市名片。

在首尔市政府工作的金兰姬女士说,首尔能不能立足于新世纪,在于它能不能从一个工业城市转变为灵敏感受历史和文化的生态城市。改造清溪川除了展现首尔新的城市文化风貌,平衡人与自然的的关系外,首尔市的决策者还希望这片区域成为吸引外国投资者的中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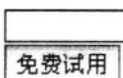
来源:新华社 记者 霍小光

[参与讨论]



手机参与:

做好准备:



时讯简介 | 广告业务 | 合作时讯 | 贵阳日报社 | 联系时讯 |

© 版权所有 金阳时讯 贵阳日报社

Copyright © 2001 GYWB.com.cn, Geo Info. All Rights Reserved



>>导航条

国内新闻 XML

国际新闻 XML

社会新闻 XML

港台新闻 XML

科技新闻 XML

网络新闻 XML

财经新闻 XML

体育报道 XML

显示 Google
AdSense 提供的广告
为您的网站带来收入

首页->国际新闻->正文内容

一条河流的变迁：管窥韩国的奥运经验(1)

2005年11月17日 12:30

Avalanche Boardshop

All the brands- Low Prices Orders Over \$80
get Free Shipping!

dwarfPOrn Clothing Co.

Sydney, Australia Urban streetwear.

Ads by Google

在韩国首都首尔（原译汉城）有一条与北京菖蒲河有着类似经历的市内河流—清溪川。它也曾伴随城市建设被掩埋于地下，成为了一条盖板河。如今，随着经济社会发展进程中人文精神的彰显又重见天日，成为人与自然和谐相处的见证。

静静的清溪川

11月，已入深秋。首尔街头遍栽的银杏树大把地挥撒着叶片，为这座城市穿上了金黄色的风衣。我随大学时的导师，中国人民大学人文学院教授、北京人文奥运研究基地执行主任金元浦一行来到韩国参观交流。抵达首尔的第一天，便被带到了位于汉江北岸市中心的清溪广场，映入眼帘的就是这条静静流淌着的小河。河水清澈如她的名字，在薄薄的夜幕中，闪现着海洋的蓝色，与金黄的银杏树叶遥相辉映。紧临河岸是步行道和人工景致，这里是首尔市民和外国观光客休闲、参观的场所。改造、美化清溪川的工程历时三年于今年9月刚刚完工。清溪川已经成为首尔市的一张城市名片。

清溪川的历史可以追溯到600多年以前。对过于久远的事情我还没来得及细细考证，只是通过走马观花和韩国朋友的介绍，对它近几十年的沧桑巨变略有了解。

清溪川，从首尔市的仁王山和百岳山南边山脚发源，向东经过东大门在中浪川汇集后流入汉江，全长8.14公里。在上个世纪30年代之前，清溪川最重要的功能是泄洪并汇集都城内的生活废水流放到汉江。在首尔市政厅展览馆陈列的历史图片上可以看到，清溪川曾是城市平民聚居的地方，沿岸建有很多低矮民房，除了排放生活污水外，生活在这里的居民还将生活垃圾倾倒入河中。那时候的清溪川颇有点龙须沟的意思。

为了改变清溪川的卫生状况，上个世纪40年代开始到1978年经过数次工程，在河道内埋设了下水管道，清溪川被盖入地下，从人们的视野中渐渐消失。同时，为了缓解日益增加的交通压力，上世纪70年代末，首尔市在盖板的河道上又建成了高架路。6公里长4车道宽的清溪高架桥一度成为韩国现代化的象征。

经过1988年举办奥运会，2002年举办世界杯足球赛，韩国，特别首都首尔市开始进入高速发展时期，在经济建设上创造了令世人瞩目的汉江奇迹。经济的快速发展促使首尔市政府和市民树立了建设更加开放、美好城市的雄心。作为临海城市，同时又有著名的汉江横贯全城，首尔可不是一个缺少水景的城市。但首尔市政府仍果断决定从2002年7月起启动清溪川复原工程。从规划、动员到拆除高架桥、挖掘原有河道，再到重新建设自然和人文景观，经过3年多的努力，2005年9月清溪川复原工程完工。

但是在规划方案出台的时候也有过不少反对的声音：拆掉高架路会加剧交通拥堵，拆迁道路两边的店铺、工厂会给经营者带来经济损失。但这毕竟是一件为大多数人欢迎的事情，陪同我们的中文翻译郑贵玉小姐以一名首尔市民的身份表达了她的想法。

首尔市政府网站中文版负责人金兰姬女士介绍说，首尔能不能立足于新世纪，在于它能不能从一个工业城市转变为灵敏感受历史和文化的生态城市。改造清溪川除了展现首尔新的城市文化风貌，平衡人与自然的的关系外，首尔市的决策者还希望这片区域成为吸引外国投资者的中心。最终的目标是使首尔成为具有吸引力的商业大都市，能与上海、东京、北京匹敌。

我的脑海中一下了联想起位于天安门东侧的菖蒲河公园。作为北京历史上皇城内的重要组成水系—菖蒲河也是在被封盖了40余年之后于2002年重露容颜的。

将城市内的河流埋入地下是发展与建设的需要,而将它复原并建成人们文化休闲的场所,也是发展与建设的需要。所不同的是,经济发展已不是唯一的目标。今天,人们需要更加贴近自然,需要在更高的层面上返回历史。

清溪川在过去600年长久的岁月中和首尔人民同甘共苦,善尽人民生活和文化根基的角色,默默地走到如今。

嗨,首尔

清溪广场是复原后的清溪川景观工程的起点,离此地不远便是首尔市政厅。走进市政厅展览馆,迎面的主题墙上用艺术字写着Hi seoul(嗨,首尔)。讲解员介绍说,首尔市政府将其确定为展示城市形象的呼号。hi除了表示打招呼外,还与英文high(高度)这个词发音相同。Hi seoul向世界传达了首尔人民亲切、和谐、团结的文化追求。

在韩国期间,通过走访韩国文化市民运动中央协会,加深了对韩国人民秉持的这些文化精神的理解。这个协会成立于1997年,那年首尔获得了2002年世界杯足球赛的举办权。协会的成立正是为了推动市民的精神文化建设,为举办世界杯赛营造良好的人文环境。协会秘书长JinDaeIhee介绍说。

他告诉记者,早在1988年举办奥运会之前,首尔就掀起了促进市民积极参与并提高自身素质的主题活动。但非常遗憾的是,奥运会结束后这方面的工作就松懈了。相比之下,日本在举办东京奥运会之前推出的亲切运动就没有因为奥运会的落幕而中止,对培育和树立日本民众亲切、友好的文化形象起到了积极作用。

因此,在举办世界杯赛之前的几年间,韩国重新开始推动文化市民运动并坚持到今天。文化市民运动的核心就是倡导以亲切、清洁、秩序为主要内容的社会道德风尚。

在文化市民运动中央协会播放的公益宣传片中记者看到:亲切,是提倡邻里和睦,对外国人面带微笑,热情友好;清洁,是倡导对环境卫生的维护,特别是大力开展改造和美化公共厕所的活动,现在韩国每年都要评选最佳公厕;秩序,则是从排队这个最基本的行为规范讲起,画面展现的是面对多台自动取款机,如果排成若干队伍,由于每个队列的前进速度不同,这样会大大降低排队等候的效率,如果所有人只排成一队,无论哪台取款机空闲下来,后面等候的人依次上前,则可以兼顾公平与效率。

这位秘书长介绍说,文化市民运动对于首尔市成功举办世界杯赛起到了重要作用。他举例说,在文化市民运动的感召下,韩国招募了上万人的志愿服务队伍,为到来的外国运动员和游客提供热情周到的服务。在首尔世界杯期间还产生了一支闻名于世的红魔拉拉队,他们不仅为韩国队加油,还热情友好地为各国运动队加油助威。当韩国队与土耳其队争夺第三名时,整个韩国身穿红魔球衣的球迷人数达到800万。他们走上街头通过大屏幕观看比赛。虽然比赛以韩国队失利告终,但没有发生球迷骚乱事件,红魔拉拉队员在解散离去时还主动带走了地上的垃圾。(未完)

Google

搜索

本栏最后更新文章

- 马尼拉市长:菲移民局拘捕华商执法方式粗暴
- 维基百科计划推出固定版本
- 纽约华人无端被割耳 我领馆敦促警方缉拿凶手
- 研究表明:美国男人的寿命正在赶上女人
- 海外要闻:纽约公交系统大罢工 以色列总理出院
- 马尼拉市长抨击菲移民局拘捕华商执法方式粗暴
- 评论:俄罗斯外交政策东西方齐头并进
- 纽约公交瘫痪启动已紧急预案 市长亲自步行上班
- 狱中损坏机器擅自离岗 俄服刑前首富首次受罚
- 州长动手动脚?美新墨西哥女副州长指媒体误解
- 中日关系明年难缓和 驻日大使王毅提前回国述职
- 20年前惊世劫机案犯获得假释 美失望寻求引渡
- 英国女子模仿泰坦尼克船头迎风飞翔 坠海死亡
- 航天迷值得回味的一年 2005年太空科技发现集锦
- 纽约州法官向运输工会开出每天一百万美元罚单

- 科学家发现“快乐中枢”破解食物转换快乐的秘密
- 失落感让小泉反咬一口
- 两男沉船后靠喝雨水和尿为生 海上漂流11天生还
- 2005年全球自然灾害造成严重的人员和财产损失
- 限制饮酒可能引发更严重酗酒甚至酒精成瘾



请输入关键字



网页



MP3



图片

百度搜索



手机



铃声

音乐有奖

排行榜

版权所有 收易资讯 { 流量统计 } 闽ICP备05032228号

首页 | 新闻 | 体育 | 财经 | 科技 | 汽车 | 女性 | 教育 | 读书 | 星座 | 邮箱 | 论坛 | 杂志 | 天气 | 电台 | 黄页
娱乐 | 音乐 | 宽频 | 股票 | 数码 | 游戏 | 时尚 | 校园 | 动漫 | 笑话 | 搜索 | 聊天 | 家电 | 订阅 | 直播 | 人才



帮他一把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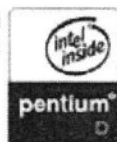
预测2006年王牌投资项目 让好女人尖叫的绝密武器 面瘫 面肌痉挛 三叉痛 红杏出墙 因男人不够强
风湿——类风湿重大突破 射向女人幸福源的利箭 真情感恩 赏激情大片 牛皮癣——05年全新突破
您所在的位置: QQ首页 > 新闻频道 > 新闻国际 > 正文

一条河流的变迁：管窥韩国的奥运经验

<http://news.qq.com> 2005年11月17日12:11 新华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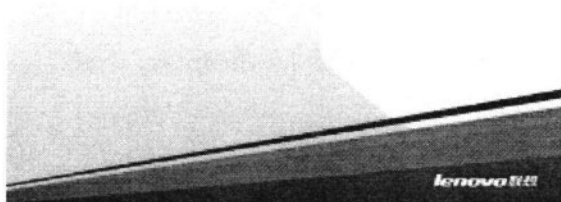
霍小光

联想数字娱乐中心采用具有双内核处理能力的
英特尔®奔腾®D处理器



在韩国首都首尔（原译汉城）有一条与北京菖蒲河有着类似经历的市内河流——清溪川。它也曾经伴随城市建设被掩埋于地下，成为了一条盖板河。如今，随着经济社会发展进程中人文精神的彰显又重见天日，成为人与自然和谐相处的见证。

静静的清溪川



- 90天男人女人享受激情
- 一天赚一万不信你就看
- 长期失眠 抑郁怎么办
- 患乙肝能与爱人接吻吗
- 揭开 一夜激情的秘密
- 女人靠什么暴富

图

11月，已入深秋。首尔街头遍栽的银杏树大把地挥洒着叶片，为这座城市穿上了金黄色的风衣。我随大学时的导师，中国人民大学人文学院教授、北京人文奥运研究基地执行主任金元浦一行来到韩国参观交流。抵达首尔的第一天，便被带到了位于汉江北岸市中心的清溪广场，映入眼帘的就是这条静静流淌着的小河。河水清澈如她的名字，在薄薄的夜幕中，闪现着海洋的蓝色，与金黄的银杏树叶遥相辉映。紧临河岸是步行道和人工景致，这里是首尔市民和外国观光客休闲、参观的场所。改造、美化清溪川的工程历时三年于今年9月刚刚完工。清溪川已经成为首尔市的一张城市名片。

清溪川的历史可以追溯到600多年以前。对过于久远的事情我还来不及细细考证，只是通过走马观花和韩国朋友的介绍，对它近几十年的沧桑巨变略有了解。

清溪川，从首尔市的仁王山和百岳山南边山脚发源，向东经过东大门在中浪川汇集后流入汉江，全长8.14公里。在上个世纪30年代之前，清溪川最重要的功能是泄洪并汇集都城内的生活废水流放到汉江。在首尔市政厅展览馆陈列的历史图片上可以看到，清溪川曾

是城市平民聚居的地方，沿岸建有很多低矮民房，除了排放生活污水外，生活在这里的居民还将生活垃圾倾倒入河中。那时候的清溪川颇有点龙须沟的意思。

为了改变清溪川的卫生状况，上个世纪40年代开始到1978年经过数次工程，在河道内埋设了下水管道，清溪川被盖入地下，从人们的视野中渐渐消失。同时，为了缓解日益增加的交通压力，上世纪70年代末，首尔市在盖板的河道上又建成了高架路。6公里长4车道宽的清溪高架桥一度成为韩国现代化的象征。

经过1988年举办奥运会，2002年举办世界杯足球赛，韩国，特别首都首尔市开始进入高速发展时期，在经济建设上创造了令世人瞩目的汉江奇迹。经济的快速发展促使首尔市政府和市民树立了建设更加开放、美好城市的雄心。作为临海城市，同时又有著名的汉江横贯全城，首尔可不是一个缺少水景的城市。但首尔市政府仍果断决定从2002年7月起启动清溪川复原工程。从规划、动员到拆除高架桥、挖掘原有河道，再到重新建设自然和人文景观，经过3年多的努力，2005年9月清溪川复原工程完工。

但是在规划方案出台的时候也有过不少反对的声音：拆掉高架路会加剧交通拥堵，拆迁道路两边的店铺、工厂会给经营者带来经济损失。但这毕竟是一件为大多数人欢迎的事情，陪同我们的中文翻译郑贵玉小姐以一名首尔市民的身份表达了她的想法。

首尔市政府网站中文版负责人金兰姬女士介绍说，首尔能不能立足于新世纪，在于它能不能从一个工业城市转变为灵敏感受历史和文化的生态城市。改造清溪川除了展现首尔新的城市文化风貌，平衡人与自然的关系外，首尔市的决策者还希望这片区域成为吸引外国投资者的中心。最终的目标是使首尔成为具有吸引力的商业大都市，能与上海、东京、北京匹敌。

我的脑海中一下子联想起位于天安门东侧的菖蒲河公园。作为北京历史上皇城内的重要组成水系——菖蒲河也是在被封盖了40余年之后于2002年重露容颜的。

将城市内的河流埋入地下是发展与建设的需要，而将它复原并建成人们文化休闲的场所，也是发展与建设的需要。所不同的是，经济发展已不是唯一的目标。今天，人们需要更加贴近自然，需要在更高的层面上返回历史。

清溪川在过去600年长久的岁月中和首尔人民同甘共苦，善尽人民生活和文化根基的角色，默默地走到如今。

嗨，首尔

清溪广场是复原后的清溪川景观工程的起点，离此地不远便是首尔市政厅。走进市政厅展览馆，迎面的主题墙上用艺术字写着Hi seoul（嗨，首尔）。讲解员介绍说，首尔市政府将其确定为展示城市形象的呼号。hi除了表示打招呼外，还与英文high（高度）这个词发音相同。Hi seoul向世界传达了首尔人民亲切、和谐、团结的文化追求。

在韩国期间，通过走访韩国文化市民运动中央协会，加深了对韩国人民秉持的这

化精神的理解。这个协会成立于1997年，那年首尔获得了2002年世界杯足球赛的举办权。协会的成立正是为了推动市民的精神文化建设，为举办世界杯赛营造良好的人文环境。协会秘书长JinDaeIhee介绍说。

他告诉记者，早在1988年举办奥运会之前，首尔就掀起了促进市民积极参与并提高自身素质的主题活动。但非常遗憾的是，奥运会结束后这方面的工作就松懈了。相比之下，日本在举办东京奥运会之前推出的亲切运动就没有因为奥运会的落幕而中止，对培育和树立日本民众亲切、友好的文化形象起到了积极作用。

因此，在举办世界杯赛之前的几年间，韩国重新开始推动文化市民运动并坚持到今天。文化市民运动的核心就是倡导以亲切、清洁、秩序为主要内容的社会道德风尚。

在文化市民运动中央协会播放的公益宣传片中记者看到：亲切，是提倡邻里和睦，对外国人面带微笑，热情友好；清洁，是倡导对环境卫生的维护，特别是大力开展改造和美化公共厕所的活动，现在韩国每年都要评选最佳公厕；秩序，则是从排队这个最基本的行为规范讲起，画面展现的是面对多台自动取款机，如果排成若干队伍，由于每个队列的前进速度不同，这样会大大降低排队等候的效率，如果所有人只排成一队，无论哪台取款机空闲下来，后面等候的人依次上前，则可以兼顾公平与效率。

这位秘书长介绍说，文化市民运动对于首尔市成功举办世界杯赛起到了重要作用。他举例说，在文化市民运动的感召下，韩国招募了上万人的志愿服务队伍，为到来的外国运动员和游客提供热情周到的服务。在首尔世界杯期间还产生了一支闻名于世的红魔拉拉队，他们不仅为韩国队加油，还热情友好地为各国运动队加油助威。当韩国队与土耳其队争夺第三名时，整个韩国身穿红魔球衣的球迷人数达到800万。他们走上街头通过大屏幕观看比赛。虽然比赛以韩国队失利告终，但没有发生球迷骚乱事件，红魔拉拉队员在解散离去时还主动带走了地上的垃圾。

当被问及政府是如何招募和培训拉拉队员时，秘书长回答得干脆利落：政府从未介入，完全是自发自觉的行为。这也许正是他想说明的文化市民运动的成功之处。

对于主人所做的这些宣传，当然无法在几天的时间中一一印证。但当我离开首尔的前夜却有机会从一件小事中得到一些体验。那晚，我和同伴一起到位于清溪川下游韩国最大的服装批发市场东大门市场购物。虽已凌晨1点多，但路上仍是车水马龙，休闲购物的人流穿梭不息。当我们准备返回酒店的时候，却发现用韩文写有酒店名称、地址的卡片不见了。我们只好试着用英语与出租车司机交流，但先后拦下四辆出租车却没有一位司机能够用英语对话。虽然周围人声鼎沸，可我的内心感到一阵无助与茫然。这时，一对年轻情侣正好从身边走过，我迫不及待地地上前打招呼，尽管他们的英语比我的还要蹩脚，但总算是明白了我们是迷路的中国游客。此时，我看到的他们脸上露出的微笑与公益宣传片中亲切的表情毫无二致。我们只能提供出酒店的英文名称和前台电话，显然他们也并不熟悉这家酒店。于是，那个小伙子掏出手机与酒店取得联系，在问清地址后又帮助我们拦下出租车，与我们热情地挥手道别。此时已是凌晨2点钟了。

问路，是一件小事，但对于一个在异国他乡迷路的外国人来说，却令人难忘。而碰到的那几位出租车司机一点英语都说不上来也使我耿耿于怀，以至于第二天专门向导游提起这件事。他告诉我，在举办奥运会之前，国家也号召出租车司机学习英语，但事实上没有能够坚持下来。我想，北京也面临着同样的问题。无论是为了提高市民素质而开展的公益道德宣传，还是全市掀起的市民学习英语热潮，如果只是为了奥运会一时之用，恐怕就是一种短视的行为。

同一个世界，同一个梦想

从清溪川说到奥运会，并未离题。两者都表达着人类对和谐的祈愿。11月11日，是北京2008年奥运会倒计时1000天，也是北京奥运会吉祥物发布的日子。在曾经成功举办过奥运会的亚洲近邻韩国度过这个纪念日，别有一番滋味。隶属于韩国文化观光部的亚洲文化产业交流财团理事长申铉泽先生对记者说：1988年的奥运会将韩国介绍给了世界。希望北京能够更多地了解首尔奥运会的成功与不足，祝愿北京奥运会获得成功。

同一个世界，同一个梦想，这一响亮的北京奥运会主题口号是在尊重多元文化并存的前提下，对奥林匹克运动精神的伟大颂扬。作为从事人文奥运研究的学者，金元浦教授对我谈了他的看法：当代世界，人类面临着巨大的困境与冲突。这主要表现为人与自然、人与社会、人与人、文明与文明以及人的灵魂与体魄之间的冲突。《奥林匹克宪章》明确提出：奥林匹克主义的宗旨是使体育运动为人的和谐发展服务，以促进建立一个维护人的尊严的、和平的社会。

当代中国，和谐具有更为重要的意义。和平、和睦，和而不同，和衷共济，它与我们坚持的可持续发展，科学发展观，努力建设和谐社会的总体目标完全一致。和谐社会，是一个全面系统的目标，单一的GDP增长，无法完成全面建设小康社会，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的历史重任。而举办奥运会，给了我们落实科学发展观的一个良好契机。

奥林匹克运动作为当代世界的伟大文化实践，诉诸世界文化创造的多样性，诉诸人与自然的和谐共存和绿色文明的全球推动，诉诸当代社会的文化与经济、政治的相辅相成，诉诸人的健全人格的培育和躯体与灵魂的协调，这一切对于构建人类和谐社会都具有重要的意义。

【QQ新增重大新闻即时通知功能】【新闻论坛】【大 中 小】【关闭】

焦点关注



美女成重庆第一名片

- 温家宝希望马来西亚惩处我公民受辱案元凶
- 黑龙江省政协原主席韩桂芝一审被判死缓
- 菲律宾逮捕150多中国商人称其不公平竞争
- 福利院切除智障女子子宫续：专家称是惯例
- 河南男子在广州遭绑架 两地警方都不立案
- 山东菏泽创出10多具女尸续：4嫌犯被捕



姚明全明星赛前无法比赛

- 女子被逼卖淫纵身跳楼致残(图)
- 恶男强暴七旬老妇致其下体大量流血死亡



- 网站
- 会员
- 邮箱

首页 → 文化 → 文化视点

文化产业呼唤“中国创造”

11/02/2005/10:43

华夏经纬网

11月1日在成都举办的第四届中韩日文化产业论坛透露,日本动画产业已占据世界市场份额的62%,与动漫有关的市场规模已超过2万亿日元,动漫产业成为日本第三大产业。

20年前,如果有人说跳舞、音乐、体育是经济的一个组成部分,那似乎是天方夜谭。但今天,以电影、电视、MTV、世界杯足球赛、奥林匹克运动会为代表的娱乐文化已毫无疑问地成为当今世界经济中的支柱产业,文化产业的增长速度已远远高于全球经济的整体发展速度,被称为21世纪的黄金产业。

在这个巨大产业面前,各个国家都在打造自己的文化产业平台。美国创造了世界最强大的文化产业,媒体娱乐业年出口900亿美元,文化产业是与军事工业并驾齐驱、主导美国经济的支柱产业。英国现已成为动画、游戏、音乐、出版、广播等行业强国,文化产业占GDP的8.2%。

在亚洲,20世纪末期,日本明确制定了振兴文化产业的国家战略,文化产业市场规模迅猛发展,成为仅次于美国的第二大文化产业强国。韩国政府也提出了“文化立国”的战略口号,文化产业实现了跨越式发展,一跃而成世界第五大文化产业强国。

这是一场文化市场的竞争。目前世界文化市场可谓四分天下:美国占有市场总额的42.6%,欧洲33.9%,亚洲、南太平洋国家19%,其他国家占有剩余的份额。而在19%的市场份额中,除去日本的10%和韩国的3.5%,留给中国的确已“不多矣”。

与此同时,许多国家已经看到,中国将成为21世纪世界最大的文化消费市场。美国、加拿大、欧盟国家纷纷抢滩登陆,在电影、电视等优势项目上增加力度;日本、韩国也看到中国巨大的文化市场空间,电影、电视、卡通,乃至游戏机、玩具、花道等等,都在伺机而动。

中国的文化产业面临着前所未有的历史性机遇与挑战。虽然,我国文化产业以平均20%的年增长率递增,增长速度明显高于国民经济增长速度,文化产业已成为我国经济发展的一个新的增长点,但与美国、日本等文化产业强国相比,中国的文化产业整体上仍处于发展初期——

从产业结构来看,文化产业仍以传统的演出业、影视业、音像业、广告业等为主体,创意设计业、动漫产业、网络游戏业等数字内容产业仍处于起步状态;产业技术的开发能力还很薄弱,在国际分工中仍处于产业链的中低端;计划体制下的条块分割使得文化市场存在着部门壁垒、行业壁垒、地域壁垒;文化企业普遍不熟悉国际市场

华夏商城年底促销

2005最后的狂欢行动,26日至30日,华夏商城推荐,部分商品超低价,折上再折,只赚不赔,倾心倾力为您打品好礼。 >>>察看活



金链



石榴石马眼项链

民是族最的好就的

价质格量惊劲爆



华夏经纬网

网聚两岸资讯

纵览世界风云

Google™

全部网页 2

搜索

的要求和规则, 缺乏全球营销渠道和能力。

在这样的情势下, 发展我们的文化产业确实已不仅是一种现实的迫切要求, 更是一种重要的国家文化方略。

两个星期以前, 神舟六号在浩瀚的宇宙空间中写下了雄壮的“中国创造”, 向全世界显示了中国高新科技与自主研发的实力。今天, 文化产业的崛起也期待着更多的“中国创造”。 (李舫)

来源: 人民网-《人民日报》

【 发表感言 】 【 关闭窗口 】

【 相关报道 】

发表评论:

网友昵称: ☐ 匿名

评论内容: (剩余字数: 1000)

发表评论

查看评论

发表评论须知:

- 一、所发评论必须遵守《互联网电子公告服务管理规定》;
- 二、严禁发布供求代理信息、公司介绍、产品信息等广告宣传信息;
- 三、严禁恶意重复发帖;
- 四、严禁对个人、实体、民族、国家等进行漫骂、污蔑、诽谤。

网站简介

广告服务

联系方法

用户留言

法律顾问

© 2000 By www.viewcn.com & www.huaxia.com
版权所有 华夏经纬网





首 页 关于我们 资讯专区 服务大厅 文化资源 市场专区 会员专区 地方分

文化热点 : 工作动态 : 全省联播 : 市场信息 : 公告通知 : 文化时报新经济

Electronic
authentication



电子认证单位注册

市场信息

- 文化热点
- 工作动态
- 全省联播
- 市场信息
- 公告通知
- 文化时报新经济

您的位置: 首页 → 资讯专区 → 市场信息 → 正文

人民日报(人民时评):文化产业呼唤“中国制造”

人民日报(人民时评):文化产业呼唤“中国制造”

11月1日在成都举办的第四届中韩日文化产业论坛透露,日本动画产业已占据世界市场份额的62%,与动漫有关的市场规模已超过2万亿日元,动漫产业成为日本第三大产业。

20年前,如果有人说跳舞、音乐、体育是经济的一个组成部分,那似乎是天方夜谭。但今天,以电影、电视、MTV、世界杯足球赛、奥林匹克运动会为代表的娱乐文化已毫无疑问地成为当今世界经济中的支柱产业,文化产业的增长速度已远远高于全球经济的整体发展速度,被称为21世纪的黄金产业。

在这个巨大产业面前,各个国家都在打造自己的文化产业平台。美国创造了世界最强大的文化产业,媒体娱乐业年出口900亿美元,文化产业是与军事工业并驾齐驱、主导美国经济的支柱产业。英国现已成为动画、游戏、音乐、出版、广播等行业强国,文化产业占GDP的8.2%。

在亚洲,20世纪末期,日本明确制定了振兴文化产业的国家战略,文化产业市场规模迅猛发展,成为仅次于美国的第二大文化产业强国。韩国政府也提出了“文化立国”的战略口号,文化产业实现了跨越式发展,一跃而成世界第五大文化产业强国。

这是一场文化市场的竞争。目前世界文化市场可谓四分天下:美国占有市场总额的42.6%,欧洲33.9%,亚洲、南太平洋国家19%,其他国家占有剩余的份额。而在19%的市场份额中,除去日本的10%和韩国的3.5%,留给中国的确已“不多矣”。

与此同时,许多国家已经看到,中国将成为21世纪世界最大的文化消费市场。美国、加拿大、欧盟国家纷纷抢滩登陆,在电影、电视等优势项目上增加力度;日本、韩国也看到中国巨大的文化市场空间,电影、电视、卡通,乃至游戏机、玩具、花道等等,都在伺机而动。

中国的文化产业面临着前所未有的历史性机遇与挑战。虽然,我国文化产业以平均20%的年增长率递增,增长速度明显高于国民经济增长速度,文化产业已成为我国经济发展的一个新的增长点,但与美国、日本等文化产业强国相比,中国的文化产业整体上仍处于发展初期——

从产业结构来看,文化产业仍以传统的演出业、影视业、音像业、广告业等为主体,创意设计业、动漫产业、网络游戏业等数字内容产业仍处于起步状态;产业技术的开发能力还很薄弱,在国际分工中仍处于产业链的中低端;计划体制下的条块分割使得文化市场存在着部门壁垒、行业壁垒、地域壁垒;文化企业普遍不熟悉国际市场的要求和规则,缺乏全球营销渠道和能力。

在这样的情势下,发展我们的文化产业确实已不仅是一种现实的迫切要求,更是一种重要的国家文化方略。

两个星期以前,神舟六号在浩瀚的宇宙空间中写下了雄壮的“中国创造”,向全世界显示了中国高新科技与自主研发的实力。今天,文化产业的崛起也期待着更多的“中国创造”。

(人民日报 李舫)



11-2

[返回]

主办单位: 河南省文化市场行业协会 业务联系热线: 0371-5952247
承办单位: 河南豫华信息产业有限公司 网站建设热线: 0371-68029957 65615267
在线联络信箱: bybee@163.com hnwhsc@371.net 豫ICP备05005153号